



# 심의·의결 사례

◆ 제1장 자체심의 의결 사례

◆ 제2장 시정요구심의 의결 사례

## 1. 경고결정문 게재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27
언론사	전남도민일보사 주식회사(전남도민일보)
심의대상	전남도민일보 4월 12일자 1면 「이재명의 사람」 김명선 상임대표, 이용섭 예비 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li> <li>2. 전남도민일보사 주식회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전남도민일보 1면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은 전남도민일보 4월 12일자 2면 「남구 '공동육아 틈새 돌봄' 추진」 제하 기사의 제목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한다.</li> </ol>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지지선언문 전문을 1면 상단에 게재하여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별지] 경고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2. 본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전남도민일보 4월 12일자 1면 「이재명의 사람」 김명선 상임대표, 이용섭 예비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전남도민일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문 전문을 1면 상단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전남도민일보 2022년 4월 12일자 1면〉

☐ 보도내용

‘이재명의 사람’ 김명선 상임대표, 이용섭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재명의 사람’으로 불리는 김명선 시민총회 상임대표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운천로 소재 이용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지지선언에는 김명선 상임대표와 시민캠프 더밝은미래위원회 전 임원진 다수가 자리를 함께 했으며, 이용섭 예비후보 지지자 수백 명이 사무소를 가득 메운 가운데 시종일관 긴장되고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명선 상임대표는 “아직도 끊어오르는 절

절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이재명 후보가 석패한 지 오늘이 꼭 한 달이 되는 날”이라며 “우리는 이제,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민주당의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을 완수하고, 민주성지 빛고을 광주에 ‘민주당의 심장’답게 다시 역사와 국민 앞에 우뚝 서야 한다”는 말로 지지선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리해 ‘민주당의 심장 광주’가 다시 힘찬 박동을 하면서 ‘더 크고 강한 광주’를 이용섭 후보가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 정신의 실천이며, 또한 저의 사명”이라고 밝히고 “이용섭 후보가 완성해 가는 ‘더 크고 강한 광주’는 민주당이 앞으로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최전선의 강한 진지가 될 것”이라며 “이용섭 후보의 넘치는 능력과 역량을 믿는다. 이용섭 후보의 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저 김명선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는 말로 지지선언을 마무리했다.

이용섭 예비후보의 감사인사와 사진촬영을 끝으로 막을 내린 이날 행사는 김명선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에서 차지했던 위상으로 보아 과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상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 ‘시민캠프 더밝은미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대규모 전국조직을 이끌며 이 후보의 득표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특히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지지선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용섭 예비후보님을 비롯한 선거 캠프 관계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선거 재선에 도전하시는 이용섭 예비후보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오늘 저는, 아직도 끓어오르는 절절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님이 석패한 지 오늘이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선 결과는 우리 모두를 송두리째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한없는 안타까움과 깊은 회한에 몸서리치는 울분은 민주당 식구들과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을 완수하고, 민주성지 빛고을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답게 다시 역사와 국민 앞에 우뚝 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4년 동안 광주를 이끌어 오신 능력과 역량의 대명사 이용섭 후보님이, 다시 더 크고 강한 광주를 완성해 나가는 길에 ‘이재명의 사람’ 저 김명선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재명의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오로지 저는 맨바닥에서 정치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민주당의 촛불혁명 정권을 계승하는 것을 사명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후보님을 다시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해 '민주당의 심장 광주'가 다시 힘찬 박동을 하면서 '더 크고 강한 광주'를 이용섭 후보님이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 정신의 실천이며, 또한 저의 사명입니다.

이용섭 후보님이 완성해 가는 '더 크고 강한 광주'는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최전선의 강한 진지가 될 것입니다. 이용


섭 후보님의 넘치는 능력과 역량을 믿습니다. 이용섭 후보님의 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저 김명선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0일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시민캠프  
더밝은미래위원회 상임위원장(전)

김명선

 결정 후보도문

전남도민일보

2022년 05월 05일  
01면 (종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전남도민일보 4월 12일자 1면 「이재명의 사람」 김명선 상임대표, 이용섭 예비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전남도민일보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문 전문을 1면 상단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 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전남도민일보 2022년 5월 5일자 1면〉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28
언론사	주식회사 고령신문(고령신문)
심의대상	고령신문 3월 21일자 1면 「희망이 넘치는 ‘일등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p>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p> <p>2. 주식회사 고령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고령신문 1면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4만 인구, 5천억 예산 약속 지역상가 살리기에 '시활')와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한다.</p>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타 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다른 제목 크기, 편집 등을 사용해 차별화하고, 1면 상단에 출마선언문 전문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별지] 경고결정문

**1. 제목:**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2. 본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고령신문 3월 21일자 1면 「희망이 넘치는 ‘일등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고령신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타 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다른 제목 크기, 편집 등을 사용해 차별화하고, 1면 상단에 출마선언문 전문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Enjoy the Quality**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남양유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를 가장으로 배달합니다.  
고객에게 최대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남양유업 퍼스픽로 고평릉 센터 010-8574-5212

# 고령신문

goryeongnews.com

**월산복서** 점전문점

복서명·복서리·구룡·구룡·복서·복서·복서·복서

전매부 956-8600

포장합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일평로 33

---

제 1274호 2022년 3월 21일(월) 주간

goryeongnews.com

고령신문을 통해 기사(www.goryeongnews.com)를 볼 수 있습니다.

연세(054)955-9111 E-mail:boo21@hanmail.net

‘정찬부’ 고령군수 출마합니다

## 희망이 넘치는 ‘일등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4만 인구, 5천억 예산 약속 지역상가 살리기에 ‘사할’**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 및 강정고령보 개통**

**관광객 유치 위해 다산면관광수익단지 조성**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위해 권한 부여**

저의 목표는 4050으로 4만 인구, 예산 5천억 달성으로 침체된 지역 상가를 살리겠습니다. 고령군 발전을 누구보다 걱정하며, 한평생 살아온 고평릉사람 ‘정찬부’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령군수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군민들을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행정과 냉철한 판단력·소신·투명성 등에서 그 누구보다 경쟁력예선, 자신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굳은 의지, 다양한 사업을 경험한 토대로 지역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수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대다수가 운영비도 충당되지 않아, 매년 엄청난 운영비와 보수비 부담으로 향후 재임으로 다가올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수익사업을 통해 일등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군수배 재육대회도 ‘군수배’를 폐지하고, 군 예산만 주고 민간주도로 행사를 치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행정’, ‘돈 버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관을 개설, 갈라진 민심에 ‘주민의식’을 불어넣어 군민화합으로 승화,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경력**

- 고령초등학교 졸업
- 고령고등학교 졸업
- 대구 중앙상업고등학교 졸업
- 대구 미래대학교 졸업

**경력**

- 국민위원회 운영실 대통령 후보 고령군선거대책 부위원장 겸 대외협력위원장
- 진·박근혜정부 고령군협의회 회장
- 진·고령신문 대표이사
- 진·고령상주신문 대표이사
- 진·고령군내권도합회 실무부회장
- 진·고령군축곡협의회장
- 진·고령군신민회의의 사업본부장

**수상**

- 박근혜정부 공경 수상
- 중령선거관리위원회 표창

〈고령신문 2022년 3월 21일자 1면〉

**보도내용**

**희망이 넘치는 ‘일등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4만 인구, 5천억 예산 약속 지역상가 살리기에 ‘사할’**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 및 강정고령보 개통**

**관광객 유치 위해 다산면관광수익단지 조성**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위해 권한 부여**

저의 목표는 4050으로 4만 인구, 예산 5천억 달 성으로 침체된 지역 상가를 살리겠습니다.

고령군 발전을 누구보다 노심초사 걱정하 며, 한평생 살아온 진정한 고령사람 ‘정찬부’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령군수란! 모름지기 군림해서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군민들을 대신 해서 새벽 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심부름하는 고단한 자 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행정과 냉철한 판단력·소신·투명성 등 에서 그 누구보다 경쟁력예선 자신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굳은 의지, 다양한 사업을 경험한 토대로 지역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수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대다수

가 운영비도 충당되지 않아, 매년 엄청난 운영비와 보수비 부담으로 향후 재앙으로 다가올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수익 사업을 통해 일등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군수배 체육대회도 '군수배'를 폐지하고, 군 예산만 주고 민간주도로 행사를 치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행정', '돈 버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관을 개설, 갈라진 민심에 '주인의식'을 불어넣어 군민화합으로 승화,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공정행정과 직원 상호 간에 '스트레스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으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능력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연구기관 개설,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등 농가 소득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먹고사는 경제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군 예산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경쟁력 있는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관내 활동을 최소화하고, 군 이익을 위해 예산 확보, 기업유치 등 대외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누리는 자세보다 희생한다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고령군은 뚜렷한 자체수입이 적은 관계로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고령군 미래를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학력

- 고령초등학교 졸업
- 고령중학교 졸업
- 대구 중앙상업고등학교 졸업
- 대구 미래대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고령군선거대책 부위원장 겸 대외협력위원장
- 전)바르게살기운동고령군협의회 회장
- 전)고령신문 대표이사
- 전)고령성주신문 대표이사
- 전)고령군태권도협회 실무부회장
- 전)고령군축구협회장
- 전)고령군선진화협의회 사업본부장

### 수상

- 바르게살기 금장 수상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고령신문 3월 21일자 1면 「희망이 넘치는 '일등 고령군' 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고령신문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북 고령군수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타 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다른 제목 크기, 편집 등을 사용해 차별화하고, 1면 상단에 출마선언문 전문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고령신문 2022년 5월 9일자 1면〉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46
언론사	주식회사 경도신문(경도신문)
심의대상	경도신문 (1) 4월 21일자 4면 「GTX-F 북부노선 조기착공 적극 추진」, (2) 4월 26일자 4면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철수 위원장 만나 경기도 10대 현안 등 건의사항 ‘드림박스’ 전달」, (3) 4월 28일자 4면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불편 반드시 해소” 공약」, (4) 4월 29일자 4면 「“엄마의 마음으로 도민 세금 쓸 것”」, (5) 5월 2일자 4면 「“서울 뛰어넘는 ‘경기특별도’ 만들겠다”」, (6) 5월 3일자 4면 「“여당 권력형 범죄 은폐위한 꼼수일 뿐”」, (7) 5월 9일자 4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책임질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li> <li>2. 주식회사 경도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경도신문 4면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은 심의대상기사(2)의 제목(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철수 위원장 만나 경기도 10대 현안 등 건의사항 ‘드림박스’ 전달)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4월 21일자 심의대상기사(1)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li> </ol>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기지사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출마 소식, 동정, 선거 공약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별지] 경고결정문

##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2. 본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경도신문 4월 21일자 4면 「GTX-F 북부노선 조기착공 적극 추진」 제하의 기사 외 6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도신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예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동정, 선거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경도신문

2022년 04월 21일  
04면 (당첨)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기북부 성장전략' 공약 발표

## GTX-F 북부노선 조기착공 적극 추진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표 경기북부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기북부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6.25전쟁 직후부터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 왔으며, 중첩규제로 제대로 된 지역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북부 도민들의 오랜 열망을 받들겠다"고 경기북부 성장전략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도로·철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거나 급행화하고, 대규모 첨단산업 테크노밸리를 개발하는 두 가지 큰 비전으로 이뤄져 있다.

철도분야는 서울 지하철도를 인근 북부지역으로 조속히 연장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공약인 GTX-F 북부노선의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김포공항에서 고양시(장항, 가좌, 송산)를 거쳐 파주출판단지까지 연결하는 9호선 서부선을 신설하겠다"며, "고양시 삼송지구와 용산을 연결하는 신변당선 서북부선을 서울시와 협

의해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등 경기북부로 이어지는 서울지하철 노선의 연장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고양시 대화동과 경부고속도로의 한남대교를 및

는 지하고속도로와 남양주 분기점부터 자유로 강대 나들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금융조건 및 운영기간 조정 등을 통해 파주시에서 고양시를 거쳐 서울시까지 연결하는 서울만산고속도로와 포천시에서 남양주시, 서울시를 거쳐 구리시까지 연결하는 서울북부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광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경기북부 성장전략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들이 찾아오는 경기북부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전체에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석기자  
(23.9.14.60r)



<경도신문 2022년 4월 21일자 4면>

## GTX-F 북부노선 조기착공 적극 추진

###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기북부 성장 전략' 공약 발표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표 경기 북부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기북부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6.25전쟁 직후부터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 왔으며, 중첩규제로 제대로 된 지역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북부 도민들의 오랜 열망을 받들겠다"고 경기북부 성장전략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도로·철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거나 급행화하고, 대규모 첨단산업 테크노밸리를 개발하는 두 가지 큰 비전으로 이뤄져 있다.

철도분야는 서울 지하철을 인근 북부지역으로 조속히 연장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공약인 GTX-F 북부노선의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김포공항에서 고양시(장항, 가좌, 송산)를 거쳐 파주출판단지까지 연결하는 9호선 서부선을 신설하겠다"며, "고양시 삼송지구와 용산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선을 서울시와 협의해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등 경기 북부로 이어지는 서울 지하철 노선의 연장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고양시 대화동과 경부고속도로의 한남대교를 잇는 지하고속도로와 남양주 분기점부터 자유로 강매 나들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금융조건 및 운영기간 조정 등을 통해 파주시에서 고양시를 거쳐 서울시까지 연결하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와 포천시에서 남양주시, 서울시를 거쳐 구리시까지 연결하는 서울북부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경기북부 성장전략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들이 찾아오는 경기북부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전체에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철수 위원장 만나 경기도 10대 현안 등 건의사항 ‘드림박스’ 전달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5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을 설명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찾아 안 위원장을 만나고 ‘경기도 10대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하이퍼루프를 통한 고양시-인천국제공

항 직결 ▲경기북부 삼각벨트 조성 지원 ▲미네르바스쿨 경기기숙사,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경기도형 GTX 역세권 첫집주택 등이다.

김 예비후보는 경기 북부를 국제적인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고양-인천공항이 직결되는 4차산업 기반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의 도입을 적극 요청했다.

김창석기자  
(11.8\*13.7)cm

<경도신문 2022년 4월 26일자 4면>

#### 보도내용

###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철 수 위원장 만나 경기도 10대 현안 등 건의사항 ‘드림박스’ 전달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5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을 설명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

하 인수위)를 찾아 안 위원장을 만나고 ‘경기도 10대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하이퍼루프를 통한 고양시-인천국제공항 직결 ▲경기북부 삼각벨트 조성 지원 ▲미네르바스쿨 경기기숙사,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경기도형 GTX 역세권 첫집 주택 등이다.

김 예비후보는 경기 북부를 국제적인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고양-인천공항이 직결되는 4차 산업 기반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의 도입을 적극 요청했다.

경도신문

2022년 04월 28일  
04면 (정치)

###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불편 반드시 해소” 공약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에는 콩나물 버스, 꼬불꼬불한 버스 노선, 배차 간격이 한없이 긴 곳뿐만 아니라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곳도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경기도 내 버스 노선 변경 및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공영제 도입은 장점이 더

크다”며, “버스 운행·관리와는 달리, 노선 결정 자체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준공영제 도입으로 경기도민들이 기대하시는 대중교통환경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제 버스에도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버스가 멈추면 도민의 일상이 멈추는 것인 만큼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꼬불꼬불한 버스 노선을 확 폐고, 경기도민 여러분의 발을 편안히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창석기자  
(11.8\*16.5)cm

〈경도신문 2022년 4월 28일자 4면〉

#### ☞ 보도내용

###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불편 반드시 해소” 공약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에는 콩나물 버스, 꼬불꼬

불한 버스 노선, 배차 간격이 한없이 긴 곳뿐만 아니라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곳도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경기도 내 버스 노선 변경 및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공영제 도입은 장점이 더 크다”며, “버스 운행·관리와는 달리, 노선 결정 자체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준공영제 도입으로 경기도민들이 기대하시는 대중교통환경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제 버스에도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버스가 멈추면 도민의 일상이 멈추는 것인 만큼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

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꼬불꼬불한 버스노선을 확 펴고, 경기도민 여러분의 발을 편안히 헤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년 04월 29일 (4면) (정치)

**경도신문**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9억 쓰고도 이용객 없는 '경기버스라운지'**

## “엄마의 마음으로 도민 세금 쓸 것”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경기도민의 '혈세 지킴이'를 재차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돈’처럼 막 쓰는 세금이 아니라 내 가족의 가계부 쓰듯 효율적으로 쓰는 세금이 나로 경기도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도지사가 된다면, 엄마의 마음으로 도민의 세금을 쓰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 예비후보는 과천에 위치한 스마트 정거장과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를 차례로 방문하고, 운영실태 파악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1억 원 가량의 스마트 정거장은 일 년 내내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용객들을 보호하고, 월세와 인건비 등의 관리비도 들지 않아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뒤이어 찾은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고, 연간 운영비가 월세 및 인건비 포함 4억여 원이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김 예비후보가 퇴근시간 무렵에 방문했지만 이용객은 거의 없었다.

이재명 前 지사가 세금 9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마련했지만 운영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이용하는 시민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경기버스라운지 한 개소를 만들 돈이라면 스마트 정거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며, “초기비용과 유지비도 적게 들고 이용객도 월등하게 많은 다른 대안을 두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지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된다.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보여주기식으로는 도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신속하고 내실있는 예산 운용으로 도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참석지사

(28.9\*12.3)cm

<경도신문 2022년 4월 29일자 4면>

**보도내용**

**“엄마의 마음으로 도민 세금 쓸 것”**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9억 쓰고도 이용객 없는 '경기버스라운지'**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경기도민의 '혈세 지킴이'를 재차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돈’처럼 막 쓰는 세금이 아니라 내 가족의 가계부 쓰듯 효율적으로 쓰는 세금이나

로 경기도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도지사가 된다면, 엄마의 마음으로 도민의 세금을 쓰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 예비후보는 과천에 위치한 스마트 정거장과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를 차례로 방문하고, 운영실태 파악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1억 원 가량의 스마트 정거장은 일 년 내내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용객들을 보호하고, 월세와 인건비 등의 관리비도 들지 않아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뒤이어 찾은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고, 연간 운영비가

월세 및 인건비 포함 4억여 원이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김 예비후보가 퇴근시간 무렵에 방문했지만 이용객은 거의 없었다.

이재명 前 지사가 세금 9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마련했지만 운영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이용하는 시민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경기버스 라운지 한 개소를 만들 돈이라면 스마트 정거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며, “초기비용과 유지비도 적게

들고 이용객도 월등하게 많은 다른 대안을 두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된다.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보여주기 식으로는 도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신속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으로 도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경도신문

2022년 05월 02일  
04면 (정치)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 선언

# “서울 뛰어넘는 ‘경기특별도’ 만들겠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민에게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보다 나은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만들기 위한 9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예비후보는 “저는 새로 출범하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밀린 경기도의 속제를 확실히 해결할 미래의 후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 받은 경기도의 불공정한 대우를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가장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 주요 정책에 있어 서울에 밀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또 밀리고 있다”며, “경기도를 서울시의 위상을 뛰어넘는 ‘경기특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수도 경기’의 최우선 비전으로 ‘경기특별도’ 조성을

제시하며, 라떼팜스형 친환경 미래도시,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테마도시 조성 등 3대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잘사는 경기, 테마경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경기특별도의 위상에 맞게 경기북도 부지사와 경기남도 부지사들 따로 임명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마스터 플랜’ 즉시 추진 ▲광역교통망 업그레이드를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개막 ▲24시간 어린이병원 시·군별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조성 ▲경기 교육 레벨업 ▲‘경기 드림업’으로 청년의 꿈 지원 ▲수원 균형발전 이전, 경기남부 국제공항 추진 ▲부정부패와 이권카르텔 혁파 ▲경기북부 산업, 일자리 혁신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재건축마스터플랜 즉시 추진

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발표에 1기 신도시를 포함했고, 김 후보의 제안대로 여세권 용적을 최대 500%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며, “GTX A,B,C 노선을 최대한 빨리 완공하고, D,E,F 신설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GTX-D는 김포와 부천을 지나,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과 팔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전철 연장과 광역버스 노선 증설, 일산대교 무료화도 해내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새로 출범하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겠다. ‘경기특별도’에는 앞으로 미래를 함께할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젊고 파이팅 넘치는 김은혜, 언제 어디서든 도민과 함께 하



는 김은혜가 ‘잘 사는 경기’를 만들겠다. ‘24시간 깨어 있는 자세’로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케치프레이즈로 ‘24시간 031’을 제시하고, 복지·교통·도민 소통 등 모든 부분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빈틈없는 경기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석기자

(23.2·15.6)cm

<경도신문 2022년 5월 2일자 4면>

## “서울 뛰어넘는 ‘경기특별도’ 만들겠다”

###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 선언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민에게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보다 나은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만들기 위한 9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예비후보는 “저는 새로 출범하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밀린 경기도의 숙제를 확실히 해결할 미래의 후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 받은 경기도의 불공정한 대우를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가장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 주요 정책에 있어 서울에 밀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또 밀리고 있다”며, “경기도를 서울시의 위상을 뛰어넘는 ‘경기특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수도 경기’의 최우선 비전으로 ‘경기특별도’ 조성을 제시하며, 라데팡스형 친환경 미래도시,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테마도시 조성 등 3대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잘사는 경기, 테마경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경기특별도의 위상에 맞게 경기북도 부지사와 경기남도 부지사를 따로 임명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 즉시 추진 ▲광역교통망 업그레이드

를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개막 ▲24시간 어린이병원 시군별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조성 ▲경기 교육 레벨업 ▲경기 드림업으로 청년의 꿈 지원 ▲수원 군 공항 이전, 경기 남부 국제공항 추진 ▲수정부패와 이권카르텔 혁파 ▲경기북부산업, 일자리 혁신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재건축마스터플랜 즉시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발표에 1기 신도시를 포함했고, 김 후보의 제안대로 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며, “GTX A,B,C 노선을 최대한 빨리 완공하고, DEF 신설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GTX-D는 김포와 부천을 지나,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과 팔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전철 연장과 광역버스 노선 증설, 일산대교 무료화도 해내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새로 출범하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오겠다. ‘경기특별도’에는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할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젊고 파이팅 넘치는 김은혜, 언제 어디서든 도민과 함께 하는 김은혜가 ‘잘 사는 경기’를 만들겠다. 24시간 깨어 있는 자세로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캐치프레이즈로 24시간 031’을 제시하고, 복지·교통·도민 소통 등 모든 부분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빈틈없는 경기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검수완박' 강행 처리 민주당 규탄

# “여당 권력형 범죄 은폐위한 꼼수일 뿐”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률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 폭주로 통과됐다”며, “이 같은 악법을 정권 시기에 자행한 이유는 지난 5년간 정부·여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초유의 위장 탈당으로 안

건조정위를 빠져나갔고, 국회의원이 화투패를 밀장배기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온갖 편법도 동원됐다”며, “의도와 과정부터 음모적인, 무엇보다 헌정을 위배하고 민생의 고통을 불러올 악법 중의 악법에 야합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용단을 촉구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구두발에 짓밟힌 것을 언급하며, 평소 여성 폭력에 민감했

던 민주당, 정의당 여성 의원들은 왜 침묵만 지키고 있는지 되물었다. 현실의 폭력에는 침묵하고, 상상의 폭력에 대해서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낙인을 남발하는 모습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예비후보는 “도덕으로 타인을 규율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위선자’라고 비판받는 것”이라며, “도대체 여러분에게 이념이란 무엇인가. 상대편을 때리는 흥기인가, 아니면 출세를 위한 발판인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창석기자



(23.9\*11.3cm)

<경도신문 2022년 5월 3일자 4면>

## 보도내용

### “여당 권력형 범죄 은폐위한 꼼수일 뿐”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검수완박' 강행 처리 민주당 규탄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률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 폭주로 통과됐다”며, “이 같은 악법을 정권 시기에 자행한 이유는 지난 5년간 정부·여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초유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빠져나갔고, 국회의원이 화투패를 밀장배기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온갖 편법도 동원됐다”며, “의도와 과정부터 음모적인, 무엇보다 헌정을 위배하고 민생의 고통을 불러올 악법 중의 악법에 야합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용단을 촉구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구두발에 짓밟힌 것을 언급하며, 평소 여성 폭력에 민감했던 민주당, 정의당 여성 의원들은 왜 침묵만 지키고 있는지 되물었다. 현실의 폭력에는 침묵하고, 상상의 폭력에 대해서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낙인을 남발하는 모습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예비후보는 “도덕으로 타인을 규율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위선자’라고 비판받는 것”이라며, “도대체 여러분에게 이념이란 무엇인가. 상대편을 때리는 흥기인가, 아니면 출세를 위한 발판인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어르신 공약 '경기도표 실버 플러스' 발표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책임질 것”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완성하기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 노고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경기 어르신들의 실버 플러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저 김은혜가 책임지겠다”고 공약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공약으로 ▲‘시·군별 치매안심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섬김센터 설립 ▲시·군별 무한돌봄플러스센터 설치 ▲임플란트 무상지원 확대 ▲간병 파산·실직 위기 가장 최대 50% 지원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상향 조정 ▲케어푸드 서비스 사업 실시 ▲어르신 운동·재활 서비스 제공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어르신 문화생활 지원 바우처 지급 등을 제시했다.

먼저 김 예비후보는 “중증 치매에 걸리거나 돌봐 줄 사람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보건의료와 일상이 결합된 ‘경기도형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하는 치매안심마을은 사업의 핵심계층인 동네 상점과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김 예비후보는 보건소 담당자, 유통기업, 동네 상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경기도형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도록 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이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해당 거주 지역에 ‘어르신 섬김센터’를 설립해 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 필요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 요양, 음식 지원, 여가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시·군의 집수리사업단 및 자활사업단을 활용해 집수리 및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방문 요양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등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김 예비후보는 또 기존의 무한돌봄센터에 희망복지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 긴급복지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 무한돌봄플러스센터를 설치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불니,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해 진료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실화가된다면, 진료비 부담을 갖고 있는 가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장기화 된 간병으로 가정 경제가 파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기화 된 간병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직장인에 대해서는 데이케어 센터를 확대하고, 돌봄 가족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족 간병인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 단가 상향을 추진하고, 도시락 배달 및 경로식당 등 어르신 식사 시 고려자 신체 특성에 맞는 음식을 고려해 경기도 내 식품업체가 케어푸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어르신 운동·재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경기도 중장년 일자



리 지원체계 강화, 문화 바우처 지급 및 교육강사 파견, 어르신 간병 요양 최대 50% 지원을 추진한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제시한 ‘경기도표 실버플러스’ 공약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어르신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경기도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경기,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는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창석기자

(23·9·19·2cm)

<경도신문 2022년 5월 9일자 4면>

## 보도내용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책임질 것”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어르신 공약 ‘경기도표 실버 플러스’ 발표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완성하기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서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 노고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경기 어르신들의 실버 플러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저 김은혜가 책임지겠다”고 공약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공약으로 ▲‘시·군별 치매안심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섬김센터 설립 ▲시·군별 무한돌봄플러스센터 설치 ▲임플란트 무상지원 확대 ▲간병 파산·실직 위기가정 최대 50% 지원 ▲어르신 무료급식 단

가 상향 조정 ▲케어푸드 서비스 사업 실시 ▲ 어르신 운동·재활 서비스 제공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어르신 문화생활 지원 바우처 지급 등을 제시했다.

먼저 김 예비후보는 “중증 치매에 걸리거나 돌봐 줄 사람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보건의료와 일상이 결합된 ‘경기도형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하는 치매안심마을은 사업의 핵심 계층인 동네 상점과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김 예비후보는 보건소 담당자, 유통기업, 동네 상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경기도형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도록 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이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해당 거주 지역에 ‘어르신 섬김센터’를 설립해 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 필요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 영양, 음식 지원, 여가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시·군의 집수리사업단 및 자활사업단을 활용해 집수리 및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방문 요양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등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김 예비후보는 또 기존의 무한돌봄센터에 희망복지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 긴급복지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 무한돌봄플러스센터를 설치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취약 계층 어르신의 틀니,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진료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실화가 된다면, 진료비 부담을 갖고 있는 가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장기화 된 간병으로 가정 경제가 파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기화 된 간병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직장인에 대해서는 데이케어센터를 확대하고, 돌봄 가족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족 간병인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 단가 상향을 추진하고, 도시락 배달 및 경로식당 등 어르신 식사 시 고령자 신체 특성에 맞는 음식을 고려해 경기도 내 식품업체가 케어푸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어르신 운동·재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문화 바우처 지급 및 교육강사 파견, 어르신 간병 요양 최대 50% 지원을 추진한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제시한 ‘경기도표 실버플러스’ 공약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며, “어르신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경기도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잘 시는 경기,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는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도신문

2022년 05월 20일  
04면 (정치)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경도신문 4월 21일자 4면 'GTX-F 북부노선 조기착공 추진' 제하의 기사 외 6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도신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동정, 선거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으므로써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정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및 제7호(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23.9\*5.1)cm

<경도신문 2022년 5월 20일자 4면>

## 2. 주의사실 게재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19
언론사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KNS뉴스통신)
심의대상	KNS뉴스통신 3월 24일자 전국-경남면 「한옥문 양산시장후보 내놓는 공약마다 '눈길」 제하의 기사
주 문	<p>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p> <p>2.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KNS뉴스통신 홈페이지 전국-경남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주의사실 게재문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을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주의사실 게재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심의대상기사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p>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양산시장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와 관련하여,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후보자의 공약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후보자의 사진, 공약 등이 포함된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 뉴스통신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기사(3월 24일자 전국면 “한옥문 양산시장후보 내놓는 공약마다 ‘눈길’”)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 한옥문 양산시장후보 내놓는 공약마다 '눈길'

**#1 여유로운 30분 양산**  
양산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가든 30분이면 여유롭게 닿을 수 있도록 양산의 교통 인프라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 국도 1022호선(울금~상북) 구간 조기 개통
- 국도 1022호선(울금~원동) 구간 조기 개통
- 양산 1022호선(양산~원동) 구간 조기 개통
- 국도 1022호선(양산~상북) 구간 조기 개통

**#2 지속 성장도시 양산**  
양산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새로운 미래먹거리산업을 구체적으로 발굴, 유치하겠습니다

- 양산도계산업, 친환경 특화: 정부 '남해안탄성소재활성화벨트사업' 관련 공공기여 유치 및 자체기업 지원
- 해베이다리 리사이클링센터 유치: 특남권 전가지특지 제베이다리 리사이클링센터 유치 및 관련기업 지원

희든 프로젝트와 일상공감으로 시민 관심 상승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자가 내놓는 공약마다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옥문 후보는 지난 21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후 매일 오전 '한옥문의 희든 프로젝트'와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한옥문의 희든 프로젝트는 '희망의 양산, 든든한 시민'이라는 내용을 함축한 것으로 양산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한옥문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또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은 양산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을 정적으로 보완하거나 새롭게 지원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처음 시민들에게 공개한 희든 프로젝트 그 첫 번째 공약은 '여유로운 30분 양산'이라는 주제로 양산의 교통 인프라를 대개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산의 국지도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국지도1028호선(웅상~상북)과 1022호선(울금~원동) 사업과 웅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시철도 개통 사업 추진이다.

또한 동면에서 상북으로 이어지는 국도35호선 개통까지 양산의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옥문 후보가 내놓은 희든 프로젝트 두 번째는 '지속 성장도시 양산'을 위해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및 유치 공약을 내걸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탄성소재활성화벨트사업'과 연계해 양산의 산단에 관련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를 유치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련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을 통해 내놓은 공약 또한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옥문 후보가 내놓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과 '중고생 버스요금 100원제'는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와 기대치가 모아지고 있다.

일부의 '외지인 한옥문의 한계'라는 지적에 오히려 양산 출신 후보들보다 더 양산의 현안과 대안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면서 한옥문 후보의 철저한 준비성에 놀라워하는 분위기가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처럼 내놓은 공약마다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옥문 후보의 릴레이 공약 공개와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선거로 주도해가겠다는 의지 표명에 시민들은 공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옥문 후보는 "지난 12년 의정활동에서 언제나 현장에서 질문과 해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며 지금의 정책들을 준비해 왔다"면서 "선거 기간 지속적인 정책 경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산 시정의 적임자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물금읍 에이스사우나 건물 9층에 자리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다시 한 번 양산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 한옥문 양산시장 후보 내놓는 공약마다 '눈길'

### 희든 프로젝트와 일상공감으로 시민 관심 상승

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자가 내놓는 공약마다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옥문 후보는 지난 21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후 매일 오전 '한옥문의 희든 프로젝트'와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한옥문의 희든 프로젝트'는 희망의 양산, 든든한 시민이라는 내용을 함축한 것으로 양산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한옥문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또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은 양산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을 정책으로 보완하거나 새롭게 지원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처음 시민들에게 공개한 희든 프로젝트 그 첫 번째 공약은 '여유로운 30분 양산'이라는 주제로 양산의 교통 인프라를 대개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산의 국지도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국지도1028호선(웅상~상북)과 1022호선(물금~원동) 사업과 웅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시철도 개통 사업 추진이다.

또한 동면에서 상북으로 이어지는 국도35호선 개통까지 양산의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옥문 후보가 내놓은 희든 프로젝트 두 번째는 '지속 성장도시 양산'을 위해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및 유치 공약을 내걸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탄성소재활성화벨트사업'과 연계해 양산의 산단에 관련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를 유치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련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을 통해 내놓은 공약 또한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옥문 후보가 내놓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과 '중고생 버스요금 100원제'는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와 기대치가 모아지고 있다.

일부의 '외지인 한옥문의 한계'라는 지적에 오히려 양산 출신 후보들보다 더 양산의 현안과 대안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면서 한옥문 후보의 철저한 준비성에 놀라워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처럼 내놓은 공약마다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옥문 후보의 릴레이 공약 공개와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선거로 주도해가겠다는 의지 표명에 시민들은 공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옥문 후보는 "지난 12년 의정활동에서 언제나 현장에서 질문과 해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며 지금의 정책들을 준비해 왔다"면서 "선거 기간 지속적인 정책 경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산 시정의 책임자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물금읍 에이스사우나 건물 9층에 자리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다시 한 번 양산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HOME > 알림(KNS게시판)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알림

KNS뉴스통신 | 승인 2022.04.23 11:30 | 댓글 0



본 뉴스통신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편향된 표현을 사용해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기사(3월 24일자 전국면 “한옥문 양산시장후보 내놓는 공약마다 ‘눈길’”)를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3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제17조(일반선거기사)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KNS뉴스통신 [kns@kns.tv](mailto:kns@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NS뉴스통신 2022년 4월 23일>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20
언론사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경남매일)
심의대상	경남매일 3월 25일자 3면 「“12년간 의정활동 통해 내놓은 정책” 눈길」 제하의 기사
주 문	<p>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p> <p>2.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경남매일 3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한옥문, 두가지 형태 공약)와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p>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양산시장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공약을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편향된 표현을 사용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기사(3월 25일자 3면 「“12년간 의정활동 통해 내놓은 정책” 눈길」)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3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 “12년간 의정활동 통해 내놓은 정책” 눈길

한옥문, 두 가지 형태 공약  
국지도 1028·1022호선 개통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유치

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자가 내놓는 공약마다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옥문 후보는 지난 21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후 매일 오전 ‘한옥문의 회든 프로젝트’와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한옥문의 회든 프로젝트’는 희망의 양산, 든든한 시민이라는 내용을 함축한 것으로 양산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한옥문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은 양산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부분



한옥문 예비후보

을 정책으로 보완하거나 새롭게 지원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처음 시민들에게 공개한 회든 프로젝트 그 첫 번째 공약은 ‘여유로운 30분 양산’이라는 주제로 양산의 교통 인프라를 대개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산의 국지도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국지도 1028호선(웅상~상북)과 1022호선(물금~원동) 사업과 웅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시철도 개통 사업 추진이다.

여기에는 동면에서 상북으로 이어지는 국도5호선 개통까지 양산의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옥문 후보가 내놓은 회든 프로젝트 두 번째는 ‘지속 성장도시 양산’을 위해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및 유치 공약을 내걸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탄성소재활성화벤처사업’과 연계해 양산의 신단에 관련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를 유치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련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을 통해 내놓은 공약 또한 시민들의 일상을 타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옥문 후보가 내놓은 ‘어린아침 및 유치원 입학준비금 10만 원 지원’과 ‘중고생 버스요금 100원제’는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그 실현 가

능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와 기대치가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의 ‘외지인 한옥문의 한계’라는 지적에 오히려 양산 출신 후보들보다 더 양산의 현안과 대안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면서 한옥문 후보의 철저한 준비성에 놀라워하는 분위기가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처럼 내놓은 공약마다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옥문 후보의 릴레이 공약 공개와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내거티브가 아닌 정책 선거로 주도해가겠다는 의지 표명에 시민들은 공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옥문 후보는 “지난 12년 의정활동에서 언제나 현장에서 질문과 해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며 지금의 정책들을 준비해 왔다”며 “선거 기간 지속적인 정책 경청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산 시정의 책임자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물금읍 에이스사우나 건물 9층에 자리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다시 한번 양산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임채용 기자  
(21.9~12.5)cm

<경남매일 2022년 3월 25일자 3면>

## 보도내용

### “12년간 의정활동 통해 내놓은 정책” 눈길

한옥문, 두 가지 형태 공약  
국지도 1028·1022호선 개통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유치

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자가 내놓는 공약마다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옥문 후보는 지난 21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후 매일 오전 ‘한옥문의 회든 프로젝트’와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한옥문의 회든 프로젝트는 희망의 양산, 든든한 시민이라는 내용을 함축한 것으로 양산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한옥문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은 양산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을 정책으로 보완하거나 새롭게 지원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처음 시민들에게 공개한 회든 프로젝트 그 첫 번째 공약은 ‘여유로운 30분 양산’이라는 주제로 양산의 교통 인프라를 대개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산의 국지도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국지도1028호선(웅상~상북)과 1022호선(물금~원동) 사업과 웅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시철도 개통 사업 추진이다.

여기에는 동면에서 상북으로 이어지는 국도

35호선 개통까지 양산의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옥문 후보가 내놓은 희든 프로젝트 두 번째는 '지속 성장도시 양산을 위해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및 유치 공약을 내걸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탄성소재활성화벨트사업'과 연계해 양산의 산단에 관련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를 유치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련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을 통해 내놓은 공약 또한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옥문 후보가 내놓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준비금 10만 원 지원'과 '중고생 버스요금 100원제'는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와 기대치가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의 '외지인 한옥문의 한계'라는

지적에 오히려 양산 출신 후보들보다 더 양산의 현안과 대안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면서 한옥문 후보의 철저한 준비성에 놀라워하는 분위기가 지연출되고 있다.

이처럼 내놓은 공약마다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옥문 후보의 릴레이 공약 공개와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선거로 주도해가겠다는 의지 표명에 시민들은 공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옥문 후보는 "지난 12년 의정활동에서 언제나 현장에서 질문과 해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며 지금의 정책들을 준비해 왔다"며 "선거 기간 지속적인 정책 경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산 시정의 책임자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물금읍 에이스사우나 건물 9층에 자리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다시 한번 양산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 결정 후 보도문

### 경남매일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편향된 표현을 사용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기사(3월 25일 자 3면 "12년간 의정활동 통해 내

놓은 정책" 논감)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 및 선거 기사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 기사) 제3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2022년 04월 25일  
09면 (종합1)

(21.8x2.2cm)

<경남매일 2022년 4월 25일 3면>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32
언론사	서울뉴스통신 주식회사(서울뉴스통신)
심의대상	<p>서울뉴스통신 (1) 3월 17일자 지방면「강기정. 지역 공약 국정과제 채택 위해 정파 넘는 범정치세력TF 구성해야」, (2) 3월 21일자 지방면「강기정, 22일 광주광역시 출마기자회견」, (3) 3월 27일자 지방면「강기정 광주광역시 예비후보, 강추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4) 4월 1일자 지방면「강기정, 10살 우크라이나 소녀와 약속 평화」, (5) 4월 5일자 지방면「강기정 혁신적인 창업 지원·투자 생태계 조성하겠다」, (6) 4월 14일자 지방면「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예비후보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광주 만들겠다」, (7) 4월 18일자 지방면「강기정 예비후보 미디어데어로 소통 강화」 제하의 기사</p>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li> <li>2. 서울뉴스통신 주식회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뉴스통신 지방-광주-전남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을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심의대상기사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li> </ol>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소식, 동정, 선거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다루지 않음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본 뉴스통신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소식 동정, 선거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3월 17일자「강기정. 지역 공약 국정과제 채택 위해 정파 넘는 범정치세력TF 구성해야」 등 7건)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거의 다루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서울뉴스통신  
HOME · 지방 · 광주 · 전남

**강기정. 지역 공약 국정과제 채택 위해 정파 넘는 범정치세력TF 구성해야**

A 이철수 기자 · © 승인 2022.03.17 16:19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범정치세력TF 구성을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17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력교제기에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지역발전 공약을 인수위를 통해 국정과제로 집어넣는 것이다”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정과제로 반영된 사업이 지역 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전 수석은 “광주시가 인수위 대응 TF를 구성하는 건 정말 시기적으로 절한 일이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행정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전공대, AI, 심혈관센터, 달빛내륙철도, 광주형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공약을 만들고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전 과정을 지켜본 경험으로 볼 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정파와 여야를 넘어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합심하여 ‘범정치세력TF’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저도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TF에 함께 하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 전 수석은 “정권 교체기이자 여소야대인 지금 시기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이 예견되는 시점이다”며 “그런 점에서 자기 시장은 여야를 넘나들고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무적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이고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강 전 수석은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책임론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강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한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화살이 날아든다면 그 화살을 당당히 맞을 준비가 돼 있다. 자랑스러운 화살이 될 거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안전공대를 만들고 AI단지를 시작하고 심혈관센터 삼을 썼다. 또 달빛내륙철도를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켰고 전년을 녹색 에너지 중심으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 없는 유일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 과를 같이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전 수석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람의 준비, 정책의 준비, 미래의 방향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다음주 중 광주시장 도전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수 기자 [lu1931@naver.com](mailto:lu1931@naver.com)

저작권 © 서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통신 2022년 3월 17일자 지방면〉



## 강기정. 지역 공약 국정과제 채택 위해 정파 넘는 범정치세력TF 구성해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범정치세력TF 구성을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17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력교체기에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지역발전 공약을 인수위를 통해 국정과제로 집어넣는 것이다”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정과제로 반영된 사업이 지역 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전 수석은 “광주시가 인수위 대응 TF를 구성하는 건 정말 시기적으로 잘한 일이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행정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전공대, AI, 심혈관센터, 달빛내륙철도, 광주형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공약을 만들고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전 과정을 지켜본 경험으로 볼 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정파와 여야를 넘어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합심하여 ‘범정치세력TF’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제도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TF

에 함께 하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 전 수석은 “정권 교체기이자 여소야대인 지금 시기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이 예견되는 시점이다”며 “그런 점에서 차기 시장은 여야를 넘나들고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무적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이고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강 전 수석은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들의 책임론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강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한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화살이 날아든다면 그 화살을 당당히 맞을 준비가 돼 있다. 자랑스러운 화살이 될 거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한전공대를 만들고 AI단지를 시작하고 심혈관센터 삼을 폈다. 또 달빛내륙철도를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켰고 전남을 녹색 에너지 중심으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 없는 유일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같이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전 수석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람의 준비, 정책의 준비, 미래의 방향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다음주 중 광주시장도 전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통신
HOME > 지방 > 광주·전남

## 강기정, 22일 광주광역시장 출마기자회견

A 이철수 기자 · © 승인 2022.03.21 16:13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전 청와대 정무수석)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광주광역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5개 신경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를 만드는 '광주신경제지도' 정책과 더불어 복합쇼핑몰 등 광역시에 걸맞은 생활인프라를 갖추는 방안 등도 함께 밝힐 계획이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 기반인 제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제조업 메이드인 광주' 간담회를 갖는다.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경제 기반으로 삼고 거기에 신산업을 더해 산업을 키우는 경제사상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아울러 강기정 예비후보는 정관교체기와 여소야대 국면에서 필수적인 시장의 정무적 리더십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기정 예비후보는 정오대 정무수석, 3선 국회의원을 하며 쌓은 중앙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무적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철수 기자
ic1931@naver.com

지정기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통신 2022년 3월 21일자 지방면〉

### 보도내용

## 강기정, 22일 광주광역시장 출마기자회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전 청와대 정무수석)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광주광역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광

주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5개 신경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를 만드는 '광주신경제지도' 정책과 더불어 복합쇼핑몰 등 광역시에 걸맞은 생활인프라를 갖추는 방안 등도 함께 밝힐 계획이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 기반인 제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제조업 메이드인 광주' 간담회를 갖는

다.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경제 기반으로 삼고 거기에 신산업을 더해 '산업을 키우는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아울러 강기정 예비후보는 정권교체기와 여소야대 국면에서 필수적인 시장의 정무적 리

더십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기정 예비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 3선 국회의원을 하며 쌓은 중앙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무적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통신

HOME > 지방 > 광주·전남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추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A 이철수 기자 | © 승인 2022.03.27 16:10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S타워컨벤션에서 '강추캠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강추캠프는 '강한 추진력, 강기정을 추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강추캠프 개소식에는 우원식·이원욱·이개호·김승남·신정훈·김원아·김희재·서동용·민형배·윤영덕·이용빈·조오성·양항자·김경만·안정숙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유인태 전 국회의원, 원해영 전 국회의원, 양형일 전 대사, 김학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병근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진직 국무위원들과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은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관리요원을 통해 참석인원의 제한규정도 준수하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축전을 통해 "오랜 기간 지켜본 강기정은 언제나 자신의 넋네임을 '광주 강기정'이라고 쓸 정도로 광주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며 "국회의원 재임 시절 지역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재임 시에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준비를 끝마쳤다"며 "당당하고 빠른 추진력으로 지역의 밀린 숙제를 해결하고 광주신경제지대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강추캠프는 50대 후보와 40대 참모를 주축으로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 집단지성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추캠프는 지역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부담 없이 찾아주시고 활발히 소통해 달라. 개소식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5개 신경제지구와 5개 신허력특구를 기반으로 '광주신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님니다-광주에 없는 20가지' 공약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광주를 '살의 모델 도시'로 바꿔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철수 기자 |cs1931@naver.com

<서울뉴스통신 2022년 3월 27일자 지방면>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추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S타워컨벤션에서 '강추캠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강추캠프는 '강한 추진력, 강기정을 추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강추캠프 개소식에는 우원식·이원욱·이개호·김승남·신정훈·김원이·김회재·서동용·민형배·윤영덕·이용빈·조오섭·양향자·김경만·양정숙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유인태 전 국회의원총장,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형일 전 대사, 김학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노동일 전 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병근·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전직 국무위원들과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은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관리요원을 통해 참석인원의 제한규정도 준수하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축전을 통해 “오랜 기간 지켜본 강기정은 언제나 자신의 낙내임을 ‘광주 강기정’이라고 쓸 정도로 광주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며 “국회의원 재임 시절 지역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재임 시에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준비를 끝마쳤다”며 “당당하고 빠른 추진력으로 지역의 밀린 숙제를 해결하고 광주신경제지도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강추캠프는 50대 후보와 40대 참모를 주축으로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 집단지성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추캠프는 지역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부담 없이 찾아주시고 활발히 소통해 달라. 개소식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5개 신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를 기반으로 ‘광주新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뵙니다-광주에 없는 20가지’ 공약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광주를 ‘삶의 모델 도시’로 바뀌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통신 2022년 4월 1일자 지방면〉



## 보도내용

### 강기정, 10살 우크라이나 소녀와 약속 평화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홀로 피란길에 오른 10살 고령인 소녀를 만나 '평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출신 고령인 동포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31일 오후 광산구 월곡동 고령인마을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동포 남루이자(56)씨의 10살 손녀 남아니따 양을 만났다. 남

아니따 양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란길에 올랐다. 이후 루마니아, 헝가리 국경을 넘으며 불안한 피란 생활을 이어가다 광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지난 22일 할머니 남루이자씨가 있는 한국 땅을 밟았다.

남아니따 양은 이날 만남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안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한국에 온 뒤에는 잠을 푹 잘 수 있었다"며 "가족과 같이 지내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게 평화라고 생각한다. 끔찍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강기정 예비후보는 "어린이가 전쟁 중

인 고향을 떠나 홀로 한국에 오기까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광주에 있는 동안 씩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위로하며 "하루빨리 가족,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강기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부가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 돼야한다. 고려인 동포들이 광주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통신

HOME > 지방 > 광주·전남

## 강기정 혁신적인 창업 지원·투자 생태계 조성하겠다

A 이철수 기자 | © 승인 2022.04.05 17:54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의 경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창업 관계자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경제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5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창업과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살피고 경제 공약 중 하나인 '창업 지원·투자를 위한 5000억원 펀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역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으로 원스톱 창업 육성체계 확립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창업자들에게 대한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청년 창업가들이 투자를 받지 못해 지역을 떠나고, 투자자들은 지역에 기업이 없다면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5000억 창업펀드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함께 나서달라. 충분한 지원과 투자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한다면 지역에서도 유니콘기업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기자 lcs1931@naver.com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통신 2022년 4월 5일자 지방면>

## 강기정 혁신적인 창업 지원·투자 생태계 조성 하겠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의 경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창업 관계자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경제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5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창업과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등을 살피고 경제 공약 중 하나인 '창업 지원·투자를 위한 5000억원 펀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역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으로 윈스톱 창업 육성체계 확립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창업자들에 대한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청년 창업가들이 투자를 받지 못해 지역을 떠나고, 투자자들은 지역에 기업이 없다며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5000억 창업펀드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함께 나서달라. 충분한 지원과 투자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한다면 지역에서도 유니콘기업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광주 만들겠다

▲ 이철수 기자 | © 승인 2022.04.14 16:34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시민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광주는 5대 광역시 중에서 동물복지 지원시설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며 동물의 권리 보장과 복지 실현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공공의료시스템 도입 도시거점형 반려동물 복지타운 조성 사람·동물 상생환경 조성 동물복지정책 통합관리 등 5대 실천과제를 내놨다.

먼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

반려동물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최초로 '동물공공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동물공중보건 분야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광견병, 기생충 감염 등 인수공통 감염병을 예방한다.

광주광역시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고, 자치구별 공공 수의사, 전시·야생동물 전문 보건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자치구별 시민접근성이 좋은 도심 거점에 동물복지시설을 조성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한다.

경기도, 대전, 울산, 강원도, 경북 등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추세지만 광주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제외하면 반려동물 복지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동물복지교육문화센터 반려동물 산업진흥센터 유기동물입양지원센터 동물보호소·공공동물병원 메모리얼 파크 등 특화된 동물복지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강 예비후보는 교육청과 협의해 동물복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치구별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관리체계 강화, 대형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애견묘 카페, 펜션 등 반려동물 테마 동반시설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반려야생농장·전시 등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광주는 약9만 가구가 개·고양이 등 총12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매년 3,000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광주에 없는 20가지 중 정책의 부재로 누리지 못한 반려인의 권리와 동물복지가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광주 만들겠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시민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광주는 5대 광역시 중에서 동물복지 지원시설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며 동물의 권리 보장과 복지 실현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공공의료시스템 도입 도시거점형 반려동물 복지타운 조성 사람·동물 상생환경 조성 동물복지정책 통합관리 등 5대 실천과제를 내놨다.

먼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

반려동물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최초로 ‘동물공공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동물공중보건 분야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광견병, 기생충 감염 등 인수공통 감염병을 예방한다.

광주광역시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고, 자치구별 공공 수의사, 전시·야생동물 전문 보건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자치구별 시민접근성이 좋은 도심 거점에 동물복지시설을 조성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한다.

경기도, 대전, 울산, 강원도, 경북 등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추세지만 광주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제외하면 반려동물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동물복지교육문화센터 반려동물 산업진흥센터 유기동물입양지원센터 동물보호소·공공동물병원 메모리얼 파크 등 특화된 동물복지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강 예비후보는 교육청과 협의해 동물복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치구별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관리체계 강화, 대형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애견·묘카페, 펜션 등 반려동물 테마 동반시설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반려·야생·농장·전시 등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운영하는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통해 동물복지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광주는 약 9만 가구가 개·고양이 등 총 12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매년 3,000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광주에 없는 20가지 중 정책의 부재로 누리지 못한 반려인의 권리와 동물복지가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강기정 예비후보 미디어데이로 소통 강화

✎ 이철수 기자 | ⓒ 승인 2022.04.18 20:01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예비후보가 소통 강화를 위해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18일 강기정 예비후보 경선선거대책본부는 19일 오전 11시 강추캠프(광주 서구 시청로 45)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이날 자리에서 경선에 임하는 각오 및 정책 설명 등을 통해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갈 미래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경선선거대책본부는 “경선 각오 및 정책 구상 발표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역대 선거에서 출마 후보가 미디어데이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기자 lcs1931@naver.com

## 강기정 예비후보 미디어데이로 소통 강화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소통 강화를 위해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18일 강기정 예비후보 경선선거대책본부는 19일 오전 11시 강추캠프(광주 서구 시청로 45)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이날 자리에서 경선에 임하는 각오 및 정책 설명 등을 통해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갈 미래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경선선거대책본부는 “경선 각오 및 정책 구상 발표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역대 선거에서 출마 후보가 미디어데이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 김태공 기자 | © 승인 2022.05.04 10:38 | 🔍 댓글 0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태공 기자 = 본 뉴스통신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소식 동정, 선거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3월 17일자 '강기정, 지역 공약 국정과제 채택 위해 정파 넘는 범정치세력TF 구성해야' 등 7건)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다루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서울뉴스통신 2022년 5월 4일자 지방면〉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56</b>
<b>언론사</b>	주식회사 반월신문사(반월신문)
<b>심의대상</b>	반월신문 (1) 4월 27일자 1면 「제종길 비서실장 비리의혹 원미정 천영미 음주전과, 컷오프 통과 의문 제기」, (2) 4월 27일자 5면 「당원 300여명 중앙당사 향의집회,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 제기」, (3) 5월 4일자 1면 「“27년 지켜온 당 떠난다” 눈물, 선거판 요동친다」, (4) 5월 4일자 3면 「“윤화섭 응원합니다” … 유명 연예인 지지 선언 잇달아」, (5) 5월 11일자 1면 「윤화섭 현 안산시장 ‘범시민 후보’ 추대」 제하의 기사
<b>주 문</b>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반월신문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반월신문 1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및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4월 27일자 1면 「안산시 초지동 통장협의회 환경 정화운동」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한다.
<b>이 유</b>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기 안산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 관련 의혹 제기, 출마선언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본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안산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 관련 의혹 제기, 출마선언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4월 27일자 1면 「제종길 비서실장 비리의혹 원미정 천영미 음주전과, 컷오프 통과 의문 제기」 등 5건)한 반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이후(18.12.18) 적발 시 '예외 없는 후보자 부적격' 요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윤희섭 현 안산시장은 재심을 신청하고 주변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심이 받아들여져 공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많지 않아 큰 기대는 어렵다

는 반응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탈락한 후보들을 보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됐다고 보기 힘들다. 공관위가 입맛대로 공천하려 한다는 불만들이 정가에 퍼지고 있다"며 "재심을 신청한들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반월신문 2022년 4월 27일자 5면>

**보도내용**

**당원 300여명 중앙당사 항의집회,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희섭 안산시장 공천배제 파장**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공천결과 발표로 현시장 윤희섭 예비후보가 컷오프되면서 파장이 일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식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2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3차 공천심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안산시장은 안산시 예비후보 공천과 발표 후 현시장 윤희섭 예비후보가 컷오프되면서 파장이 일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결과가 주현관(안산시)과 유은혜(안산시)가 컷오프된다는 소식에 지방선거 기조 캠페인 3차 공천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공천심사 위원인 윤희섭 예비후보는 컷오프됐다.

이후 공관위 예비후보는 현 시장으로 안산시장을 컷오프하고 유은혜 예비후보를 주현관으로 컷오프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시 7개 구·읍에서 가장 많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된 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22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컷오프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안산시장 후보 경선에는 송한준 전 경기도 의회 의장, 원미정 전 경기도의원, 제종길 전 안산시장, 천영미 전 경기도의원 등이 컷오프를 통과하여 예비후보로 경선 명단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윤화섭, 장동일, 김성욱 예비 후보는 컷 오프 됐다.

특히 윤화섭 예비후보는 현역 시장으로 안산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치로 앞서있어 이번 컷오프 결과가 예상 밖이라는 주위의 의견이 많다.

윤화섭 예비후보는 컷오프 이후 입장문을 통해 “2014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지형 속에서도 4만3157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안산과 용인 그리고 평택에서 명분 없는 전략공천을 강행함으로써 당심과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초박빙의 선거구도 속에서 가장 유리한 현역 시장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지역 선거는 물론 도지사 선거까지 패배의 늪으로 밀어 넣는 어리석은 행위”라 의견을 밝히며 “재심신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윤 예비후보의 주변에선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에 안산시호남향우회는 “집단 탈당”하겠다고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경기도호남향우회총연합회도 이에 가세해 윤 예비후보를 포함한 경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공천에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원의 입맛에 따라 경선을 좌지우지하면서 다른 공관위원들을 설득한다는 내용의 ‘짜라시’들이 떠돌기도 했다.

민주당 한 예비후보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 일부 의원들이 국무위원 신분인 장관님의 의중임을 내세우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시장의 컷오프 불똥은 윤 예비후보의 의혹으로 튀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지역 언론사에서 윤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의 이유를 ‘아파트투기’·‘직무관련 주식보유’로 보도했다.

이에 윤 예비후보 측에서는 “윤화섭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고,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 측은 “불법이 아닌 사실을 불법으로 단정 지어 보도해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지역 언론사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어 “허위의 사실로 윤화섭 예비후보와 민주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데 따른 책임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라 말했다.

한편 안산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 500여명은 재심위원회가 열리는 26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윤 예비후보 공천배제에 항의하며 공정 경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견을 열었다.

최창규 안산 대동서적 대표는 “윤화섭이 살아야 안산이 발전한다. 영문도 모르는 컷오프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정 경선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열 안산시호남향우회장도 “44년 역사의 안산호남향우회가 후보를 냈는데, 유독 우리 향우들만 배제됐다. 74만 도시에 30만이 우리 향우인데, 안산을 국민의 힘에 넘겨야 하나”면서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향우 430만이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탈당하

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안산은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임시장을 배출하지 못했다”며 “이 결과 도시발전은 뒷전으로 밀렸고, 승승장구하는 인근 도시와 비교돼 낙후된 이미지로 낙인찍혀 74만 안산시민의 자존심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는 “1등 윤화섭 배제하면 경기도도 넘어간다. 윤화섭 컷오프 민주당은 해체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울신문 2022년 5월 4일자 1면〉



## “27년 지켜온 당 떠난다” 눈물, 선거판 요동친다

### 윤화섭 안산시장후보 민주당 탈당…무소속 출마선언

윤화섭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후보로 안산 최초 연임시장에 도전한다고 선언했다.

윤화섭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견고한 연대로 안산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범시민후보로의 출마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11일 연임시장이 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으나, 민주당의 공천배제(컷오프)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다.

윤 후보는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진 정치 현실 앞에 어렵고 고통스런 시간이었지만, 오직 안산시민만을 바라보기로 했다”면서 “오직 안산 발전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7년을 지켜온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공작과 음해 정치를 일삼는 모리배에 휘말려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윤화섭을 경선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막아섰다”며 “그것도 모자라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몰았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주도한 당사자는 8년 전 ‘공천 학살’의 피해자였다. 4년마다 단절되어온 안산 시정의 불행을 몸소 겪은 장본인”이라며 “연임시장을 통한 안산 발전을 염원한 74만 안산시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화섭 후보는 “역사적 사명 앞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74만 안산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운 데에만 몰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화섭 후보는 이날 기아차 광명 소하리 공장 유치와 GTX-C 상록수역 조기 착공 및 역세권 개발, 시립의료원 설립과 고려대 의과대학 안산 캠퍼스 인프라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어르신 무상 건강검진, 반려동물 동행 시설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일각에선 윤후보의 무소속 출마 이후 완주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기자의 ‘정치적 부담과 비판이 상당한데 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완주에 대한 확답은 없이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른 기자의 추후 진보진영과 단일화 여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지금의 진보진영이 어딘지,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단일화를)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끝으로 윤화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고 사랑했지만, 지금 안산의 민주당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윤화섭 현 시장의 무소속출마로 안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송한준·원미정·제종길·천영미 등 4명이 경선을 벌여 제종길 후보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로 3일 안산시장 예비후보자 5명(김석훈, 김정택, 양진영, 이민근, 홍장표)을 불러 심층면접을 진행했고 최종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월신문 2022년 5월 4일자 3면〉

## ☞ 보도내용

### “윤화섭 응원합니다” ... 유명 연예인 지지 선언 잇달아

#### 이재룡·이세창·이문재 등 공개지지

더불어민주당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따른 윤화섭 안산시장 예비후보 지지자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의 윤 예비후보 지지 선언은 줄을 잇고 있다.

윤 예비후보 시민소통 생생캠프는 28일 배우 김태환, 장태훈, 박찬호 등이 윤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김태환은 영화 ‘신라의 달밤’, ‘공공의 적’, ‘비정한 도시’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한 연기파 배우이다.

다고 밝혔다.

김태환은 영화 ‘신라의 달밤’, ‘공공의 적’, ‘비정한 도시’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한 연기파 배우이다.

장태훈은 현재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 출연 중이며, 영화 ‘트릭’과 드라마 ‘야차’, ‘달려라 고등어’ 등을 통해서도 얼굴을 알렸다.

박찬호, 기업인 이세창

개그맨 이문재

박찬호도 영화와 방송을 오가며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배우이다.

앞서 배우 이재룡과 이세창, 개그맨 이문재 등도 윤화섭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 육상 3관왕 임춘애도 27일 윤 예비후보 캠프를 응원차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인적인 친분뿐만 아니라 윤 예비후보가 대중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 높은 식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예비후보는 도의원 시절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에서 6년 이상 활동했으며, 민선 7기 안산시 시장을 이끌면서 ‘김홍도 도시 안산’ 조성에 매진했다.

윤 예비후보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수암 역사예술마을 조성 ▲선부생생권 정사-공원장 조성 ▲안산시립박물관 건립 등을 내놨다.

윤 예비후보는 “유명 연예인의 지지와 응원에 힘 입어 더 좋은 더 넓은 더 행복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충환 기자 banwol6644@daum.net

장태훈은 현재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 출연 중이며, 영화 ‘트릭’과 드라마 ‘야차’, ‘달려라 고등어’ 등을 통해서도 얼굴을 알렸다.

박찬호도 영화와 방송을 오가며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배우이다.

앞서 배우 이재룡과 이세창, 개그맨 이문재 등도 윤화섭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 육상 3관왕 임춘애도 27일 윤 예비후보 캠프를 응원차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인적인 친분뿐만 아니라 윤 예비후보가 대중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 높은 식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예비후보는 도의원 시절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에서 6년 이상 활동했으며, 민선 7기 안산시 시장을 이끌면서 ‘김홍도 도시 안산’

조성에 매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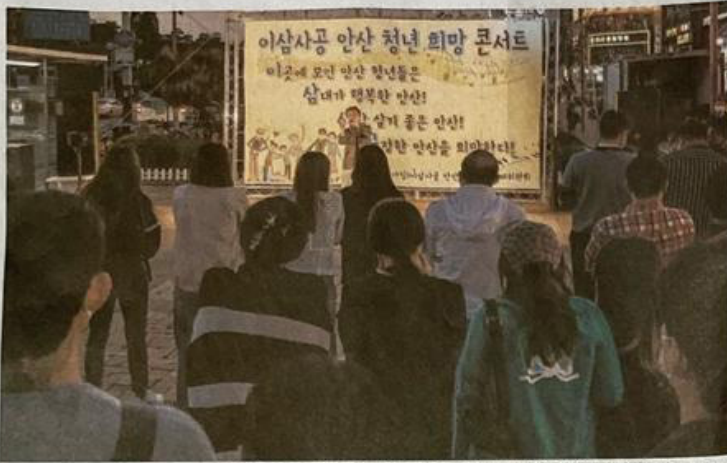
윤 예비후보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수암 역사예술마을 조성 ▲선부생활권 전시·공연장 조성 ▲안산시립박물관 건립 등을 내놴다.

윤 예비후보는 “유명 연예인의 지지와 응원

에 힘입어 더 좋은, 더 넓은, 더 힘찬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년이 안산의 미래다” 이삼사공청년포럼 윤화섭 현 안산시장 ‘범시민후보’ 추대



이삼사공안산청년포럼 주최 희망콘서트가 지난 9일 오후 7시 안산 단원구 고잔동 동서교야광장에서 '청년이 안산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희망콘서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 20~40대 청년들이 안산지역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윤화섭 현 안산시장을 범시민 후보로 추대했다. 청년들은 안산의 남은 정치문화 악순환을 끊고 안산시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연대체를 꾸려 활동하기로 했

다. 이삼사공안산청년포럼 준비위원회는 9일 오후 7시 중앙역 건너편 동서교야광장에서 연대체 출범식과 함께 '청년이 안산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희망콘서트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김태훈 준비위원장은 이날 '선거 때

마다 온갖 구태가 난무하고, 그 책임은 더딘 발전이라는 결과로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는 곳이 안산'이라며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의 미래인 청년들이 모여달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산은 지방자치가 출범한 뒤 4년마다 시장이 바뀌는 불행한 역사가 있다면서 '이 에피로 시장은 단원대 정채웠고, 시민은 분열과 갈등의 후유증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눈이 악순환을 끊을 안립 시장이 필요하다'며 '안산의 미래를 다는 오만하고 낡은 세력에 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 청년세대는 담당할 시민주권 시대를 선포하고, 윤화섭 현 안산시장을 범시민 후보로 추대해 안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범시민 후보 추대 이유로 GTX-C 사실상 유치, 카카오 데이터센터 등 유치로 4차 산업 선도,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 지원, 고래해 9대 유치, 어르신 무상요양, 임신부 100원 행복대시 등 윤후보의 민선 7기 성과를 언급했다. 두 차례 자유발언에서 청년들은 "윤화섭 연립 시장을 통해 구태 정치를 타파하고 안산 발전 이뤄내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삼사공청년포럼은 이날을 시작으로 윤화섭 범시민 후보 추대 서명전을 벌이기로 하고, 현장에서 받은 200여 명의 서명부를 윤화섭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는 "청년들의 열정을 이어받아 6·1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남은 정치 청산, 흔들림 없는 예산 집행으로 74만 시민께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충림기자 banwo6644@daum.net

<반월신문 2022년 5월 11일자 1면>



## 윤화섭 현 안산시장 ‘범시민후보’ 추대

### “청년이 안산의 미래다” 이삼사공청년포럼

안산시 20~40대 청년들이 안산지역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윤화섭 현 안산시장을 범시민 후보로 추대했다.

청년들은 안산의 넓은 정치문화 악순환을 끊고 안산시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겠다고며 연대체를 꾸려 활동하기로 했다. 이삼사공안산청년포럼 준비위원회는 9일 오후 7시 중앙역 건너편 동서코아 광장에서 연대체 출범식과 함께 ‘청년이 안산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희망 콘서트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김태훈 준비위원장은 이날 “선거 때마다 온갖 구태가 난무하고, 그 책임은 더딘 발전이라는 결과로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는 곳이 안산”이라며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의 미래인 청년들이 모였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산은 지방자치가 출범한 뒤 4년마다 시장이 바뀌는 불행한 역사가 있다”면서 “이 여파로 시정은 단절돼 정체됐고, 시민은 분열과 갈등의 후유증으로 진통하는 악순환을 거듭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악순환을 끊을 연임 시장이 필요하다”며 “안산의 미래를 더는, 오만하고 넓은 세력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 청년세대는 당당한 ‘시민주권’ 시대를 선포하고, 윤화섭 현 안산시장을 범시민 후보로 추대해 안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범시민 후보 추대 이유로 GTX-C 사실상 유치, 카카오 데이터센터 등 유치로 4차 산업 선도,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 지원, 고려대 의대 유치, 어르신 무상교통,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등 윤 예비후보의 민선 7기 성과를 언급했다. 두 차례 자유발언에서 청년들은 “윤화섭 연임시장을 통해 구태 정치를 타파하고 안산 발전 이뤄내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삼사공청년포럼은 이날을 시작으로 윤화섭 범시민 후보 추대 서명전을 벌이기로 하고, 현장에서 받은 200여 명의 성명부를 윤화섭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는 “청년들의 염원을 이어받아 6·1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넓은 정치 청산, 흔들림 없는 안산 발전으로 74만 시민께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반월신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경기 안산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 관련 의혹 제기, 출마선언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4월 27일자 1면 「제종길 비서실장 비리의혹 원미정 천영미 음주전과, 컷오프 통과 의문 제기」 등 5건)한 반면, 다른 후보자에 대

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반월신문 5월 31일자 1면>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62
언론사	주식회사 창녕신문(창녕신문)
심의대상	<p>창녕신문 (1) 4월 26일자 1면 「한정우 창녕군수, “특정인 공천주려고 나를 컷오프 한 것!», (2) 4월 26일자 1면 「한정우 창녕군수 ‘조해진은 밀실공천 취소하라’ 단식 농성 돌입», (3) 4월 26일자 3면 「한정우 창녕군수 재선 도전...6.1. 지방선거 군수 출마 선언», (4) 4월 26일자 7면 「창녕군민 일부, “한정우 군수의 재선을 지지합니다.», (5) 5월 15일자 1면 「한정우 창녕군수 무소속 출마선언», (6) 5월 15일자 1면 「한정우 군수후보 개소식 ‘올 사람은 다 왔다’ 역대급 인파와 화환 ‘물결’, (7) 5월 15일자 2면 「한정우 창녕군수,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만나...“공정 회복 도와주실 것, 창녕-대구 미래 육성 논의”, (8) 5월 15일자 5면 「한정우는 무소속 출마해 군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울 것을 명령한다!」 제하의 기사</p>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li> <li>2. 주식회사 창녕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창녕신문 1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은 심의대상기사(1)의 부제 &lt;한정우 창녕군수, “이게 뭘 일이나? 공정이고 상식인가?”&gt;와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1)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li> </ol>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남 창녕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 관련 의혹 제기, 출마선언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창원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 관련 의혹 제기, 출마선언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4월 26일자 1면 「한정우 창원군수, "특정인 공천주려고 나를 킷오프 한 것!"」 등 8건)한 반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 한정우 창녕군수, “특정인 공천주려고 나를 컷오프 한 것!”



국민의힘 경남도 공천관리위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위의 현직 창녕군수를 컷오프했다. 당사자는 물론 창녕 군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일부 젊은 층 군민들은 6년 전 조해진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컷오프 당한 직후, 한 발언 영상을 올려 조롱까지 하고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22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지지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 및 조해진 밀실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게 뭐야? 공정이냐? 상식인가?” “2년 전부터 나뉜 소문이 현실로 나타났다!” “중앙당 공관위 재심 반복 안 되면 군민 판단 받겠다” 네티즌들 “일등인 현역의원 배제는 민의배반” 6년 전 조 의원 발언 영상 올려 비난

한정우 창녕군수, “이게 뭐 일이나? 공정이고 상식인가?” “2년 전부터 나뉜 소문이 현실로 나타났다!” “중앙당 공관위 재심 반복 안 되면 군민 판단 받겠다” 네티즌들 “일등인 현역의원 배제는 민의배반” 6년 전 조 의원 발언 영상 올려 비난



소문이 일더니면서 무소속 총리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도 승산이 있더라 4년동안 군수직을 수필하면서 살아 5% 일하고 있다. 여론조사 6%도 1위를 하고 있는 현직 군수를 권선에 포함 시키지 않는 것은 무리가 클터라 있지 않나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군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조의원을 컷오프하고 있다. 규약속 변경안

창녕군민들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군수로 경선 밀실공천을 규탄하며 “우리 창녕은 조해진에서 나온 소문 허풍선이 공천을 갖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기자 18명이 연대해 조해진 의원에게 공천관련 피소문장과 공천 결정 입장을 공개질의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당의 재심 절차의 결과를 보고 군민과 함께 모여 입장을 통틀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 군수는 “민심이 곧 천심인데, 여론 1위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컷오프 시킨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세상 어디에도 민심을 이기는 정치권력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해진 의원을 에둘러 맹비난했다.

창녕 군민들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군수 후보 경선 밀실공천을 규탄하면서 “우리 창녕은 2년 전부터 나뉜 소문(특정인이 공천 받을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기자 18명이 연대해 조해진 의원에게 공천 관련 피소문 등과 공천 경선 입장을 공개질의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당의 재심 절차와 결과를 보고 군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창녕신문 2022년 4월 26일자 1면〉

## ☞ 보도내용

### 한정우 창녕군수, “특정인 공천주려고 나를 컷오프 한 것!”

### 한정우 창녕군수, “이게 뭐 일이나? 공정이고 상식인가?”

### “2년 전부터 나뉜 소문이 현실로 나타났다!”

### ‘중앙당 공관위 재심 반복 안 되면 군민 판단 받겠다’

### 네티즌들 ‘일등인 현역의원 배제는 민의배반’ 6년 전 조 의원 발언 영상 올려 비난

국민의힘 경남도 공천관리위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위의 현직 창녕군수를 컷오프하자, 당사자는 물론 창녕 군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일부 젊은 층 군민들은 6년 전 조해진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컷오프 당한 직후 한 발언 영상을 올려 조롱까지 하고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22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지지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 및 조해진 밀실공

### 천 규탄 집회를 가졌다.

한정우 창녕군수 “여론조사 1위 현직 군수를 배제한 공천은 특정인 주기 위한 술수”라며 강력 성토했고 있다.

한 군수는 “이번 공관위 컷오프는 특정인에게 공천주기 위한 술수로 승복할 수 없다”며 “이 시대정신인 공정과 상식은 결코 역행할 수 없다”고 목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 군수는 “민심이 곧 천심인데, 여론 1위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컷오프 시킨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세상 어디에도 민심을 이기는 정치권력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해진 의원을 에둘러 맹비난했다.

창녕 군민들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군수 후보 경선 밀실공천을 규탄하면서 “우리 창녕은 2년 전부터 나뉜 소문(특정인이 공천 받을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기자 18명이 연대해 조해진 의원에게 공천 관련 피소문 등과 공천 경선 입장을 공개질의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당의 재심 절차와 결과를 보고 군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한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점심도 거른 채 중앙당 공심위를 찾아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 전, 군민 A모 씨는 “이달곧야! 윤석열 당선자가 그리하라고 시켰느냐. 민주적 공천을 해야 하는데 밀실공천은 새끼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핏대를 세워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군수의 컷오프 소식에 일부 군민들은 “조 의원은 대체 무슨 이유로 현 군수를 컷오프 시켰느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젊은 네티즌들은 2016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컷오프를 당한 직후 조 의원이 한 발언 영상을 찾아 페이스북 등에 공유해 조국 사태를 빚대 ‘창녕의 조적조(조해진의 적은 조해진)’라며 비아냥을 보내고 있다.

2016년 3월, 새누리당 경선 컷오프를 당한 직후 조해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일등인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나머지를 경선에 붙이는 공천은 민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밀실공천이고 보복공천”이라고 당 지도부를 향해 쏘아붙인 바 있다.

한 군수는 1차적 재심 통해서 여론조사 1위와 초선 현직 군수를 왜 컷오프 시키냐, 경선 참여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상식을 만드는 선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며, 재심에서 이뤄지면 최선 다할 것이고 안 되면 저를 지지하는 군민들과 의논해서 군민들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또한 한 군수는 창녕읍 진마트 앞에서 천막농성을 무기한하면서 지난 25일 탈진한 상태로 119에 실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대부분 군민들은 불공정을 고수하고 있는 조 의원을 질타하면서 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도 승산이 있다며 4년 동안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공약 98% 잘하고 있다.

여론조사 60%로 1위를 하고 있는 현직 군수를 경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무언가 결탁이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군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조 의원을 질타하고 있다.



〈창녕신문 2022년 4월 26일자 1면〉

## ☞ 보도내용

### 한정우 창녕군수 '조해진은 밀실공천 취소하라' 단식 농성 돌입

한정우 창녕군수 '조해진은 밀실공천 취소하라' 단식 농성 돌입  
 “여론조사 1위, 군정수행평가 58.5% 현직 컷오프 기준이 뭐냐?”  
 일부 군민들, 조해진 6년 전 발언 영상과 사무실 입구 근조화로 '반발 표출'

여론조사 1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창녕군수 경선에서 컷오프 당한 한정우 창녕군수가 '조해진은 밀실공천을 취소하고 공정 경선을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 군수는 23일 오후 4시부터 창녕군청 앞 조해진 의원 사무실이 마주 보이는 진마트 주차장에서 지지자들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에 들어갔다.

한 군수는 지난 22일, 경남도당 앞에서 가진 '밀실야합공천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에서 “민

나 앞서고, 군정수행 평가에도 군민들의 절반이 넘는 58.5%의 호평을 받고 있는 한 군수를 나를 경쟁 기회마저 박탈하는 컷오프를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고 울분을 토했다.

한정우 군수가 작성하면서 차분한 표정으로 맞은 편 조해진 의원 사무실을 바라보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 군수는 “경선 컷오프는 특강인물 주기 위한 술수”라며 “2년 전부터 공공연히 나쁜 소문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 군수는 이날 중앙당 공신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경선여론조사 헌인 25일경 ‘인용’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1위 현직군수를 컷오프 왜 시켰나?” 일부 군민들이 조해진 사무실 입구에 조화 시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조해진 사무실 앞에 조화를 갖다 놓는 등 조해진 의원이 밀실공천에 대한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또한, 6년 전 조 위원이 새누리당 공천 컷오프 직후, 기자회견 당시 한 발언 영상이 페이스북과 SNS로 퍼져나가

한정의 조해진주요 원동력 ‘빛던’ 탄에 ‘하는 신조어까지 들려나오고 있다.’ 경남 창녕군 한정우 군수, ‘조해진 의

원 탄에는 무엇이냐? 과거는 잊었는가?”

“군민들, “조해진 의원 동생 윤치과 공이 지출에 대해 공들이 생략하게 조사하라”

국민의힘, 경남도 공천관리회가 지난 21일 창녕 군수 경선 후보에 김부영·공용관 인도의원과 심훈석 현 군의원 3명을 경선 후보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정우 한 군수를 비롯한 군민들이 일제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 장소에서 창녕군 한정우 군수는 “약 2년에 전부터 조해진 국회의원 동생 조오 씨(56)가 지역구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조해진 지어 정학에 대한 탄정을 표적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역시 소문대로 됐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 군수는 “조해진 의원에게서 아무런 지위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숙 편집인

심을 거스르는 권력은 없다”며 “여론조사에서 2위보다 16%나 앞서고, 군정수행평가에서도 군민들의 절반이 넘는 58.5%의 호평을 받고 있는 현 군수인 나를 경쟁 기회마저 박탈하는 컷오프를 시킨 이유가 무엇이나”고 울분을 토했다.

한정우 군수가 착잡하면서 차분한 표정으로 맞은 편 조해진 의원 사무실을 바라보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 군수는 “경선 컷오프는 특강인물 주기 위한 술수”라며 “2년 전부터 공공연히 나돌던 소문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 군수는 이날 중앙당 공심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경선여론조사 전인 25일경 ‘인용’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1위 현직 군수를 컷오프 왜 시켰나?” 일부 군민들이 조해진 사무실 입구에 조화 시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조해진 사무실 앞에 조화를 갖다 놓는 등 조해진 의원의 밀실 공천에 대한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또한, 6년 전 조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 컷오프 직후, 기자회견 당시 한 발언 영상이 페이스북과 SNS로 퍼져

나가 '창녕의 조적조(조국 전 장관 빗댄 단어)'라는 신조어마저 들려나오고 있다.

경남 창녕군 한정우 군수, "조해진 의원 당선 때는 좋았는가? 과거는 잊었는가?"

군민들... "조해진 의원 동생 행적과 경비 지출에 대해 경찰이 명확하게 조사하라"

국민의힘 경남도 공천관리위가 지난 21일 창녕 군수 경선 후보에 김부영·권유관 전 도의원과 김춘석 현 군의원 3명을 경선 후보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 현 한정우 군수

를 비롯한 군민들이 일제히 성토했고 나섰다.

이날 집회 장소에서 창녕군 한정우 군수는 "약 2년여 전부터 조해진 국회의원 동생 조 모 씨(56)가 지역구에서 사무국장 회의를 소집해 지역 정책에 대한 안건을 토의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역시 소문대로 됐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조 모 씨는 국힘 조해진 지역구에서 아무런 직책을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정우 창녕군수 재선 도전.... 6. 1. 지방선거 군수 출마 선언

### 코로나19 이후 대비 50년 미래 신산업 육성 농업 6차 융복합 산업과 스마트팜 구축,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초광역권 스마트 강소 도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한정우 창녕군수가 13일, 창녕군 청 브리핑룸에서 '혁신과 도약의 더 큰 창녕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6. 1. 지방선거 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한 군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창녕의 경제성장'과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및 신용 회복, 청년 일자리 확보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질벽 문제를 해결하고 50년 미래 창녕의 신산업을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50년 미래 창녕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 6차 융복합 산업지구 유치와 ▲3세대 스마트팜으로 창녕 농가 1억 소득 시대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등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합산단산업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 IC,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을 비롯한 남지 합강대교 건설, ▲창녕 부곡-창원 복면

(국도 79호선) 개설 등 사통팔달 대경권-동남권 광역교통망 중심 창녕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꼭 재선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빅데이터 기반의 주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에 걸맞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지킴이 CCTV 설치 확대, ▲고령층 장애인 활택시 확대, ▲야간 연장 보육시설을 확충

하는 등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도 펼칠 것이라 강조했다.

한 군수는 "여당의 힘으로 속도감 있게 창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소통할 수 있고, 첫날부터 능숙하게 군정을 이끄는 재선 군수여야 한다"며, "창녕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민선 7기 군정 운영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일꾼, 위기에 단련된 실력 있는 일꾼으로 군민들에게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 한정우 창녕군수 재선 도전.... 6.1. 지방선거 군수 출마 선언

코로나19 이후 대비 50년 미래 신산업 육성  
농업 6차 융복합 산업과 스마트팜 구축,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초광역권 스마트 강소 도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한정우 창녕군수가 13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혁신과 도약의 더 큰 창녕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6.1. 지방선거 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한 군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창녕의 경제성장과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및 신용 회복, 청년 일자리 확보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50년 미래 창녕의 신산업을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50년 미래 창녕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 6차 융복합 산업지구 유치와 ▲3세대 스마트팜으로 창녕 농가 1억 소득 시대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

원하고, 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등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합산단산업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IC,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을 비롯한 남지 합강대교 건설, ▲창녕 부곡~창원 북면(국도 79호선) 개설 등 사통팔달 대경관·동남권 광역교통망 중심 창녕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꼭 재선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빅데이터 기반의 주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에 걸맞은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지킴이 CCTV 설치 확대, ▲고령층 장애인 콜택시 확대, ▲야간 연장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도 펼칠 것이라 강조했다.

한 군수는 "여당의 힘으로 속도감있게 창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소통할 수 있고, 첫날부터 능숙하게 군정을 이끄는 재선 군수여야 한다"며, "창녕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민선 7기 군정 운영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일꾼, 위기에 단련된 실력 있는 일꾼으로 군민들에게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 창녕군민 일부, “한정우 군수의 재선을 지지합니다”

## 창녕 농가소득 억원시대 열고, 군민생명 먼저 챙긴 군수



창녕군민 일부가 현 한정우 창녕군수의 재선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위경 물개서원 이사장을 비롯한 군민 50여명이 14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현 한정우 군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성위경 물개서원 이사장이 ‘한정우 군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이들을 대표해 발표한 지지성명에서 “한 군수는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 사법부 공무원을 퇴직하고 법무사에 종사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봉사의 손길을 나눔으로 농업인의 권리 신장과 이익을 안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들은 또 “한 군수는 2019년 2월 코로나 창궐 당시, 군수실에서 33일간 숙식을 하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며 “2020년 이방면 낙동강 제방 붕괴시에도 ‘공사비 걱정 말고 독부터 막아라’며 농민들의 피같은 농토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곁에서 듣고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한 군수는 창녕군민의 소원인 농가 소득 1억원 시대를 달성한 분”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군민을 가족처럼 다정 다감하게 살피주시는 군수이기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군수는 도내 최초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김병준 균형발전 위원장을 만나 창녕군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발빠른 행정을 보여주기도 했다면서 일 잘하는 군수가 최고라고도 했다.

〈창녕신문 2022년 4월 26일자 7면〉

### ☞ 보도내용

## 창녕군민 일부, “한정우 군수의 재선을 지지합니다”

### 창녕 농가소득 억 원 시대 열고, 군민생명 먼저 챙긴 군수

창녕군민 일부가 현 한정우 창녕군수의 재선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위경 물개서원 이사장을 비롯한 군민 50여 명이 14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현 한정우 군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성위경 물개서원 이사장이 ‘한정우 군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이들을 대표해 발표한 지지성명에서 “한 군수는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 사법부 공무원을 퇴직하고 법무사에 종사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봉사의 손길을 나눔으로 농업인의 권리 신장과 이익을 안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들은 또 “한 군수는 2019년 2월 코로나 창궐 당시, 군수실에 33일간 숙식을 하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며 “2020년 이방면 낙동강 제방 붕괴 시에도 ‘공사비 걱정 말고 독부터 막아라’며 농민들의 피 같은 농토를 지켜

야 한다는 말을 곁에서 듣고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한 군수는 창녕군민의 소원인 농가 소득 1억 원 시대를 달성한 분”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군민을 가족처럼 다정다감하게 살피

주시는 군수이기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군수는 도내 최초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김병준 균형발전 위원장을 만나 창녕군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발 빠른 행정을 보여주기도 했다면서 일 잘하는 군수가 최고라고도 했다.

## 한정우 창녕군수 무소속 출마선언

“공정한 창녕없이 정의로운 군민의 삶도 없어”  
 “단체장, 기초광역 공천 탈락자들 당헌 당규 무시 전략공천 분개”  
 6.1지방선거 창녕군수 무소속 출마를 선언



한 창녕군수가 지난 9일 “공정한 창녕 없이 정의로운 군민의 삶도 없다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공정하고 상식적인 창녕을 위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 음모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무소속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1위의 현역 군수를 쫓아내지 말라는 군민의 뜻을 국민의 힘 도당과 중앙당에 전달 하고자 단식투쟁까지 하였지만 조해진 의원의 집요한 방해로 결과를

되돌릴수 없었다 하고 이번 불공정 경선의 본질을 조해진의 자기사람 공천주기의 반복 경우 지역의 일꾼들은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며 군민에게는 갑질하게 될 것이라며 군민을 무시워 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오만 불손한 태도를 군민이 정확히 보고, 심판해달라 호소하면서 “오직 창녕의 주인은 창녕군민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한

정우 군수와 무소속 연대를 밝히면서 모두들 국민의 힘 당지를 보유하고 있고 열심히 당을 위해 충헌한 자들로서 이번 선거에서 한정우 후보와 합류 하여 꼭 필승을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권유관 후보는 억울함을 군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하고 임재문, 신용근, 홍성두, 이해구, 장의용, 추영엽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에 합류했다.

〈창녕신문 2022년 5월 15일자 1면〉

### 한정우 창녕군수 무소속 출마선언

“공정한 창녕 없이 정의로운 군민의 삶도 없어”  
“단체장, 기초광역 공천 탈락자들 당헌 당규  
무시 전략공천 분개”

#### 6.1 지방선거 창녕군수 무소속 출마를 선언

현 창녕군수가 지난 9일 “공정한 창녕 없이 정의로운 군민의 삶도 없다”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공정하고 상식적인 창녕을 위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 음모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무소속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1위의 현역 군수를 컷오프하지 말라는 군민의 뜻을 국민의힘 도당과 중앙당에 전달하고자 단식투쟁

까지 하였지만 조해진 의원의 집요한 방해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하고 이번 불공정 경선의 본질을 조해진의 자기사람 공천주기이며 앞으로 이런 방식의 공천이 반복될 경우 지역의 일꾼들은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며 군민에게는 갑질하게 될 것이라며 군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군민이 정확히 보고, 심판해달라 호소하면서 “오직 창녕의 주인은 창녕 군민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한정우 군수와 무소속 연대를 밝히면서 모두들 국민의 힘 당직을 보류하고 있고 열심히 당을 위해 충헌한 자들로서 이번 선거에서 한정우 후보와 합류하여 꼭 필승을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권유관 후보는 억울함을 군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하고 임재문, 신용근, 홍성두, 이해구, 장의용, 추영엽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에 합류했다.



국힘 중앙당이 공표한 공천을 방식대로 공천 경선 참여 기회도 갖지 못하고 탈락한 신용근 도의원과 추영엽 이재구 홍성두 장희용 서창호 김경 군의원 후보들도 한정우 후보와 함께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반조해진' 전선을 형성해 군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를 다져 선거 결과에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우 후보는 “이번 공천 과정 공정했나 상식적이었나 정의로왔나면서, 공천 과정서 저를 컷오프시킨 것은 특정인을 공천주기 위한 꼼수 술수다”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군민 마음이고 민심인데 민심 무시하는 정치인 있어야 되느냐”며 조해진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한 후보는 “민심은 바다와 같아 배를 띄울 수도 얹어버릴 수도 있다. 잘못된 공천에 군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창녕의 주인은 군민인데, 주인 무시하는 처사가 있어서 되겠느냐,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 공천 잘못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한 후보는 또 “오전에 홍준표 대구 시장 후보와의 통화에서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지만, 군민 마음을 얻어 꼭 재선에 성공하라. 창녕 농특산물 대구에 판매해주고, 대합일원에 물류기지 농축산물 제조가공 공장 조성 등 대구시의 배후 도시로 만들어줄 것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책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관련된 사람이 절대 피해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군수 취임 2년도 안되어 반대 고소고발 5건 청와대 청원 1건으로 흔들었지만, 올해 3월 31일 전부 혐의 없음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정치인이 주는 사천보다는 군민들께서 깨끗한 마음을 받겠다”며 “주변에서 ‘창녕발전위해 한 번은 더 해야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군민들과의 약속, 지역숙원사업 마무리를 위해 한 번 더 힘을 실어 달라”고 출마의 변을 마쳤다.

이상조 전 밀양시장은 축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 지 맘대로 컷오프시켜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의힘 당원인 내가 한 군수 축하하러 온 것은 무소속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나 싶어 나 한 명이라도 채워주자는 마음에서 왔다”고 말해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병희 도의원은 “창녕은 공천작살을 냈다. 어느 누가 무슨 권한으로 한정우 공천을 작살 냈느냐?”면서 “창녕군민들께서 힘을 모아 횡포를 부린 자를 심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한정우 후보가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한편, 2030청년 50여 명은 역대급 인파가 모인 개소식 주변 교통 정리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돕고, 수백개의 화환 정리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사무실 밖에서 내리는 비 맞으며 본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축사와 후보자 출마의 변을 지켜보던 일부 지지자들은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은 처음 봤다”면서 “올 사람은 다 온 것 같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 한정우 창녕군수,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만나… "공정 회복 도와 주실 것, 창녕-대구 미래육성 논의"

洪 "고향 창녕 불공정한 공천과정 심각하게 걱정… 군민 현명한 판단 기대"  
조해진의 집요한 훼방과 정치공작, 돌려받아야 공정할 것  
당선 즉시 국민의힘 복당, 무소속 당선자 복당 못한 전례 없어

불공정 경선 컷오프를 이유로 6.1 지방선거 창녕군수 무소속 후보로 출마 선언한 한정우 현 창녕군수는 지난 14일 토요일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만났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님께서 국민의힘 창녕군수 및 기초광역의원 공천과정의 공평하지 못했다고 걱정해주셨다. 고향인 창녕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한 데에 심각하게 우려하며 창녕

군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해진 의원의 전횡상은 무려 20여년 정치공작과 불법적인 공천 개입을 지속시킨 것만 해도, 또 조의현 의원은 경선보장과 중앙당의 후원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몇몇 군수 당선자가 컷오프 사유조차 듣지 못하도록 집요한 훼방을 쳤는데 그에 상응하는 직

임을 저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 군수는 "그동안 고향 창녕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오셨던 홍준표 후보님과 대구-창녕의 50년 미래를 함께 그려가기로 공감했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미래 대구-창녕 50년의 구상과 비전'을 발표하겠다"며 "창녕군민이 체감하는 생활권역 인프라 확장과 삶의 질 개선을 생활권역이 신속하게 집행해가겠다"고 밝혔다.



〈창녕신문 2022년 5월 15일자 2면〉

### ☞ 보도내용

## 한정우 창녕군수,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만나… "공정 회복 도와주실 것, 창녕-대구 미래육성 논의"

洪 "고향 창녕 불공정한 공천과정 심각하게 걱정… 군민 현명한 판단 기대"

조해진의 집요한 훼방과 정치공작, 돌려받아야 공정할 것

당선 즉시 국민의힘 복당, 무소속 당선자 복당 못한 전례 없어

불공정 경선 컷오프를 이유로 6.1. 지방선거 창녕군수 무소속 후보로 출마 선언한 한정우 현 창녕군수는 지난 14일 토요일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만났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님께서 국민의힘 창녕군수 및 기초광역의원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걱정해주셨다. 고향인 창녕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는데에 심각하게 우려하며 창녕군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격려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해진 의원의 친동생은 무려 2년여 간 정치공작과 불법적인 공천 개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조 의원 본인은 경남도당과 중앙당의 공천 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현직 군수 당사자가 컷오프 사유조차 듣지 못하도록 집요한 훼방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저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 군수는 "그동안 고향 창녕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오셨던 홍준표 후보님과 대구-창녕의 50년 미래를 함께 그려가기로 공감했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미래 대구-창녕 50년의 구상과 비전'을 발표하겠다"며 "창녕군민이 체감하는 생활권역 인프라 확장과 삶의 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가겠다"고 밝혔다.

당선 이후의 복당에 대해서도 "당선 즉시 20여년간 지켜온 당에 복당할 것이다. 18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무소속 당선자가 복당하지 못한 사례가 없었다"며 "심지어 지금 조해진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였다가 복당한 장본인인데 무슨 명분으로 당선자 복당을 막을 수 있나"라고 설명했다.

## 한정우는 무소속 출마해 군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울 것을 명령한다!

물계서원 성위경 이사장등 군민들, 출마 촉구 기자회견  
 “2년전부터 누구의 동생과 함께 한 다닌 사람 공천..”

신용곤 도의원 “전략공천할려면 시험은 왜 치게하고 심사비 210만원은 왜 챙겼냐.”

국민의힘이 한정우 현 군수를 경선에 컷오프 시킨 데 대한 군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극에 달하고 있다. 광역기초의원 전략 공천과 관련한 예비후보들과 가족, 지지자들의 조해진 의원에 대한 공세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성위경 물계서원 이사장은 2일 오전 11시, 창녕군청 앞 한 군수 단식농성장 앞에서 군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조해진 의원이 무슨 근거로 컷오프시켰는지 대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이사장은 “2년전부터 누구의 동생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닌 사람이 ‘내가 공천 받는다. 내가 된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고 실마를 봤다”며 “경선결과를 보니 ‘혹시나’가 ‘역시나’였고, 세상에 정치를 이따위 권모술수와 음해공작을 하는 모리배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성토했다.

성위경 물계서원 이사장(아래)이 ‘한정우 군수’ 컷오프를 규탄하면서 출마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또 “창녕발전에 풀 한



“조해진은 여론조사 선두에 공약이행률 97.8%, 3년간 군민만족도 87.6%로 군민을 섬겨온 현 한정우 군수를 무슨 근거로 컷오프 시켰는지 대답하라!” “전략공천 할거면 시험은 왜 치게하고 공천심사비 210만원은 왜 챙겼냐(신용곤 도의원)”

포기 둘 헌법이 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인들이 머릿속에 자기네를 협잡 정치 높음함 생각만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며 조해진 의원을 향해 비수를 던지기도 해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게 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정병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민의 공경하고 상식적인 삶도 없다”면서 “한정우 군수는 정치 모리배들의 협잡 정치에 맞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군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워 줄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현장을 찾은 이들과 입을 모았다.

성 이사장은 “조해진이가 창녕군

수는 참신하고 새로운 사람을 공천했다고 말했다는 데, 나는 그 사람이 현군수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말입니까? 답니까? 조해진은 3선 시켰잖더니 창녕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박근혜 탄핵시 탈당해 민주당과 손잡고 그 당새 당을 배신하지 않았느냐. [조해진이가]윤석열 정부도 배신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곤 도의원은 “전략공천을 한 거면 중앙당 불대로 응시비 10만원에 시험을 왜 치게 했고, 공천심사비 210만원(기초의원 110만원)은 왜 받았냐”면서 깃대를 세우기도 했다.

〈창녕신문 2022년 5월 15일자 5면〉

### ☞ 보도내용

## 한정우는 무소속 출마해 군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울 것을 명령한다!

물계서원 성위경 이사장 등 군민들, 출마 촉구 기자회견

“2년 전부터 누구의 동생과 함께 다닌 사람 공천..”

신용곤 도의원 “전략 공천할거면 시험은 왜 치게 하고 심사비 210만원은 왜 챙겼냐.”

국민의힘이 한정우 현 군수를 경선에 컷오프 시킨 데 대한 군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광역기초의원 전략 공천과 관련한 예비후보들과 가족, 지지자들의 조해진 의원에 대한 공세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성위경 물계서원 이사장은 2일 오전 11시, 창녕군청 앞 한 군수 단식농성장 앞에서 군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조해진 의원이 무슨 근거로 컷오프시켰는지 대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이사장은 “2년 전부터 누구의 동생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내가 공천받는다. 내가 된다느니'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고 설마설마했다"며 "경선 결과를 보니 '혹시나'가 '역시나'였고, 세상에 정치를 이따위 권모술수와 음해공작을 하는 모리배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성토했다.

성위경 물레서원 이사장이 '한정우 군수' 컷오프를 규탄하면서 출마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또 "창녕 발전에 풀 한포기 돌 한덩이 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인들이 머릿속에 자기네들 협잡 정치 놀음할 생각만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며 조해진 의원을 향해 비수를 던지기도 해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게 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창녕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민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삶도 없다"

면서 "한정우 군수는 정치 모리배들의 협잡 정치에 맞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군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워줄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현장을 찾은 이들과 입을 모았다.

성 이사장은 "조해진이가 창녕군수는 참신하고 새로운 사람을 공천했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현 군수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말이 됩니까? 조해진은 3선 시켜놨더니 창녕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박근혜 탄핵시 탈당해 민주당과 손잡고 그 당시 당을 배신하지 않았느냐. (조해진이가) 윤석열 정부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곤 도의원은 "전략공천을 할 거면 중앙당 룰대로 응시비 10만원에 시험을 왜 치게 했고, 공천심사비 210만원(기초의원 110만원)은 왜 받았냐"면서 핏대를 세우기도 했다.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재심3 {원결정 제8회 지선-자심62}
재심청구인	주식회사 창녕신문(창녕신문)
재심청구대상	창녕신문 (1) 4월 26일자 1면 「한정우 창녕군수, “특정인 공천주려고 나를 컷오프 한 것!”», (2) 4월 26일자 1면 「한정우 창녕군수 ‘조해진은 밀실공천 취소하라’ 단식 농성 돌입», (3) 4월 26일자 3면 「한정우 창녕군수 재선 도전...6.1. 지방선거 군수 출마 선언», (4) 4월 26일자 7면 「창녕군민 일부, “한정우 군수의 재선을 지지합니다”», (5) 5월 15일자 1면 「한정우 창녕군수 무소속 출마선언», (6) 5월 15일자 1면 「한정우 군수후보 개소식 ‘올 사람은 다 왔다’ 역대급 인파와 화환 ‘물결’», (7) 5월 15일자 2면 「한정우 창녕군수,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만나...“공정 회복 도와주실 것, 창녕-대구 미래육성 논의”», (8) 5월 15일자 5면 「한정우는 무소속 출마해 군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울 것을 명령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제8회 지선-자심62 결정과 관련하여 취소를 구한다.
이유	<p>1. 재심청구인의 주장</p> <p>재심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대상기사들은 후보 측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발행 시기에 배포된 해당 후보 측 보도자료가 많아 보도량이 많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원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p> <p>2. 판단</p> <p>원심이 결정의 근거로 삼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는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의 공정보도의무에 근거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형평성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p> <p>이를 토대로 재심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 살펴건대, 신문 발행 시기에 특정 후보자가 보도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배포하여 해당 후보자에 대한 보도량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후보자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신문에 무엇을 공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주장할 만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p>

여기에 더하여, 선거일 직전에 발행한 신문 1면에 특정 후보와 경쟁 후보 1인의 기사를 나란히 게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제재조치의 이유로 삼았던 선거 기사 양적, 질적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유

###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제8회 지선-지심62) 결정은 정당하고, 해당 결정 이후 이를 파기하거나 변경해야 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후 보도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창원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 관련 의혹 제기, 출마선언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4월 26일자 1면 『한정우 창원군수, “특정인 공천주려고 나를 컷오프한 것!』 등 8건)한 반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

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창녕신문 2022년 6월 28일자 1면>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63</b>
<b>언론사</b>	주식회사 중앙신문(중앙신문)
<b>심의대상</b>	중앙신문 (1) 5월 9일자 12면 「건강하고 보람있는 어르신 삶 지원」, (2) 5월 11일자 12면 「“모든 쉼터형 버스정류장 운행정보 구축”」, (3) 5월 13일자 12면 「유정복 시장 후보 선대위 출범… “지방정권 교체할 것”」, (4) 5월 17일자 10면 「“코로나 피해 16만 자영업자 실질 보상”」, (5) 5월 19일자 12면 「“임기 중 매립지 종료·대체매립지 조성”」, (6) 5월 24일자 12면 「“제물포·주안·도화역 역세권 활성화 추진”」, (7) 5월 25일자 10면 「“맞춤형 촌촘·두툼 복지… 따뜻한 동행”」 제하의 기사
<b>주 문</b>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중앙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신문 인천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은 심의대상기사(1)의 부제 <국힘 유정복 시장후보 공약 발표>와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1)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
<b>이 유</b>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자의 공약은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여러 차례 부각 보도(5월 9일자 12면 「건강하고 보람있는 어르신 삶 지원」 등 7건)한 반면, 다른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 “건강하고 보람있는 어르신 삶 지원”

### 국힘 유정복 시장후보 공약 발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8일 석가탄신일이자 어버이날을 맞아 건강하고 보람있는 어르신 삶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유정복 후보는 이날 법명사·수도사·홍륜사·수미정사·호불사·보명사 등 사찰을 순회한 뒤 선학파크골프장을 방문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보람있고 영속성 있는 일자리 제공, 3대가 거주하는 가정에 행복수당 지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후보는 또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해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개발시 실버타운을 조성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민간 치매기관을 시립으로 지정하는 등 치매전담병원 수를 늘린다.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 도시농업 확대와 함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이어 파크골프장 구별 1곳 이상 설치, 힐링종합센터건립, 제2의료원 설립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치료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한다.

유정복 후보는 “땀과 열정으로 산업화를 일으켜 오늘날의 10대 경제대국으로 키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종 건강 증진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용우선임기자

(11.2\*11.7)cm

<중앙신문 2022년 5월 9일자 12면>

### ☐ 보도내용

## “건강하고 보람있는 어르신 삶 지원”

### 국힘 유정복 시장후보 공약 발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8일 석가탄신일이자 어버이날을 맞아 건강하고 보람있는 어르신 삶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법명사·수도사·홍륜사·수미정사·호불사·보명사 등 사찰을 순회한 뒤 선학파크골프장을 방문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보람 있고 영속성 있는 일자리 제공,

3대가 거주하는 가정에 행복수당 지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후보는 또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해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개발시 실버타운을 조성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민간 치매기관을 시립으로 지정하는 등 치매전담병원 수를 늘린다.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 도시농업 확대와 함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이어 파크골프장 구별 1곳 이상 설치, 힐링종합센터 건립, 제2의료원 설립 등 어르

신들의 건강 증진과 치료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한다.

유정복 후보는 “땀과 열정으로 산업화를 일으켜 오늘날의 10대 경제대국으로 키우신 어른

들께서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종 건강 증진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중앙신문

### “모든 쉐터형 버스정류장 운행정보 구축”

####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을 모든 쉐터형 정류장으로 확대해 설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천에는 6천67개의 정류장이 있고 이 가운데 쉐터형 정류장이 3천843개, 버스 표지판만 세워있는 지주형 정류장이 2천244개가 있다.

유정복 후보는 “이 중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은 쉐터형 정류장 2천809개에 설치돼 있으나 앞으로 나머지 1천

34개에도 확대 설치한다”고 약속했다.

또 쉐터형 정류장 500곳을 와이파이와 냉온시스템이 가능한 스마트 쉐터로, 지주형 승강장 500곳을 쉐터형으로 각각 전환하는 한편 장거리 버스 노선의 길이를 줄이고 굴곡 노선을 펴며 아파트 신축 등 수요자 중심으로 노선을 개편하는 등 버스이용 편의를 높인다. 전체 버스 2265대가운데 여전히 경유차인 161대의 버스를 전기차 또는 수소 차로 교체한다.

인천 택시 이용률 제고 위해 공공 앱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정복 예비후보

2022년 05월 11일  
12면 (수도권)

인천지하철 2호선 증차,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확대 설치, 노후 화장실 정비 등으로 지하철 이용을 유도한다.

유정복 후보는 “모범운전자 지원 강화, 택시 장기근속자와 신규 입사자 인센티브 확대, 대중교통 근로자 교통회관 신축 등으로 교통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버스-지하철 인프라를 확대해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남용우선임기자

(16.8\*7.8)cm

<중앙신문 2022년 5월 11일자 12면>

## 보도내용

### “모든 쉐터형 버스정류장 운행정보 구축”

####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을 모든 쉐터형 정류장으로 확대해 설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천에는 6천 67개의 정류장이 있고 이 가운데 쉐터형 정류장이 3천 843개, 버스 표지판만 세워있는 지주형 정류장이 2천 244개가 있다.

유정복 후보는 “이 중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은 쉐터형 정류장 2천 809개에 설치돼있으나 앞으로 나머지 1천 34개에도 확대 설치한다”고 약속했다.

또 쉐터형 정류장 500곳을 와이파이와 냉온시스템이 가능한 스마트 쉐터로, 지주형 승강장 500곳을 쉐터형으로 각각 전환하는 한편 장거리 버스 노선의 길이를 줄이고 굴곡 노선을 펴며 아파트 신축 등 수요자 중심으로 노선을 개편하는 등 버스이용 편의를 높인다. 전체 버스 2265대 가운데 여전히 경유차인 161대의 버스를 전기차 또는 수소 차로 교체한다.

인천 택시 이용률 제고 위해 공공 앱 활성화를

추진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증차,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확대 설치, 노후 화장실 정비 등으로 지하철 이용을 유도한다.

유정복 후보는 “모범운전자 지원 강화, 택시

장기근속자와 신규 입사자 인센티브 확대, 대중교통 근로자 교통회관 신축 등으로 교통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버스·지하철 인프라를 확대해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 중앙신문

2022년 05월 13일  
12면 (수도권)

### 유정복 시장 후보 선대위 출범… “지방정권 교체할 것”

이학재 전 의원과 ‘원팀’ 이뤄  
“尹정부, 대체매립지 예정지 확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시장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 지방정권을 교체하겠다고 12일 역설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정복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 길만이 300만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박 후보의 4년은 퇴보와 안일, 무책임과 불통의 연속이었고 시민은 불행했고 인천은 정체됐다”며 “인천발KTX 개통 연기,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미이행, 서구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고 주장했다.

인천항 내항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역과 계층, 세대간 3대 균형발전·상생 프로젝트,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GTX노선 신설, 뉴홍콩시티 건설 등 주요 공약을 내놓았다.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 시장 후보 경선을 했던 이학재 전 의원이 참석해 “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행사는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안상수 전 의원은 이미 유 후보 지지를 밝힌 터여서 국민의 힘이 마침내 원팀을 이뤄 6·1선거 승리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유 후보는 이날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했다. 본격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윤석열 새 정부가 수도



유정복 후보

권 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예정지를 마련해 놓았다. 유정복 후보는 전날 오후 KBS 초청 인천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이날 새얼문화재단

초청 대화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환경부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약사항 이행 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예정지 부지를 제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다만, 대체매립지 예정지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유 후보는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 유 후보는 시장재임 때인 지난 2015년 6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이룬 4자 합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이행할 예정이다.

남용우선임기자

(16.8\*11.1)cm

<중앙신문 2022년 5월 13일자 12면>

## 보도내용

### 유정복 시장 후보 선대위 출범… “지방정권 교체할 것”

이학재 전 의원과 ‘원팀’ 이뤄  
“尹정부, 대체매립지 예정지 확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시장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 지방정권을 교체하겠다고 12일 역설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정복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 길만이 300만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

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박 후보의 4년은 퇴보와 안일, 무책임과 불통의 연속이었고 시민은 불행했고 인천은 정체됐다”며 “인천발 KTX개통 연기, 수도권매립지 4사합의 미이행, 서구지역의 붉은수돗물 사태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고 주장했다.

인천항 내항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역과 계층, 세대간 3대 균형발전·상생 프로젝트,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GTX노선 신설, 뉴홍콩시티 건설 등 주요 공약을 내놓았다.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 시장 후보 경선을 했던 이학재 전 의원이 참석해 “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혀 행사는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안상수 전 의원은 이미 유 후보 지지를 밝힌 터여서 국민의힘이 마침내 원팀을 이뤄 6·1선거 승리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유 후보는 이날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

의힘 후보로 등록했다. 본격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윤석열 새 정부가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예정지를 마련해놓았다. 유정복후보는 전날 오후 KBS 초청 인천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이날 새얼문화재단 초청 대화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환경부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약사항 이행 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예정지 부지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다만, 대체매립지 예정지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유 후보는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 유 후보는 시장 재임 때인 지난 2015년 6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이룬 4자 합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이행할 예정이다.

## “코로나 피해 16만 자영업자 실질 보상”

### 국힘 유정복 시장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16만3000여명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이런 내용의 ‘인천형 민생경제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부의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원대책과 연계해 보상금이 총 1000만원이 되도록 부족분에 대해 시가 실질적으로 보전해 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20~30대 청년의 열정·아이디어와 중장년의 경험을 멘토로 하는 새로운 창업을 지원한다”며 “연간 300개 4년간 1200개의 청년



유정복 후보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창업기업에는 기업별 1억 원씩 융자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1만여명의 파산자에게 법률지원 비용으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고 생계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300억원을 융자 알선 지원한다.

유 후보는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분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자금을 지원해 재기의 희망과 용기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용우선임기자

(10.8×9.4)cm

<중앙신문 2022년 5월 17일자 10면>



보도내용

### “코로나 피해 16만 자영업자 실질 보상”

#### 국힘 유정복 시장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16만 3000여명을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이런 내용의 ‘인천형 민생경제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부의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원 대책과 연계해 보상금이 총 1000만원이 되도록 부족분에 대해 시가 실질적

으로 보전해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20~30대 청년의 열정·아이디어와 중장년의 경험을 멘토로 하는 새로운 창업을 지원한다”며 “연간 300개 4년간 1200개의 청년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창업기업에는 기업별 1억 원씩 융자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1만여 명의 파산자에게 법률지원 비용으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고 생계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300억 원을 융자 알선 지원한다.

유 후보는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분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자금을 지원해 재기의 희망과 용기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임기 중 매립지 종료·대체매립지 조성”

### 유정복 시장 후보 “서구 교통망 확충”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이루겠다고 18일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서구 검암역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마련함에 따라 4자 합의에 근거해 임기 중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의 매립지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통해 매립지를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단지

와 테마 파크를 조성해 산업과 여가

가 공존하는 수도권의 명소를 만들

것”이라며 “인천 자원순환공사를 설립해 사용이 끝난 매립지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립지를 포함한 서구지역 개발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교통망으로 ▲GTX-D Y자·GTX-E 노선 신설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지하화와 지상 문화체육시설 설치 ▲공항철도 급행화 및 서울 9호선 연결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서울 5호선 검단~김포~강화 연장 추진 ▲순환형 인천 3호선 건설 등이 있다.

또 인천 2호선 1대 2량→ 4량 증



유정복 후보

량과 연안부두~서구~부평역 트램 건설도 계획돼 있다.

한편 유정복 후보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민주영령을 추모하면서 “상식의, 통합의, 관용의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선거활동을 잠시 멈추고 ‘정복캠프’에서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고귀한 희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또한 크게 성장시켰다”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기렸다.

남용우선임기자

(16.8\*8.4)cm

<중앙신문 2022년 5월 19일자 12면>



보도내용

## “임기 중 매립지 종료·대체매립지 조성”

### 유정복 시장 후보 “서구 교통망 확충”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이루겠다고 18일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서구 검암역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마련함에 따라 4자 합의에 근거해 임기 중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의 매립지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통해 매립지를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단지와 테마파크를 조성해 산업과 여가가 공존하는 수도권의 명소를 만들

것”이라며 “인천 자원순환공사를 설립해 사용이 끝난 매립지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립지를 포함한 서구지역 개발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교통망으로 ▲GTX-D Y자·GTX-E 노선 신설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지하화와 지상 문화체육시설 설치 ▲공항철도 급행화 및 서울 9호선 연결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서울 5호선 검단~김포~강화 연장 추진 ▲순환형 인천 3호선 건설 등이 있다.

또 인천 2호선 1대 2량→4량 증량과 연안부두~서구~부평역 트램 건설도 계획돼 있다.

한편 유정복 후보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민주영령을 추모하면서 “상식의, 통합의, 관용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선거활동을 잠시 멈추고 ‘정복 캠프’에서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고귀한 희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또한 크게 성장시켰다”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기렸다.

## 중앙신문

2022년 05월 24일  
12면 (수도권)

### “제물포·주안·도화역 역세권 활성화 추진”

####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단계적 미추홀구 발전 공약 제시

유정복(사진)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제물포 등 경인전철 3개역을 개발하고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쾌적하고 웃음이 넘치는 미추홀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오는 2023년 경인전철 제물포·주안·도화역 등 3개역을 대상으로 역세권을 교통·상업·문화 중심 앵커시설로 육성해 인접 원도심으로 파급시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미추홀구 발전 공약을 내놓았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지하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원주민 재정착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벌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변모시킨다. 인천발KTX 조기개통, 연안부두~제물포역~부평역 트램 건설, 경강선 인천역까지 연장 등을 통해 교통편의도 높인다.

주안산업단지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혁신·상생·공유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혁신단지로 꾸미고 청년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며 산업단지 주변을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와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든다.

유정복 후보는 “주안산단을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탈바꿈시켜 경제



가 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쾌적하고 윤택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가

각계 각층의 지지선언이 붓물을 이루고 여론조사까지 안정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승리론이 확산되고 있다. 유정복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전·현직 교수 100명의 유 후보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50여개 단체·모임의 지지 선언이 잇따랐다.

인하대 교수 103명과 엘리트 체육인 500여명이 6·1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23일 선언했다.

남용우선임기자

(16.8\*9.2)cm

<중앙신문 2022년 5월 24일자 12면>



#### 보도내용

### “제물포·주안·도화역 역세권 활성화 추진”

####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단계적 미추홀구 발전 공약 제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제물포 등 경인전철 3개역을 개발하고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쾌적하고 웃음이 넘치는 미추홀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오는 2023년 경인전철 제물포·주안·도화역 등 3개역을 대상으로 역세권을 교통·상업·문화 중심 앵커시설로 육성해 인접 원도심으로 파급시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4년부터 단계

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미추홀구 발전 공약을 내놓았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지하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원주민 재정착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벌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변모시킨다. 인천발KTX 조기개통, 연안부두~제물포역~부평역 트램 건설, 경강선 인천역까지 연장 등을 통해 교통편의도 높인다.

주안산업단지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혁신·상생·공유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혁신단지로 꾸미고 청년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 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며 산업단지 주변을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와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든다.

유정복 후보는 “주안산단을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탈바꿈시켜 경제가 돌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쾌적하고 윤택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가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여론조사까지 안정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승리론

이 확산되고 있다. 유정복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전·현직 교수 100명의 유 후보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50여 개 단체·모임의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인하대 교수 103명과 엘리트 체육인 500여 명이 6·1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23일 선언했다.

### “맞춤형 촘촘·두툼 복지… 따뜻한 동행”

#### 유정복시장후보, 복지공약제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대상별 촘촘하고 두툼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출산육아 지원금 200만→1000만원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친환경 급식, 초교생 생존수영 무료교육, 임신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등 출산육아를 포함한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0~12개월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임신 준비부터 육아, 교육까지 도와주는 ‘맘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에 여성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비치해 놓는다.

또 긴급생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6%에서 40%로 올리고 지원기간도 1→3개월로 늘리며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노인·아동·근로능력없는 가구원 등이 있으면 월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장애인을 위해 이동권 보장, 장애인콜택시 중형특장차 법정한도 이상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담당관 채용,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등



을 추진한다.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서울

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돌봄 서비스 인력의 근로환경과 처우도 향상한다. 간호사·간병인·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근대화의 역군인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65세 이상 시내버스·대사포진 백신접종 무료, 치매전담 병원 설립 등을 시행한다.

청소년과 청년에게 미래 희망을 심어주는 국제교류사업 확대,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확충,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채용, 19~34세의 청년 목돈마련 지원 청년도약계좌 도입, 1석5조의 일자리 지원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은둔형 청년을 위한 대책도 세웠다.

유정복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맞춤형 복지 정책에 따라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 삶을 보장할 것”이라며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로 ‘따뜻한 동행’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용우선임기자

(10.8\*15.1)cm

<중앙신문 2022년 5월 25일자 10면>

#### ☐ 보도내용

### “맞춤형 촘촘·두툼 복지… 따뜻한 동행”

#### 유정복 시장 후보, 복지 공약제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대상별 촘촘하고 두툼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출산육아 지원금 200만→1000만원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친환경 급식, 초교생 생존수영 무료교육, 임신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등 출산육아를 포함한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0~12개월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임신 준비부터 육아, 교육까지 도와주는 ‘맘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에 여성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비치해 놓는다.

또 긴급생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6%에

서 40%로 올리고 지원기간도 1→3개월로 늘리며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노인·아동·근로 능력 없는 가구원 등이 있으면 월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장애인을 위해 이동권 보장, 장애인 콜택시 중형특장차 법정한도 이상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담당관 채용,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서울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돌봄 서비스 인력의 근로 환경과 처우도 상향한다. 간호사·간병인·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근대화의 역군인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65세 이상 시내버스·대상포진 백신접종 무료, 치매전담 병원 설립 등을 시행한다.

청소년과 청년에게 미래 희망을 심어주는 국제교류사업 확대,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확충,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채용, 19~34세의 청년 목돈마련 지원 청년도약계좌 도입, 1석 5조의 일자리 지원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은둔형 청년을 위한 대책도 세웠다.

유정복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맞춤형 복지 정책에 따라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 삶을 보장할 것”이라며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로 ‘따뜻한 동행’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 후보도문

### 중앙신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 ‘건강하고 보람있는 어르신 삶 지원’ 등 7건

본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여러 차례 부각 보도(5월 9일자 12면 ‘건강하고 보람있는 어르신 삶 지원’ 등 7건)한 반면, 다

2022년 06월 07일  
12면 (수도권)

른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중앙신문 2022년 6월 7일자 12면>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64</b>
<b>언론사</b>	주식회사 일간경기(일간경기)
<b>심의대상</b>	일간경기 5월 25일자 19면 「안 떨어지게 지지해 주세요」 낮 뜨거운 호소」 제하의 기사
<b>주 문</b>	<p>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p> <p>2. 주식회사 일간경기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간경기 사회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은 5월 25일자 19면 「한밤 중 마을버스 전복」 기사의 부제(부천시 고강동 417번지 운전기사·견습기사 초과상)와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p>
<b>이 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리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리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3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 '안 떨어지게 지지해 주세요' 낮 뜨거운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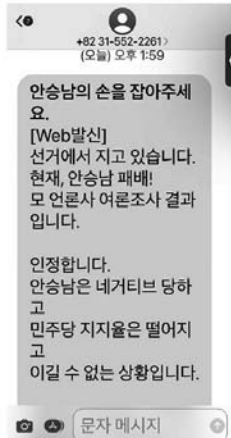
전쟁터에선 진영의 사기 저하를 차단하기 위해 불리한 상황을 숨기는 게 지휘관의 역할이자 도리라는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오히려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드러내 놓고 유권자들에게 읍소하고 나서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고 깃털처럼 가볍다'고 지적.

경기도의 한 매체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실시한 '구리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48.0%,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후보 40.4%로 백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7.6% 앞선 것으로 23일 신문 자상에 발표.

이 조사가 발표되자마자 안 후보는 SNS를 통해 '안승남 패배'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승남-안 떨어지게 시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유권자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평소 사용하던 '두손 모아'에다 '간절하게'를 덧붙여 호소.

이러한 문자를 접한 한 시민은 "시장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게시판에 5번 등장, 비리 의혹으로 SBS 뉴스에 연이어 보도, 주민소환제 대상이 되는 등 동네를 뒤집어 놔다"며 "시민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것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사람이 염치도 없다"고 야멸차게 한마디.



안승남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SNS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연세이형실 기자)

또 다른 시민은 "신문사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이전에 조사한 것인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도 패배를 인정했다면 전의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어떤 계락을 숨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며 "도망가는 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상계(走上計)를 쓰는 게 어떨지"라고 비아냥.

이형실 기자

(11.9\*20.8)cm

<일간경기 2022년 5월 25일자 19면>

☞ 보도내용

### '안 떨어지게 지지해주세요' 낮 뜨거운 호소

전쟁터에선 진영의 사기 저하를 차단하기 위해 불리한 상황을 숨기는 게 지휘관의 역할이자 도리라는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오히려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드러내놓고 유권자들에게 읍소하고 나서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고 깃털처럼 가볍다'고 지적.

경기도의 한 매체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구리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48.0%,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후보 40.4%로 백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서 7.6% 앞선 것으로 23일 신문 지상에 발표

이 조사가 발표되자마자 안 후보는 SNS를 통해 '안승남 패배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승남-안 떨어지게 시민 여러분께 지지해주시고 유권자를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평소 사용하던 '두손 모아'에다 '간절하게'를 덧붙여 호소

이러한 문자를 접한 한 시민은 "시장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게시판에 5번 등장, 비리 의혹으로 SBS 뉴스에 연이어 보도, 주민소환제 대상이 되는 등 동네를 뒤집어놨다"며 "시민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것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사람이 염치도 없다"고 야멸차게 한마디.

또 다른 시민은 "신문사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이전에 조사한 것인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도 패배를 인정했다면 전의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어떤 계락을 숨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며 "도망기는 건 패배한 것이 아니니 차라리 주상계(走上計)를 쓰는 게 어떨지"라고 비아냥.



#### 결정 후 보도문

### 일간경기

2022년 06월 07일  
19면 (사회)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리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감성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 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3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11.9\*5.4)cm

<일간경기 2022년 6월 7일자 19면>

### 3. 경고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21
언론사	주식회사 내외일보(내외일보)
심의대상	내외일보 4월 5일자 12면 「민선 7기 성공적으로 이끈 구인모 거창군수」제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거창군수에 출마예정인 현직 군수의 주요 활동 성과와 이력 등에 대해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내외일보

2022년 04월 05일  
12면 (지역)

## 민선7기 성공적으로 이끈 구인모 거창군수

###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창군 성과 아주 값진 결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으로 민선7기 거창군을 성공적으로 이끈 구인모(사진) 거창군수. 안정적 군정 운영을 통한 군민 행복을 최고의 신념으로 삼아 민선 7기 도전을 선언한 계획이다.

그동안의 군정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새로운 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의 군정 비전의 완성과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

구인모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그 무엇보다 군민 생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다.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창군의 성과는 아주 값진 결과라고 군민들은 말한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의 4년동안 성과는 군민분들께서 많이 군정에 협조해 주신 덕분이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한 공무원들이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구인모 군수의 값진한 만 한 성과를 이뤄낸 거창군의 발자취를 되돌아 본다.

거창군의 지난해 성과를 되돌아보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추진으로 50건(중앙부처 28건, 경남도 12건, 외부기관 10건)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963백만 원과 7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75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위대한 성과를 냈다.

중앙부처 주관 주요수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종합상부문 우수행정안전(전부)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평가 최우수(행정안전부)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거환경부론 최우수(국토교통부)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최우수(행정안전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여성가족부) 지역복지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최우수(보건복지부) 자활사업분야 우수보건복지부) 인건문화대상 우수행정안전(부)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기술센터

부론 최우수(농촌진흥청) 등을 수상했다.

경상남도 주관 주요수상으로는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3년 연속 수상으로 정성 2위, 도민공감 1위로 2관왕 달성 경남 자원봉사 대축제 경진대회 최우수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경남 제1호 지방정원 등락 산림자연분야(조립) 최우수 경남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거창군이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3년 연속 수상과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전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군의 우수한 행정력에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데는 구인모 군수의 행정전문가로서의 능력이 큰 의미가 있다고 군민들은 말한다.

한편 거창군민들은 거창군의 속원 사업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거창구치소 건립문제와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문제 해결과 승강기 산업과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민선7기 행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인모 거창군수는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시대’ 민선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군 공무원들과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거창신문 기자 yeh@n.ewoelbo.com  
(23.6-15.31cr)

## 민선7기 성공적으로 이끈 구인모 거창군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창군 성과 아주 값진 결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으로 민선7기 거창군을 성공적으로 이끈 구인모(사진) 거창군수. 안정적 군정 운영을 통한 군민 행복을 최고의 신념으로 삼아 민선8기도전을 선언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시대'의 군정 비전의 완성과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

구인모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그 무엇보다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다.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창군의 성과는 아주 값진 결과라고 군민들은 말한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의 4년 동안 성과는 군민 들께서 많이 군정에 협조해주신 덕분이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한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 한다.

구인모 군수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거창 군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거창군의 지난해 성과를 되돌아보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추진으로 50건(중앙부처 28건, 경남도 12건, 외부기관 10건)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963백만 원과 7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75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위대한 성과를 냈다.

중앙부처 주관 주요 수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종합상 부문 우수(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평가 최우수(행정안전부)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거환경부문 최우수(국토교통부)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최 우수(행정안전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 우수 등급(여성가족부) 지역복지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최우수(보건복지부) 자활사업분야 우수(보건복지부) 안전문화대상 우수(행정안전부)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기술센터 부문 최우수(농촌진흥청) 등을 수상했다.

경상남도 주관 주요 수상으로는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3년 연속 수상으로 정성 2위, 도민공감 1 위로 2관왕 달성 경남 자원봉사 대축제 경진대회 최우수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경남 제1호 지방정원등록 산림자원분야(조림) 최우수 경남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거창군이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3년 연속 수상과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전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군의 우수한 행정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데는 구인모 군수의 행정전문가로서의 능력이 큰 의미가 있다고 군민들은 말한다.

한편 거창군민들은 거창군의 숙원 사업으로 수 년간 갈등을 겪는 거창구치소 건립문제와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문제 해결과 승강기 산업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민선7기 행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인모 거창군수는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시대' 민선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우리군 공무원들과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30</b>
<b>언론사</b>	주식회사 경북산업(경북연합일보)
<b>심의대상</b>	경북연합일보 4월 19일자 2면「주 후보, 시장으로 한 것이 많다…박 후보, 시장으로 한 것이 없다 / 판단은 경주 시민의 몫」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경주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의 업적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주요 성과만을 상세히 열거하여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주 후보, 시장으로 한 것이 많다... 박 후보, 시장으로 한 것이 없다 판단은 경주시민의 몫

주낙영 시장은 지난 4월 15일자로 시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재선을 위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다. 주 예비후보자와 기 동북한 특별군사지역 예비후보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시민들은 등록을 하고 있다. 본지는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사로 주 예비후보자 중 누구의 주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에 준거를 삼을 업적에 관해 팩트 체크가 필요하여 기보도 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다시 게재한다.

### 고도제한 도심지 36만 환화

지난 2020년 11월 20일 제9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경주 시민의 숙원이었던 도심지 고도제한 및 구릉성 내 고도지구별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이하 행정안건)이 심의되었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용에 따라 도심지 총면적 100만7766㎡ 구역을 대해 단층 20~25층의 높이제한이 36만㎡ 완화됐으며, 구릉성지역은 총 면적 120만7000㎡ 구역에 단층15m의 제한을 36만㎡ 상향조정했다.

### 42년 방치 황학동 정비사업 해결

관리업의 주민 기본소득을 3회로 개설했다. 기존 조공의 핵심은, 희망농원 내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난제 가운데 시급히 집단 계약과 배 출제(배출금(배출금) 절감과 노후 정년조-하수관개조정)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전진과 국비210여를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계기를 마련했다. △노후 주택합계 등 거주여건 개선 △산간환경 농작물재배 등 일차 및 농가소득 창출 기반 마련 △한일 요양원 등 복지시설-생태관광 등 주민 편의 증진 등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하고 했다.

### 서천로지 공공조성 및 주차장 500면 확충

황리단길과 명천 사당동 서천 도차에 500면의 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 광장 조성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3억여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광장, 주차장, 부속교통신할 등을 갖춰 오는 7월 준공할 예정이다.

### 함박마사회 토지 해결

경주시의 함박마사회는 2021년 3월 24일 함박마사회 대회의실에서 '경주 순박동과 불탄리 유적지의 기부채납 및 토지매입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함박마사회는 출제까지 사적자의 소유권을 경주시에서 모두 이전하고, 이를 위해 경주시는 2020년에서 3년간 120억(대비 94억, 도비 26억, 시비18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82필지(면적 333㎡) 공시지가 기준 169억 상당에 대해서는 함박마사회가 출제까지 경주시에 매각해 납하기로 약정했다.

### 황금대교 확충, 금강리 상습정체 해소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황금대교가 가설된 임시 양방향 4차선(2차선교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통했다.경주시 황선동(동)에 건설된 양방향 4차선 교량은 총 연장 371m, 폭 20m 양측 4차로 규모다.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며, 도비, 국비세 등을 포함해 총 사업비 410여억이다. 제2공정도가 완성되면 주변도시의 교통과 생활 편의가 개선돼 출퇴근 및 개통되는 나한역과 함께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확충에 따른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경주시의 성장, 합성물질 개발 서 지키네

1967년 도시생태관리위원회도 지정된 황성공원은 경주시의 자연 유적으로 태백을 연호하여 조려 많은 당시 공원에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당시 공원을 지키는 근대적인 해적은 공원 땅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이지만, 환경영향 조성 여건상 지자체 단독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것이 2019년 5월 합성물질 사업이 선정돼 국비 289억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지역에 배터리 공업스페이스 인프라

###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유 거점으로

지난 5일 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유-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289억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지역에 배터리 공유스페이스 인프라



경주시청 본청. 왼쪽부터 두번째는 두번째는

가 구축되면 배터리를 관련 기업 유치, 자동차 부품 기업 생산 아이라비 다변화, 친환경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 지원, 국내 및 해외시장 진입 지원 등으로 지역 제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 20MM급 수산물 생산소 확충

경주시 동남산에 20MM급 수산물연조처리시설소가 건립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6월 24일 의결을 문 의한 건립안에서 '수산물연조처리 발전소' 착공식을 열었다. 사업내용은 상해보존 부자기압인 중화(중화) 및 S-퓨알생(생)은 문산리 지역 6500㎡(2000평) 부지에 면적 2000여원을 투입해 다음 달 7월부터 토목 공사를 시작하고, 10월부터는 S-퓨알생에서 생산량 100여톤(연간) 내 시범 20여톤을 위한 부양조조가 되는 차양용 정단소 설치공사 기술 고도화 생하는 건축면적 1820㎡, 연면적 2990㎡, 지상 3층의

### 차량용 정단소 성장항공기술 고도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도 스마트 혁신과기 기반 구축 사업 공모로 확정된 '차량용 정단소 성장항공 기술 고도화 센터' 건립 사업을 유지했다. 경주시는 차양용 정단소 성장항공 기술 고도화 센터는 건축면적 1820㎡, 연면적 2990㎡, 지상 3층의

시차별특수사업소에서 '신항원 하천해제예방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5월 국토교통공사사업에 선정됐고, 이날 착공식은 사업 착수 4년 만에이다. 시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사업비 300여원을 투입해 신항원 8.07km 구간의 해안 침수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신항원을 잇는 농갈고, 횡간고, 동산고 등 노후 교량 7개소가 재가설되고, 농갈고, 이노보, 죽산보 등 8개의 낡은 보 또한 자연형 어류과 나체공으로 모두 교체된다.

###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

△한강강변도시(2022년) 460억 원 △신항원 도시개발사업 469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381억 원 △국비보조사업 429억 원을 비롯해 △노후주택 411억 원 확보 등을 통해 재정규모 1조7631억원의 확보했다.이는 2018년 말 1조 421.5억원 대비24%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을 확보했다. 중앙 대비 부채비율 0.53%(96억 원)으로 2018년 부채비율 1.51%(74억 221억 원) 대비 0.98%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강화됐다.

### 시회 간접합 확보에 집중...각종 상 함입

△황금대교(2022년) 200억 원 △서천 강변도로 개설 △산간벽지 확장 △상구-유연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 △2020 행정안전부 원소통 부문 민원창구 운영대상 △2020 대한민국 행정대상(자치행정 부문) 수상 등 8개 상을 수상했다.

### 경주, 복지 및 행정 도시 도약

고등학교 전 현 배움교육 △유·초·중·고 특성 급식 △중·고교 인성교육 교복지원비 300만 원 부담 교육비를 38% 도시 달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부담을 줄여줬고, 같은 해는 반부패 청렴시책과 시민소통강화를 통해 △2020년 청렴청정도가 2단계 수직상향한 3등급급을받아 청렴한 도시로 거듭났다.

### 미래먹거리 창출 및 공익 이행에 헌신

경주시청은 경주시 소재 유류차 1600대에 경주를 변화시킬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상당한 노력, 한국내최초스마트신선부주관 공익이행률 평가 최고등급, (사)한국공공차량연구회 주관 지방자치경영대상 '통합대상' 등 최급 과부평가에 이른바 '브라더 크리안'을 달성 했다.

### 미래 100년 대를 준비하는 경주

△2019년 12월 신항원 특별명 지정에 이어 2020년 10월 동방 시정명 지정으로 총사업비 1조 1500억원으로 신항원 15대 핵심유적의 복원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포를 나동리, 대천리 일원 222만㎡에 2025년까지 7064여명의 사업비로 소외 임지조 개발을 위한 혁신지역 연구단기 조성 7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함안산업도시의 도약.

지난 2월 현대건설(현)MOU를 체결한 281억원 규모의 미래첨단제조 스마트부품 제조사업이 진행 중이다.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179억원) 및 양정서 범-이온질 기반 산업체 R&D 통합지원센터 확충사업(450억원)이 기재부 투자사업을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 예산 2조 시대 준비하는 경주시

2018년 말 기준 1조4254억원이던 경주시의 한 해 예산은 2021년 2월 추경 기준 1조 8430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알맞은 지방재정을 보란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34년간 11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86억원을 확보했다. 이때 활용하게 하는 순제안사업은 활용할 수 있는 법제-제도적 장인 '통합행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개척하다

### 상습침수 신항원 하천해제예방사업 착공

경주시는 지난 5월 25일 천북면 신항원 2인한

## 주 후보, 시장으로 한 것이 많다... 박 후보, 시장으로 한 것이 없다 판단은 경주 시민의 몫

주낙영 시장은 지난 4월 15일자로 시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재선을 위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다. 주 예비후보자와 기 등록된 박병훈 예비후보자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주 예비후보는 재임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쟁후보인 박 예비후보는 이를 인정치 않고 한 것이 없다고 한다. 이에 시민들은 동조를 하고 있다.

본지는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사로 두 예비후보자 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에 준거를 삼을 업적에 관해 팩트 체크가 필요하여 기보도 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다시 게재한다.

### ◇고도제한 도심지 36m 완화

지난 2020년 11월 20일 제9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경주 시민의 숙원이었던 도심지 보호주택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내용에 따라 도심지 내 총면적 100만7560㎡ 구역에 대해 당초 20~25m의 높이제한이 36m로 완화됐으며, 구정동지역은 총 면적 120만7000㎡ 구역에 당초15m의 제한을 36m로 상향조정했다.

### ◇42년 방치 희망촌 정비사업 해결

권익위원회 주관 기관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기관조정 핵심은, 희망농원 내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난제 가운데 시급히 집단 계사와 폐슬레이트(1급발암물질) 철거와 노후 침전조·하수관거재정비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조정과 국비210억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계기를 마련했다.

△노후 주택정비 등 거주여건 개선 △친환경 농작물재배 등 일자리 및 농가소득 창출 기반 마련 △한센 요양원 등 복지시설·생태공원 등 주민 편의 공간조성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서천둔지 공원조성 및 주차장 500면 착공

황리단길과 연접한 사정동 서천 둔지에 500면의 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 광장 조성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광장, 주차장, 부대교통시설 등을 갖춰 오는 7월 준공할 예정이다.

### ◇한국마사회 토지 해결

경주시와 한국마사회는 2021년 3월 24일 한국마사회 대회의실에서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의 기부채납 및 토지매입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한국마사회는 올해까지 사적지의 소유권을 경주시에 모두 이전하고, 이를 위해 경주시는 2023년까지 3년간 120억원(국비 84억원, 도비18억원, 시비18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82필지(8만 3303㎡, 공시지가 기준 16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가 올해까지 경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다.

#### ◇'황금대교' 착공, 금장리 상습정체 해소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황금대교가 가설될 형산강 일원에서 '제2금장교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 금장리를 잇는 황금대교는 총 연장 371m,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다.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며, 도비, 교부세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 410억원이 투입된다. 제2금장교가 완성되면 주변도시의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 올해 말 개통되는 나원역과 함께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확충에 따른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경주의 심장, 황성공원 '일몰'서 지켜내

1967년 도시생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경주시의 재원 부족으로 매입을 완료하지 못해 많은 땅이 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원 땅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이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상 지자체 단독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19년 5월 황성공원 사유지 10만㎡에 대해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LH공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갈 수 있었다.

####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거점으로

지난 5일 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26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지역에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인프라가 구축되면 배터리

및 관련 기업 유치, 자동차 부품기업 생산 아키텐트 다변화, 친환경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 지원, 국내 및 해외시장 진입 지원 등으로 지역 제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 ◇20MW급 수소연료 발전소 착공

경주 외동 문산에 2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건립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6월 24일 외동읍 문산리 건립현장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착공식을 열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투자기업인 중화(중)와 S-퓨얼셀(중)은 문산리 지역 6500㎡(2000평) 부지에 민자 2000억원을 투입해 다음 달 7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10월부터는 S-퓨얼셀(중)에서 생산한 발전용 연료전지 2MW 설치를 시작해 2024년 4월까지 20MW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공모로 확정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 건립 사업을 유치했다. 경주 구어2산업단지 내 사업비 290억 원이 투입으로 조성되는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는 건축면적 1826㎡, 연면적 2990㎡, 지상 3층의 연구동 및 지상 1층의 평가동 2개동을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8월에 공사를 완료해 지역기업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주시에 최초의 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전문장비 11종을 확보해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친환경 자동차부품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관광 혁신도시 5대 전략 모델 제시

▷스마트 관광융합도시 ▷관광기업 친화도시 ▷황금브랜드관광도시 ▷페스티벌 관광세일도시 ▷강·산·해 관광정원도시의 경주 관광혁신 선도도시 5대 전략을 선포. 지난달 31일에 경주시가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비 54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27억원 등 총 108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 노동동 소재 유희건물(1584.26㎡)을 리모델링해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상습침수 신당천 하천재해예방사업착공

경주시는 지난 3월 25일 천북면 신당천과 인접한 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당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5월 국토부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이날 착공식은 사업 착수 4년 만이다. 시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비 330억원을 투입해 신당천 8.07km 구간의 하천 치수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신당천을 잇는 능골교, 희망교, 동산교 등 노후 교량 7개소가 재가설되고, 능골보, 이조보, 죽산보 등 8개의 낡은 보 또한 자연형 여울과 낙차공으로 모두 교체된다.

####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확보

△안강읍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60억

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468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381억원 등국비보조사업 4259억원을 비롯해 △보통교부세 4117억원 확보 등을 통해 재정규모 1조763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8년 말 1조 4215억원 대비 24%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을 확보했다.

총예산 대비 부채비율 0.53%(부채 96억원)으로 2018년 부채비율 1.51%(부채 221억원) 대비 0.98%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강화됐다.

#### ◇사회 간접명 확보에 집중...각종 상 휩쓸어

△황금대교(제2급장교)건설 △서천 강변도로 개설 △알천북로 확장 △상구~효현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 △2020 행정안전부 윈스톱 방문 민원창구 대통령상 △2020 대한민국 헌정대상(자치행정 부문) 수상 등 83개 상을 수상했다.

#### ◇경주, 복지 및 청렴 도시 도약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유·초·중·고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30만원 지원 등 교육비용 3無 도시 달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부담을 덜어줬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시책과 시민소통강화를 통해 △2020년 종합청렴도가 2단계 수직상승한 3등급을받아 청렴한 도시로 거듭났다.

#### ◇미래먹거리 창출 및 공약 이행에 혼신

경주시장은 경주시 소재 유희지 약 160만평에 경주를 변화시킬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상당한 노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주관 공약이행을 평가 최고등급,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등 최근 외부평가서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쾌거.

#### ◇미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경주’

△2019년 12월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에 이어 2020년 10월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총사업비 1조 150억원으로 신라왕경 15대 핵심유적의 복원을 앞당기는 기틀을 마련했다. △감포읍 나정리, 대본리 일원 222만㎡에 2025년까지 7064억원의 사업비로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가면서 원전산업도시로의 도약.

지난 2월 현대엠시트와MOU를 체결한 281억원 규모의 미래형친환경 시트부품 제조시

설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178억원) 및 양성자 빔·이온빔 기반 산업체 R&D 통합지원센터 확장사업(450억원)이 기재부 투자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 ◇예산 2조 시대 준비하는 경주시

2018년 말 기준 1조 4215억원이던 경주시의 한 해 예산은 2021년 2회 추경 기준 1조 8430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3년간 11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2086억원을 확보했다.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31</b>
<b>언론사</b>	부천신문
<b>심의대상</b>	부천신문 4월 7일~13일자 (제1366호) 1면 「부천시 전·현직 의원들, 국힘 부천시정 서영석 예비후보 지지선언」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부천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소식을 전하며,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후보자 사진을 재구성한 이미지를 1면에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0조(사진게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국민의힘 부천시장 예비후보

# 39명 지지선언!

(전·현직 시·도의원)



부천시정

## 서영석

부천시장  
예비후보

부천시정 seo.youngseok@gmail.com

### 부천시 전·현직 의원들, 국힘 부천시정 서영석 예비후보 지지선언

**"경기도 제1의 도시로 부천시를 이끌 책임자는 서영석 예비후보 뿐" "선거 승리까지 서영석 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할 것"**

부천시 전직 시의회의장 등 전·현직 시·도의원 39명이 지난 31일 국민의힘 부천시장 예비후보 부천시(정) 서영석 지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부천시 전·현직 시·도의원 모임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부천시장 예비후보 부천시(정) 서영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부천시민들의 공복으로서 부천시민의 사랑을 받고 부천시를 위해 일했던 저희 전·부천시 시·도의원들은 무너져가는 부천시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나서게 되었다"라며, "지난 12년간 민주당 정권이 문화도시만 꾀대기로 망쳐 놓은 부천시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먹고 살 것 없는 허울뿐인 문화도시가 아닌 명실상부 경기도 제1의 첨단산업도시, 부자 도시 부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선출될 부천시장은 오로지 부천시에 살며 부천시 구성구석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후보, 풍부한 외경 경험으로 부천시의 화합을 잘 이끌 후보,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오랜 기

간 준비한 공약으로 첨단산업도시, 경기 서부의 핵심도시로 부천시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여낼 리더, 민주당이 망친 도시를 근본부터 바꿔낸, 정상화시킬, 일일킬 사람,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고 부천을 일일킬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제1의 도시 부천시의 과거 명성을 되찾고 대한민국 선도도시로 이끌 책임자는 국민의힘 부천정 서영석 예비후보라 생각한다"며, 부천시 전·현직 시도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당대경선과 오는 제8회 부천시정 선거 승리까지 국민의힘 부천정 서영석 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한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국민의힘 부천정 서영석 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전·현직 시·도의원 명단이다.

**경기도의원(5명)**  
6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준희, 6대 경기도의원 정중원, 6대 경기도의원 설희석, 7대 경기도의원 오정섭, 8대 경기도의원 이필구 등

**부천시의원(34명)**  
2대 부천시의회 의장 양오석, 3,4대 부천시의회 의장 황원희, 4,5대 부천시의회 의장 오영근, 5대 부천시의회 의장 한윤석, 3대 부천시의회 부의장 김해근, 4,5대 부천시의회 부의장 박노철, 5,6대 부천시의회 부의장 김혜경, 6대 부천시의회 부의장 김한태, 1대 부천시의원 박상규, 1대 부천시의원 이갑민, 1,2대 부천시의원 김산권, 1,2대 부천시의원 이종길, 1대 부천시의원 김동선, 1,2대 부천시의원 정명진, 1대 부천시의원 양재오, 2대 부천시의원 김동규, 2대 부천시의원 김철현, 2대 부천시의원 안정근, 2대 부천시의원 윤석훈, 2대 부천시의원 정만기, 2,3대 부천시의원 김상택, 3대 부천시의원 남재우, 3대 부천시의원 박종신, 3대 부천시의원 이영우, 3대 부천시의원 이재원, 3,4대 부천시의원 박병호, 4,5대 부천시의원 박종국, 4,5대 부천시의원 오세안, 4,5대 부천시의원 이학환 부천시의원 34명 등 전·현직 부천시 시·도의원 39명이 동참했다.

관습기 기자 bucheonnews@gmail.com

〈부천신문 2022년 4월 7일~13일자 1면〉

## 보도내용

### 부천시 전·현직 의원들, 국힘 부천시정 서영석 예비후보 지지선언

"경기도 제1의 도시로 부천시를 이끌 책임자는 서영석 예비후보 뿐"

### "선거 승리까지 서영석 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할 것"

부천시 전직 시의회의장 등 전·현직 시·도의원 39명이 지난 31일 국민의힘 부천시장 예비후보 부천시(정) 서영석 지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부천시 전·현직 시·도의원 모임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부천시장 예비후

보 부천(정) 서영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부천시민들의 공복으로서 부천시민의 사랑을 받고 부천시를 위해 일했던 저희 전) 부천시 시·도의원들은 무너져가는 부천시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나서게 되었다”라며, “지난 12년간 민주당 정권이 문화도시란 껍데기로 망쳐놓은 부천시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먹고 살 것 없는 허울뿐인 문화도시가 아닌 명실상부 경기도 제1의 첨단산업도시, 부자 도시 부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선출될 부천시장은 오래도록 부천시에 살며 부천시 구석구석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후보.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부천시의 화합을 잘 이끌 후보.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준비한 공약으로 첨단산업도시, 경기서부의 핵심도시로 부천시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여낼 리더. 민주당이 망친 도시를 근본부터 바꿔낼, 정상화시킬, 일으킬 사람.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고 부천을 일으킬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제1의 도시 부천시의 과거 명성을 되찾고 대한민국 선도도시로 이끌 책임자는 국민의힘 부천정 서영석 예비후보라 생각한다”며, 부천시 전·현직시·도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당내경선과 오는 제8회 부천시시장 선거 승리까지 국민의힘 부천정 서영석 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한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국민의힘 부천정 서영석 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전·현직 시·도의원 명단이다.

### 경기도의원(5명)

6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준희, 6대 경기도의원 정중원, 6대 경기도의원 설희석, 7대 경기도의원 오정섭, 8대 경기도의원 이필구 등

### 부천시의원(34명)

2대 부천시의회 의장 양오석, 3,4대 부천시의회 의장 황원희, 4,5대 부천시의회 의장 오명근, 5대 부천시의회 의장 한윤석, 3대 부천시의회 부의장 김혜은, 4,5대 부천시의회 부의장 박노설, 5,6대 부천시의회 부의장 김혜경, 6대 부천시의회 부의장 김한태, 1대 부천시의원 박상규, 1대 부천시의원 이갑만, 1,2대 부천시의원 강신권, 1,2대 부천시의원 이종길, 1대 부천시의원 김동선, 1,2대 부천시의원 장명진, 1대 부천시의원 양재오, 2대 부천시의원 김동규, 2대 부천시의원 김철현, 2대 부천시의원 안창근, 2대 부천시의원 윤석홍, 2대 부천시의원 전만기, 2,3대 부천시의원 김상택, 3대 부천시의원 남재우, 3대 부천시의원 박종신, 3대 부천시의원 오효진, 3대 부천시의원 이재영, 3,4대 부천시의원 박병화, 4,5대 부천시의원 박종국, 4,5대 부천시의원 오세완, 4,5대 부천시의원 이영우, 5대 부천시의원 김원재, 5대 부천시의원 박동학, 5대 부천시의원 김미숙, 8대 부천시의원 구점자, 8대 부천시의원 이학환 부천시의원 34명 등 전·현직 부천시 시·도의원 39명이 동참했다.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36
언론사	주식회사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
심의대상	일간경북신문 4월 5일자 18면 「공공복지 한계 보완… 양질의 구미형 복지 건설」, 4월 7일자 18면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산업 혁신 이끌다, 4월 14일자 18면 「행복한 ‘도농복합 자족도시’ 구미 건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경북 구미시장 주요 이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특집기획 기사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실어 반복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2022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식

2022. 1. 12(수)

## 공공복지 한계 보완... 양질의 구미형 복지 건설

구미시는 '항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슬로건 아래 모든 시민이 행복할 복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민관협력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자활과 소외를 막는 훌륭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구미 희망터(현)사업'**  
구미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필요에 따라 공직복지이행팀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서비스 및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한 구미희망터(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구미 i-mom(아이맘) 안심서비스 사업' 시행**  
구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경제적·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조혼 위기가정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구미 i-mom(아이맘) 안심 서비스 사업'을 2021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2022년 1월 11일 현재 148세대에 196쌍(한부모)을 지원하고 있다.

◆ **시민 주도의 나눔으로 하나되는 '구미행복나눔가게'**  
구미시는 민간에 물품·재능·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 주도의 나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미행복나눔가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구미종합사회복지차량 경로상담 확충 리모델링 후원 연계**  
구미시는 노후된 구미종합사회복지차량 경로상담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지난해 후원업체 10개소를 발굴하고 2억 1천여원을 후원 연계하여 지난 12월에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 충실한 복지안전망 구축 '총력'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행복네트워크 구축 위기가구 조기 발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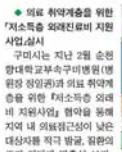
### 행복네트워크 구축으로 위기가구 조기 발굴·지원

◆ **양남에너지서비스(주),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  
구미시는 2021년 3월 양남에너지서비스(주)대표이사 양영환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해 도시가스공급 이용률에 고인단현가구 중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 **유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 역할 강화**  
미흡복지 최전선에는 있는 유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회의, 자체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지역 복지를 고려한 취약사각지대 추진과 지역자활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다.

◆ **의료 사각지대 해소... 외래진료비 등 지원 시행**  
다양한 기부 채널 발굴하여 '나눔문화 확산'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래진료비 등 지원사업 시행



◆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외래진료비 지원 사업' 실시**  
구미시는 지난 1월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병원장 장영진)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외래 진료비 지원사업'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이 낮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 외래진료비 지원과 의료 취약계층 복지·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도내 최초,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으로 저소득층 805명 지원**  
구미시는 구미그린포리마을(현) 원정마을과 50세 이상 저소득층(805명)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약 체결을 통해 104명(10%)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은 올해 4월초까지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배우자 수급 지원 사업을 통해 170명의 저소득층이 수급 혜택을 받는다**  
2020년 현재 구미시는 구미그린포리마을(현) 방매전마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위한 '배우자 수급 지원' 협약을 통해, 지난 1년간 방매전마을을 지원하여 170명(300명)에게 배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다양한 기부 채널 발굴**  
구미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활동을 연중 펼치고 있다. 올해는 국제라이온스클럽 206-리온복지지구 재외지역에서 이월세, 생활용품, 가스대금 등 1,500여명 상당의 생활품 전달하였으며, 대구시사회복지회 후원으로 100포를 구미에 전달하였으며, 경북지역장애인협회 여성취약계층을 10명(10%)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부채널 발굴하여 취약계층과 후원-연계하고 있다.

### 다양한 기부 채널 발굴하여 나눔문화 확산



◆ **인합스(주), 지난 7년간 약 5억5천만원 상당 생활품 세트 후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구미시는 인합스(주)대표이사 장나눔과 행복나눔 프로젝트 사업을 2021년까지 7년에 걸친 후원행사를 진행해 왔다.

◆ **사회간접비용, 전국적 네트워크 강화 위한 복지업무 협약 체결**  
구미시는 지난 3월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사무총장 안원형)과 구미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 구축을 위해 복지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다양한 기부 채널 발굴**  
구미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활동을 연중 펼치고 있다. 올해는 국제라이온스클럽 206-리온복지지구 재외지역에서 이월세, 생활용품, 가스대금 등 1,500여명 상당의 생활품 전달하였으며, 대구시사회복지회 후원으로 100포를 구미에 전달하였으며, 경북지역장애인협회 여성취약계층을 10명(10%)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부채널 발굴하여 취약계층과 후원-연계하고 있다.

◆ **다양한 기부채널 발굴**  
구미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활동을 연중 펼치고 있다. 올해는 국제라이온스클럽 206-리온복지지구 재외지역에서 이월세, 생활용품, 가스대금 등 1,500여명 상당의 생활품 전달하였으며, 대구시사회복지회 후원으로 100포를 구미에 전달하였으며, 경북지역장애인협회 여성취약계층을 10명(10%)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부채널 발굴하여 취약계층과 후원-연계하고 있다.

◆ **다양한 기부채널 발굴**  
구미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활동을 연중 펼치고 있다. 올해는 국제라이온스클럽 206-리온복지지구 재외지역에서 이월세, 생활용품, 가스대금 등 1,500여명 상당의 생활품 전달하였으며, 대구시사회복지회 후원으로 100포를 구미에 전달하였으며, 경북지역장애인협회 여성취약계층을 10명(10%)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부채널 발굴하여 취약계층과 후원-연계하고 있다.

## 공공복지 한계 보완... 양질의 구미형 복지 건설

###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총력'

구미시는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슬로건 아래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복지대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민관협력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차별과 소외됨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구미 희망 더하기사업」

구미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필요에 따라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실현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구미희망더하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상황 발생 1년 이내의 중위소득 8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민간 봉사단체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사업)도 제공된다.

구미 희망더하기사업은 구미시와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0세대에 1억6천만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 ◆ 전국 최초, 「구미 i-mom(아이맘) 안심 서비스사업」시행

구미시는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경제적·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조혼 위기가정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인 “구미 i-mom(아이맘) 안심 서비스 사업”을 2021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2021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았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과 조혼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육아코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조혼가정을 2:1로 매칭하는 ‘친정엄마(부모) 되어주기 사업’을 시행하여 조혼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혼위기가정에 대해 ‘청소년 부모지원 사업’ 7건, ‘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 36건, ‘친정엄마(부모) 되어주기 사업’ 3건을 지원하는 등 구미시 특성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구축·지원에 힘쓰고 있다.

#### ◆ 시민 주도의 나눔으로 하나되는 「구미행 복나눔가게」

구미시는 민간의 물품·재능·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 주도의 나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미행복나눔가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도로 지역 내 식당, 미용실, 제과점, 떡집 등을 발굴하며, 참여한 구미행복나눔가게에서는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 체결 후 월 1회, 3개월 이상 기부 시 통일된 행복나눔가게 현관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매년 후원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244개소가 구미행복나눔가게로 등록되어 있다.

## 행복네트워크 구축 위기가구 조기 발굴·지원

### ◆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

구미시는 2021년 3월 영남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양영철)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21만1천가구 중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가스검침원이 매월 가스 검침 및 연 2회 가스안전점검을 위해 가정 내부를 방문할 때, 위기가구를 찾아내 구미시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위기가구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과 긴급지원 및 공적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남에너지서비스(주)는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행중인 ‘구미희망더하기 사업’에 매년 1천만을 기탁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 역할 강화

마을복지 최전선에 있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회의, 자체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추진과 지역자원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다.

- 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2021.7월) : 정기회의 의무화(연 6회 이상)

-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역 내 원룸 거주자 일제조사 시행 등

- 특화사업 추진 : 반찬, 생필품 제공, 청소 및 영정사진 서비스 등

- 지역자원 연계 : 구미행복 나눔가게 연평균 9개소 발굴

또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손잡고 기부사업(착한가게, 착한가정, 함께모아 행복금고, 구미행복나눔가게)을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지역 내 적극적인 기부문화를 환기하고 있다.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래진료비 등 지원사업 시행

### ◆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외래진료비 지원사업』실시

구미시는 지난 2월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외래비 지원사업』협약을 통해 지역 내 의료접근성이 낮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질환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보건·복지·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민에게 신속한 진단을 위해 외래비(진료비, 검사비,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

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 손실 또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외래비 지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상담을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3월 현재 7명이 신청 완료하여 1명이 지원받았고 6명은 진행중에 있다.

#### ◆ 도내 최초,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으로 저소득층 805명 지원

지난해 8월 구미시는 구미그린로타리클럽(회장 임명해)과 50세이상 저소득층(805명)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협약을 통해 10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은 올해 4월초까지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상포진은 면역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50세 이상 노년층에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다. 국가 및 보건당국에서는 노년층에게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대상포진 백신은 의료보험 비급여로 분류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접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 도내 최초로 구미시와 구미그린로타리클럽이 협약을 맺어 추진하게 되었다.

#### ◆ 백내장 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 170명의 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2020년 8월 구미시는 구미장미로타리클럽(회장 방혜영)과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위한 「백내장 수술 지원」협약을 통해, 지난 1년간 9천여만원을 지원하여 170명(300안구)에게 밝은 눈을 선물하였다.

「백내장 수술 지원」사업은 백내장 질환으로 생활이 어려워 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술비 지원을 통해 남은 노후에도 밝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사비 및 수술비 30만원(1인당)을 지원해 진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 다양한 기부 채널 발굴하여 나눔문화 확산

#### ◆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확장 리모델링 후원 연계

구미시는 노후된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지역 내 후원업체 10개소를 발굴하고 2억1천만원을 후원연계하여 지난 12월에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은 1993년 개관하여,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여 왔으나, 시설 노후로 인해 누수와 결로가 발생하고 급식공간이 협소하여 1일 3회에 걸쳐 급식을 제공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5천만원 후원을 시작으로 기업체, 병원, 금융기관, 봉사단체 등 각계각층의 후원이 이어져 1억9천8백만원이 모금되었으며, 관내 건축사사무소의 1천2백만원 상당하는 무상설계 지원도 이루어졌다.

현재 60석 규모인 경로식당을 180석으로 늘리는 확장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기다림 없이 쾌적한 환경

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5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 ◆ 인탑스(주), 지난 7년간 약 5억5천만원 상당 생필품 세트 후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구미시는 인탑스(주) (대표이사 정사진)와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째 지속한 행복나눔 프로젝트 사업은 인탑스(주)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지난 7년간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을 위해 약 5억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미시에 후원하였고 올해에도 협약을 통해 생필품세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복나눔 프로젝트로 후원되는 생필품세트는 된장, 고추장, 찹쌀, 치약, 샴푸 등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년동안 17,974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 ◆ 사)한국나눔연맹, 전국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복지업무 협약 체결

구미시는 지난 3월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사무총장 안천웅)과 구미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 다양한 기부 채널 발굴

구미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활동을 연중 펼치고 있다. 올해초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 제8지역에서 이불세트, 생필품세트, 가스레인지 등 1,553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받았으며,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쌀 100포를, 구미미래로타리클럽에서 경북지체장애인협회에 여성위생용품 10만장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기부처를 발굴하여 관내 저소득층과 후원·연계하고 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이웃돕기 성금·모금으로 19,968건 3,467백만원의 성금·품을 후원 받았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으로 후원을 연계하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 및 연계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되는 구미형 복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산업 혁신 이끈다

지역 주도 공공기술 사업화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체계적 기술창업·투자연계 지원으로 창업 토대 마련



구미시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북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구미강소특구) 1년차 육성사업이 짧은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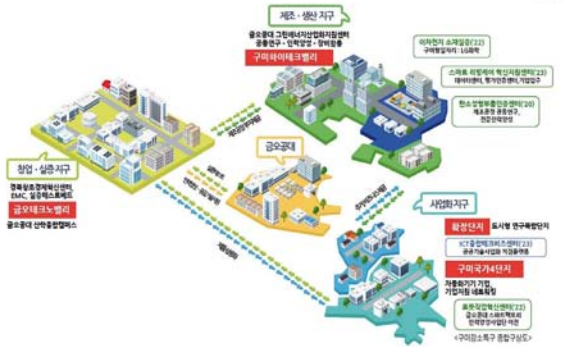
2022년 2년차를 맞이한 경북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지난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됐다. 특구면역은 총 207명의 2년 차 벤처에 국한기술대학과 교육혁신기반으로 ▲공조테크노밸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혁신단지 ▲구미아이테크밸리 등을 배후유망으로 육성 중이다.

구미시는 글로벌 창업주도 재팬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 확보 및 지역 산업생태계의 연계를 넓히는 한편, 구미 특화산업 경쟁력을 키울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혁신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우수한 혁신역량 갖춘  
연구소·창업기업 발굴**

장동욱 구미시장



◆지역 주도 수요기술 발굴 및 사업화  
기업 주도인 성과는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지역에 주도하는 미래기술 생태계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구미강소특구는 지난 1년간 기술이전·출자를 통해 우수 공공기술을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가 설립을 지원했다. 특구면역으로 공공기술 사업화에 나선 결과, 기술이전 및 출자 37건, 기술이전사업과 과제지원 13건, 연구소기업 14개소 설립으로 본격적인 기술사업화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구미강소특구 내 제2차 연구소기업 해외유망은 각종 신호기·네트워크기기 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농업을 다목적 무인 비행기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를 본연의 사업 방향을 목표로 하면서도 이차전지 네트워크와 이차전지 농업을 활용하여 매출 확대를 하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이러한 연구소기업 발전에·대상사 및 협력사 선정,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지원, 임대료 등의 대책 및 우수기업과 함께 구주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체계적 기술창업 및 투자연계 지원  
구미강소특구는 총액 4억4천여만 원을 가진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투자연계 등을 통해 잘 나가는 기술 창업을 유도하겠다. 현재 신산업 11개기 우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우수기업 기술 자립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주관한 '제1회 강소특구 혁신성장 Roundtable'을 통해 구미시에서 구미 신산업 2개 분야 선정사업 기업에 경쟁을 유도했다.

대상에서 최우선권을 수상한 기업 ㈜엔비전(선출 300프린터 기술)을 유망해 전기기 배터리에 및 광량과 부품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매출 30억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미 특화분야 기업 성장지원  
구미강소특구는 특화분야인 스마트제조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조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연구소기업-원천기술기업 상환을 지원하는 양방향 기술발달 연계 사업 ▲기술창업육성을 위한 이노베이션스퀘어·에센트리아파트 사업 ▲혁신네트워크 육성, 지역특화 육성, 특화기업 육성 등을 통해 창업지원 사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총 88건의 경영·기술지도, 기술개발·성과지급 등으로 지역 특화기업의 발전 속도를 도모했으며, 특히 장기로 드문 비행기 가능한 통신 모듈을 개발하는 ㈜에이브이시스템은 맞춤형 채용과 지원을 받아 국내외 주요 전시회에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진출을 앞당길 예정이다.

이들 산·학·연, 기업, 연구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 교향·협력함으로써 특화기업 기술사업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그중 IoT기술을 응용하여 스마트기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스마트 IoT 플랫폼 기업 B&B 엔지니어의 경우 기업 애드밴스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기업에 한 번의 납품 계약을 성사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  
올해 3월 구미시는 "2022년도 경북구미강소특구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사업의 큰 틀은 지난해와 유사하나, 2년차부터는 지역특화 육성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연구소기업이 이전한 기술의 가치 증대를 위해 기술사업화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구미강소특구 2년차 운영을 지원한다. 개발주요 분야의 현장을 방문하여 1대1 기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별 특화분야에 대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예정이다.

구미강소특구는 2025년까지 5년간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70여사, 학생 50여사, 매출 500억 이상을 목표로 하며, 청년기술기업 및 4차 산업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10개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차세대·스마트제조, 휴먼뉴노리 분야에 신기술·신제품 제조업에 및 사업화를 이루고, 미래 역사의 확보 및 혁신 생태계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산업 혁신의 선도를 이끌을 담당할 예정이다.

장동욱 구미시장은 "구미강소특구 기술·혁신·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무궁무진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내실 있는 2년차 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더 많은 연구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일간경북신문 2022년 4월 7일자 18면〉

## 보도내용

###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산업 혁신 이끈다

지역 주도 공공기술 사업화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체계적 기술창업·투자연계 지원으로 창업 토대 마련

구미시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북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구미강소특구) 1년차 육성사업이 짧은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2년 2년차를 맞이한 경북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지난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로부터 지정됐다. 특구면적은 총 2.57km<sup>2</sup>(약 78만 평)이며 국립금오공과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금오테크노밸리 ▲구미국가산업4단지 및 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를 배후공간으로 육성 중이다.

구미시는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 확보로 지역 산업생태계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구미 특화산업 경쟁력을 키워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혁신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 ◆지역 주도 수요기술 발굴 및 사업화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해 강소특구 내실화와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기술 생태계 조성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구미강소특구는 지난 1년간 기술이전·출자를 통해 우수 공공기술을 수요기업에 매칭하고,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했다. 적극적으로 공공기술 사업화에 나선 결과, 기술이전 및 출자 37건, 기술이전 사업화 과제지원 13건, 연구소기업 8개사 설립으로 본격적인 기술사업화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구미강소특구 내 제2호 연구소기업 (주)아이팜은 각종 신호기·터치점사기 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농업용 다목적 무인 방제기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팜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모회사 아이티의 네트워크와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이러한 연구소기업에 법인세·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중소기업 운전자급용자한도 우대 등의 혜택 및 후속지원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체계적 기술창업 및 투자연계 지원

구미강소특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질 높은 기술 창업을 유도하였다. 현재 신규창업 11개사가 우수한 아이템을 시제품화하여 중소기업 기술 자립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에서 주관한 ‘제1회 강소특구 혁신성장 IR(Invest Relations) 경진대회’에서 구미 신규창업 2개사가 선정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업 (주)컨셉션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및 경량화 부품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1년 매출 20억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구미 특화분야기업 성장지원

구미강소특구는 특화분야인 스마트제조시스템을 중심으로 ▲공공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양방향 기술발굴연계 사업 ▲기술창업육성을 위한 이노폴리스캠퍼스·엑셀러레이팅지원 사업 ▲혁신네트워크 육성, 지역특성화 육성, 특화기업 해외진출을 통해 창업부터 성장까지 기업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83건의 경영·기술지도,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등으로 지역 특화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장거리 드론 비행이 가능한 통신 모듈을 개발하는 (주)

웨이브랩스는 맞춤형 제품화 지원을 받아 국내외 주요 전시회에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산·학·연, 기업, 연구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 교류·협력함으로써 특화기업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그중 IoT기술을 공유하여 스마트기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스마트 IoT융합기기 R&BD 협의회’의 참여기업 (주)이스턴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7천5백만 원의 납품 계약을 성사했다.

#### ◆향후 사업 추진계획

올해 3월 구미시는 ‘2022년도 경북구미강소특구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사업의 큰 틀은 지난해와 유사하나, 금년부터는 지역특성화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연구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가치 증대를 위해 기술사업화를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 앵커기업 육성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더불어 강소특구형 개방 혁신 플랫폼을 조성한다. 개별특구 육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타 특구와 협력을 모색하고, 강소특구별 특화분야 관련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방침이다.

구미강소특구는 2025년까지 5년간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75개사, 창업 50개사, 매출 500억 달성을 목표로 하며, 첨단기술기업 및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켜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선도형 경제기반에 맞춘 디지털전환, 저탄소·그린경제, 휴먼뉴딜 분야의 신기술·신제품 제조연계 및 사업화를 이루고, 미래 먹거리 확보 및 특화 생태계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산업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강소특구가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내실 있는 2년차 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더 많은 연구소기업과 창업기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복한 '도농복합 자족도시' 구미 건설



김기연  
시장

## 국·도비 319억원 확보 "농촌이 변하고 있다"

구미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도·농 복합명소를 발굴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행복 체재형 도농복합 자족도시 구미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토대로 구미형 이노시티 제고 및 유통활성화를 추진해 지역거점 산업을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경북 최대규모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통합RPC사업) 선정과 푸드플랜 추진으로 안정적 유통망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미 이미지를 제고하고, 비봉산공원을 산책로, 에코랜드내 산림레포츠시설인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도심 속 힐링공간 선산산림휴양지를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으로 경북도 최고의 산림레포츠휴양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경북 최대규모 통합RPC사업 선정·푸드플랜 지역먹거리순환체계 '반려동물친화공원'·도심 속 힐링명소 '선산 산림휴양지' 조성

▶ 경북 최대규모 통합RPC사업 선정  
구미시는 수년간 구미발의 이미지 제고 및 유통 활성화를 추진해 오다가 그간의 발원지인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통합RPC사업)이 지난 2022년 농업농촌진흥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171억여원으로 RPC분야 단일 공모사업으로 있는 역대 금액 최대 규모이다.  
통합RPC사업은 2022년 10월 구미시 7개 농협(연천, 문경, 고령, 구미, 산동, 산북, 무안)이 참여하여 "구미시농협통합유통공공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미시 산업을 화조와 일원(산동, A2000)에 연계하여 세 가지(산림, 건조시설, 복합시설)로 나눠 2022년부터는 세 영역(산부채 건조, 제철, 가공, 유통까지)을 통합하여 담당한다.  
현재 유통 창출에 2022년 하반기에 준공이 마무리되면 수확기 때 건조, 제철시설을 구축으로 인한 농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구미발 판로 확대 및 경쟁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RPC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물

산의 신규 일대야 찬송 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구미형 푸드플랜 기반구축  
구미시는 2019년 농업축산진흥부흥 7개 대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오산정원 휴먼 도시 조성사업 부지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총 10개의 예산으로 연면적 69,000㎡ 규모의 대항, 사육사, 각종 시설시설을 포함한 복합 휴양공간으로 구성된 푸드플랜(푸드플랜)을 추진해 왔다. 2월 '지역별 유통허브가 대상산업'을 농업인 대상 교육에 진행하여 2022년 4월 15일(수)부터 14일(목)까지 교육 및 현장 방문을 위한 소외지역 교육도 진행해 왔다. 2월 '지역별 유통허브가 대상산업'을 농업인 대상 교육에 진행하여 2022년 4월 15일(수)부터 14일(목)까지 교육 및 현장 방문을 위한 소외지역 교육도 진행해 왔다. 2월 '지역별 유통허브가 대상산업'을 농업인 대상 교육에 진행하여 2022년 4월 15일(수)부터 14일(목)까지 교육 및 현장 방문을 위한 소외지역 교육도 진행해 왔다.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모습

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구미시 동물보호센터는 구미시 수의사회가 배정된 100㎡의 휴양 휴양 공간인 반려동물친화공원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도 인간과 가까운 사회문화를 해소하고 상주인 반려동물 문화 정착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심 속 힐링명소 '선산 산림휴양지' 조성  
구미시는 선양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시민과 숲이 어우러진 도심 속 힐링명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20억여원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6년간 20억 원씩 투입하여 2027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힐링명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선산 산림휴양지는 구미시 수의사회가 배정된 100㎡의 휴양 휴양 공간인 반려동물친화공원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도 인간과 가까운 사회문화를 해소하고 상주인 반려동물 문화 정착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도내용

### 행복한 '도농복합 자족도시' 구미 건설

### 국·도비 319억원 확보 "농촌이 변하고 있다"

구미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도심 속 힐링명소를 발굴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함께 행복한 도농복합 자족도시 구미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토대로

구미쌀 이미지 제고 및 유통활성화를 추진해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경북 최대규모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통합RPC사업) 선정과 푸드플랜 추진으로 안정적 유통망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미 이미지를 제고하고, 비봉산공원 황토 산책로, 에코랜드내 산림레포츠시설인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도심 속 힐링공간 선산산림휴

<일간경북신문 2022년 4월 14일자 18면>

양타운 등 다양한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으로 경북도 최고의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경북 최대규모 통합RPC사업 선정·푸드플랜 지역먹거리순환체계 '반려동물문화공원'·도심 속 힐링공간 '선산 산림휴양 타운' 조성

#### ▶경북 최대규모 통합RPC사업 선정

구미시는 수년간 구미쌀의 이미지 제고 및 유통 활성화를 추진해 오다가 그토록 염원이던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통합RPC)이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171억원으로 RPC분야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역대 경북 최대 규모다.

통합RPC사업은 2020년 10월 구미시 7개 농협(선산, 해평, 고아, 구미, 산동, 인동, 무을)이 참여하여 “구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김규섭)”을 설립하여 구미시 선산을 화조리 일원(규모 8,526㎡)에 현대화 벼 가공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DSC)이 갖추어 2023년부터는 벼 매입에서부터 건조, 저장, 가공, 유통까지 종합처리를 담당한다.

올해 5월중 착공하여 '23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이 마무리되면 수확기 벼 건조, 저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구미쌀 판로 확대 및 경쟁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먹거리순환체계 구축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범

지난해 10월 출범한 재단법인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구미로컬푸드직매장 금오산점 운영과 공공급식지원센터, 농산물안전성 확보, 농가조직화, 기획생산체계 구축, 원료 농산물 가공 활성화,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추진 등 푸드플랜 실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관계시장 개척, 월소득 150만원 3,000농가 육성, 2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안전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위한 '구미형 푸드플랜 기반구축'

구미시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오산도립공원 내 대주차장 부지에 국비 5억을 확보하여 총 19억의 예산으로 연면적 566.90㎡ 규모의 직매장, 사무실, 각종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된 로컬푸드직매장 금오산점을 건립중에 있다. 3월 직매장 출하농가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교육을 진행하여 230명의 농업인이 수료하였으며, 4월 품목별 농가 교육 및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고 로컬푸드 예비장터 사전 시범운영하는 등 8월 개장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 2022년~2025년(4년간) 국비 49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농촌과 도시가 모두 행복한 「먹거리 전환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건립, 구미먹

거리전환센터 건립, 시민공유농원조성, 시민 농업학교 개설, 농도상생 거버넌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시책도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한 소득창출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미, 직영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 추진

구미시는 적극적 국비 확보 노력으로 2021 ~ 2022년(2개년)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옥성면 구봉리 일원에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반려동물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주시설인 1단계 동물보호센터는 연면적 1,000㎡ 규모로 사무실, 진료실, 미용실, 교육장 등의 사무동과 보호실, 격리실 등의 보호동으로 소음과 악취 문제가 없도록 현대식으로 설계된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운동시설, 반려인쉼터, 산책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부지선정은 어려운 과정 속에 공모를 통한 후보지 3곳을 신청 받아 지난해 11월 학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이통장협의회 및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옥성면 구봉리 746-79번지 일원(24,747㎡정도)으로 확정하고 같은 해 12월 소재지 마을인 구봉1리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동의를 이끌어 냈다.

1단계 사업은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9월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이며 2단계 사업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2024

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구미시 동물보호센터는 구미시 수의사회가 해평면 금호리 소재의 휴업 중인 민간 승마장을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심 속 복합 힐링공간 '선산 산림휴양 타운'

구미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시민과 숲이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선산읍 노상리 산8-2번지 일원(120ha)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2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대형 산림 프로젝트인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의 일상 속 행복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 응모 및 산림청·경북도 관련 부서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인 결과물로 지방정원(100억), 산림레포츠(50억), 치유의 숲(70억), 숲속 야영장(50억), 목재문화체험장(50억)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조성된다.

금년 5월 「선산 산림 휴양타운 조성」의 핵심사업인 지방정원(6개 테마정원)을 포함한 치유의 숲(치유센터, 테마치유 숲), 산림레포츠(자연 체험형 모험 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23년 숲속 야영장(오토캠핑장, 카라반), 목재문화체험장(목공

예 제작소, 학습· 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경북권 대표 복합 산림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구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농·축산과 산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농민이 행복하고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는 농업도시’ ‘도심 속 힐링·치유 도

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장세용 시장은 “지속적인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발굴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겠다”라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다함께 행복한 도농복합 자족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42</b>
<b>언론사</b>	주식회사 의령신문(의령신문)
<b>심의대상</b>	의령신문 4월 14일~4월 27일자 (제589호) 1면 「지난 1차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오태완 1위 차지」 제하의 기사
<b>주 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b>이 유</b>	<p>위 언론사는 경남 의령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였을 뿐 아니라, 후보자 간 차이를 과장하여 나타낸 그래프를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 지난 1차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오태완 1위 차지

의령신문 의령정론  
경남통계뉴스 3차 여론조사

국회의원 후보 3명 오태완  
서진식 김정권 순  
오태완 군수 균형운영평가  
과반 넘는 56.0% 긍정평가

의령군수 제2차 여론조사를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 3사가 공동으로 PNR(피블리시티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3명이 후보를 중 오태완 군수가 39.2%, 서진식 전 경남도의원 30.8%, 서진식 전 경남도의원 24.5%로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오태완 군수가 1위, 서진식 전 경남도의원 2위, 김정권 전 국회의원 3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오태완 현 군수의 균형 운영평가 조사 결과, 긍정평가가 56.0%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평가가 34.3%로 과반을 넘지 못하였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의령군 정당지지도 조사결과 국민의힘 78.6%, 더불어민주당 12.1%, 정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자는 8명 이하 4.7%, 결 미함 1.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여론조사는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가 공동으로 PNR(피블리시티리서치)에 의뢰하며,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조사 지역별, 장병, 연방병,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하였다.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남녀의 평균인 51.6명. 조사 일자는 지난 4월 2일 12:00~19:00. 조사 방법은 자동 응답서(휴대전화 가상번호 80%, 유선 전화 RDD 20%),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 ±4.3%. 응답률은 19.3%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기사>

#### 의령군수 후보 적합도

Q. 귀하께서는 국민적합 소속 의령군수 후보로 다음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타 다른 후보 1.9%  
결 미함 1.6%  
지지 미함 4.7%

○ 오사건: 2022년 4월 27일자 • 조사일: 4월 2일  
▶ 응답률: 19.3% • 조사방법: 온라인(휴대전화 80%, 유선 RDD 20%) 자동응답서 • 조사기관: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

#### 의령군수 운영 평가

Q. 귀하께서는 오태완 의령군수회 균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반 넘는 56.0% 긍정평가

○ 오사건: 2022년 4월 27일자 • 조사일: 4월 2일  
▶ 응답률: 19.3% • 조사방법: 온라인(휴대전화 80%, 유선 RDD 20%) 자동응답서 • 조사기관: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

<의령신문 2022년 4월 14일~27일자 1면>



## 지난 1차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오태완 1위 차지

### 의령신문 의령정론 경남통계뉴스 3사 여론조사

#### 국민의힘 후보 3명 오태완 서진식 김정권 순 오태완 군수 군정운영평가 과반 넘는 56.0% 긍정평가

의령군수 제2차 여론조사를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 3사가 공동으로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3명의 후보들 중 오태완 군수가 39.2%, 서진식 전 경남도의원 30.8%, 김정권 전 국회의원 24.5%로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오태완 군수가 1위, 서진식 전 경남도의원이 2위, 서김정권 전 국회의원 3위순으로 조사되었다.

오태완 현 군수의 군정 운영평가 조사 결과, 긍정평가가 56.0%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평가 34.3%, 잘 모름 9.7% 순으로 조사되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의령군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78.6%, 더불어민주당 12.1%, 정의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하는 정당 없다 4.7%, 잘 모름 1.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여론조사는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가 공동으로 PNR(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하였다.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남녀 의령군민 516명, 조사 일시는 지난 4월 2일 12:00~19:00, 조사 방법은 자동응답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80%, 유선전화RDD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pm 4.3\%$ , 응답률은 19.3%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43</b>
<b>언론사</b>	대전투데이 주식회사(대전투데이)
<b>심의대상</b>	대전투데이 4월 28일자 1면 「김태흠, 충남지사 첫 여론조사서 양승조에 앞섰다」 제하의 기사
<b>주 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b>이 유</b>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기사를 1면 상단에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투데이

2022년 4월 28일  
1면 1열 1행

## 김태흠, 충남지사 첫 여론조사서 양승조에 앞섰다

(리얼미터) 조사...김태흠 46.2% vs 양승조 39.9%

이날의 충남도지사후보 희망 후 심사한 첫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지지를 오차범위 내인 6.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MBCN의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5~26일 충남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김태흠 46.2%, 양승조 39.9%를 기록했으며, '잘 모름' 15.6%, '없음' 4.6%, '기타 인망' 3.8%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남성유권자 전체와 60대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양 지사는 여성과

20~40대에서 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청담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2.0%로 조사돼 민주당(34.2%)보다 17.8%p 앞섰다.

충남지역 현안인 불는질문에서는 '당사행단-원도 건설'(30.8%)이 가장 높았으며, '양궁기부 혁신도시이관'(17.6%), '국립국기신원단지 조성'(10.6%), '차산 민통선 건설'(10.4%), '1호 신도시 민소중립'(7.2%), '국립 경향병원 설립'(6.2%), '가포림만 해양공원'(3.7%) 순이었다.

6월 지방선거 부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부표용' 99.4%, '부표활 의향 없음' 8.9% '잘 모름' 1.7%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신(90%), 유신(10%) 지등응답형태(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향후 국민의힘이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가 워밍 부분 확립되면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충남 기초단체장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7일 기초단체장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서산시장 태안군수 서형근수 예산군수 홍성군수 금산군수 후보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26일 선거인단 부표와 여론조사 등 당내 경선용 기차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경선 결과를 보면 현재 국민의

힘이 사수 중인 서형근수 후보엔 김기웅 전 서천수업조형장이 노박래 현 군수를 누르고 당선에 앞섰다.

또 국민의힘의 통산봉 현 예산군수가 3년 분출이 선연임 후이 무주공산이 된 예산군수 선거에 최재구 현 홍성보 의원 보좌관이 당내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후보가 됐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김서환 홍성군수의 3년 재임으로 계속 지가 된 홍성군수 선거엔 이은복 현 홍성부군수가 당내 대표를 출마했다.

이밖에 서산시장 후보에 이연성 전 서산시장, 태안군수에 김세호 전 태안군수, 금산군수에 박연인 국민의힘 충남도당 부위원장 등이 출마 유망했다.

이정복 기자

04-912.0000

<대전투데이 2022년 4월 28일자 1면>

## 김태흠, 충남지사 첫 여론조사서 양승조에 앞섰다

(리얼미터) 조사... 김태흠 46.2% vs 양승조 39.9%

여야의 충남도지사후보 확정 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현도지사를 오차범위 밖인 6.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MBN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5~26일 충남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김태흠 46.2%, 양승조 39.9%를 기록했으며, '잘 모름' 5.6%, '없음' 4.6%, '기타 인물' 3.8%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남성유권자 전체와 60대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양 지사는 여성과 20~40대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2.0%로 조사돼 민주당(34.2%)보다 17.8%p 앞섰다.

충남지역 현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동서횡단·철도 건설'(30.8%)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17.6%),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10.6%), '서산 민항 건설'(10.4%), '내포 신도시 탄소중립'(7.3%), '국립 경찰병원 설립'(6.2%), '가로림만 해양공원'(3.7%) 순이었다.

6·1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 투표층 89.4%, 투표할 의향 없음 8.9% 잘 모름 1.7%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0%), 유선(10%) 자동응답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의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가 일정 부분 확정되면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충남 기초단체장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7일 기초단체장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서산시장, 태안군수, 서천군수, 예산군수, 홍성군수, 금산군수 후보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26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등 당내 경선을 거쳐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경선 결과를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사수 중인 서천군수 후보엔 김기웅 전 서천수협조합장이 노박래 현 군수를 누르고 본선에 올랐다.

또 국민의힘의 황선봉 현 예산군수가 3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무주공산이 된 예산군수 선거엔 최재구 현 홍문표 의원 보좌관이 당내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후보가 됐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김석환 홍성군수의 3선 제한으로 각축지가 된 홍성군수 선거엔 이용록 전 홍성부군수가 당을 대표해 출마한다.

이밖에 서산시장 후보에 이완섭 전 서산시장, 태안군수에 김세호 전 태안군수, 금산군수에 박범인 국민의힘 충남도당 부위원장 이름이 올랐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47</b>
<b>언론사</b>	하동신문 주식회사(하동신문)
<b>심의대상</b>	하동신문 4월 26일자 1면 「국민의힘 하동군 당원협의회 회장단 입장문」 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당협 협의회장단이 일부 하동군수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출당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전문을 1면에 부각하여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국민의힘 하동군

### 당원협의회 회장단 입장문

지난 4월 23일 당원 협의회는 협의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9명의 회장이 참석하였고, 참석하지 못한 회장들은 회의의 개최를 숙지하고 있었다.

협의회 자체적으로 난상토론으로 두시간가량 회의는 진행되었다.

△ 윤상기-지난 3월2일 대선과 지선에 사용하라고 100만원 제공 선거법위반 혐의.

△ 하승철-출판기념회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사업편의명목으로 1,000만원 금품수수혐의.

두 후보는 각각 도선관위에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조치됨.

국민의힘 하동군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회의결과 과거에 당의 근본과 하동당협의 자존심, 양심을 짓밟은(무공천)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회장들의 뜻이 모였다.

“무공천”이라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던 2014년 하동당협은 당시 그야말로 해체 직전이였다.

2022년 지금 다시 그때의 형태로 만들어 가고있어 하동당협을 지켜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였다.

지금 국민의힘 하동당협이 보다 더 나은 정치세력으로 발전해 가자는 읍면회장들의 정의로운 의견들이 모여져 결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위의 결의내용은 어느 특정인의 강요나 부탁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당원협의회 의견들을 모아서 결의문을 작성한 것이다.

위 내용을 허위, 왜곡 보도하거나 명예훼손한다면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에서 강력히 법적대응하겠다.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역의 국회의원을 부정하고 하동국민의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경남도당 공관위에서 결정한다.

법적,사회적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이다.

문제의 두 후보에게 물어본다.

과연 지난 8년간 하동당협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지난 9월에 입당한 하 후보는 당협을 위해 무얼 하였는가?

수십년간 당협에 기여한 협의회장단에 떳떳하게 입장을 소명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하동군당협 협의회장단 일동**

## 국민의힘 하동군 당원협의회 회장단 입장문

지난 4월 23일 당원협의회는 협의회장단 회의의를 가졌다.

이날 9명의 회장이 참석하였고, 참석하지 못한 회장들은 회의의 개최를 숙지하고 있었다.

협의회 자체적으로 난상토론으로 두시간 가량 회의는 진행되었다.

△ 윤상기 - 지난 3월 2일 대선과 지선에 사용하라고 100만원 제공 선거법위반 혐의.

△ 하승철 - 출판기념회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사업편의명목으로 1,000만원 금품수수 혐의.

두 후보는 각각 도선관위에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조치됨.

국민의힘 하동군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회의결과 과거에 당의 근본과 하동당협의 자존심, 양심을 짓밟은(무공천)일을 되풀이해서 안된다는 회장들의 뜻이 모였다.

“무공천”이라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던 2014년 하동당협은 당시 그야말로 해체 직전이었다. 2022년 지금 다시 그때의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어 하동당협을 지켜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지금 국민의힘 하동당협이 보다 더 나은 정치세력으로 발전해 가자는 읍면회장들의 정 의로운 의견들이 모여져 결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위의 결의내용은 어느 특정인의 강요나 부탁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당원 협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결의문을 작성한 것이다.

위 내용을 허위, 왜곡 보도하거나 명예훼손 한다면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에서 강력히 법적대응하겠다.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역의 국회의원을 부정하고 하동 국민의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경남도당 공관위에서 결정한다.

법적, 사회적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이다.

문제의 두 후보에게 물어본다.

과연 지난 8년간 하동당협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지난 9월에 입당한 하 후보는 당협을 위해 무얼 하였는가?

수십년간 당협에 기여한 협의회장단에 떳떳하게 입장을 소명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하동군당협 협의회장단 일동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51</b>
<b>언론사</b>	주식회사 기호일보(기호일보)
<b>심의대상</b>	기호일보 5월 2일자 1면 「국힘 이상일, 민주 백군기·이건한 맞대결 모두 우위」 제하의 기사
<b>주 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b>이 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특례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기사를 1면 상단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국힘 이상일, 민주 백군기·이건한 맞대결 모두 우위

## 기호일보·경기일보 공동 여론조사 - 용인특례시장 적합도

### 선별 6·1 지방선거 D-30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상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 우위를 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련 기사 4면>

1일 기호일보와 경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정치조사협회의 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9, 30일 양일간 용인특례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백군기 전 용인특례시장과 이견한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점했다. 이 후보와 백 시장 간 가상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46.6%, 백 시장이 42.6%를 각각 얻어 4.0%p차 점진 양상을 보였다. 60세 이상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비중이 64.7%로 백 시장(29.6%)을 압도한 반면, 40대에서는 백 시장이 60.7%를 얻어 31.6

## 백군기-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적합도

이상일 46.6% vs 백군기 42.6%  
이상일 46.3% vs 이견한 39.7%  
각각 4.0%p·6.6%p 격차 벌어져

%를 획득한 이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47.9%, 백 시장이 31.1%로 이 후보가 앞선 가운데 30대에서도 이 후보가 44.7%의 지지를 얻어 백 시장(40.7%)을 오차범위 내에서 제쳤다. 50대에서는 백 시장이 50.8%를 차지해 이 후보(40.9%)를 따돌렸다. 이 후보와 민주당 이 전 부대변인과 가상대결에서는 이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6.3%로 백 시장과의 가상대결 결과와 흡사한 지지를 나타내 준 반면, 이 전 부대변인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9.7%로, 백 시장이 이 후보와 가상대결에서 얻은 지지율에 비해 다소 낮았다. 연령별 결과에서는 이 후보가 60세 이상에서 64.2%의 지지를 얻어 23.7%를 획득하는데 그 전 부대변인에 비해 강

## 이견한-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적합도

이견한 39.7% vs 이상일 46.3%  
각각 4.4%·4.9%·4.7% 격차 벌어져

세를 보였다. 또 이 후보는 18~29세 연령대의 30.4%에서 각각 46.2%, 45.0%를 얻어 각각 30.8%, 39.2%를 획득한 이 전 부대변인과 격차를 보였다. 반면, 이 전 부대변인은 40대에서 58.2%의 지지를 기록해 이 후보(31.0%)를 압도했으며, 50대에서는 47.4%를 얻어 이 후보(42.5%)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44.5%)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42.8%)이 팽팽히 맞섰으며, 정외당 2.5%, 기타 1.7%,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답변은 8.4%였다. <연락처> 기호 jing@khoibo.co.kr, 경기 pnsic@kjoibo.co.kr

##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이건한 21.0% vs 이상일 46.3%  
오류 10.2%

이건한 21.0% vs 이상일 46.3%  
오류 10.2%

<기호일보 2022년 5월 2일자 1면>

### 보도내용

## 국힘 이상일, 민주 백군기·이건한 맞대결 모두 우위

### 기호일보·경기일보 공동 여론조사...용인특례시장 적합도

이상일 46.6% vs 백군기 42.6%  
이상일 46.3% vs 이견한 39.7%  
각각 4.0%p·6.6%p 격차 벌어져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상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 우위를 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기호일보와 경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9, 30일 양일간 용인특례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백군기 전 용인특례시장과 이견한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 후보와 백 시장 간 가상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46.6%, 백 시장이 42.6%를 각각 얻어 4.0%p차 점진 양상을 보였다. 60세 이상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비중이 64.7%로 백 시장(29.6%)을 압도한 반면, 40대에서는 백 시장이 60.7%를 얻어 31.6%를 획득한 이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47.9%, 백 시장이 31.1%로 이 후보가 앞선 가운데 30대에서도 이 후보가 44.7%의 지지를 얻어 백 시장(40.7%)을 오차범위 내에서 제쳤다. 50대에서는 백 시장이 50.8%를 차지해 이 후보(40.9%)를 따돌렸다.

이 후보와 민주당 이 전 부대변인과 가상대결에서는 이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6.3%로 백 시장과의 가상대결 결과와 흡사한 지지율이 나온 반면, 이 전 부대변인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9.7%로, 백 시장이 이 후보와 가상대결에서 얻은 지지율에 비해 다소 낮았다.

연령별 결과에서는 이 후보가 60세 이상에서 64.2%의 지지를 얻어 23.7%를 획득하는데 그친 이 전 부대변인에 비해 강세를 보였다. 또 이 후보는 18~29세 연령대와 30대에서 각각 46.2%, 45.0%를 얻어 각각 30.8%, 39.2%를 확보한 이 전 대변인과 격차를 벌렸다.

반면, 이 전 부대변인은 40대에서 58.2%의 지지율을 기록해 이 후보(31.0%)를 압도했으며, 50대에서는 47.4%를 얻어 이 후보(42.5%)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44.5%)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42.8%)이 팽팽히 맞섰으며, 정의당 2.5%, 기타 1.7%,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답변은 8.4%였다.

이번 조사는 기호일보와 경기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4월 29~30일 양일간 용인특례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폰 가상번호 90%, 유선전화 RDD 10%)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800명(총 통화시도 9천 864명, 응답률 8.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5\%$ 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립가중] 성·연령대·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53</b>
<b>언론사</b>	서울뉴스통신 주식회사(서울뉴스통신)
<b>심의대상</b>	서울뉴스통신 5월 2일자 칼럼면 「국민의힘 김용남 수원특례시장 후보에 거는 기대」 제하의 칼럼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특례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한 내부 필진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국민의힘 김용남 수원특례시장 후보에 거는 기대

✎ 김인중 편집위원장 | ⓒ 승인 2022.05.02 09:34

올해 유독 변덕이 심했던 4월이 지나가고 어느새 봄의 절정이자 여름의 초입인 5월이 시작됐다. 최근 풍경은 따뜻해진 날씨로 화사한 꽃 기운이 만발하는 완연한 봄이지만, 일각에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냉랭하면서도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중심이자 수부도시 수원을 이끌 리더인 수원시장은 양당에서 쉽사리 내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격전지이다. 이에 응달하듯 수원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인물들만 20여 명 이상으로 3개월의 기간 동안 경쟁한 끝에 국민의힘 측에서 발 빠르게 김용남 후보를 최종적인 수원시장 후보로 확정지었다.



김인중 편집위원장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는 초·중·고를 모두 수원에서 나온 수원토박이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해 무사히 졸업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 발령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원·안양·광주 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자세로 소임을 다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되어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된 김용남 후보는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년엔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병에 출마하여 큰 산과도 같았던 손학규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큰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수원의 역사로 봤을 때 민주당 소속인 염태영 전 시장이 민선 5·6·7기를 이끌면서 환경운동가였던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적극적인 환경정책과 복지정책,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와 같은 문화체육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복지·문화정책에 치중한 만큼 수원시의 기반 시설 건립 부족과 기업을 유치하는데 미진했다는 점을 들어 일정 부분 시의 경제적 규모와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출마한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는 이런 명암(明暗)을 언급하며 크고 작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수원시장으로 선출되면 수원군공항 문제를 6개월 안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한 점이다.

수원군공항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서수원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시설이었다. 건물 고도제한과 심각한 비행장 소음, 개발할 수 없는 170만평의 부지 또한 수원시가 감내해야 할 엄청난 손해이자 피해였다. 전임 시장들과 관련 관계자들이 수원군공항을 다른 시로 이전하겠다고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예비후보지만을 선정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큰 과제를 6개월 안에 중앙정부와 담판을 지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었다.

또 다른 공약으로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의 위상에 맞도록 기업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항목을 들 수 있는데, 김용남 후보는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금융허브를 조성하고 광고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판교보다 더 나은 광고 테크노밸리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주목할 점은 입북동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사이언스파크 사업 재진행 및 해당 부지에 기업들의 R&D센터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출산지원금 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용남 후보의 공약 한마디 한마디마다 내재된 열정과 패기는 어쩌면 아직도 그가 걸어왔던 정치인으로서의 오래된 경험에 비해 노회하지도, 위선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런 점들이 필자를 더욱 당혹하게 만들었다. 정치인으로서 허울뿐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선거 레이스가 끝나지도 않았고, 혹여 당선된다고 해도 과연 지금 보여주는 신뢰의 모습처럼 그가 공약을 잘 이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김용남 후보를 상징하는 문구인 "김용남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처럼 그의 자신감과 결단력 넘치는 행보를 바라보면 정말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렇기에 앞으로 펼쳐질 그의 정치적 행보와 엄청난 자신감으로 그려나갈 수원시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이자 재미이 아닐까?

〈서울뉴스통신 2022년 5월 2일자 칼럼면〉

## 국민의힘 김용남 수원특례시장 후보에 거는 기대

올해 유독 변덕이 심했던 4월이 지나가고 어느새 봄의 절정이자 여름의 초입인 5월이 시작됐다. 최근 풍경은 따뜻해진 날씨로 화사한 꽃기운이 만발하는 완연한 봄이지만, 일각에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냉랭하면서도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중심이자 수부도시 수원을 이끌 리더인 수원시장은 양당에서 쉽사리 내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격전지이다. 이에 응답하듯 수원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인물들만 20여 명 이상으로 3개월의 기간 동안 경쟁한 끝에 국민의힘 측에서 발 빠르게 김용남 후보를 최종적인 수원시장 후보로 확정지었다.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는 초·중·고를 모두 수원에서 나온 수원토박이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해 무사히 졸업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 발령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원·안양·광주 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자세로 소임을 다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되어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된 김용남 후보는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년엔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병에 출마하여 큰 산과도 같았던 손학규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큰 과란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수원의 역사로 봤을 때 민주당 소속인 염태영 전 시장이 민선 5·6·7기를 이끌면서 환경운동가였던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적극적인 환경정책과 복지정책,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와 같은 문화·체육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복지·문화정책에 치중한 만큼 수원시의 기반 시설 건립 부족과 기업을 유치하는데 미진했다는 점을 들어 일정 부분 시의 경제적 규모와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출마한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는 이런 명암(明暗)을 언급하며 크고 작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수원시장으로 선출되면 수원군공항 문제를 6개월 안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한 점이다.

수원군공항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서수원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시설이었다. 건물 고도제한과 심각한 비행장 소음, 개발할 수 없는 170만평의 부지 또한 수원시가 감내해야 할 엄청난 손해이자 피해였다. 전임 시장들과 관련 관계자들이 수원군공항을 다른 시로 이전하겠다고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예비후보지만을 선정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큰 과제를 6개월 안에 중앙정부와 담판을 지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공약으로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의 위상에 맞도록 기업도시로 변모시켰다는 항목을 들 수 있는데, 김용남 후보는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금융허브를 조성하고 광고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판교보다 더 나은 광고 테크노밸리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주목할 점은 입북동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사이언스파크 사업 재진행 및 해당 부지에 기업들의 R&D센터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출산지원금 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용남 후보의 공약 한마디 한마디마다 내재된 열정과 패기는 어찌면 아직도 그가 걸어왔던 정치인으로서의 오래된 경험에 비해 노회하지도, 위선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런 점들이 필자를 더욱 당혹하게 만들었다. 정치인으로서

허울뿐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선거 레이스가 끝나지도 않았고, 흑여 당선된다고 해도 과연 지금 보여주는 신뢰의 모습처럼 그가 공약을 잘 이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김용남 후보를 상징하는 문구인 “김용남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처럼 그의 자신감과 결단력 넘치는 행보를 바라보면 정말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렇기에 앞으로 펼쳐질 그의 정치적 행보와 엄청난 자신감으로 그려나갈 수원시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이자 재미이지 않을까?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54**

**언론사** 주식회사 대구광역일보(대구광역일보)

**심의대상** 대구광역일보 (1) 5월 13일자 1면 「40대 기수 최재훈 청춘불패, 흥행불패로 百年 달성 신축건물 ‘급자탑’ 쌓아올린다」, (2) 5월 17일자 1면 「명장 사라진 대가야국 고령, 신에 이남철 다함께 잘사는 부농도시 희망 고령 건설」, (3) 5월 18일자 1면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의 ‘재선’ 만이 행복·풍요로운 번영의 땅을 갈 수 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의 대구 달성군수, 경북 고령군수, 대구 남구청장 후보자의 이력이나 선거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1면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민의힘 공천으로 달성군수 꿈꾸는 신에 최재훈 후보

# 40대 기수 최재훈 청춘불패, 흥행불패로 百年 달성 신축건물 ‘급자탑’ 쌓아올린다

(연예계 계속)

최재훈, 6·1 재선 9부승진 넘어 30부승진 달성군수 깃발 꽂으면 대구·경북 사상 ‘첫’ 40대만성 군민참거고 군면이 빛나는 달성 모두 건강할 달성전철 호연장담

3월 2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1 재선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 레이스가 시작했다. 최재훈은 30, 19일 서울에서이다. 대구시청, 경매사, 대구·경북교육청, 달성 관내로 옮겨 이-노-기초의원을 운영하는 사립병원 나 아닌은 모두 찍어 되는 70여억원 재벌에서 사후를 받았다.

대만에 부조금 이거고 보자는척 지고받은 나비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사도지사, 중앙의원, 기초의원, 교육청 등과 함께 성공한후를 통해 사립계 의외로 엄청난 국회의원 7명도 뽑는다.

3·9 대선 이후 80여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대만에 따라 모두 대선 현상인 100% 규정하고 모든 유력을 집중하고 있다.

3년 만에 치러진 지방보궐은 국민의힘은 “유사죄 정황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이 당을 견제해 해방”이 될것을 놓고 있다. 이번은 70여억원 국민의원 여론이 ‘별종상’ 일이다.

국민의 높은 정당지지를 바탕으로 ‘국민 의원 공천-상선’이라는 인식이 확대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해 선거를 끝내는 후보들을 찾아 지방정부의 여러 정치인과 공대사상을 얻고자 한다는.

### 40대 기수 최재훈 역대 불패 불패

달성군수 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이 지역은 김보은 달성군수 3년 연임 재선에 붙어 선거를 앞두고 재선으로 돌아간다. 사실은 이 지역이 무주공산이다.

국민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이 당을 견제해 해방”이 될것을 놓고 있다. 이번은 70여억원 국민의원 여론이 ‘별종상’ 일이다.

국민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이 당을 견제해 해방”이 될것을 놓고 있다. 이번은 70여억원 국민의원 여론이 ‘별종상’ 일이다.

국민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이 당을 견제해 해방”이 될것을 놓고 있다. 이번은 70여억원 국민의원 여론이 ‘별종상’ 일이다.

국민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이 당을 견제해 해방”이 될것을 놓고 있다. 이번은 70여억원 국민의원 여론이 ‘별종상’ 일이다.



### 최재훈은 대구시인사들 어떤 경향을 살펴

최재훈은 대구시인사들 어떤 경향을 살펴 지역적인 균형 분포를 지니고 있다. 최 후보는 자신이 갖고 계었던 후보라는 힘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려면 “반경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실시한다는 후고한 신임을 갖고 달성군이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달성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해 나옴대로 오랜 애정이감을 거뒀다. 군수에 당선되려면 중저가 알짜를 잡히는 군수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후보가 내건 선거 구호는 “달성을 새롭게 군민을 함께 8000명 희망으로”로 내 걸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경선과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뜨거울정도로 열화되고 있다. 원래 잘 대구시 행정직장이 부수적 출마를 선언했다.

### 최재훈은 대구시인사들 어떤 경향을 살펴

최재훈은 대구시인사들 어떤 경향을 살펴 지역적인 균형 분포를 지니고 있다. 최 후보는 자신이 갖고 계었던 후보라는 힘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려면 “반경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실시한다는 후고한 신임을 갖고 달성군이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달성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해 나옴대로 오랜 애정이감을 거뒀다. 군수에 당선되려면 중저가 알짜를 잡히는 군수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후보가 내건 선거 구호는 “달성을 새롭게 군민을 함께 8000명 희망으로”로 내 걸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경선과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뜨거울정도로 열화되고 있다. 원래 잘 대구시 행정직장이 부수적 출마를 선언했다.

### 최재훈은 대구시인사들 어떤 경향을 살펴

최재훈은 대구시인사들 어떤 경향을 살펴 지역적인 균형 분포를 지니고 있다. 최 후보는 자신이 갖고 계었던 후보라는 힘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려면 “반경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실시한다는 후고한 신임을 갖고 달성군이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달성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해 나옴대로 오랜 애정이감을 거뒀다. 군수에 당선되려면 중저가 알짜를 잡히는 군수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후보가 내건 선거 구호는 “달성을 새롭게 군민을 함께 8000명 희망으로”로 내 걸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경선과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뜨거울정도로 열화되고 있다. 원래 잘 대구시 행정직장이 부수적 출마를 선언했다.

### 최재훈은 대구시인사들 어떤 경향을 살펴

최재훈은 대구시인사들 어떤 경향을 살펴 지역적인 균형 분포를 지니고 있다. 최 후보는 자신이 갖고 계었던 후보라는 힘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려면 “반경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실시한다는 후고한 신임을 갖고 달성군이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달성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해 나옴대로 오랜 애정이감을 거뒀다. 군수에 당선되려면 중저가 알짜를 잡히는 군수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후보가 내건 선거 구호는 “달성을 새롭게 군민을 함께 8000명 희망으로”로 내 걸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경선과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뜨거울정도로 열화되고 있다. 원래 잘 대구시 행정직장이 부수적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광역시 2022년 5월 13일자 1면>

## 40대 기수 최재훈 청춘불패, 흥행불패로 百年 달성 신축건물 ‘급자탐’ 쌓아올린다

최재훈, 6·1 지선 9부능선 넘어  
10부능선 달성군수 깃발 꽂으면  
대구·경북 사상 ‘첫’ 40대 탄생  
군민 섬기고 군민이 빛나는 달성  
모두 건강한 달성건설 호언장담

5월 1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1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옥 레이스’가 시작됐다. 후보 등록은 12, 13일 이틀간이다.

대구시장, 경북지사, 대구·경북교육감, 일선 단체장과 광역 시·도·기초의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나 아니면 모두 적이 되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투를 벌인다.

때문에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치고받 는 난타전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선에서 시·도지사,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과 함께 보궐선거를 통해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할 국회의원 7명도 뽑는다.

3·9 대선 이후 80여일 만에 치르는 선거이다.

때문에 여야 모두 ‘대선 연장전’으로 규정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5년 만에 여당 지위를 되찾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야당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게 해달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어쨌든 TK지역은 국민의힘 여권의 ‘철옹성’ 텃밭이다.

국힘의 높은 정당지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의 힘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대구광역일보는 지선에서 승리를 꿈꾸는 후보들을 찾아 지방정부의 미래 청사진과 공약 사항을 연재로 신는다.

### ▣ 40대 기수 최재훈 백년 달성 꿈꾼다

달성군수 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이 지역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선거를 끝으로 야인으로 돌아간다. 사실상 이 지역이 무주공산이다.

최재훈 전 대구시의원이 달성군수를 꿈꾼다.

국민의힘 공천장을 거머쥔 최 후보는 달성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뛰어 들었다.

국민의힘 달성군수 3자 경선에서 승리한 최재훈 후보는 1981년생으로 올해 만 40세다.

9부능선을 넘어 10부 능선에 달성군수 깃발을 꽂으면 대구경북 사상 첫 80년대생 기초단체장이 나온다.

달성에서 태어난 최 후보는 대구 대건고와 서울대를 졸업, 영국 요크대에서 사회정책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구시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보좌관, 윤석열 대선후보 달성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을 지냈다.

최 후보는 대구시의원시절 의정 경험을 살려 역동적인 군정 운영을 자신한다.

최 후보는 자신이 젊고 깨끗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다면 “한결같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달성군의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내

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달성에서 10년 가까이 머물며 나름대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쳤다. 군수에 당선된다면 죽자 살자 열심히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최 후보가 내건 선거 구호는 ‘달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최GO달성 최재훈’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경선과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터져 분열정치로 얼룩지고 있다.

전재경 전 대구시 행정국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강성환·조성제 전 예비후보가 컷오프 됐던 전재경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하고 나섰다.

강성환·조성제 전 달성군수 예비후보는 10일 무소속 출마 의사를 굳힌 전재경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아 탈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강 전 예비후보와 조 전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완주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다.

반면 경선 이전 컷오프 된 전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회견문에서 “경선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추경호 달성군 당협위원장은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 경선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적반하장으로 모든 후보를 똑같이 배려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며 불공정을 스스로가 인정하며 당협위원장 자격 없음을 인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비유하며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라 규정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경기에서

결과는 볼 보듯 뻔했고 결과는 당연히 원천 무효다”고 거듭 비판했다.

## ■ 최재훈의 단다공약

최 후보가 단다공약을 내걸었다.

‘군민을 섬기고, 군민이 빛나는 달성’ 비전을 내세우며 ‘모두가 건강한 달성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교육 1번지를 만든다.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영어마을 조성 등으로 맞벌이 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명품 교육 인프라를 확고히 다진다.

창업·취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달성청년 혁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찾아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선진 도시형 주거환경을 구축,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역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등에 박차를 가한다. 테크노폴리스에 종합병원 유치·설립을 추한다.

달성군이 첨단생태문화예술복합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벨트를 구축, 5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

눈여겨볼 공약은 도시 경관을 달성군민의 정체·고유성을 담은 고품격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을 정상화한다.

구시가지의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 동력을 확보,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약속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법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자 근절, 부동산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천으로 고령군수 노리는 이남철 후보

# 명장 사라진 대가야국 고령, 신예 이남철 다함께 잘사는 부농도시 희망 고령 건설

〈2면 계속〉

이남철의 희망 고령 플랫폼 사람이 살기 좋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찾는 잘사는 고령 함께 행복함 복지 천국으로 매력만점 문화관광도시건설 부자 고령을 만드는데 한 몫

5월 1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 예선이 시작됐다. 대구시장, 경부지사, 대구·경북교육감, 일선 단체장과 공여 사·도·기초의원들을 겨루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모두 쫓아 되는 '자비어릴 제법'에서 사투를 벌인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식식 체지고는 나타 전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서 사·도지사, 공여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과 함께 보물산간을 통해 새롭게 여 의도에 임성을 국회의원을 겸도 한다. 3주 대선 이후 50여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때문에 여야 모두 '3선 연동전'으로 규명 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5년 만에 여당 지위를 되찾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 소하고 있다.

이남철은 출마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 당을 견제해 달라"며 맞을 놓고 있다. 어쨌든 7·4지역은 국민의힘 여론의 '철옹성' 뒷받침이다. 국민의힘 높은 정당지지도에 바탕으로 '국민 의힘 공천=당선'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다. 대구광역시장보는 자신에서 승리를 겨루는 후보들을 찾아 지방정부의 미래 제시자와 공 여사투를 연대로 삼는다.

### 이남철 후보가 넘어야 할 산?

말고도 유명한 고령군 인구는 고작 3만 2000여명이다. 조용한 고령이 너무나 시끄럽다. 이 지역은 저출생 고령군수가 3선임으로 아연으로 돌아 간다. 국민의힘 공천수자인 박 높은 당선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공천은 이남철 전 고령군 행정복지국장이 거세졌다. 하지만 견신을 놓고 불협화음이 터졌다.

박정현 전 경북도의원과 임옥강 전 고령군 기획감사실장(1차 정선 탈퇴)이 발의권력이 있는 후보를 포섭하겠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 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탈당, 무소속 출 마 선언했다. 선거가 막 오르면서 고령군수자 리를 놓고 3 후보간 암투 싸움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정치생명을 걸고 대결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 공천을 받은 이남철·박정현 전 경북도 의원, 임옥강 전 고령군청 기획감사실장 3인



6·1지선 이남철 고령군수 후보 정책 공약과 비전

의 전사가 서로 불교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 공천을 받은 이남철 후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불협화음이다. 박정현-임옥강 두 후보가 협공으로 맹목 을 가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동정외장 재직 시 유년들을 스승이 받아 떨어진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복직안 사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임 두 후보는 이남철 후보가 공 부원 재직 중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 전과경력을 본

재 상아 모든 화력을 버렸다. 도저성 기준 에 걸려사유가 확인됐고, 윤석열 새정부기 지 향하는 공경과 상사, 생량정부의 이미지와 맞 지 않다는게 이유다. 고령은 보수지역이다. 국민 공천을 받은 이 남철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지만 박정 현-임옥강 두 후보의 반격도 만만찮다.

### 이남철 희망 고령 건설

이남철 고령군수 후보는 고령 대가야에

서 태어나서 자란 토박이다. 고령군의 주요 부자성을 거쳐 행정복지국 장을 맡으며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1979년 운수면사무소에서 첫 공직에 발을 내디뎠다. 2005년 지방행정사무관, 2016년 지방사무관을 역임했다. 그는 '국가사회발전 유 공으로 대통령표창, 상기 좋은 시여 만들기 공로표창 2회, '재 공복발전 기여'에 도지사 표창 3회 등 다수의 상훈을 보유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위 사회복지 부위 원장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 고령군 본부장 △선고령군청 행정복지국장 (선고령 군청 기획감사실장 △선고령군청 총무과장 (선대구지역청-행정청 △선고령군청 제1대 총 동장청장 △사상사단사단대로 행정대대 원 행정직사서위원을 받은 인물이다.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고령 격정으로 사 용이 깊다.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 어 급가하는 군의 소멸을 역경해야 하는 지경 에 이르러 왔다. 위기의 고령을 이대로 내버 려 둘 수 없다"는 위기론 사명감 때문에 군수 에 출마했다. 현직에서 쓰러지는 현이 있더라도 고령의 위기 상황을 극복, 새로운 고령, 희망의 고령 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는 현안을 면담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할 함께 새로운 고령으로 공 민 모두의 힘을 모아 협치, 더 큰 도약이래 는 일거리를 그린다.

그저서 고령군 인구 5만명 시대, 새 주며 5000세대, 청년 인구 5000명이 되겠다. 이 후보는 △인구와 조성이 우선인 사람 중 심의 고령 지속 가능한 산업경제 도시 고 령 △사회통합 교통체계의 고령 '국회 스마트 스마트' 사업 도입을 강하게 높은, 농업이행 할 고령 △1000 명의 관광에 찾는 데 려 만점 고령을 만든다고 호언 자랑했다. 그는 "위기의 고령을 활력이 넘치는 희망 고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준비로 시간 을 보내거나 임부과외으로 원소세활하여 머 찾거릴 시간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현세의 고령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경험 과 40여년간의 행정 경험으로 국민들이 불편 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된 군수만이 위기에 처한 고령을 살려낼 수 있다"고 자신의 장병을 최대한 부 각시켰다.

### 이남철 '희망고령' 만들기 일강 공약

이남철은 다한다. 이남철의 희망 고령 플랫폼은 사람이 살기 좋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찾아오는 고령으로 만들어 간다. 현재 고령군은 저출생인 인구 절감으로 군 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고령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먼저 사 명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가 되면 우선 군민들이 살기가 좋고 고향을 떠난 향우들은 물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령이 된다. 군민이 살기 좋고 군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 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도시지역을 도시 재생 뉴시업과 시가지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생활의 행복 서비스를 되찾는데 전력투구한다. 이남철 후보가 함의다. 그는 "소핵심과 낙도권을 강화고 후로는 지역균형을 해리므로 대가야 박물관과 정사 관 6곳의 관광지, 3곳의 휴양단지, 6곳의 체 합을 늘려 관광수익을 적자 줄을, 사람들이 왔 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고령으로 탈바꿈시 킨다"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 준비해 이남철만이 희망 고령을 만들 수 있 다고 자신했다.

### 이남철 희망고령 7대 비전

이 후보가 제시한 7대 비전은 △물먹여 줄은 고령 △태백연립 문화관광도시 부자농 촌 △스마트 농업도시 고령 △인력유입 산업 경제도시 고령 △군민이 좋아하는 군민중심형 정 △다함께 행복한 복지천국 △사이아와 맘 (Mom) 관한 고령이다.

물먹여 줄은 고령을 만들기 위해 현농농 부 스마트형 정책지원과 지도자 50명, 농을 구성한다. 청년드림센터 운영으로 창업 정책 공 제 및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태다스, 웰빙장학 공간마련에 대한 플랫폼 행을 전후 지원한다.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건설에도 박차부 가한다.

제일한 대가야문화 라이프스타일로드 운영을 만든다. 대가야에서 문화소포지업을 열고 대가야박물관 디지털전관을 추진한다. 낙동강 강변(나무를 활용)으로 수변테마과 경을 조성한다. 엑스포광장, 행정산책로 조성 및 문화관광도시 지원한다.

운수관광 힐링테마파크를 만든다. 일취월장 산업경제도시 고령건설에 따라 일의 승수 활성 지역에 미래 4차 산업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사)를 추진한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 행정마을을 만든다. 산업단지 디지털 문화관광센터(티)를 구축한다. 단단한 소재부품 중점기업 유치에 정성을 쏟는다.

경쟁력-소상공인 지원체계-계-개조-추 진한다. 외국인 유망 자문센터도 건립한다.

가장중요한 것은 군민행복증상이다. 182-0438

## 명장 사라진 대가야국 고령, 신에 이남철 다함께 잘사는 부농도시 희망 고령 건설

이남철의 희망 고령 플랫폼  
사람이 살기 좋고 사람들이  
살고싶어 찾는 잘사는 고령  
함께 행복한 복지 천국으로  
매력만점 문화관광도시 건설  
부자 고령을 만드는 데 한 몫

5월 1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1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옥 레이스’가 시작됐다.

대구시장, 경북지사, 대구·경북교육감, 일선 단체장과 광역 시·도·기초의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나 아니면 모두 적이 되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투를 벌인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치고받는 난타전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선에서 시·도지사,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과 함께 보궐선거를 통해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할 국회의원 7명도 뽑는다.

3·9 대선 이후 80여일 만에 치르는 선거이다. 때문에 여야 모두 ‘대선 연장전’으로 규정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5년 만에 여당 지위를 되찾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야당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게 해달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어쨌든 TK지역은 국민의힘 여권의 ‘철옹성’ 텃밭이다.

국힘의 높은 정당지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대구광역일보는 지선에서 승리를 꿈꾸는 후보들을 찾아 지방정부의 미래 청사진과 공약 사항을 연재로 신는다.

### ■ 이남철 후보가 넘어야 할 산(?)

말기로 유명한 고령군 인구는 고작 3만 2000여명이다.

조용한 고을이 너무나 시끄럽다. 이 지역은 광용환 고령군수가 3선연임으로 야인으로 돌아간다. 국민의힘 공천은 군수자리 따 놓은 당상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공천은 이남철 전 고령군 행정복지국장이 거머쥐었다.

하지만 경선을 놓고 불협화음이 터졌다.

박정현 전 경북도의회원과 임옥강 전 고령군 기획감사실장이 1차 경선 발표에 범죄경력에 있는 후보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탈당, 무소속 출마 선언했다. 선거가 막 오르면서 고령군수자리를 놓고 각 후보 간 한 치 양보싸움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정치생명을 걸고 대혈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힘 공천을 받은 이남철·박정현 전 경북도 의원, 임옥강 전 고령군청 기획감사실장 3인의 전사가 서로 물고뜯는 싸움을 하고 있다.

국힘 공천을 받은 이남철 후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범죄경력이다.

박정현·임옥강 두 후보가 협공으로 맹폭을 가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동창회재 채직 시 유니폼을 스폰서 받아 벌어진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임 두 후보는 이남철 후보가 공무

원 재직 중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사법처리된 전과경력을 문제 삼아 모든 화력을 퍼붓는다. 도덕성 기준에 걸격 사유가 확인됐고, 윤석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 청렴정부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게 이유다.

고령은 보수지역이다. 국힘 공천을 받은 이남철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지만 박정현-임옥강 두 후보의 반격도 만만찮다.

### ■ 이남철 희망 고령 건설

이남철 고령군수 후보는 고령 대가야읍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박이다.

고령군의 주요 부서장을 거쳐 행정복지국장을 끝으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1979년 운수면사무소에서 첫 공직에 발을 내디뎠다. 2005년 지방행정사무관, 2016년 지방서기관을 역임했다. 그는 ‘국가사회발전’ 유공으로 대통령표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장관표창 2회, ‘새 경북발전 기여’에 도지사 표창 3회 등 다수의 상훈을 보유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위 사회복지 부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 고령군 본부장 △(전)고령군청 행정복지국장 (전)고령군청 기획감사실장 △(전)고령군청 총무과장 (전)대가야읍장·쌍림면장 △(전)고령초교 제19대 총동창회장 △(석사)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이 후보는 “군민 모두가 고령 걱정으로 시름이 깊다,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급기야는 군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위기의 고령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무거운 사명감 때문에 군수에 출마했다.

현장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고령의 위기 상황을 극복, 새로운 고령, 희망의 고령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는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고령으로 군민 모두의 힘을 모아 힘차게, 더 큰 도약이라는 밑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고령군 인구 5만명 시대, 새 주택 5000세대, 청년 인구 5000명이 목표다.

이 후보는 △인프라 조성에 우선한 사람 중심의 고령 △지속 가능한 산업경제 도시 고령 △시통팔달 교통체계의 고령 구축 △미래 스마트 농업 도시로 앞서가는 농촌, 농업인이 행복한 고령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매력 만점 고령을 만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위기의 고령을 활력이 넘치는 희망 고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준비로 시간을 보내거나 업무과약으로 허송세월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현재의 고령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장점과 40여년 간의 행정 경험으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된 군수만이 위기에 처한 고령을 살려낼 수 있다”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 ■ 이남철 ‘희망고령’ 만들기 일감 공약

이남철은 다르다.

이남철의 희망 고령 플랫폼은 사람이 살기 좋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찾아오는 고령으로 만들어 간다.

현재 고령군은 지속적인 인구 절감으로 군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고령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게 되면 우선 군민들이 살기가 좋고 고향을 떠난 향우들은 물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령이 된다.

군민이 살기 좋고 군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도심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시가지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생활의 행복 서비스를 되찾는데 전력질주한다.

이남철 후보가 한말이다.

그는 “소백산맥과 낙동강을 감싸고 흐르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대가야 박물관과 전시관 6곳의 관광지, 3곳의 휴양단지, 6곳의 체험마을 등의 관광시설을 적극 활용, 사람들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고령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야무진 포부를 밝혔다.

준비된 이남철 만이 희망 고령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 ■ 이남철 희망고령 7대 비전

이 후보가 제시한 7대 비전은 △들썩들썩 젊은 고령 △매력만점 문화관광도시 부지농촌 △스마트 농업도시 고령 △일취월장 산업경제도시 고령 △군민이 왕이다 군민중심행정 △다함께 행복한 복지천국 △아이와 맘(Mom)이 편한 고령이다.

들썩들썩 젊은 고령을 만들기 위해 청년농

부 스마트팜 정책지원과 지도자 500명을 육성한다. 청년들미센터 운영으로 창업 정착 공제 일자리를 만든다. 다산 지역에 청년 행복공제 및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웹툰창작 공간마련에 따른 활성화를 전폭 지원한다.

매력만점 문화관광도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제일 먼저 대가야문화 라이트&플라워 로드 왕의 길을 만든다. 대가야역사 문화심포지엄을 열고 대가야박물관 디지털전환을 추진한다.

낙동강 은행나무숲 힐링단지과 수변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익스트림장, 힐링산림원 조성 및 유스호텔건립도 지원한다.

운수관광 황금테마파크를 만든다.

일취월장 산업경제도시 고령건설에 따라 열외 송곡 월성 지역에 미래 4차 산업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꾸민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데 행정력을 모은다. 산업단지 디지털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탄탄한 소재부품 중견기업 유치에 정성을 쏟는다.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조례 제·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을 위한 지원센터도 건립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행정중심이다.



##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의 '재선'만이 행복· 풍요로운 번영의 땅을 갈 수 있다

**‘재선’ 노리는 조재구 남구청장 후보  
신발끈 바짝 동여매고 ‘민심’속으로  
“남구의 혁신 다시 한 번 더 거침없이  
해 내겠습니다” 큰 도약 의지 불태워**

5월 1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1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옥 레이스’가 시작됐다.

대구시장, 경북지사, 대구·경북교육감, 일선 단체장과 광역 시·도·기초의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나 아니면 모두 적이 되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투를 벌인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치고받는 난타전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선에서 시·도지사,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과 함께 보궐선거를 통해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할 국회의원 7명도 뽑는다.

3·9 대선 이후 80여일 만에 치르는 선거이다.

때문에 여야 모두 ‘대선 연장전’으로 규정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5년 만에 여당 지위를 되찾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야당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게 해달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어쨌든 TK지역은 국민의힘 여권의 ‘철옹성’ 텃밭이다.

국힘의 높은 정당지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의 힘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대구광역시일보는 지선에서 승리를 꿈꾸는 후보들을 찾아 지방정부의 미래 청사진과 공약 사항을 연재로 싣는다.

### ■ 조재구 재선으로 다시 한번 영광을

국민의 힘 공천을 거머쥔 조재구 남구청장 후보는 재선으로 다시 한 번 명품 남구를 만든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고령출신이다.

고령성산초등학교, 고령중학교를 거쳐 대구 중앙상업고교를 졸업했다. 영남대학교 엠블럼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학사)영남대학교 엠블럼 영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을 나왔다.

그는 행정발전공헌 부문 2020년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제5·6대 남구의회 의원 △남구의회 의장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회장 △제7대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민선7기 25대 대 남구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에는 재선을 노린다.

조 후보는 신발끈을 바짝 동여매고 민심 속으로 들어갔다. 남구 주민을 등에 업고 명품 남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

조 후보가 내건 구호는 “남구의 혁신 다시 한 번 더 거침없이 해 내겠습니다”이다.

조 후보는 “지난 4년간 구정 경험을 바탕으로 남구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더 큰 도약을 거침없이 해내 구민의 삶의 질을 확실히 바꿔 놓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지난 4년간 남구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

반을 다졌다고 자랑했다.

100년 된 미군부대 장벽을 허물어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의 발판과 대구 대표도서관 기공식도 가졌다. 무엇보다 구청사, 실내수영장, 남부소방서 건립 등 생활SOC 인프라 구축을 위한 1000여억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 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새로운 남구의 변화와 더 큰 도약을 위해 15만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남구의 옛 명성을 반드시 찾아 주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남구청장에는 국민의힘 조재구 후보와 민주당 최창희 후보가 형전을 벌인다.

### ■ 조재구의 6대 비전 공약

조 후보는 앞산네거리 인근에 선거사무실을 꾸렸다.

이곳에는 늘 사람들도 북적인다.

조 후보는 △더 큰 도약을 위한 프리미엄 도시 △지속 가능한 녹색힐링도시△관광콘텐츠가 넘치는 디지털 문화관광도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형 교육도시 △행복과 함께 살맛 나는 복지도시 △일자리 창출로 신바람 나는 희망도시의 6대 비전을 제시했다.

명품도시·녹색힐링도시 남구건설을 자신했다.

행복복합타운 건립으로 남구청사와 남구소방서를 신축한다.

지하철 역세권 주변 재개발을 활성화 하고 서부정부류 터에 산업기술연구단지를 만든다.

고산골 로하스 건강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큰골 소리길 조성으로 야간 산책 명소화를 만

들어 관광객 유치에 힘쓴다.

디지털 문화 관광도시 남구를 만드는데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남구 일대에 전국 최고의 관광테마파크를 건설한다. 사랑의 오작교로 불리는 앞산 하늘나라를 만든다. 강당골에 도시형 캠핑장도 만든다.

### ■ 앞산 체류형 관광지 육성

팔공산과 함께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명산 앞산이 더 젊고 화려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산은 연간 100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다.

조 후보는 앞산을 아침과 밤을 잇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0년 8월 구비 14억원을 들여 완공한 앞산해넘이전망대는 일 평균 관람객이 2000명에 달하는 등 대박 행진을 보였다. 노을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는 셈이다.

조 후보가 내놓은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은 이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의 핵심사업이다.

이곳에 총사업비 48억원을 들여 18개 동으로 구미는 캠핑장은 회의실 및 숲속 도서관을 갖춘 관리동, 주차장, 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 공간을 제공한다.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문슬라이딩 돔,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도 갖춘다.

앞산해넘이전망대와 캠핑장 사이에는 ‘사랑의 오작교’가 들어선다.

빨래터공원과 앞산을 잇는 140m 길이의 다리 건설이다.

다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시작과 끝 지점에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설치해 방문

객이 원하는 메시지를 목소리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리 정중앙에는 하트모양의 조형물과 조명 등이 설치돼 젊은 커플들의 이벤트 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 뿐 아니다. 산자락에는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조성돼 하산한 등산객 및 주민들의 이목을 모은다.

골안골 캠핑장 내 650㎡ 규모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쉼터를 조성, 방문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조 후보는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앞산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 남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앞산에 다양한 인프라를 추가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보고 싶은 전국적인 명소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 ■ 미래형 교육도시 행복도시 남구 건설

조 후보는 미래형 교육도시 행복도시 남구를 건설한다. 시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은 물론, 어린이 영어 영화관을 건립한다. 저소득층이 차별 없이 교육받는 여건도 만든다.

조 후보는 진로 진학 코칭센터 기능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주니어 천문스쿨을 개강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젊은세대 유입에 행정력을 모은다.

지역 활성화로 신바람 나는 남구를 만든다.

실내 수영장을 건립한다. 포용적 행정시선 축을 통한 주민생활개선에 앞장선다.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트 구축으로 상권을 활성화 한다.

공유형 일자리 센터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공공배달앱을 개발 살인이 잘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한다.

조 후보는 시니어바리스타 체험관도 건립한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58</b>
<b>언론사</b>	주식회사 국제뉴스(국제뉴스)
<b>심의대상</b>	국제뉴스 5월 11일자 전국-인천면 「유정복, 박남춘과 격차 '8%p'대로 벌려」 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조사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제여건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비교하여 후보자간 지지율을 분석하고, 인용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 및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유정복, 박남춘과 격차 '8%p'대로 벌려

▲ 문찬식 기자 | ⓒ 승인 2022.05.11 09:34

## 정치 분석가, 돌발변수 없는 한 '유 후보 상승세 지속' 전망

(인천=국제뉴스) 문찬식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격차를 8%p대로 벌리며 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27일 (중부일보)	4월29일 (중앙일보)	5월01일 (조선일보)	5월04일 (MBN)	5월07일 (OBS)
유정복	43.2% (-0.3%)	41.5% (+5.2%)	44.4% (+6.1%)	46.0% (+6.5%)	45.7% (+8.4%)
박남춘	43.5%	36.3%	38.3%	39.5%	37.3%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의 최근 여론조사표 (사진=정복캠프)

정복캠프에 따르면 유 후보는 4월 22일 당내 경선에서 2명의 상대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국민의힘 민선8기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박 후보는 4월 25일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유와 박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중앙일보가 4월 29~30일 갤럽에 의뢰, 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유정복 후보가 41.5%를 얻어 박남춘 후보(36.3%)를 5.2%p 차이로 앞섰다.

이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4월 29일~5월 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유 후보는 44.4%를 받아 38.3%에 그친 박 후보를 6.1%p 차이로 높였다. 5월 2~3일 MBN이 리얼미터에게 맡겨 지지도를 조사했다.

이 조사 역시 유 후보가 46%를 차지해 박 후보(39.5%)를 6.5%p 차이로 이겼고 가장 최근인 5월 6~7일 O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유 후보가 45.7%로 박 후보(38.3%)에 오차범위 밖으로 8.4%p나 높였다.

이 같은 견고한 상승세는 유 후보가 민선6기 시장 재임 중 성과와 도덕성 등 인물 론과 집권여당 후보로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지역의 한 정치 분석가는 11일 "시민들이 경력과 성과 면에서 우월한 유정복 후보를 시장 적임자로 판단하는 기류가 뚜렷해 보인다"며 "돌발변수가 없는 한 유 후보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한편 이들 조사는 803명~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3.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mcs0234@hanmail.net

저작권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정복, 박남춘과 격차 '8%p'대로 벌려

### 정치 분석가, 돌발변수 없는 한 '유 후보 상승세 지속' 전망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격차를 8%p대로 벌리며 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북캠프에 따르면 유 후보는 4월 22일 당내 경선에서 2명의 상대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국민의힘 민선8기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박 후보는 4월 25일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유와 박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중앙일보가 4월 29~30일 갤럽에 의뢰, 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유정복 후보가 41.5%를 얻어 박남춘 후보(36.3%)를 5.2%p 차이로 앞섰다.

이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4월 29일~5월 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유 후보는 44.4%를 받아 38.3%에 그친 박 후보를 6.1%p 차이로 눌렀다. 5월 2~3일 MBN이 리얼미터에게 맡겨 지지도를 조사했다.

이 조사 역시 유 후보가 46%를 차지해 박 후보(39.5%)를 6.5%p 차이로 이겼고 가장 최근인 5월 6~7일 O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유 후보가 45.7%로 박 후보(38.3%)에 오차범위 밖으로 8.4%p나 높았다.

이 같은 견고한 상승세는 유 후보가 민선6기 시장 재임 중 성과와 도덕성 등 인물론과 집권 여당 후보로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지역의 한 정치 분석가는 11일 "시민들이 경력과 성과 면에서 우월한 유정복 후보를 시장 적임자로 판단하는 기류가 뚜렷해 보인다"며 "돌발변수가 없는 한 유 후보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한편 이들 조사는 803명~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 3.1~3.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59</b>
<b>언론사</b>	주식회사 뉴시스(뉴시스(NEWSIS))
<b>심의대상</b>	뉴시스(NEWSIS) 5월 11일자 정치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지지율 격차, 5%에서 8%대로 ↑”」 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조사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제여건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비교하여 후보자간 지지율을 분석하고, 인용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 및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지지율 격차, 5%에서 8%대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유정복 캠프에 따르면, 박남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25일 이후 여론조사에서 유정복·박남춘 양강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뒤를 잇는 형국이다.

지난달 29~30일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유정복 예비후보는 41.5%를 얻어 박남춘 후보(36.3%)를 5.2%포인트 앞섰다.

이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4월29일~5월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유 예비후보는 44.4%를 받아 38.3%에 그친 박 후보를 6.1%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월 2~3일 MBN이 리얼미터에게 맡

겨 시장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역시 유 예비후보가 46%를 차지해 박 예비후보(39.5%)를 6.5%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

가장 최근인 지난 6~7일 O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유 예비후보는 45.7%로 박 예비후보(38.3%)보다 8.4%포인트 높았다.

유 예비후보 캠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유 예비후보의 견조한 상승세는 유 예비후보의 민선 6기 시장 재임 중 성과와 도덕성 등 인물론과 함께 집권여당 후보로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 조선일보, TV조선, MBN, OBS의 여론조사는 803~1006명을 대상으로 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3.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60

**언론사** 현대일보 주식회사(현대일보)

**심의대상** 현대일보 5월 12일자 2면 「유정복-박남춘 지지율 5→8%p 점점 벌어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조사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제여건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비교하여 후보자간 지지율을 분석하고, 인용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유정복-박남춘 지지율 5→8%p 점점 벌어져

##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여론조사 결과 분석



유정복 국민  
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더  
불어민주당 박  
남춘 예비후보  
와 지지율 격  
차가 5%p대  
에서 8%p대  
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달 22일 당내 경선에서 안상수, 이학재 후보를 따돌리고 국민의힘 민선 8기

시장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며 경쟁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박 예비후보 역시 지난달 25일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여론조사는 유 후보와 박 후보 양강 구도가 형성됐고 그 뒤를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잇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지난달 29~30일 갤럽에 의뢰해 이번 인천 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물음에 유정복 후보가 41.5%를 얻어 박남춘 후보

(36.3%)를 5.2%p 차이로 앞섰다.

이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4월 29일~5월 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부탁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유 후보는 44.4%를 받아 38.3%에 그친 박 후보를 6.1%p 차이로 눌렀다. 이후 5월 2~3일 MBN이 리얼미터에게 맡겨 실시한 시장 지지도를 조사에서 역시 유 후보가 46%를 차지해 박 후보(39.5%)를 6.5%p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5월 6~7일 O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유 후보가 45.7%로 박 후보(38.3%)에 비해 오차범위를 벗어나 무려 8.4%p나 앞섰다. 이처럼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정복 후보는 박남춘 후보와의 격차를 5.2%→6.1%→6.5%→8.4%p로 꾸준히 벌리고 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b.com

(17.2\*12.7)cm

	3월27일 (중부일보)	4월29일 (중앙일보)	5월01일 (조선일보)	5월04일 (MBN)	5월07일 (OBS)
유정복	43.2% (-0.3%)	41.5% (+5.2%)	44.4% (+6.1%)	46.0% (+6.5%)	45.7% (+8.4%)
박남춘	43.5%	36.3%	38.3%	39.5%	37.3%

<현대일보 2022년 5월 12일자 2면>

### ☞ 보도내용

## 유정복-박남춘 지지율 5→8%p 점점 벌어져

###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여론조사 결과 분석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예비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5%p대에서 8%p대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달 22일 당내 경선에서 안상수, 이학재 후보를 따돌리고 국민의힘 민선 8기 시장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며 경쟁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박 예비후보 역시 지난달 25일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여론조사는 유 후보와 박 후보 양강 구도가 형성됐고 그 뒤를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잇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지난달 29~30일 갤럽에 의뢰해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물음에 유정복 후보가 41.5%를 얻

어 박남춘 후보(36.3%)를 5.2%p 차이로 앞섰다.

이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4월 29일~5월 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부탁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유 후보는 44.4%를 받아 38.3%에 그친 박 후보를 6.1%p 차이로 눌렀다. 이후 5월 2~3일 MBN이 리얼미터에게 맡겨 실시한 시장 지지도를 조사에서 역시 유 후보가 46%를 차지해 박 후보(39.5%)를 6.5%p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5월 6~7일 O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유 후보가 45.7%로 박 후보(38.3%)에 비해 오차범위를 벗어나 무려 8.4%p나 앞섰다. 이처럼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정복 후보는 박남춘 후보와의 격차를 5.2%→6.1%→6.5%→8.4%p로 꾸준히 벌리고 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61</b>
<b>언론사</b>	주식회사 중앙신문(중앙신문)
<b>심의대상</b>	중앙신문 5월 12일자 12면 「유정복, 박남춘과 격차 5%p대 →8%p대로 벌려」제하의 기사
<b>주 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b>이 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조사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제여건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비교하여 후보자간 지지율을 분석하고, 인용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중앙신문

## 유정복, 박남춘과 격차 5%p대→8%p대로 벌려

분석가 “유 후보 상승세 지속” 전망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격차를 5%p대에서 8%p대로 벌리며 승세를 굳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달 22일 당내 경선에서 2명의 상대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국민의힘 민선 8기 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박 후보는 지난달 25일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여론조사상 유와 박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고 그 뒤를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잇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지난달 29~30일 갤럽에 의뢰해 이번 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물음에 유정복 후보가 41.5%를 얻어 박남춘 후보(36.3%)를 5.2%p 차이로 앞섰다.

이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4월 29일~5월 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부탁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유 후보는 44.4%를 받아 38.3%에 그친 박 후보를 6.1%p 차이로 눌렀다.

5월 2~3일 MBN이 리얼미터에게 맡겨 시장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역시 유 후보가 46%를 차지해 박 후보(39.5%)를 6.5%p 차이로 이겼다.

가장 최근인 5월 6~7일 O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유 후보가 45.7%로 박 후보(38.3%)에 비해 오차범위 밖으로 8.4%p나 높았다. 이처럼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정복 후보는 박남춘 후보와의 격차를 5.2%→6.1%→6.5%→8.4%p로 꾸준히 벌려왔다.

이 같은 견조한 상승세는 유 후보가 민선6기 시장 재임 중 성과와 도덕

2022년 05월 12일  
12면 (수도권)



유정복 후보



박남춘 후보

성 등 인물론과 함께 집권여당 후보로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 한 정치 분석가는 11일 “시민들이 경력과 성과 면에서 우월한 유 후보를 시장 적임자로 판단하는 기류가 뚜렷해 보인다”며 “돌발변수가 없는 한 유 후보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들 조사는 803명~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1~3.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남용우선임기자

(16.7\*11.0)cr

〈중앙신문 2022년 5월 12일자 12면〉

## 유정복, 박남춘과 격차 5%p대→8%p대로 벌려

### 분석가 “유 후보 상승세 지속” 전망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격차를 5%p대에서 8%p대로 벌리며 승세를 굳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달 22일 당내 경선에서 2명의 상대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국민의힘 민선8기 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박 후보는 지난달 25일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유와 박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고 그 뒤를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잇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지난달 29~30일 갤럽에 의뢰해 이번 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물음에 유정복 후보가 41.5%를 얻어 박남춘 후보(36.3%)를 5.2%p 차이로 앞섰다.

이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4월 29일~5월 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부탁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유 후보는 44.4%를 받아 38.3%에 그친 박

후보를 6.1%p 차이로 눌렀다.

5월 2~3일 MBN이 리얼미터에게 맡겨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역시 유 후보가 46%를 차지해 박 후보(39.5%)를 6.5%p 차이로 이겼다.

가장 최근인 5월 6~7일 O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유 후보가 45.7%로 박 후보(38.3%)에 오차범위 밖으로 8.4%p나 높았다. 이처럼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정복 후보는 박남춘 후보와의 격차를 5.2%→6.1%→6.5%→8.4%p로 꾸준히 벌려왔다.

이 같은 견고한 상승세는 유 후보가 민선6기 시장 재임 중 성과와 도덕성 등 인물론과 집권 여당 후보로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 한 정치 분석가는 11일 “시민들이 경력과 성과 면에서 우월한 유정복 후보를 시장 책임자로 판단하는 기류가 뚜렷해 보인다”며 “돌발변수가 없는 한 유 후보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들 조사는 803명~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3.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4. 주의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1</b>
<b>언론사</b>	주식회사 고창신문(고창신문)
<b>심의대상</b>	고창신문 2월 7일자 4면 「천호성 민주진보 단일후보 기자회견문」 제하의 기사
<b>주 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 유</b>	위 언론사는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기자회견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천호성 민주진보 단일후보 기자회견문

## 전북교육 세대교체, 새로고침.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교육가족 여러분!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이후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중단없는 교육개혁을 위해 원팀이 되는 과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없이 기존 선출위를 중심으로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하는 활동을 진행중에 있고, 다음 주부터는 존경하는 차상철, 이항근 선배님과 함께 전북을 순회하는 '동행투어'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하나 된 마음과 생각을 도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15년의 교사와, 17년의 수업연구교수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교육현장을 잘 알고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학교교육전문가'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제 전북에서도 현장교사 출신 젊은 교육전문가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며 수업, 상담, 생활지도를 해본 적도 없이 대학의 행정경험만을 앞세우며 초·중·고 교육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교육가족 여러분! '전 지구적 기후재난의 시대, 지역소멸 학교소멸의 시대, 4차산업혁명 시기 개인 생



존의 시대를 대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북의 미래 시대정신을 초·중등교육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의 6가지를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 설립,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돌봄 100% 책임운영제, 학생·청소년기본수당 지급, 학교인권센터로 확장하여 교권 보호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

축' 이제 전북교육의 세대교체와 새로고침이 필요합니다. 누가 더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는 도민들이 판단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 흔히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 비판합니다. 더욱이 현재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에 올 6월의 지방교육자치선거는 깜

깜이를 더욱 부채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책과 인물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회자되고 있는 새 후보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광역단위 선거인만큼 후보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기획하여 자주 만들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최형남 기자

## 천호성 민주진보 단일후보 기자회견문

### 전북교육 세대교체, 새로고침,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교육가족 여러분!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이후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위해 원팀이 되는 과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기존 선출위를 중심으로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하는 활동을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부터는 존경하는 차상철, 이항근 선배님과 함께 전북을 순회하는 ‘동행투어’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하나 된 마음과 생각을 도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15년의 교사와, 17년의 수업연구교수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교육현장을 잘 알고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해가기 위해 노력해온 ‘학교교육전문가’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제 전북에서도 현장교사 출신 젊은 교육전문가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며 수업, 상담, 생활지도를 해본 적도 없이 대학의 행정경험만을 앞세우며 초·중등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교육가족 여러분! 전 지구적 기후재난의 시대, 지역소멸 학교소멸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기 개인 생존의 시대를 대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북의 미래 시대정신을 초·중등 교육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의 6가지를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 설립,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돌봄 100% 책임운영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학교인권센터로 확장하여 교권보호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이제 전북교육의 세대교체와 새로고침이 필요합니다. 누가 더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는 도민들이 판단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요청 드립니다. 흔히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 비판합니다. 더욱이 현재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에 올 6월의 지방교육자치선거는 깜깜이를 더욱 부채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책과 인물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회자되고 있는 세 후보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광역단위 선거인만큼 후보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기획하여 자주 만들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도지사 안민석, 교육감 이재정 '우위 선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12.1%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

'지지후보 없다' 또는 '모른다'  
부동층 36.2%로 판세 안갯속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경기지역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차기 경기도지사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게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와 경기일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의원이 14.4%의 지지를 얻었고, 김의원은 12.1%를 기록했다. 두 의원간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내인 2.3%p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 9.5%, 염태영 수원시장 6.9%, 심재철 전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5.3%, 정병국 전 국회의원 3.5%, 이석현 전 국회의원 3.3%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관심이 대통령선거에 집중된 탓에 지지후보가 없거나(19.1%), 잘 모른다(17.1%)는 응답이 36.2%에 달해 향후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안민석(17.7%), 유은혜(11.9%), 염태영(9.2%), 김태년(6.0%) 등으로 선호했고, 국민의힘 후보로는 김은혜

(18.8%), 심재철(8.8%), 정병국(7.6%) 등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 현 교육감의 강세 속  
보수진영 임태희 전 총장 7.2%  
이주호 전 장관 7.0%로 추격전

## 부동층·단일화 변수작용 전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재정 현 교육감이 강세를 보였다.

보수와 진보 진영내에서 후보단일화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진보 성향인 이재정 교육감은 16.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보수 성향의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각각 7.2%, 7.0%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다. 이 교육감과 임 전 총장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벗어난 7.3%다.

이어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3%~6%대의 지지율을 보이며 단일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6.6%, 이종태 전 민주당 사교육대책 특별위원장 5.2%, 이한복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4.4%, 성기선 전 한국교육평가원장 4.2%, 송주명 한신대 교수 4.1%를 얻었고, 교육감 도전에 나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8%로 저조했다.

도교육감 선거도 아직은 도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잘 모름' 22.2%, '지지후보 없음' 16.7% 등으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구도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인천일보와 경기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주)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월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100%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

수는 1004명(총 통화시도 1만1220명, 응답률 8.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p$ 다. 오차보정은 2021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립가중)을 부여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4
언론사	울산제일일보 주식회사(울산제일일보)
심의대상	울산제일일보 3월 3일자 8면 「현장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11면 「송철호의 상상, 현실이 되다」, 3월 4일자 3면 「송철호의 상상, 현실이 되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울산광역시 시장 및 북구청장 출마예정자의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현장구청장 이동권입니다** | 이동권 칼럼집 |

내일은 또 어떤 현장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다

정치와 행정은 본질적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실력과 실천, 실적을 낼 수 있는 유능하고 현명하며 용기 있는 리더가 변화를 주도한다.  
이 책은 현장에서 소통·공감하며 주민을 위한 무한 헌신을 강조한다.

★★★★★  
유능한 행정 리더를 꿈꾼다면 꼭 읽어야 하는 책!  
개혁군주 정조와 다산 정약용 국내 최고 전문가 "리더라면 정조처럼"의 저자 한신대 김준혁 교수의 추천 도서!

좋은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조용나눔 의제를 응원합니다.

도서구매  
문학서점 / 052-295-3919  
북구 이진로 94(농소3동)  
• 출간 일정상 2월 13일 이후부터 판매합니다.

〈울산제일일보 2022년 3월 3일자 8면〉

송철호의 상상, 울산이 된다  
울산시민들의 시대

송철호 지음

세경

★★★★★  
**절찬 판매중**  
★★★★★

송철호의 상상, 울산이 된다

나는 울산을 사랑합니다.

돌이켜보면 나의 울산 사랑의 긴 여정은 하나의 문장이 관통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울산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울산의 기본권을 지키자'는 것 입니다. - 박리말 중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네이버에서 바로 구매가능합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인터넷서점과 울산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울산제일일보 2022년 3월 3일자 11면, 3월 4일자 3면>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5</b>
<b>언론사</b>	주식회사 경상일보(경상일보)
<b>심의대상</b>	경상일보 3월 3일자 3면 「송철호의 상상, 현실이 되다」, 3월 4일자 18면 「송철호의 상상, 현실이 되다」제하의 광고
<b>주문</b>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울산시장 출마예정자의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경상일보 2022년 3월 3일자 3면, 3월 4일자 18면〉

의결번호	제8회 지산-자심6
언론사	주식회사 광역매일(울산광역시매일)
심의대상	울산광역시매일 3월 3일자 2면 「송철호의 상상, 현실이 되다」 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울산시장 출마예정자의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광역시매일

송철호의 상상, 현실이 되다

송철호 지음

4월

세경

송철호의 상상, 현실이 되다

나를 울산을 사랑합니다.

둘이해보면 나의 울산 사랑의 긴 여정에는 하나의 문장이 관통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울산이 마땅히 누리아야 할 권리, 울산의 기본권을 지키자'는 것 입니다. - 머리말 중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네이버에서 바로 구매가능합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인터넷서점과 울산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절찬 판매중

095-18-8504

<울산광역시매일 2022년 3월 3일자 2면>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7
언론사	주식회사 울산매일신문사(울산매일)
심의대상	울산매일 3월 3일자 3면 「송철호의 상상, 현실이 되다」 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울산시장 출마예정자의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울산매일 2022년 3월 3일자 3면>

<b>의결번호</b>	<b>제8회 지산-자심8</b>
<b>언론사</b>	주식회사 헤럴드(헤럴드경제)
<b>심의대상</b>	헤럴드경제 3월 8일자 14면 「논산을 가꾸는 사람, 전민호의 삶과 도전 논산에 살어리랏다」/「섬김·소통·공감... 『김태춘의 보물찾기』」, 3월 14일자 14면 「논산을 가꾸는 사람, 전민호의 삶과 도전 논산에 살어리랏다」/「섬김·소통·공감... 『김태춘의 보물찾기』」, 3월 16일자 14면 「논산을 가꾸는 사람, 전민호의 삶과 도전 논산에 살어리랏다」/「섬김·소통·공감... 『김태춘의 보물찾기』」 제하의 광고
<b>주문</b>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충청남도 논산시장 예비후보자 및 경기도 의왕시장 예비후보자의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The image shows two book advertisements. The left advertisement is for the book "논산에 살어리랏다" (I Live in Nonsan) by Jeon Min-ho. It features a photo of the author and lists his credentials: 2012년 연무장장, 2019년 황해도시국장, 2019년 동고동학국장, 2020년 김홍신 문학관 관장, and 前 논산대건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논산문화원 이사. The price is listed as 20,000원. The right advertisement is for the book "김태춘의 보물찾기" (Kim Tae-chun's Treasure Hunt) by Kim Tae-chun. It features a photo of the author and describes him as a former mayor of Uiwang-si, a diligent person, and the author of "Kim Tae-chun's Story". A red circular badge says "화제의 책" (Hot Topic Book). The price is also 20,000원.

<헤럴드경제 2022년 3월 8일자, 14일자, 16일자 14면>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9
언론사	주식회사 천지일보(천지일보)
심의대상	천지일보 3월 9일자 27면 「섬김·소통·공감... 『김태춘의 보물찾기』」, 3월 16일자 26면 「섬김·소통·공감... 『김태춘의 보물찾기』」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경기도 의왕시장 예비후보자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섬김·소통·공감 ...

# 김태춘의 보물찾기

발로 뛰고 가슴으로 일한다!  
짙짙한 내공으로 오늘도 준비합니다

공무원의 귀감인  
성실한 사람  
김태춘의 이야기!

**화제의 책**

김태춘 지음

값 20,000원

<천지일보 2022년 3월 9일자 27면, 3월 16일자 26면>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재심2 (원결정 제8회 지선-자심9)
재심청구인	주식회사 천지일보(천지일보)
재심청구 대상	천지일보 3월 9일자 27면 「섬김·소통·공감... 『김태춘의 보물찾기』, 3월 16일 자 26면 「섬김·소통·공감... 『김태춘의 보물찾기』」 제하의 광고
주 문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 취 지	제8회 지선-자심9 결정과 관련하여 취소를 구한다.
이 유	<p>재심청구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의왕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저술광고를 게재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심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대상광고 게재 당시, 저서의 필자가 예비후보 등록예정자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주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p> <p>살피건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호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에 대한 광고 게재를 명백히 금하고 있는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언론사의 사전 인지 여부를 전제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청구인이 저서의 필자가 예비후보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원심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p> <p>또한 주의 조치는 해당 선거보도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알려 주의를 환기하고자 사후적으로 내린 조치에 불과하므로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도 없다.</p> <p>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10</b>
<b>언론사</b>	주식회사 주간한산신문(주간 한산신문)
<b>심의대상</b>	주간 한산신문 3월 5일자 6면 「토박이 김만옥의 구수한 통영이야기 『통영의 푸른바다』」, 3월 12일자 22면 「토박이 김만옥의 구수한 통영이야기 『통영의 푸른바다』」제하의 광고
<b>주문</b>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경상남도 통영시의원 예비후보자의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토박이 김만옥의 구수한 통영이야기**

## 통영의 푸른바다

김만옥 지음

1954년 통영의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옛 만하정 옆 언덕 중앙동 148번지에서 태어났다. 통영초·중·고를 졸업하였으며, 늘상 통영의 숨결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다. 지금도 매일 아침부터 통영 전지역을 걸어다니며 통영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생각한다.

**김만옥 지음 318쪽 | 값 20,000원**

구입문의 055-643-3117    저지연락처 010-4567-0232

**고향지킴이 김만옥, 진솔하고 구수한 인생이야기 한산신문 출판사업부 출간, 통영 과거-현재 걸잡이**

가슴에 감동을 일으킨 문체로 책을 만들었다. 아마 가장 통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통영의 변화과정부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나 지금, 미래의 꿈까지 통영의 젊은세대들이 읽으면 얻는것이 있을 것이다.      강기대 전 통영예총 회장

50~70년대 통영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읽었다. 통영의 사투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로 돌아간 듯 행복감을 느꼈다. 통영을 기록하고 잊지 않기 위해 쓴책이다.      류태수 통영한산대입문화재단 이사

한산신문 출판사업부 **도서출판 한산**

<주간한산신문 2022년 3월 5일자 6면, 3월 12일 22면>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12
언론사	남해신문 주식회사(남해신문)
심의대상	남해신문 3월 4일자 6면 「빈중수 시집 『완행버스』 나의 남해 순례」 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경상남도 남해군의원 예비후보자의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빈중수 시집  
완행버스  
나의 남해 순례

지나고 보니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아! 그때도 좋은 줄 알았더라면...

남해를 살고 사랑하며 노래하다  
40여 년간 기록이 시집이 되었다

지나고 보니 아련한 기억이요 아름다운 추억이라지만,  
고개 들어 가을을 보니 흰 머리 성장하고  
긴 새털 모진 바닷바람에 쓸린 상처가 해야될 수 없다.  
가슴에 처한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씩은 글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빈중수 시집 | 154쪽 | 15,000원  
나의 남해 순례

※ 책은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사: 010-11-441-5031

KYOBO 2382 YES24.COM 알라딘

<남해신문 2022년 3월 4일자 6면>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13
언론사	남해미래신문 주식회사(남해미래신문)
심의대상	남해미래신문 3월 4일자 11면 「빈중수 시집 『완행버스』 나의 남해 순례」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경상남도 남해군의원 예비후보자의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남해미래신문 2022년 3월 4일자 11면〉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14</b>
<b>언론사</b>	주식회사 대구광역일보(대구광역일보)
<b>심의대상</b>	대구광역일보 3월 23일자 7면 「윤종도 전 경북도의원, 청송군수 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청송군수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대구광역시

윤종도 전 경북도의원, 청송군수 출마 선언

조경하고 또 사랑하는 청송 군민 여러분!  
청송의 지킴이, 유종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청송의 아들로 태어나 유년시절부터 60여 년간 고향을 지키며 단 한 번도 청송을 떠난 바 없습니다. 청년시절, 4-H 농촌운동을 시작으로 청년의스, 바르계삼기운동 등 여러 가지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청송의 과거와 현재를 책임져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침체된 현실 속에서, 청송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이번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청송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으며, 저의 모든 활동은 오직 청송군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생이 전심일일 가슴에 새기고 청송군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농업과 산업 30여년간 다방면의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쌓아온 노련함으로 저 유종도가 부자 청송, 행복 청송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청송 경제의 부흥에 가장 중요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 청송의 소득원천 시과 "청송시과공유농산센터(주)(가칭)를 설립하겠습니다. 청송군 농업은 시과 고추 파수가 지루 그 중 시과파수가 주 소득원으로 3,800여 농가가 많은 경향과 기술력으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들이 바로 걱정 없이 농익어만 대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달콤 선입하지에 맞는 "청송시과공유농산센터(주)(가칭)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이 설립 하는 것이 농가를 도와주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내 시과농가가 소득이 높으면 청송군 경제는 활력이 생기지만, 시과의 가격이 떨어지면 읍 면 소재지 경기도 더불어 어려워지게 되므로 유통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청송시과공유농산센터(주)" 설립이 청송시과 농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2. "주요산 리오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청송을 경북의 "관광특구"로 승격하겠습니다. 고속도로로 인해 청송으로의 접근성도 많이 개선되었고, 호텔, 소노베정승원, 권업연구소와 안옥민에촌 등 숙박시설은 국내 어느 관광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국립공원 주왕산과 더불어 전역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이 머무르면서 편의성과 일상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전보다 관광객 수가 갈수록 많은 경향을 보면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주변 생태와 충분한 주차장 확보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고충사항에 기여하고 연구유일과 함께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3. 많이 태어나고, 살기 좋은 새로운 청송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청송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군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노년층의 공동주택을 매개로 한 새로운 임차권 창출을 통해 전 연령층이 하나 되어 다시 태어나는 청송을 만들겠습니다. 2030년까지 청송인구 3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4. 깨끗하고 하나되는 청송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지나오면서 전일 군수들은 청송 군민들과의 약속을 그려쳐 일기를 마치지 못한 채, 공적인 책임과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엇든 소나무"의 이름을 가진 청송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잘 지키고, 지도자의 생각과 마음이 어렵다하여 청송군민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깨끗하게 살아온 저 유종도는 정경향과 무명함을 바탕으로 우리 청송의 아픈 과거를 뒤돌아보고, 오직 군민들만 바라보며 흠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행복한 청송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33억 9천만원, 8억 3,600만원"이 숫자는 제가 10대 도어원으로 활동할 당시 확보한 토지와 교육청 예산입니다. 또한, 2017년 송성-주왕산 간 1.8km의 4차로 확장공사에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80억의 예산을 별도 확보하고, 현물인 도판2의 커다란 저수지와 주왕산면 주산지리 파나무길 저수지 사업 계획을 통해 현재 축소중에 있습니다. 청년시절부터 저의 꿈은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청송이었

▶윤종도 청송군수 예비후보 <청송군 주요 공약사업> - 22개 사업

- 1. 농업소득증대
  - 청송시과공유농산센터(주)(가칭) 설립
    - 군내에서 생산되는 시과를 일괄적으로 집하, 판매를 거대교류센터 강화와 한국 제1의 브랜드 유지
    - 유통부처협사과, 공급과잉물량 가공판매로 청송시과 부가가치와 대내외 경쟁력 제고
    - 시과 이외 고추 등 타작물도 센터에서 가공, 유통가능 할터로 농가 전체 소득 향상 도모
    - 철수 슬로시티 시과 플랫폼 조성
      - 사과농가, 사과가공시설, 사과축제, 주왕산 등 관광자원들을 청송군슬로시티 이미지를 연계하여 청송군의 농업, 식품산업, 관광산업이 하나로 아우라지되게하여 효과성과 부가가치를 제고
      - 청송로컬푸드 활성화
        - 소득증대와 생산되는 신선한 식재료를 지역내 시과, 숙박업소, 연수원, 병원, 학교, 요양시설 등 단체급식소에 공급되는 체계를 조성, 소규모농가 소득증대에 수혜 높은 슬로시티 관광지 먹거리 재공으로 관광지 이미지 제고
        - 경북사과연구소 운영
        - 농가인력지원센터 운영
  - 2. 관광개발
    - 적지원 관광 청송 구면
      - 기 조성된 인프라마케슬로시티, 유네스코세계유산, 미술관, 전시관, 체험관, 문화관, 야외공연, 사과축제, 농약체험, 권업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대회 등)를 더욱 발전시켜 테마파크로써의 관광개발로 머무르고 가는 최치원 관광지 구면
      - '생태관광 지오 청송센터(가칭) 설치
        - 고속도로 청송IC 부근 청송의 모든 관광문화 정보 제공, 알선과 농특산물직판장 운영 및 방문객교류시설, 편의시설 제공으로 민남의 관광가능 담당
        - 신성계곡 방호정 관광지 조성
          - 하천정비 및 신성계곡 녹색길 정비 및 활성화와 오토캠핑장 조성
    - 3. 환경개선
      - 마을별 하수종말처리장 확대
      - 상수도급수구역 확대
      - 청송시과 현대화 주차장 설치
      - 일터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
    - 4. 보건, 복지
      - 건강향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추진
        - 경로당 증설로 "건강청송지킴이사업", "본분연말관망가사업",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읍면별 체육시설 관리 지원
        - 신남지역 전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 5. SOC 사업유치
      - 의성(대구공항) - 청송 - 영미 철도건설 적극추진
      -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 주왕산 4차로 확장
    - 6.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면
      - 청송사랑회계 확대 시행
    - 7. 기타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운영합리화로 공무원 직무충도 개선
      - 청송군 새마을사업 권립
      - 인제대학 상하사업 확대
        - 200여명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지급 확대
        - 수업능력향상을 위한 학교지원
        - 대도시 학사운영 확대

윤병모 기자

151 × 420 mm

## 윤종도 전 경북도의원, 청송군수 출마 선언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청송 군민 여러분, 청송의 지킴이, 윤종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청송의 아들로 태어나 유년시절부터 60여 년간 고향을 지키며 단 한 번도 청송을 떠난 바 없습니다. 청년시절, 4H 농촌운동을 시작으로 청년회의소, 바르게살기운동 등 여러 가지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청송의 과거와 현재를 책임져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침체된 현실 속에서, 청송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이번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청송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청송 경제의 부흥에 가장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 청송의 소득원인 사과 “청송사과가공유통센터(주)”(가칭)를 설립하겠습니다. 청송군 농업은 사과 고추 복숭아 자두 그 중 사과품목이 주 소득원으로 3,800여 농가가 많은 경험과 기술력으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들이 판로 걱정 없이 농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청송사과가공유통센터(주)’(가칭)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설립 하는 것이 농가를 도와주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내 사과농가가 소득이 높으면 청

송군 경제는 활력이 생기지만, 사과의 가격이 떨어지면 읍 면 소재지 경기도 더불어 어려워지게 되므로 유통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청송사과가공유통센터(주)” 설립이 청송사과 농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2. “주왕산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청송을 경북의 ‘관광특구’로 승격시키겠습니다.

고속도로로 인해 청송으로의 접근성도 많이 개선되었고, 호텔, 소노벨청송점, 임업연수원과 한옥민예촌 등 숙박시설은 국내 어느 관광지와의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국립공원 주왕산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이 머무르면서 편안함과 일산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전보다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통계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관광명소 주변 정비와 충분한 주차장 확보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인구유입과 함께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3. 많이 태어나고, 살기 좋은 새로운 청송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청송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군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노년층의 공동육아를 매개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 연령층이 하나 되어 다시 태어나는 청송을 만들겠습니다. 2030년까지 청송인구 3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4. 깨끗하고 하나되는 청송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지나오면서 전임 군수들은 청송 군민들과의 약속을 그려쳐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푸른 소나무’의 이름을 가진 청송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잘 지키고, 지도자의 생각과 마음이 아름답다워야 청송군민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깨끗하게 살아온 저 윤종도는 정직함과 투명함을 바탕으로 우리 청송의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오직 군민들만 바라보며 흠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행복한 청송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33억 9천만원, 8억 3,600만원” 이 숫자는 제가 10대 도의원으로서 활동할 당시 확보한 도비와 교육청 예산입니다. 또한, 2017년 송생-주왕산 간 1.8km의 4차로 확장공사에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80억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현동면 도평2리 거두산 저수지와 주왕산면 주산지리 피나무골 저수지도 사업계획을 통해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청년시절부터 저의 꿈은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청송이었으며, 저의 모든 활동은 오직 청송군민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민심이 천심임을 가슴에 새기고 청송군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농업과 상업 30여년간 다방면의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쌓아온 노련함으로 저 윤종도가 부자 청송, 행복 청송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윤종도 청송군수예비후보

<청송군 주요 공약사업> - 22개 사업

## 1. 농업소득증대

- ‘청송사과가공유통센터(주)(가칭) 설립
  - 군내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일괄적으로 집하, 판매로 거래교섭력 강화와 한국 제1의 브랜드 유지
  - 유통부적합사과. 공급과잉물량 가공판매로 청송사과 부가가치와 대내외 경쟁력 제고
  - 사과 이외 고추 등 타작물도 센터에서 가공. 유통기능 첨가로 농가 전체 소득 향상 도모
- 청송 슬로시티 사과 클러스터 조성
  - 사과농가, 사과가공시설, 사과축제, 주왕산 등 관광자원들을 청송군슬로시티 이미지를 연계하여 청송군의 농업, 식품산업, 관광산업이 하나로 어우러지게하여 효과성과 부가가치를 제고
- 청송로컬푸드 활성화
  - 소득증대와 생산되는 싱싱한 식재료들을 지역 내 식당, 숙박업소, 연수원, 병원, 학교, 요양시설 등 단체급식소에 공급되는 체계를 조성. 소규모농가 소득증대에 수준 높은 슬로시티 관광지 먹거리 제공으로 관광지 이미지 제고
- 경북사과연구소 유치
- 농가인력지원센터 운영

## 2. 관광개발

- 착지형 관광 청송 구현
  - 기 조성된 인프라(국제슬로시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미술관, 전시관, 체험관, 문학관, 의병공원, 사과축제, 농막체험, 전국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대회 등)를 더욱 발전시켜 테마 클러스터형 관광개발로 머무르고 가는 착지형 관광지 구현

- ‘생명공원 지오 청송센터’ (가칭) 설치  
고속도로 청송IC 부근 청송의 모든 관광문화  
정보 제공, 알선과 농특산물직판장 운영 및 방  
문객교류시설, 편의시설 제공으로 만남의 광  
장 기능 담당
- 신성계곡 방호정 관광지 조성  
하천정비 및 신성계곡 녹색길 정비 및 활성화  
와 오토캠핑장 조성

### 3. 환경개선

- 마을별 하수종말처리장 확대
- 상수도급수구역 확대
- 청송시장 현대화 주차장 설치
- 안덕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

### 4. 보건. 복지

- 건강한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경로당 중심으로 ‘건강청송지킴이사업’, ‘튼튼  
한혈관만들기사업’,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읍면별 체육시설 관리 지원
- 산남지역 진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 5. SOC 사업유치

- 의성(대구공항) - 청송 - 영덕 철도건설 적  
극추진
-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주왕산 4차로 확장

### 6.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대책마련
- 청송사랑화폐 확대 시행

### 7. 기타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운영합리화로 공무  
원 직무풍토 개선
- 청송군 새마을회관 건립
- 인재육성 장학사업 확대
  - 200억원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지급 확대
  - 수업능력향상을 위한 학교지원
  - 대도시 학사운영 확대



## “과거 명성 되찾고 부안군 재도약 원년 만들겠다”

###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장, 6·1 지방선거 부안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

김성수(등룡RPC 대표) 전 부안군의회장이 지난 22일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안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표심몰이에 나섰다.

김 전 의장은 부안군의회 제4대 부의장과 제5대 의장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넓은 포용으로 처리하며 검증된 관계적 대민 역량 및 강한 추진력과 30여 년간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쌓은 풍부한 실물경제 경험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며 지역에서 소통으로 다져진 탄탄한 조직력으로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가 살아서 지속 성장하는 부안을 만들겠다”며 격포~위도간 연육교 건설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위도를 개발하여 침체된 관광산업 육성과 새만금 부안지역 3권역에 관광기반시설을 두텁게 구축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명소화 사업 등 추진으로 관광콘텐츠 스펙트럼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 조직 개편을 단행해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부안의 100년 미래와 세대 간의 따뜻한 동행을 위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부안군의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맞춤형 정책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본지는 오는 6.1 지방선거 부안군수 민주당 후보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전 의장을 만나 출마의 변을 게재해본다.

### 공천탈락의 고배,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그 특유의 추진력으로 민선8기 부안군수 재도전 의사 강력히 피력

등룡 RPC를 경영하면서 평생을 농민들과 생업을 같이하며 느꼈던 부안군민들의 고달픈 삶과 힘겨운 중소기업 경영을 통해 다져진 저의 정치철학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가 있는 활력이 넘치는 부안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으로 군민 모두가 활력이 넘치게 잘 사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2002년 제4대 부안군의회 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여 하반기 부의장과 제5대 부안군의회 의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민선7기 지방선거 과정까지가 제게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스스로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백의종군의 자세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차근차근 준비를 다시금 해왔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많은 분들을 만나며 소중히 청해 들었던

한 말씀 한 말씀이 체계는 부안의 낙후된 현실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고충 해결을 위한 해결책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부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향점, 올바른 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준비해온 사항들을 부안군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고 누구보다도 준비된 후보임을 당당하게 입증하여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부안군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하달식 관치주의에서 벗어난,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군정 지향

### 농민과 허물없는 소통 경험과 군의회 의장 경험은 상향식 군정 실현에 큰 도움 될 것

저는 우리 부안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망설임 없이 저 김성수를 뽑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진단해보자면, 현재 우리 부안의 문제는 군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안군민 여러분은 생업의 최전선에서 제각기 맡은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오고 계시지만, 이를 부안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는 데에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군정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새만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리 부안은 어장의 70%를 전북 도민의 염원을 위해 매립으로써 희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인근 지역인 김제와 군산에 비해 우리 부안이 얻은 결과는 미미하고 초라한 성과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군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잘못된 군정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저의 정치철학은 “내려놓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안군민의 신임을 받고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신에 주어진 권한을 본인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행사하려 들 것이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낸 결과의 집행으로서만 행사될 때 권한행사의 정당성이 비로소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바른 군정의 방향으로서, 제 정치철학의 연장선에서 상향식 군정으로 탈바꿈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안을 정체시킨 주범인 군정은 이러한 접근에서 비로소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저를 이러한 군정의 책임자로 뽑는 이유는 제 경험들에 근거합니다. 등룡RPC 대표로서 생업에 종사하며 많은 농민들과 격식 없이 소통해온 지 어언 30여 년째입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차후 제가 군정에 임하게 되었을 때도 많은 분들과 기꺼이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어있다고 자신합니다.

저의 소신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군민들이 보다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군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5대 부안군의회 의장으로서 의회 내 대립하는 의견들을 조율하고 갈등을 봉합해왔던 경험을 살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데로 모아 화합하는 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안군민과 함께하는 부안의 100년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어르신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추진

부안군은 이미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일컬어지는 “뉴 노멀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추세가 자리잡았고 우리 부안군은 그 추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추세가 이대로 고착화 된다면 급격한 인구 감소로 현재 부안군의 51,000여명 인구가 30,000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과거 부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재도약은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자리, 교육, 주택,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인구유입과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정책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2000년도 부안·고창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그 당시는 부안·고창을 연결한다고 해서 부창대교였는데 지금은 노을대교입니다만,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실익과 효율성 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돼서 못하게 되었던 사업이 지난해 비로소 제5차 국토건설계획에 반영이 되어 노을대교 건설을 추진하게 되어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산 도립공원 관광지가 순환형 단일 관광권으로 연계돼 제한적으로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안군의회에 있을 당시 부안 격포에서 위도까지 연육교 건설을 주장하였는데요,

전남 도서지역은 대부분 연육교와 연도교를 건설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위도는 현재 여객선 결항율이 연간 150일에 이르고 1959년 통도호 침몰사고로 60명 사망과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292명이 사망하는 두 번의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격포~위도간 연육교를 건설하여 두 번에 걸친 위도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영광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천혜의 관광자원인 위도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인구유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안군은 노인인구가 34.3%에 달하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과 더불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특수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문제가 아니며,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가 있기까지의 어르신 세대의 공로에 대한 보답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버산업’이라는 부안군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맞춤형 정책 플랫폼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 부안군민과 함께 부안의 100년 미래를 그려 나갈 터

민선8기 부안군수 선거가 있는 올해는 부안군민과 함께 부안의 100년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부안군 도처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회의 땅 새만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체되어왔던 부안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 시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부안군 재도약의 적기입니다. 더욱이 군민 여러분과 함께 쉽지 않

은 길이 될 여정을 떠나야 할 부안군수를 선출하는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올해 치러지는 만큼, 올해는 부안의 명운을 좌우할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부안을 재건하기 위한 구상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저 김성수, 군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올해 부안군 재도약의 원년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16</b>
<b>언론사</b>	주식회사 전광미디어(전광투데이)
<b>심의대상</b>	전광투데이 3월 28일자 3면 「보성군수 선형수 입후보자입니다」 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보성군수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전광투데이

2022년 03월 28일  
03면 (종합)

## 보성군수 선형수 입후보자입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

군민 대표로 도민체전 15년을 선수와 감독을, 북내남초등학교 전국대회 우승 기념으로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를 기획하여 군 단위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IOC 한국대표인 탁구신동 유승민이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군민과 학생을 위해 관내 미술선생님 그리고 작가와 함께 미술동아리를 만들어 13년간 전시와 문화공동체 구성에 앞장 서왔으며, 영광스러운 보성군민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보성군 어린이날, 학생의 날, 통일축제를 함께 만들어 보성군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실천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보성지부는 전남의 유일한 연탄나눔 운동자부로 15년간 492,600장을 수많은 봉사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치활동으로는 김근태 의장님 대통령 만들기를 시작으로 전남도당 조직위원장, 17대 대선 보성군 선대본부장,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19대 대선 전남 선대위 공동위원장,

김영록 지사 선대본 공동선대위원장,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이낙연 캠프 총괄상황실 부실장과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국가비전 국민통합본부장으로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디에 서있든 보성군민을 생각해왔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도 보성군민의 자존심과 영광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나아난 우리를 위해 살아온 민주당의 백년당원(528명)으로,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을 4번이나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대학 졸업 후 40여년 오로지 보성군민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선형수가 보다는 보성군을 위해 참된 일꾼이 되고자 당당히 보성군수 출마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함께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여 더불어 함께 잘살아가는 보성군을 만들겠습니다.



선형수 보성군수 입후보자

하나, 보성군을 문화도시로 만들어서 찾아오는 보성군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교육은 타 지역에서도 부럽도록 학생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응급실을 보완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 기본소득과 순환농법으로 선도하겠습니다.

하나, 보성차와 쪽파, 양다래, 딸기 등 특산물은 최대한으로 소비자를 찾아 유통하겠습니다.

하나, 한우와 축산농가를 위해 소비자가 찾는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나,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정책은 타 지역보다 오로지 군민을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출항우를 위한 고향사랑 정책을 만들어 출항우의 내공을 균형발전예 점목하겠습니다.

전 이낙연 총리께 총리실에서 보성군수가 되면 대한민국의 많은 농·어·임촌의 부러운 롤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제안과 조언 가르침을 듣고 지지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형수 보성군수 후보는 여러분께 기쁨을 뽐뿌 드리고 사랑받을 보성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육근 기자

(11.6\*28.0)cr

## 보성군수 선형수 입후보자입니다

어렵게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 군민 대표로 도민체전 15년을 선수와 감독을, 복내남초등학교 전국대회 우승 기념으로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를 기획하여 군 단위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IOC 한국 대표인 탁구신동 유승민이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군민과 학생을 위해 관내 미술선생님 그리고, 작가와 함께 미술동아리를 만들어 13년간 전시와 문화공동체 구성에 앞장 서왔으며, 영광스러운 보성군민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보성군 어린이날, 학생의 날, 통일축제를 함께 만들어 보성군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실천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보성지부는 전남의 유일한 연탄나눔 운동지부로 15년간 492,600장을 수많은 봉사자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정치활동으로는 김근태 의장님 대통령 만들기를 시작으로 전남도당 조직위원장, 17대 대선 보성군 선대본부장,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19대 대선 전남선대위 공동위원장, 김영록 지사 선대본 공동선대위원장,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이낙연 캠프 총괄상황실 부실장과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국가비전 국민통합본부장으로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디에 서있든 보성군민을 생각해왔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도 보성군민의 자존심과

영광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나 아닌 우리를 위해 살아온 민주당의 백년 당원(528명)으로,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을 4번이나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대학 졸업 후 40여년 오로지 보성군민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오던 선형수가 보다는 보성군을 위해 참된 일꾼이 되고자 당당히 보성군수 출마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함께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여 더불어 함께 잘살아가는 보성군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보성군을 문화도시로 만들어 찾아오는 보성군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교육은 타 지역에서도 부럽도록 학생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응급실을 보완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 기본소득과 순환농법으로 선도하겠습니다.

하나, 보성차와 쪽파, 양다래, 딸기 등 특산물은 최대한으로 소비자를 찾아 유통하겠습니다.

하나, 한우와 축산 농가를 위해 소비자가 찾는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양봉 농가를 위한 밀원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나,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정책은 타 지역보다 오로지 군민을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출향우를 위한 고향사랑 정책을 만들어 출향우의 내공을 군정발전에 접목하겠습니다.

전 이낙연 총리께 총리실에서 보성군수가

되면 대한민국의 많은 농·어·임촌의 부러울  
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을 잊  
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제안과 조언 가르침을 듣  
고 지지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만 코로나 19

로 인해 글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선형수 보성군수 후보는 여러분께 기쁨을  
듬뿍 드리고 사랑받을 보성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17</b>
<b>언론사</b>	주식회사 호남제일신문(호남제일신문)
<b>심의대상</b>	호남제일신문 3월 31일자 11면 「구형보 김제시장 출마」 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김제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구형보 김제시장 출마

오직 김제 시민만 바라보고 봉사한다는 각오 출마 결심  
열린마음과 적극행정으로 잘사는 김제와 시민소통 우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국은 엄중하지만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고, 시민들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시설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가서 말 한 마디 따뜻하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기도하면서 김제시장으로 출마하는 구형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제에서 나고 자란 김제의 아들로 김제에서 키워준 구형보입니다.

오직 김제시민만 바라보면서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41년 6개월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의 가장 기초인 면사무소에서 시작해 군청, 시청, 도청을 거치는 동안 김제시 축산면장, 친환경농업과장,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장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소통하는 가운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린 세종과 정조의 자세로 김제시민을 섬기고자 합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어 백성들과 원활한 소통을 했고, 정조는 백성들이 집과 쉼터를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백성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저, 구형보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김제시민과 소통하면서 잘 사는 김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예산 확보와 시민소통을 우선하겠습니다.

내부행정은 부시장 체계로 이끌고, 저는 국가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앙부처, 국회, 사회지도층을 찾아다니면서 김제시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잘 사는 김제, 미래가 있는 김제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만남에 소통이 있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항상 시민 가까이 시민의 곁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시민과 밀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요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김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황금의 땅, 농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김제는 예로부터 기름진 땅, 넓은 들녘, 살고 싶은 지역으로 한때는 인구가 26만을 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황금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김제는 황금빛 땅을 가진 지역입니다. 환경이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제대로 된 농업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는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김제만의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황금빛 땅에서 황금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의 땅이 우리 김제를 진정한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에 시설농업 확충, 인근 농업기관과 민간업체와 협업한 시범단지 조성, 농업기반 6차산업 추진 등을 통해 김제가 황금의 땅, 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김제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독거노인 증가, 가족과 연락두절 등으로 어르신들의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불편을 덜어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안심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와 어르신 인권 보호 대책과 어르신들의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김제로 만들겠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임신부에게는 출산의 지원,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 경력단절이 이어지는데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래문화는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 장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걱정 없는 시립 추모관 및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김제, 돌아오는 김제로 만들겠습니다.

김제는 넓은 들녘을 가로질러 만경강이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지나며 새만금이 연결되어 있는 천혜의 교통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물류단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인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물류단지는 익산의 식품물류센터, 전주공단, 새만금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의 창출로 확대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김제, 돌아오는 김제로 만들어 김제를 제2의 황금 시기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향유와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너무 오랫동안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줄 문화 향유와 스포츠 활동기회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문화와 체육은 지친 일상에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체육을 가까이 접하는 가운데 일상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서로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삶의 행복은 먹고사는 일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문화와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문화를 향유하고 방에서 뛰놀수 있을때 행복한 삶이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일상이 문화로, 일상이 체육으로 스며들어 함께 공감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구형보 김제시장 출마

오직 김제 시민만 바라보고 봉사한다는

각오 출마 결심

열린 마음과 적극행정으로 잘사는 김제와  
시민소통 우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국은 엄중하기만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고, 시민들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시설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가서 말 한 마디 따뜻하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기도하면서 김제시장으로 출마하는 구형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제에서 나고 자란 김제의 아들로 김제에서 키워준 구형보입니다.

오직 김제시민만 바라보면서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41년 6개월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의 가장 기초인 면사무소에서 시작해 군청, 시청, 도청을 거치는 동안 김제시 죽산면장, 친환경농업과장,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소통하는 가운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린 세종과 정조의 자세로 김제시민을 섬기고자 합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어 백성과 원활한 소통을 했고, 정조는 백성들이 징과 쟁과리를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백성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저, 구형보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김제시민과 소통하면서 잘 사는 김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예산 확보와 시민소통을 우선하겠습니다.

내부행정은 부시장 체계로 이끌고, 저는 국가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앙부처, 국회, 사회지도층을 찾아다니면서 김제시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잘 사는 김제, 미래가 있는 김제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만남에 소통이 있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항상 시민 가까이 시민의 곁을 중흥무진 누비면서 시민과 밀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요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김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황금의 땅, 농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김제는 예로부터 기름진 땅, 넓은 들녘, 살고 싶은 지역으로 한때는 인구가 26만을 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황금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김제는 황금빛 땅을 가진 지역입니다. 환경이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제대로 된 농업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는 농업의 진정

한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김제만의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황금빛 땅에서 황금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의 땅이 우리 김제를 진정한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에 시설농업 확충, 인근 농업기관과 민간 업체와 협업한 시범단지 조성, 농업기반 6차 산업 추진 등을 통해 김제가 황금의 땅, 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독거노인 증가, 가족과 연락두절 등으로 어르신들의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불편을 덜어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안심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와 어르신 인권 보호 대책과 어르신들의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김제로 만들겠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임산부에게는 출산의 지원,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이 돌봄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 경력단절이 이어지는데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례문화는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 장례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걱정 없는 시립 추모관 및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김제, 돌아오는 김제로 만들

겠습니다.

김제는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만경강이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지나며 새만금이 연결되어 있는 천혜의 교통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물류단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인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대규모 물류 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물류단지는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전주공단, 새만금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의 창출로 확대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김제, 돌아오는 김제로 만들어 김제를 제2의 황금 시기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향유와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너무 오랫동안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줄 문화 향유와 스포츠 활동 기회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문화와 체육은 지친 일상에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체육을 가까이 접하는 가운데 일상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서로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삶의 행복은 먹고사는 일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문화와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문화를 향유하고 밖에서 뛰놀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이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일상이 문화로, 일상이 체육으로 스며들어 함께 공감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18</b>
<b>언론사</b>	주식회사 문화매일(문화매일신문)
<b>심의대상</b>	문화매일신문 3월 28일자 7면 「김윤호 예비후보, 시민 참여 '작지만 알찬 공약 공모」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광명시장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가 공개한 공약발표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김윤호 예비후보, 시민 참여 '작지만 알찬 공약' 공모

### 시민참여 집단지성을 이용한 민생정책 공약화 추진

김윤호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예비후보는 민생정책 공약화를 위한 시민참여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예비후보는 27일 SNS를 통해 "작지만 알찬 공약(자갈공약)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해 공약으로 다듬는 공모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자갈이 모여 큰 집을 짓고 큰 길을 내고 큰 산을 이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좋은 정치는 작은 민생과

제부터 착실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아파트 관리 규약 상의 임차인 권한 확대'와 '대리 기사 퇴근 픽업차량 지원'의 두 가지 자갈공약을 SNS를 통해 배포한 바 있다.

김윤호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네이버폼을 이용한 설문으로(인터넷 주소 : <https://naver.me/FSQsiKyG>)로 자갈공약 정책제안을 공모할 예정이며 우수한 제안은 김윤호 후보의 정식 공약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호 예비후보의 SNS 전문〉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예비후보 김윤호입니다.

저는 예비후보에 등록한 뒤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첫 번째 공약으로 글로벌 과학인재 육성을 발표했습니다. 광명의 미래발전에는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2~3개씩 '김윤호의 작지만 알찬(자갈)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공약으로 다듬는 '자갈공약 시민공모전'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갈공약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임차인 권한 확대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임차 거주인은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의사결정 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와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임차 거주인'은 '사용자'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임차 거주인 대표자 회의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사업자 선정 시에도 임차 거주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광명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주거환경에 실거주자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을 짓는 자갈같은 공약을 만들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산과 큰 바위만 보려 합니다. 발끝에 차이는 작은 돌맹이를 보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갈들이 모여 큰 집을 짓고, 큰 길을 내고, 큰 산을 이룬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 작은 민생과제부터 착실하게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20여년간의 생활

정치와 4년간의 광명시의원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입니다.

좋은 정책공약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크고 넓은 길을 만드는데 작지만 알찬 자갈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일도 알차게 해내는 광명시장 예비후보 김윤호 드림.

윤용민/기자



1. 임차임주민은 '사용자'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으로 용어변경
2. 임대아파트 입주인이 단지 내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3.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Hedge*

(11.6\*27.2)cm

## 김윤호 예비후보, 시민 참여 '작지만 알찬 공약' 공모

### 시민참여 집단지성을 이용한 민생정책 공약화 추진

김윤호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예비후보는 민생정책 공약화를 위한 시민참여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예비후보는 27일 SNS를 통해 “작지만 알찬 공약(자갈공약)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해 공약으로 다듬는 공모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자갈이 모여 큰 집을 짓고 큰 길을 내고 큰 산을 이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좋은 정치는 작은 민생과제부터 착실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아파트 관리 규약 상의 임차인 권한 확대’와 ‘내리 기사 퇴근 픽업차량 지원’의 두 가지 자갈공약을 SNS를 통해 배포한 바 있다.

김윤호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네이버 폼을 이용한 설문으로(인터넷 주소 : <https://naver.me/FSQsiKyG>)로 자갈공약 정책제안을 공모할 예정이며 우수한 제안은 김윤호 후보의 정식 공약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윤호 예비후보의 SNS 전문>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예비후보 김윤호입니다.

저는 예비후보에 등록한 뒤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첫 번째 공약으로 글로벌 과학인재 육성을 발표했습니다. 광명의 미래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2~3개씩 ‘김윤호의 작지만 알찬(자갈)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공약으로 다듬는 ‘자갈공약 시민 공모전’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갈공약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임차인 권한 확대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임차 거주인은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의사결정 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와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임차 거주인’은 ‘사용자’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임차 거주인 대표자 회의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사업자 선정 시에도 임차 거주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광명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주거환경에 실거주자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을 짓는 자갈 같은 공약을 만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산과 큰 바위만 보려 합니다. 발끝에 차이는 작은 돌맹이를 보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갈들이 모여 큰 집을 짓고, 큰 길을 내고, 큰 산을 이룬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 작은 민생과제부터 착실하게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20여 년 간의 생활정치와 4년간의 광명시의원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입니다.

좋은 정책공약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크고 넓은 길을 만드는 데 작지만 알찬 자갈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일도 알차게 해내는 광명시장 예비 후보 김윤호 드림.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22
언론사	시사뉴스
심의대상	시사뉴스 3월 22일자 6-11면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지역 청년 의무채용”」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에 출마예정인 현직 시장의 주요 성과나 이력, 출마 입장 등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여 부각 보도하고, 해당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 및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Cover Story
카버스토리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 CITY

Interview

히태정 (대전광역시장)

##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지역 청년 의무채용”

히태정 대전광역시장의 새롭게 주목받는다. 화려한 정통들이 가세  
 등등했던 민주당에 이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중판의 강자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고음에도 고교 시절부터 살아온 대전의 자신의  
 고향으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대전광역시 유산개발장을 차면 뒤, 3선을 포기하고 대전시장으로  
 도전 정치의 성공을 이루 이해당 시장.  
 대전시장으로 재직하며 출범의 민주당의 민심의 바닥부터 청와대  
 근무를 통해 넓고 멀리 바라보는 정치적 시야로 ▲혁신도시 지정 ▲기  
 상청 등 4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충청권 매거티브 ▲대전세종 경제자  
 유구역 추진 등 대전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과를 이룬 히시장을 만난다.

6
시사뉴스 2022.03.22
시사뉴스 2022.03.22
7



###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대전 지역 "조기정착 적극지원"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추진 최종 확정" 이룰 것

#### Q 2선의 우수공무원들 거쳐 대전광역시 인사청기시 장으로 봉사했다. 사정해 있어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하는 부분은?

혁신시 지장이 가장 컸다. 혁신의 대전시 장은 많은 시정 변화의 중심에 있다. 혁신시 지장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하는 부분은... 혁신시 지장이 가장 컸다. 혁신의 대전시 장은 많은 시정 변화의 중심에 있다. 혁신시 지장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하는 부분은...

8월경 총 271명(2026~2027년) 대전시 지역인재 채용되는 구체적인 인수를 정했다. 대전시 지역인재 채용되는 구체적인 인수를 정했다. 대전시 지역인재 채용되는 구체적인 인수를 정했다...



#### Q 임기 중 공공기관 대전시 이전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많이 서울에서 본국 이직을 한 임원은?

대전광역시 이직을 위해 공공기관 이직은 필수로 생각했다. 대전광역시 이직을 위해 공공기관 이직은 필수로 생각했다. 대전광역시 이직을 위해 공공기관 이직은 필수로 생각했다...

#### Q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대전시는 각급 대용량 있고 있는 이전기관이 필요한 입주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해 대전은 물론 충청권 내 시도가 적극적으로 공조 노력을 해온 만큼 대전시도 잘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전시는 각급 대용량 있고 있는 이전기관이 필요한 입주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해 대전은 물론 충청권 내 시도가 적극적으로 공조 노력을 해온 만큼 대전시도 잘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Q 기상청과 함께 이전으로 왔던 3개 공공기관 추진 사항은 어떤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충청안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대전지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대전지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대전지역

#### Q 해당 시장이 먼저 발표한 대전 중심권 메가시티 추진되고 있다.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

대전과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함께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위기 대응에 큰 의미가 있다. 대전과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함께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위기 대응에 큰 의미가 있다...



#### Q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도 국가계划으로 반영 추진 중이다. 호남권 협력과제에 중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대전시에서도 충청권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대전시에서도 충청권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대전시에서도 충청권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Q 대전시 교육청의 큰 역할을 기대를 받고 있다. 교육청의 역할이 어떤가?

대전시 교육청의 큰 역할을 기대를 받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의 큰 역할을 기대를 받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의 큰 역할을 기대를 받고 있다...

#### Q 10월 예정인 국제행사 '세계지리정보위원회(UCLG) 개최'를 앞두고 있다.

10월 10일에서 14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세계지리정보위원회(UCLG)'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로 세계 공동의 도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축제이다. 10월 10일에서 14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세계지리정보위원회(UCLG)'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로 세계 공동의 도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축제이다...

#### Q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의 일환으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본격 추진하게 될 예정인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전시가 가장 먼저 적극 추진 중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전시가 가장 먼저 적극 추진 중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전시가 가장 먼저 적극 추진 중이다...

#### Q '논리'였던 '충남 도농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유치로 결정되었다. 어떤 구상으로 접근 중인가?

'충남 도농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유치로 결정되었다. 어떤 구상으로 접근 중인가?' '충남 도농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유치로 결정되었다. 어떤 구상으로 접근 중인가?'



##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지역 청년 의무 채용”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조기 정착 적극지원”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추진 화룡정점 이를 것”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새롭게 주목받는다. 화려한 잠룡들이 기세등등했던 민주당에 이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주원의 강자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음에도 고교 시절부터 살아온 대전을 ‘자신의 고향’으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지낸 뒤, 3선을 포기하고 대전 시장으로 도전 정치적 성공을 이룬 허태정 시장.

대전 시장으로 재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민심의 바닥부터 청와대 근무를 통해 ‘넓고 멀리’ 바라보는 정치적 시야로 ▲혁신도시 지정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충청권 메가시티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대전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과를 이룬 허 시장을 만났다.

Q 2선의 유성구청장을 거쳐 대전광역시 민선 7기 시장으로 봉사했다. 시정에 있어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하는 부분은?

혁신도시 지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4년간의 대전 시장 임기 중 많은 시정 현안이 있음에도

혁신도시 지정이 가장 큰 성과로 기억되는 건 ‘대전의 미래’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대전 시민 모두가 지난 2005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이후 15년간 염원해온 일이기에 더욱 보람차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동서 불균형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을 해결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소외되었던 대전 청년들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에서 의무채용 혜택을 받게 되었다.

수치상으로 지난해 51개 공공기관에서 신규 지역인재 채용 인원 840명 중 271명 (32.26%·2021년 기준)이 지역인재로 채용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 대전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채용 비율 확대 ▲예외조항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려 한다.

혁신도시 지정 이외에도 2021년 지난해에 대전에 좋은 일이 많았다. 대전의 성장을 이끌 어갈 대형 국책사업이 대거 선정되고, 11개 예타 사업을 통과시키거나 면제받는 등 쾌거를 이뤘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RIS 지역혁신사업 ▲도심융합특구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선정되었고 ▲한국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조성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데 이어 ▲장대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부의 심의를 통과하며 첨단 센서벨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 이외에도 대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도 힘썼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8,644억 원

의 국비 확보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대전 관 ▲베이스볼 드림파크 등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대형 현안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린 것도 큰 성과다.

최근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전 의료원 건립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리스터 조성사업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마중물 플라자 조성사업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 굵직한 6개 사업 또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총사업비 9,000억 원 상당의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임기 중 공공기관 대전시 이전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상청이 서울에서 본격 이전을 한 감회는?**

대전광역시 미래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라 생각했다.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자기 생활권에서 삶을 꾸릴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기업들이 대전에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이전을 시작한 기상청은 정부대전청사로 입주를 마쳤고, 3월 2일부터 본격 업무를 개시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을 의결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기상청은 이번에 정책부서 340여 명이 대전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현업부서 320여 명도 '탄소 ZERO 국가기상센터' 건립과 함께 옮겨 올 예정이다.

이 자리를 빌려 대전에 한 가족이 되신 기상청 여러분께 환영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 우리는 기상청 가족분들이 대전에서 함께 살아

가시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Q 기상청과 함께 이전기로 했던 3개 공공기관 추진 사항은 어떤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올해 9월 ▲한국임업진흥원은 연말까지 정책부서 등이 먼저 이전한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경우 내년 2023년 말까지 직원의 40% 이상이 이전한다.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는 2025년 이후 대전에 완전하게 자리 잡을 예정이다.

대전시도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전기관이 필요한 입주 공간 협의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청 단위 정부기관은 대전에 밀집시키겠다'는 정부 원칙이 차기 정부에서도 잘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는 대전과 관련한 공약을 통해 혁신도시 대전으로의 조속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중원 신산업 벨트 구축 ▲첨단 군수산업 등과 함께 청 단위 기관의 원칙적 대전 집약을 약속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 국가의 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위해 대전은 물론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해온 만큼(공공기관 이전이)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전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대전시 차원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 국정 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전략 마련을 위해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행정부시장이 총괄단장으로 실무 추진을 맡아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체계를 강화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다.

**Q 허태정 시장이 먼저 발의한 '대전 중심 충청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다.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

대전과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함께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위기 대응에 큰 의미가 있다.

중원에 위치한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면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확신한다.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민 증가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2021년 지난해 11월 29일에 개최된 공동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했으며 다양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의지를 반영 실행력이 높은 구체적 공동 사무를 발굴 ▲3개 분야 ▲9대 전략 등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었다. 2022년 올해 기존의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확대 전담 추진기구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구축 ▲충청권 지방

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충청권 4개시도의 협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논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충청권의 성장이 각 시·도의 발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대응적인 차원의 숙의를 통해 상호의견을 조율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여 충청권 상생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Q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일환으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게 된 배경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에 대전시가 구심점이 되어 적극 추진 중이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세종시와 공동으로 '양 도시 간 경제공동체 형성과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주도할 광역거점 기반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실행을 위해 대전·세종 양 도시가 그동안 수차례 워킹그룹을 통해 기업유치와 신산업 육성 등에 함께 필요한 정책의제를 발굴 중이다. 보다 자세한 로드맵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 용역'과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2021년 말에 관련 지정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과학도시 대전과 행정도시 세종의 시너지'를 통해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도 국가계획으로 반영 추진 중이다. 초광역 협력시대에 중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충청권 광역교통망 추진사업’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을 하나로 잇는 메가시티의 기반이다. 현재 도로와 철도망 구축 13개 사업이 대거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있다.

총예산은 도로와 철도 분야 등 총 31개 사업에 15조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연간 2 1,4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국가계획에 반영 착공될 예정인 ▲와동~신탄진동 ▲대덕 특구~금남면 ▲사정교~한밭대교 ▲현도교~신구교 등 9개 도로 사업은 도심 교통 혼잡 해소와 충청권 내 교통이동 소요시간도 크게 단축시킬 것이다.

이외에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 반석역에서 세종청사까지 16분 이내로 ▲광역철도를 이용 청주공항까지 45분 안에 도착하는 등 ‘충청권 광역생활권을 1시간대로 완성’ 시민편익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Q 논란이 됐던 ‘옛 충남도청사가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유치로 결정되었다. 어떤 구상으로 접근 중인가?**

옛 충남도청의 경우 홍성 내포 이전 후 무려 11년 동안 활용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최근 논의를 모아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선으로 확정 대전시 최초로 국립 문화 예술 기관을 유치한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시민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전에 걸맞는 도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은 국립미술품 소장

보존센터와 전시관의 역할을 겸한다. 이후 국비 453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약 1만 3,000㎡)의 규모로 조성된다.

올 상반기에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2023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개관 목표일은 2025년 말이다.

이후 도청사 대부분이 시민들께 개방되고 행정사무공간에서 시민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근대문화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시민께 돌려드리는 것을 계기로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Q. 대전시 교통망의 큰 변화를 가져 올 트램 급전방식과 정거장 추가도 확정되었다. 그 과정을 좀 더 시민들께 자세하게 전달한다면.**

대전시 교통 환경변화에 큰 획을 그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해 급전방식과 정거장 추가 사항을 최종 결정했다. 트램 급전방식은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인 유·무가선 혼용방식(배터리+유가선)으로 결정됐다.

가선 규모는 10.5km이나 향후 배터리 분야 기술 발전 전망 등을 고려 그 규모를 최소화도 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이번 트램 급전방식 결정은 총사업비 등 경제성, 운행 안전성, 기술 적용 가능성, 유지관리 편리성, 도시경관 영향 등 종합적 신중함 검토가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트램기술전문위원회의 기술 자문과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심의 등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

노선 또한 지난해 5월 기준에 포함된 대전역

경유 정거장 2개소와 함께 총 10개소 정거장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해외의 경우 정거장 간격이 보통 500m~700m인 것에 반해 대전 트램은 정거장을 추가하더라도 약 800m의 간격으로 실제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승하차를 편리하게 해서 트램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것이다. 정확한 정거장 위치는 설계과정에서 시민 공청회를 통해 전체 45개 정거장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 Q 오는 10월 예정인 국제행사 ‘세계지방정부 연합(UCLG)개최’를 앞두고 있다.

10월 10일에서 14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세계 지방정부연합(UCLG)’ 행사는 중앙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세계 공통의 도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국제행사다.

전세계 140개국 24만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 증으로 ‘지방정부의 UN’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이 높다.

이번 대전 UCLG 총회 참석 예정인 도시만 1천여 개 도시로 각 도시 정상들 5천여 명의 방문이 예상된다. ▲‘하나되어 극복해나가는 지방정부들’이라는 주제의 공식회의 ▲남북평화

이벤트 ▲세계시민축제 ▲K-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진다.

행사는 기본적으로 대면행사로 개최될 예정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에 대응할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첨단 ICT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국제 회의장 구축과 하이브리드 방식의 행사를 통해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국제에 널리 알리겠다.

행사가 열리는 대전 컨벤션센터와 관광지 일대에 방역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UCLG 총회 대비 해외 출입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방문하는 참가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해외 행사로 인한 지역감염이 없도록 방역에 적극 대비하겠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를 슬로건으로 시정을 이끌어왔다. ▲경제·노동 ▲복지·인권 ▲환경·안전·교통 ▲교육·문화·스포츠 ▲행정·자치 ‘5대 분야, 91개 사업, 105개 세부과제’로 나누었던 대전 시민과의 약속은 따박 따박 실천 중이다.

청와대 행정관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역임하여 쌓아온 ‘뚝직한 행정력과 신뢰의 행정력’은 허 시장의 정치적 자산으로 “언제든 시민들을 위한 대전시의 자산으로 환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23**

**언론사** 주식회사 통영신문(통영신문)

**심의대상** 통영신문 3월 18일자 15면 「한산도 르네상스를 위한 한산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자!」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경남 통영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역개발계획 추진 관련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산도 르네상스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자!



정 동 영

경상남도 도의원

한산도가 이제 한산대첩교로 육지와 연결되어 섬의 서러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산도의 발전된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필자는 한산도의 새로운 부흥을 알리는 “한산도 르네상스” 사업을 크게 3가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오롯이 살릴 수 있도록 제승당(制勝堂) 권역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설화가 섬 곳곳에 아직도 그대로 전해오는데, 예컨대 이순신 장군이 소금을 구웠던 대고포(염개) 마을이나, 쇠를 녹여 병장기를 제작하던 야소(冶所)마을 그리고 장군이 수군들을 조련하던 진(陣)터 등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가치도 높아 충분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한산도가 명실공히 “이순신 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조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제승당의 관할권 역시 통영시로 이관하는 방법 등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중도에 계획이 보류된 그랜드플라워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 2010년 경상남도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약 500여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던 한산도 그랜드플라워 파크 조성 사업이 좌초된 사실이 있다. 이에 필자는 한산대첩교 가설로 새롭게 지리적 환경이 변화한 만큼 경제적 사업성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그동안 변화한 여러 사정들을 반영하여 더욱 보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축구와 테니스장을 포함하는 멀티 스포츠 콤플렉스 타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통영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스포츠 단체들이 전지훈련을 오고 있지만 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낙후로 인해 그 수요를 충분히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산도가 육지와 연결된다면 사실상 새로운 부지가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통영의 역사는 1593년 한산도 제승당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개영(開營)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한산도는 통영의 뿌리이며 한산도의 발전이 곧 통영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산도 르네상스”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이를 성공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오직 준비하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우리 한산도에서도 그대로 증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맺는다.

## 한산도 르네상스를 위한 한산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자!

한산도가 이제 한산대첩교로 육지와 연결되어 섬의 서러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산도의 발전된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필자는 한산도의 새로운 부흥을 알리는 “한산도 르네상스”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산도 르네상스 사업은 한산도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한산도만의 매력을 배가시켜 한산도의 종합개발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크게 3가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오롯이 살릴 수 있도록 제승당(制勝堂) 권역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설화가 섬 곳곳에 아직도 그대로 전해오는데, 예컨대 이순신 장군이 소금을 구웠던 대고포(염개) 마을이나, 쇠를 녹여 병장기를 제작하던 야소(冶所)마을 그리고 장군이 수군들을 조련하던 진(陣)터 등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가치도 높아 충분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한산도가 명실공히 “이순신 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조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경상남도도가 관리하고 있는 제승당의 관할권 역시 통영시로 이관하는 방법 등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중도에 계획이 보류된 그랜드플라워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 2010년 경상남도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약 500여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던 한산도 그랜드플라워 파크 조성 사업이 좌초된 사실이 있다. 이에 필자는 한산대첩교 가설로 새롭게 지리적 환경이 변화한 만큼 경제적 사업성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그동안 변화한 여러 사정들을 반영하여 더욱 보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축구와 테니스장을 포함하는 멀티 스포츠 콤플렉스 타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통영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스포츠 단체들이 전지훈련을 오고 있지만 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낙후로 인해 그 수요를 충분히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산도가 육지와 연결된다면 사실상 새로운 부지가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통영의 역사는 1593년 한산도 제승당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개영(開營)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한산도는 통영의 뿌리이며 한산도의 발전이 곧 통영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산도 르네상스”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이를 성공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오직 준비하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우리 한산도에서도 그대로 증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맺는다.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24
언론사	주식회사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
심의대상	고령군민신문 3월 22일자 2면 「“작지만 강한 싱가포르 같은 살기 좋은 부자고을로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의원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작지만 강한 싱가포르 같은 살기 좋은 부자고을로 만들겠습니다”

### 출마합니다... 성낙철 기초의원 출마의 변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인간 세상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6월1일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중하고 현명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이에 시대흐름에 부응하고자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했던 지역사회발전과 더 많은 봉사를 위해 다산성산 선거구에 출마를 결심한 성산면 강정리가 고향인 성낙철입니다.

현재는 개진산업단지내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인 주)국신필터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경영운영의 노하우와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소신과 활력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공부하고 연구해서 현장을 뛰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현장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 성낙철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생활 속 푸벽이가 되어 현장 민원의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차별화된 친환경 낙동강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좌우명 行不言之教(남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처럼 무슨 일이든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솔선수범 앞장서서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많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주의 근원인 기초 풀뿌리에 꼭 필요한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들께서 제안한 정책과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 반드시 성과로 주민



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주민여론을 경청하며 배워 나가겠습니다.

▶ 학력  
-박곡초, 성산중 졸업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 경력  
-前)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고령군 공동부위원장  
-現)고령군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  
-現)고령군 상공협의회 수석부회장  
-現)주)국신필터 대표이사

▶ 수상  
-국제토타리 국제봉사상 수상(2013년)  
-경상북도지사 표창장(2015년)  
-국토부장관 표창장(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2020년)

〈고령군민신문 2022년 3월 22일자 2면〉

## “작지만 강한 싱가포르 같은 살기 좋은 부자고을로 만들겠습니다”

### 출마합니다...성낙철 기초의원 출마의 변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인간 세상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6월 1일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엄중하고 현명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이에 시대흐름에 부응하고자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했던 지역사회발전과 더 많은 봉사를 위해 다산성산 선거구에 출마를 결심한 성낙철 강정리가 고향인 성낙철입니다.

현재는 동고령산업단지내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인 (주)국신필터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경영운영의 노하우와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공부하고 연구해서 현장을 뛰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현장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 성낙철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생활 속 뚜벅이가 되어 현장 민원의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에 위해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차별화된 친환경 낙동강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좌우명 行不言之教(남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처럼 무슨

일이든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솔선수범 앞장서서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많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주의 근원인 기초 풀뿌리에 꼭 필요한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들께서 제안한 정책과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반드시 성과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주민여론을 경청하며 배워나가겠습니다.

#### ▶ 학력

- 박곡초등학교 졸업
- 성산중학교 졸업
-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 ▶ 경력

- 前)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고령군 공동부위원장
- 現)고령군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
- 現)고령군 상공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주)국신필터 대표이사

#### ▶ 수상

- 국제로타리 국제봉사상 수상(2013년)
- 경상북도지사 표창장(2015년)
- 국토부장관 표창장(2019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2020년)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25</b>
<b>언론사</b>	주식회사 청도신문(주간 청도신문)
<b>심의대상</b>	주간 청도신문 3월 24일자 2면 「군의원 전종율 “출마합니다.”」 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청도군의원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마의 변**

## 군의원 전종율 “출마합니다”

**항상 군민의 소득 증대와 행복한 삶, 안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전종율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군의원의 소명을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돌아해보면 아쉬움 또한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부족한 의정 경험에 마음만 앞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지만 저를 지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보람된 일들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4년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니 기대와 더 큰 책임감이 동시에 교차합니다.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앞으로의 4년 의정 생활은 △ 정직과 성실로 군민과 호흡하는 지역 일꾼이 되겠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및 대형 공모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값값 안정을 위해 공급의 조절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 영유아 및 청소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노령인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광역 전철망을 이용한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상권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 청도 고유의 문화 예술과 먹거리를 접목한 관광산업 발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인구정책과 청년들의 걱정없는 임신 및 출산, 양육,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연구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을 위한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간청도신문 2022년 3월 24일자 2면〉



## 군의원 전종을 “출마합니다”

항상 군민의 소득 증대와 행복한 삶,  
안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전종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군의원의 소명을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 또한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부족한 의정 경험에 마음만 앞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지만 저를 지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보람된 일들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4년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니 기대와 더 큰 책임감이 동시에 교차합니다.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앞으로의 4년 의정 생활은 △정직과 성실로

군민과 호흡하는 지역 일꾼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및 대형 공무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값 값 안정을 위해 공급의 조절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청소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노령인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광역 전철망을 이용한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상권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청도 고유의 문화 예술과 먹거리를 접목한 관광산업 발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인구정책과 청년들의 걱정 없는 임신 및 출산, 양육,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연구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을 위한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26</b>
<b>언론사</b>	주식회사 고성시사정보(고성시사신문)
<b>심의대상</b>	고성시사신문 4월 1일자 4면 「“2050 번영의 기틀을 세우고 공정과 신뢰로 고성경제 부흥의 시대 창조를 약속합니다”」, 4월 8일자 4면 「이상근 예비후보, ‘군정교체, 완전한 군정 정상화’,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고성군수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기자회견문 및 선포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50 번영의 기틀을 세우고 공정과 신뢰로 고성경제 부흥의 시대 창조를 약속합니다”

## 고성의 지역경제 기반과 밀접한 공약 우선 추진할 것

국민의힘 고성군수 예비후보 이상근  
기자회견문



오늘은 6월 1일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상근 예비후보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은 지난 4년간 고성경제가 붕괴하였고, 기업생산력은 감소하였으며 인구가 절벽인 상태로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백두현 군정은 신뢰와 소통의 부재로 매년 의회와 충돌하는 군정으로 갈등을 일으켰고, 군민이 주인이라고 외치면서도 주민을 진영논리로 편 가르기를 하여, 소외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실감이 큼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백두현 군정 들어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통합을 실현하고, 단순한 대중영합주의가 아닌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군민 행복을 이끌어 우리 고성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번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로서, 군민 행복과 2050 번영의 도약을 위한 비전과 군정 실천 약속을 군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풍요롭고 행복한 새로운 고성경제 부흥 시대”를 위

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첫째, 예산 7천억 원, 안정적인 인구 7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성군의 '22년 본예산 규모는 6천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23년부터 7천억 원 이상으로 군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출장소를 신설하여 예산확보와 지역 현안 관련 국책사업 유치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회연락관을 두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 서부터 최종 확정시까지 지역 현안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세대 교육과 청소년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도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증가로 인한 학습결손,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교육 혁신에 발맞추는 인프라 구축 등 민-관-학의 협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량 대중소기업 7개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분양이 저조한 대독산업단지 등을 새롭게 조기 분양을 완료하고, 항공철도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착공하여 일자리 창출이 쉬운 첨단산업 중심의 우량 대중소기업 7개를 유치하여 고성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성 2050년 번영의 동맥,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개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고성역 설치 확정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을 조기 수립하겠습니다. 대규모 휴양관광 리조트 유치 등 체류형 휴양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고성~통영 연륙교 설치, 고성~자란만, 고성 연화산, 당항포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고성 지역의 관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따뜻하고 웃음 넘치는 행복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고령 농업인과 독거노인들은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 등에 미처 대처하지 못해 자칫 큰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외로움과 소외감 등으로 정신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실버 공동 주택”을 설치, 갑작스러운 사고 예방과 공동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보살핌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 건강을 지켜드리고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신뢰 행정으로 군민이 소통하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군민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농지와 산림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고성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 및 중소기업 입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소규모 개발 등 군민이 불편해하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2050 번영의 기틀을 세우고 공정과 신뢰로 고성경제 부흥의 시대 창조를 약속합니다.”**

**고성의 지역경제 기반과 밀접한 공약 우선 추진할 것**

**국민의 힘 고성군수 예비후보 이상근 기자회견문**

오는 6월 1일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 힘 이상근 예비후보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은 지난 4년간 고성경제가 붕괴하였고, 기업 생산력은 감소하였으며 인구가 절벽인 상태로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백두현 군정은 신뢰와 소통의 부재로 매번 의회와 충돌하는 군정으로 갈등을 일으켰고, 군민이 주인이라고 외치면서도 주민을 진영 논리로 편 가르기를 하여, 소외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실감이 큼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백두현 군정 들어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통합을 실현하고, 단순한 대중영합주의가 아닌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군민 행복을 이끌어 우리 고성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번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로서, 군민 행복과 2050 번영의 도약을 위한 비전과 군정 실천 약속을 군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풍요롭고 행복한 새로운 고성 경제 부흥 시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첫째, 예산 7천억 원, 안정적인 인구 7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성군의 '22년 본예산 규모는 6천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23년부터 7천억 원 이상으로 군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출장소를 신설하여 예산확보와 지역 현안 관련 국책사업 유치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회 연락관을 두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최종 확정시까지 지역 현안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세대 교육과 청소년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도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증가로 인한 학습결손, 교육 혁신에 발맞추는 인프라 구축 등 민·관·학의 협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량 대·중소기업 7개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분양이 저조한 대독산업단지 등을 새롭게 조기 분양을 완료하고, 항공·철도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착공하여 일자리 창출이 쉬운 첨단 산업 중심의 우량 대·중소기업 7개를 유치하여 고성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성 2050년 번영의 동맥,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개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고성역 설치 확정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을 조기 수립하겠습니다. 대규모 휴양관광 리조트 유치 등 체류형 휴양 관광단지 조성을 추구하고, 고성~통영 연륙교 설

치, 고성-자란만, 고성 연화산, 당항포 케이블 카를 설치하여 고성의 관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따뜻하고 웃음 넘치는 행복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고령 농업인과 독거노인들은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 등에 미처 대처하지 못해 자칫 큰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외로움과 소외감 등으로 정신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실버 공동 주택”을 설치, 갑작스러운 사고 예방과 공동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보살핌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 건강을 지켜드리고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신뢰 행정으로 군민이 소통하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군민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농지와 산림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고성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 및 중소기업 입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소규모 개발 등 군민이 불편해하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이상군 고성군수 예비후보**

## ‘군정교체, 완전한 군정 정상화’,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상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오후 이상군 희망캠프에서 ‘군정교체, 완전한 군정 정상화’라는 문구로 선포식을 가졌다.

아래는 선포문 내용이다.

지금 고성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붕괴하고, 기업은 점점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운 그늘이 고성 미래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고성군정은 특혜 반칙 부실행정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군민이 주인이라고 외치면서 군민을 진영논리로 팬 가르기를 하여 소외된 군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상실감이 큼니다.

지금 군민은,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현 군정 책임자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 군수는 고성군 회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통 부재로 협치를 외면하고 군정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군민은, “이게 공평이나?” “이

104월 06일(수) 오후 3시 | 장소 : 고성의음



‘희망찬 고성’을 재설계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고성역 신철을 발판으로 삼아 다시 약동하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교통혁명 물류항공의 첨단기지개발구축해 새로운 희망의문을 열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낙후된 고성을 ‘다시 뛰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정신으로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부패와 부정에 맞서 겸손하고 ‘총련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우직하고 한결같이 군민을 섬기는 ‘공정과 신뢰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저 이상군이, 군민과 함께 반드시 ‘군정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저 이상군이, 군민의 힘으로 ‘군정혁신’을 해내겠습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완전한 군정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잃어버린 4년, 저 이상군이 꼭 되찾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계 청렴 행정이나?”고 묻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무능과 부패세력을 심판하겠노라고 단단히 버리고 있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군정은 더 이상 지방할 수 없습니다.

저 이상군이, 잃어버린 4년을 되찾겠습니다. ‘군정교체’를 이뤄내고, 암울한 고성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인구 7만, 예산 7천억원, 7개 강소기업 유치를 담은 ‘777 미래구상’으로

## 이상근 고성군수 예비후보 '군정교체, 완전한 군정 정상화'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상근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오후 이상근 희망 캠프에서 '군정교체, 완전한 군정 정상화'라는 문구로 선포식을 가졌다.

아래는 선포문 내용이다.

지금 고성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붕괴하고, 기업은 점점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운 그들이 고성 미래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고성군정은 특혜 반칙 부실행정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군민이 주인이라고 외치면서 군민을 진영논리로 편 가르기를 하여 소외된 군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상실감이 큼니다.

지금 군민은,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현 군정 책임자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 군수는 고성군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통 부재로 협치를 외면하고 군정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군민은, "이게 공정이나?" "이게 청렴 행정이나?"고 묻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무능과 부패세력을 심판하겠노라고 단단히 베풀고 있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군정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

저 이상근이, '잃어버린 4년'을 되찾겠습니다. '군정교체'를 이뤄내고, 암울한 고성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인구 7만, 예산 7천억원, 7개 강소기업 유치를 담은 '777미래구상'으로 '희망찬 고성'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고성역 신설을 발판으로 삼아 다시 약동하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교통혁명, 물류 항공의 첨단기지를 구축해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낙후된 고성을 '다시 뛰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정신으로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부패와 부정에 맞서 겸손하고 '청렴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우직하고 한결같이 군민을 섬기는, '공정과 신뢰'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저 이상근이, 군민과 함께 반드시 '군정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저 이상근이, 군민의 힘으로 '군정 혁신'을 해내겠습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완전한 군정정상화'를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잃어버린 4년, 저 이상근이 꼭 되찾겠습니다!

**의결 번호** 제8회 지선-자심29

**언론사** 주식회사 21세기엔터테인먼트(문경저널)

**심의대상** 문경저널 3월 20일자 2면 「우상룡 문경시의원 예비후보, 의정비 100% 기부 약속」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문경시의원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의 사진,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홍보이미지를 그대로 게재하고, 후보자의 공약을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우상룡 문경시의원 예비후보, 의정비 100% 기부 약속

문경시 점촌2동에서 태어나 집촌중앙초, 집촌중, 문창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가 문경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달리고 있다.

주인공은 우상룡(39) ㈜문화문구 대표. 어르신 요양시설인 '가장좋은요양원' 과 어르신보호시설인 '굿데이케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더 전문적인 어르신 복지를 맡기 위해 건국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기도 하다.

그만큼 문경시 보건복지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은 게 출마에 대한 변(辨)이다.

15년간 복지 분야에서 일하며 부족함을 많이 느낀 우 후보는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복지카드제도 시행, 어르신 치매 환자와 호스피스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고 싶은 것이다.

이와 함께 문경시 이면도로 마을버스 운행, 이글루와 무더위 쉼터 등을 결집한 쾌적한 정류장 조성, 지역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모전동육아지원센터 설립, 사회스포츠토포 호인 대회 유치 가능한 체육시설 단지 조성, 건강한 마을문화 조성, 노인정 즐길 거리 다양화 등 젊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기도 하다.

아파트 층간 소음방지, 애완동물 소음 해결센터 설치, 육아맘을 위한 창업지원, 맘카페 활성화등 세세한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 보고 싶다는 게 우 후보의 포

문경 나 선거구 (점촌2,4,5동)

시의원의정비

**100%기부**  
봉사하겠습니다!

**우상룡**

010-6700-0079



부다.

특히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의정비 100%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 시의원을 더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소득의 일정부분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르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지역위원회 조직부장을 역임한 우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문경에서 76.63%의 높은 득표율을 올리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젊었지만, 부드러운 성품으로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배어 있으며, 일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하게 준비하되, 결정되면 무엇이든 이루어내는 독심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상룡 예비후보는 “문경에서 태어나 문경에서 창업하고, 문경에서 살아갈 젊은 자에게 많은 일거리를 맡겨 달라.”며, “시민들을 지성으로 모시고, 시민과 함께 더 좋은 문경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 이상룡 문경시의원 예비후보, 의정비 100% 기부 약속

문경시 점촌2동에서 태어나 점촌중앙초, 점촌중, 문창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가 문경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달리고 있다.

주인공은 이상룡(39) ㈜문희문구 대표. 어르신 요양시설인 '가장좋은요양원'과 어르신보호시설인 '굿데이케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더 전문적인 어르신 복지를 맡기 위해 건국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기도 하다.

그만큼 문경시 보건복지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은 게 출마에 대한 변(變)이다.

15년간 복지 분야에서 일하며 부족함을 많이 느낀 우 후보는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복지카드제도 시행, 어르신 치매 환자와 호스피스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고 싶은 것이다.

이와 함께 문경시 이면도로 마을버스 운행, 이글루와 무더위 쉼터 등을 곁들인 쾌적한 정류장 조성, 지역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모전동육아지원센터 설립, 사회스포츠동호인 대회 유치 가능한 체육시설

단지 조성, 건강한 마을문화 조성, 노인정 즐길거리 다양화 등 젊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기도 하다.

아파트 층간 소음방지, 애완동물 소음 해결센터 설치, 육아맘을 위한 창업지원, 맘카페 활성화 등 세세한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 보고 싶다는 게 우 후보의 포부다.

특히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의정비 100%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 시의원을 더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소득의 일정부분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르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지역위원회 조직부장을 역임한 우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문경에서 76.63%의 높은 득표율을 올리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젊었지만, 부드러운 성품으로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배어 있으며, 일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하게 준비하되, 결정되면 무엇이든 이루어내는篤심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상룡 예비후보는 “문경에서 태어나 문경에서 창업하고, 문경에서 살아갈 젊은 저에게 많은 일거리를 맡겨 달라”며, “시민들을 지성으로 모시고, 시민과 함께 더 좋은 문경시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33</b>
<b>언론사</b>	울산제일일보 주식회사(울산제일일보)
<b>심의대상</b>	울산제일일보 4월 14일자 12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모두가 안전한 울산 남구」 제하의 기사
<b>주 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 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지역구 정책이나 성과 홍보 등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울산 남구청장 예비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울산제일일보

2022년 4월 14일  
12면 (오르바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모두가 안전한 울산 남구

**특별기고**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우리 사회에서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핵심 가치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산업수도 울산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오죽하면 울산지방방위대에 전국 최초로 산업안전사고 전담 재판부가 신설될 정도였겠는가. 그렇기에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됐지만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다. 다행히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울산 남구에서는 중대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남구에서는 ‘선제 대응 안전남구’라는 구정 지표 아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선도적으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대형공사장 긴급 현장 안전점검 △직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종사자의 소통을 위한 안전보건 기사단 운영 등 여러 준비를 했다. 또 안전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들을 정비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들이 현장에 제대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 행정통신망에 신설된 중대재해 안전·보건 기사단은 종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대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의견 청취 창구를 개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래서 남구 소속 모든 직원

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안전의 성패는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 표출’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자세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외국의 선진기업들을 예로 들면, 주요 행사나 회의에서는 항상 안전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시 되고 최고경영자의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관례화되어 있는 등 조직 구성원 모두가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우리 남구는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구성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기반 구축과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며 ‘선제 대응 안전남구’를 만들고자 ‘울산 남구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이를 통해 우리 남구는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0건의 사고 징후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다. 모두가 무사히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 남구는 구민과 소통하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18.9-17.1)corp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모두가 안전한 울산 남구

우리 사회에서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핵심 가치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산업수도 울산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오죽하면 울산지방방법원에 전국 최초로 산업안전사고 전담재판부가 신설될 정도였겠는가. 그렇기에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됐지만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다. 다행히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울산 남구에서는 중대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남구에서는 ‘선제대응 안전남구’라는 구정 지표 아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선도적으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대형공사장 긴급 현장 안전점검 △직원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종사자의 소통을 위한 안전보건 게시판 운영 등 여러 준비를 했다. 또 안전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들을 정비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들이 현장에 제대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 행정통신망에 신설된 중대재해

안전·보건 게시판은 종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대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의견 청취 창구를 개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래서 남구 소속 모든 직원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관련 법령과 규정 및 매뉴얼을 비롯해 각 사업장별 의무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등 참고자료, 유사업종·작업 사고 내용과 예방대책 등도 게시해 공유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정된 인원만 참석해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달리 모든 종사자가 수시로 언제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모든 회사에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을 텐데 ‘왜 안타까운 사고는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빈틈과 사각지대는 어디에도 있기 마련이다.

32만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기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안전의 성패는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 표출’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자세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외국의 선진기업들을 예로 들면, 주요 행사나 회의에서는 항상 안전에 대한 안전이 최

우선시되고 최고경영자의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관례화되어 있는 등 조직 구성원 모두가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우리 남구는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기반 구축과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며 '선제대응 안전남구'를 만들고자 '울산 남구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이를 통해 우리 남구는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고 징후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다. 모두가 무사히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 남구는 구민과 소통하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의결번호

제8회 지산-자심34

언론사

상주신문 주식회사(상주신문)

심의대상

상주신문 3월 21일자 3면 「35년 행정전문가' 경험 살려 '상주 새시대' 열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상주시장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주요 성과 및 이력, 출마선언문 전문 등을 담은 특집기획 기사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실어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주신문 2022년 3월 21일자 3면〉

## ‘35년 행정전문가’ 경험 살려 ‘상주 새시대’ 열겠다

### 윤위영 전 윤석열후보 상주상임선대위원장 상주시장 출마

#### 일·소통·공정으로 ‘역동적인 상주’로 도약 ‘뭉든 맡기면 척척 해내는 일꾼’ 평가받아

윤위영 (전)윤석열대통령후보선대위 상주 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14일 ‘이제 상주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 도약을 향해 다시 뛰는 ‘역동적인 상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35년 행정전문가’의 능력으로 위기의 상주를 미래기회의 상주로 확 바꾸겠다”고 상주시장 선거 출마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편집자 주>

윤 전 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10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상주시 중앙로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3월 15일 상주시장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먼저 “대선 승리로 정권교체의 염원을 실현해 주신 상주 10만 시민여러분들께 축하와 함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선거기간 중 상주를 책임졌던 한 사람으로서 대선승리를 이끌었으며, 평소 존경하는 임이자 국회의원과 선거기간 중 코로나19의 위협과 추위도 잊은 채 혼연일체가 되었던 10만 상주인 여러분들 앞에서 민선 8기

상주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번의 상주시장 선거 도전 이후, 꾸준한 민생탐방 등 시민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권토중래를 모색해 오던 중, 지난 대선에서 상주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유력한 상주시장 후보로 부상했다.

그는 자신의 이력과 관련 경북도와 상주시청, 영덕부군수를 역임하며 ‘뭉든 맡기면 척척 해내는 일꾼’, ‘국가개발사업 유치경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공무원’, ‘많은 국제행사를 성공시킨 글로벌 감각 탁월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유능한 공직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상주의 현실과 관련해 “상주는 이웃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한숨들이 많다”며 “시청사에 휘날리는 수상 현수막과 구호 소리를 요란한데 땀 흘리는 시민들의 허리는 더욱 꺾이고, 주름은 깊고, 희망을 잃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마공약과 관련해서는 “‘35년 행정전문가’의 실력과 경륜을 바탕으로 상주행정에 ‘일’과 ‘소통’과 ‘공정’으로 ‘상주의 새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세부공약으로는 ▲유구했던 역사 문화의 전통을 되살려 <상주다운 상주>의 자존심 회복 ▲농림축산·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2가락동도매시장 유치로, 도심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활력 넘치는 상주> ▲ICT 융·복합 첨단농업, 디지털 물류단지 조성으로 <미래가 있는 상주> ▲행복한 노후보장, 장애인 복지강화, 저소득층 보호 및 지역간 상생협력이 살아 숨쉬는 <더불어

어 잘 사는 상주> ▲시민의 몸과 일상이 안전하고, 복지와 교통은 촘촘하며, 문화의 향기 넘치는 <시민이 행복한 상주> ▲상주의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을 일궈내는 <상주 경제CEO> 역할을 수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직 수행과 관련 “목민관의 으뜸덕목으로 다산 정약용의 식위정수(食爲政首, 위정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으뜸 덕목)와, 노자의 곡신불사(谷神不死,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계곡처럼 겸손함으로 백성을 섬긴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위영 상주시장 예비후보 약력

△윤석열 대통령후보선대위 상주시상임선대위원장(전)

△경북도청 투자유치팀장, 새마을봉사과장(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유치 추진팀장(전)

G20 경주재무장관회의 추진팀장(전)

UN NGO 컨퍼런스 추진팀장(전)

△상주시청 안전행정국장·경제교통과장(전)

△영덕 부군수(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전)

△홍조근정훈장·대통령표창

△상주 외남 출생

△외남초·청리중(입학)·계성중(졸업)·성광고

△경북대 과학기술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윤위영 상주시장 출마 선언문>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후보선대위 상주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뛰었던 윤위영 상주시장 예비후보

인사드립니다. 먼저 윤석열후보의 대선승리로 정권교체의 염원을 실현해주신 상주 10만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평소보다 두 배로 기쁘고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선거기간 중 상주를 책임졌던 한 사람으로서 대선승리를 이끌었으며, 평소 존경하는 임이자 국회의원님과 선거기간 중 코로나19의 위협과 추위도 잊은 채 혼연일체가 되었던 10만 상주인 여러분들 앞에서 민선 8기 상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아낄 수 있어서입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두 번 상주시장에 도전한 이후, 상주 전역을 두발로 돌아다니며, 시민들께서 가려워하는 곳, 간절히 갈망하는 것 등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청렴하고 일만 아는 공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늘 앞장서서 업무를 처리하는 열정으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뒤편 맡기면 척척 해내는 일꾼”, “국가개발사업 유치경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공무원”, “많은 국제행사를 성공시킨 글로벌 감각 탁월한 공무원” 등의 칭찬을 받는 유능한 공직자로 인정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이제 상주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미래와 도약을 향해 다시 뛰는 ‘역동적인 상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35년 행정전문가> 저 윤위영 현재 위기의 상주를 김래 기획의 상주로 확 바꾸겠습니다.

10만 시민들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사막에 강을, 광야에 길을 내듯이 상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상주시민 여러분!

저 윤위영, <35년 행정전문가>의 실력과 경륜으로 상주행정에 ‘일’과 ‘소통’과 ‘공정’으로 「상주의 새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먼저, “일내겠습니다. 일로써 승부를 걸고 평가받겠습니다.”

상주시,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상주시민들의 참여가 시정에 적극 이루어 지도록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으로 시민 누구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주시민들에게 골고루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모두 행복한 상주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소통’과 ‘공정’을 통해 「새 시대, 상주」의 모습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민 여러분!

백성을 섬기는 목민관의 자세를 가르치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식위정수(食爲政首)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정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으뜸 덕목”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저 윤위영, 상주시민 삶의 근본이 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식위정수’를 지표로 삼아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해결해 내는 ‘참된 목민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상주의 새로운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저 윤위영에게 시민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 용기를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3. 15

상주시장 예비후보

윤위영 올림

의결번호 제8회 지산-자심35

언론사 주식회사 전북연합(전북연합신문)

심의대상 전북연합신문 4월 7일자 16면 「사회약자편 정의의 민원 해결사 역할 특목」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현직 도의원의 주요 이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특집기획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어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제1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년 4월 7일
www.jbnews.com

## 사회약자편 정의의 민원 해결사 역할 특목

**최영심 의원, 자유발전 17·조백안계개정 35건 등 72건 실적 제11대 도의회서 가장 활발한 활동 펼쳐**  
노동자 치우개선 집중·경제·감시 역할도 충실

전국 최초 교통약자 불편 해소 조례 대표 발의  
도민 생활 직결된 민생 조례·의정활동 돋보여  
“아양 정치인으로 지역발전 이바지 하려고”

제11대 도의회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최영심 의원.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 12월까지 5회 차상발언 17건, 조례안 제개정 35건, 대정부 건의·광의안 발의 13건, 도청 및 교육청에 관한 질문 7건 등 총 72건의 의정활동을 실적을 나타냈다. 지난 3월에도 5회 차상발언을 통해 “도내 정치가 보금 자리로 전락할 위험도의 개선안”이란 제목으로 대정부 건의안으로 “고소득 세율기울리기 정책 철회 및 후쿠시마 원전 가동 중단 촉구” 등의 건의안을 발표했다. “도내 공공기관 우수규제와 수혜제약 확대 등을 마련할 것임 후쿠”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하는 등 여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도의원에 당선된 최 의원은 가장 먼저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의 유력 인사로 정

당직 전담과 관련해 건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약을 발표하는 등 노동자 치우개선에 집중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권자들과의 근무환경 실태 개선 촉구, 소상공인 지원 조치 개선,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영세 중소기업 지원, 학교교육지원, 등 최우선적인 안건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썼다. 최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부터 병당의 목소리를 직감 듣고 도민 차상발언이나 도청장은 물론 유권자들과 교육청에서 개인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 의원은 학예,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조례 제정과 의정활동이 부쩍 해소를 위해 “원리대로 최정호의원” 등의 광역이동차량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원리대로 생활임금 조세 일부가 정외에”를 위해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를 노인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급하는 소년·유소년연의 대상 부 인원이 결실을 맺기도 했다. 그동안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2021년 1월 연 1억 6천 원으로 예산 500만 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 의원은 “별로 뛰는 차이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고 젊은 세대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명제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안,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학교교육지원, 등 최우선적인 안건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썼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 의원은 “별로 뛰는 차이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고 젊은 세대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기자 jay2000@jbnews.com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촉구 집중! 정의당 전라북도당

입시 2021년 5월 11일 10:30 | 정의당 전북도당

최영심 의원

〈전북연합신문 2022년 4월 7일자 16면〉

## 사회약자편 정의의 민원 해결사 역할 특 특

최영심 의원, 자유발언17·조례안 제개정  
35건 등

72건 실적 제11대 도의회서 가장 활발한 활  
동 펼쳐

노동자 처우개선 집중·건제·감시 역할도 충실

전국 최초 교통약자 불편 해소 조례 대표  
발의

도민 생활 직결된 민생 조례·의정활동 돋보여  
“야당 정치인으로 지역발전 이바지 하고파”

“지난 4년 도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  
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서신동 발전에 헌신하는 기회가 주어  
졌으면 합니다”

오는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주 제4선거구  
(서신동 지역구)에 출마 예정인 전북도의회 교  
육위원회 최영심(정의당 비례)의원은 “지역발  
전과 민원 해결사로서의 지방의원의 역할에 충  
실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편집자주

제11대 도의회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  
친 최영심 의원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제11대 전라북도  
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 12월까지 5분 자유발

언 17건, 조례안 제개정 35건, 대정부 건의·결의  
안 발의 13건, 도정 및 교육 학예에 관한 질문 7  
건 등 총 72건의 의정활동 실적을 나타냈다.

지난 2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전기  
차 보급 증대를 위한 전북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추구하고 대정부 건의안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3월에도 정부가 ‘청년기업 우대정책으로 공공  
기관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확대 등을 마련할 것  
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여전  
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도  
의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가장 먼저 전북교육청  
과 전북도청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  
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자 처우개선에 집중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실태 개  
선 촉구, 소상공인 지원 조직 개편,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방과후강사·돌봄전담사·학교운  
동부지도 등 처우개선 간담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최영심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부터 현장의 목  
소리를 직접 듣고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에서 개선을 요구하  
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 왔다  
고 평가받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조  
례 제정과 의정활동에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  
는다.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전라  
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  
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전라북도 생  
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지

급대상자를 도청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도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지는 5분 자유발언과 대정부 건의안이 결실을 맺기도 했다. 그동안 선별적으로 추진돼 온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지원이 2021년 관련 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하도록 확대된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안, 영세 소상공인 말살하는 노브랜드 가맹점 철회 촉구 건의안,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쫓수 개설 방지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또한 남달랐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남다른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파헤치고 집행

부의 잘못을 찾아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전북도의 스마트팜 혁신 벨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부족, 인공습지 예산낭비 등을 밝혀냈다.

2020년에는 농업계고 지원사업인 묘포장 조성사업으로 법정보호종인 남생이를 사육하는 점 등을 지적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도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영심 의원은 “발로 뛰는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제 책상에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곳곳에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여전히 초심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37</b>
<b>언론사</b>	주식회사 문화매일(문화매일신문)
<b>심의대상</b>	문화매일신문 4월 15일자 4면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선거 이철우 도지사 전격 공천 확정」, 4월 20일자 7면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제하의 기사
<b>주 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 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도지사, 청송군수에 각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들의 성과나 이력, 출마 관련 입장 등을 담은 특집기획 기사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실어 부각하고, 옹호하는 표현을 사용해 우호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선거 이철우 도지사 전격 공천 확정

**‘새바람 행복경북 슬로건  
지난 4년 경북도청 성공적주도  
소신·친화력있는 인물로 평정나  
확고한 공직관·의연함·술선수범  
참다운 공직자상으로 덕목갖춰**

지난 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가오는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광역단체장 후보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조선)를 전격 공천 확정했다.

비록 경북도지사 공천에는 이 지사가 단독 신청했지만 그의 도지사로서의 능력과 인품,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지난 4년간의 경북도지사로서 그 누구보다 충실히 잘 수행해 왔다는 평가가 있었기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물이라 여겨지는 대목이다.

심지어 들리어 오는 얘기로는 현 상황에서 이 지사에 대적할 그 어떠한 야당 후보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보니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경북권에서 15%를 넘는 현 추세이지만, 자칫, 무투표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철우 대세론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는 대한민국 정치인이자 민선 7기 제32대 경상북도 도지사으로써 이름하야, 경북 대통령이라 불리어지고 있는 민선 제8기 국민

의힘에 전격 공천 확정을 받은 이철우 도지사를 집중 조명해 봤다.

### -이철우도지사 그는 누구인가?

이철우 도지사는 소신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일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에 옮기는 분으로 정평이 나있는 선거에서 패배를 모르는 선거의 달인이라 평을 받고 있는 친화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보유한 리더이다.

그는 1955년 8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나, 김천 곡송초, 대구영남중, 김천고, 경북대 사범대 수학교육학과 졸업, 2004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경북대 졸업 후, 상주 화령중, 의성 신평중, 단일중학교 수학교사 재직중, 1984년 별정직 7급 특수직 공고를 보고 지원 합격했다.(이 당시 그는 이 직위가 안기부인줄 모르고 지원했다고 술회하고 있음)

이때부터 안기부에 들어가 2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2005년 12월 이의근 경북도지사의 제의로 국정원 국장직에서 퇴직하고 경북도 정무부지사로 이직, 탁월한 친화력과 치밀한 업무처리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의 실적을 올렸으며, 2008년까지 정무부지사로 활동하다 퇴임했다.

2008년 퇴임 후 정치에 입문, 제18대 국회의원 김천시 선거구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성향으로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국 최다득표율인 83.5%로 당선됐으며, 2016년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돼, 3선 의원으로 2017

년 4월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활동하다 대선패배를 책임지고 자진 사퇴, 그해 7월 전당대회에 출마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017년 12월 경북도지사 경선에 출마, 당심에서는 비록 졌지만, 여론에서 이겨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예 당선돼, 지난 4년간 경상북도를 팔목상대하게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경북 도정을 잘 이끌어 경상북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결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적으로 전격 공천을 받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사의 업적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그는 지난 4년간의 도정방향을 ‘새바람 행복경북’에 두고 ▲일터 넘치는 부자경북 ▲아이 행복한 삶은 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이웃과 함께 복지경북을 민선7기 4대목표로 선정하고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되며 과거의 영광, 체면, 권위를 모두 버리고 지금부터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하고 일어나 새바람을 동력으로 변화와 혁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4년의 경북도정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매월 실시하는 리얼미터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그는 해박한 직무지식과 업무역량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8위에서 출발, 비록 한두 번 7위, 9위에 랭크됐지만, 그 외

는 줄곧 2~4위에 랭크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광역단체장이다.

또 그는 알려진 일화대로 소신발언으로도 널리 알려진 분이다.

지난 2017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타운홀 미팅에서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얼마 못 갈 것” “문재인의 현재하는 행동이 박근혜처럼 탄핵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비난하는 소신 발언으로 파문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이에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막말이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정부 흔들기를 그만하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당시 그는 문재인에게 단순히 경각심을 가지란 뜻으로 해명한 바 있지만, 실제적인 사실은 진심이었음이 확연하게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는 2018년 10월 26일, 故박정희 추도식에서 박정희 前대통령을 “새마을 운동과 조국근대화의 위대한 지도자”라 치켜 우며 “빛나는 모습으로 영도자에게 보답해 드리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비록 저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극열한 비난을 받았지만, 이처럼 당당하게 소신발언으로 정평이 나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이자 행정가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매 선거 때마다 50%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하는 승리의 달인일 정도로 모든 선거에서 패배를 모르는 승리율 100%를 자랑하고 있다.

물론, 2018년 한때는 前박대통령 탄핵이란 악재로 전국에 끼친 자유한국당 심판 바람으로 비록 더불어민주당의 오중기와 대결에서 50%를 약간 웃도는 승리를 거둔 적이 있지만,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둔 경북지역 73%란 고득표율로 인한 보수층이 결집한 점을 비추어볼 때, 다가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야당이 출마해 경북도지사 선거가 치러진다면 한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었던 역대 최다 득표 83.5%보다 더한 득표를 얻을 것이란 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 그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거침없이 밀어 붙이면서도 결코 도를 전혀 넘지 않게 일을 추진하는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신이 차고 넘치는 정치인이요 행정가이다. 어떤 분이 그와 10분을 자리 함께 하면 마치 최면술에 걸린 듯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은 허언이 아닐 정도이다.

또한, 그는 자신과 함께 했던 예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소중한 보배로운 자산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참다운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와 함께 일해 본 윤종진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철우 도지사는 확고한 공직관, 원칙과 정도를 잃지 않는 의연함,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는 솔선수범, 어느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탈하고 소박하며 솔직담백한 성품 등을 지닌 분이다”라고 스펀없이 말하고 있다.

이처럼, 그에게는 온갖 미사여구로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지녀야 할 모든 리더십의 덕목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라고 평가를 듣고 있다.

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가 있

는 곳에서는 늘상 실천에 옮기고 일하는 소위 말하는 적재적소에 일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에 옮기는 분으로써 그의 유명한 일화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마라.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중심의 지휘철학은 공직자들에게 참다운 공직자상을 확연히 일깨워 줘 일하는 공직자상을 만들어 왔다.

이철우 도지사!

그는 경북도를 위해 한시라도 가벼이 보내지 않고 늘상 경북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그의 리더십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라 여겨진다.

여기에 더해, 그가 평소부터 가지고 있는 소신 있는 철학과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타고난 친화력과 끈은 품성은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뿌듯함을 감출 수 없게 하는 참으로 깊이 배워야 할 소중한 덕목이라 여겨지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그의 진솔한 리더십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경상북도 곳곳에 접목되고 스며들고 있듯이 이제 2022년 6월 1일 이후 펼쳐질 이곳 경상북도의 미래는 매우 큰 기대와 희망 속에서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곳 경북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돼, 그를 통해 희망이 넘쳐나고 꿈이 이뤄지는 경북이 이뤄져, 경북인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한 부자 경북에서 살아져가지길 소원해 보며 이철우 도지사의 전도에 서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려 본다.



##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4월 19일 11시, 국민의힘 윤경희(63) 청송군수 예비후보는 청송읍 새마을금고 3층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광호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내 외빈과 주요 당직자, 그리고 1,500여명 지지자들이 사무실근과 외부도로를 운집한 가운데,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의 필승을 기원했다. 이날, 개소식은 개회사, 국민의례, 축사,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 인사 말씀으로 진행됐다. 이광호 군의회의장은 축사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군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한 번 더 청송군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는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머리를 숙인 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군수로 취임한 후, 우리 청송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간 중,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SA(최고) 등급(4년 연속),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 농어촌 기소자치 단체(82개) 부문 종합 2위, 청송사과축제 2020~2022 문화관광 축제지정,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사과부문 대상을 수상(10년간) 했으며, 특히,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듯이 우리 청송은 청정공기를 판다는 개념의 ‘산소카페청송군’ 브랜드를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면서, “이제 군민여러분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꼭 재선군수가 돼,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너도나도 오고 싶어 하는 부자청송군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과 800여 공직자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제가 부족한 것은 군민 여러분께서 좋은 식견으로 채워 주시고, 군민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드림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청송군을 건설해 나간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함께 이곳 청송군을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군, 바로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어 나가자”고 힘줘 역설했다. 이날,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는 청송군민들에게 차기 「청송군 운영 기본방침」을 “군민의 피부에 와 닿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군정을 추진하는 데 두고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농업분야, 복지 교육 분야, 문화 관광분야, 지역 경제 분야, 군민 중심의 공감 소통 강화로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분야별 포부를 밝혔다. ▲농업분야에서는 활력이 가득한 희망농업 구현하기 위해 안정된 영농여건을 조성,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어려움과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등 농업안정을 위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주력하며 재해 보상적 성격의 예산 마련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농민수당,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외

국인 근로자 고용(축소 마련)으로 인력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스마트 농업·6차 산업 활성화로 농업의 다변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업, 고부가 가치 기능성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스마트 팜 구축 등 미래농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상북도 사과연구소 이전 유치, 청송황금사과연구단지 조성, 청송과수GAP단지 조성, 액비공장 2개소 설립, 저품위 사과 매입, 기능성 농산물 생산, 스타 농업인 육성, 3無(무농약·무항생제·무화학비료) 영농 실시, 농촌 스타트업 발굴(가정식 대체식품)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과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산물 유통지원 강화를 위해 황금사과를 비롯한 청송사과의 명품 브랜드화로 가치 향상을 꾀하고, 유통망 다변화로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망 구축, 농가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지원, 청송사과품질보증제, 농·특산물 판매장 및 간이 판매장 설치와 사과대학 운영, 농업인 온라인마케팅 역량강화, 도농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농업분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교육 분야는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복지 실현을 위해 먼저 의료체계 확립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재난적 수준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과 청송군보건의료원의 검사 및 진료범위를 확대하여 2차 의료기관 수준까지 격상시키며 내시경 등 검사범위 확대, 원격진료 도입,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맞춤형 건강관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 모두가 누리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구현으로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군민재해보험 가입, 찾아가는 산부인과, SOS 위치, 천원목욕탕, 키즈 카페·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청소년 복지지원센터 활성화, 거점 경로당, 황토찜질방 설치, 국가유공자 예우, 다문화지원센터 자율운영, 돌봄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환경 개선으로 농촌학교 되살리기를 위해 진학 우려로 인한 외지 전학 등 학생 유출이 심화되어 농촌교육이 황폐화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학교 되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인재양성원 내실화, 기술종합고등학교 유치(골프, 미용, 요리)하고, 공부 콜센터 운영, 농촌유학 보내기 운동 전개(외지학생 유입), 관내 기관단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군이 학교 교육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분야는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도시 도약하기 위해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도시 조성함으로써 공장이 없는 전국 최고 청정 청송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산재된 관광 시설을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 도시로 개발하고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주왕산 관광지구 주변정비사업, 주산지테마파크 조성, 현동면살내체육관 건립, 스포츠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문화관광산업의 외연 확대를 통한 청송의 자연, 사람, 생활, 문화 등 지역 정서에 기반한 향토자원의 가장 청송다운 발길을 통하여 군민이 직접 만드는 참여형 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청송사과축제

글로벌 축제화, 아이스클라이밍 올림픽 종목 채택 추진, 청송온천마을을 조성, 슬로시티 생활화, 지질명소 학술 ▲관광자원화, 문화매개인 양성(해설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소카페 청송정원’ 관광 명소화로 청송군 도시브랜드와 결합된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 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100만 관광객 유치, 청송사랑화폐 결합 소비 촉진, 웨딩촬영 명소화, 단체 소풍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희시설물 운영방안 개선 및 재생으로 과도한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관내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정비하여 시설물 재생작업 및 활성화를 도모해 장난 끼 공화국의 연예인학교 민자 유치, 남관 생활문화센터·객주문학관 민간위탁, 야송미술관·항일의병기념공원 운영개선, 덕리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분야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과 환경이 우선하는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하며, 일상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하며, 범죄예방 방법용 CCTV 확대, 스마트마을 방송, 진보장례식장 건립, 산남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진보 농협 앞 교통사고 예방 로터리 공사, 하상 정비, 상수도 현대화, LPG 배관망 지속 추진, 산불예방을 위한 부엽토 제거 등 산림정비로 임산물 소득 증대 및 퇴비생산 유기농업 육성, 현동면 사무소 이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청정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청송

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주민 친화형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명품 숲 주민 휴식 공간 및 관광자원화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 아름다운 숲 가꾸기, 명품 자작나무 숲 조성, 우량 대경목(소나무 등) 식재, 부남면 소재지 환경정비, 면사무소 주변 공원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인구 증가 운동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해, 귀농·귀촌 장려와 도시민의 제2의 인생·제2의 주소 갖기 운동 추진과 은퇴자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착촌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교육 개선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으로 역외 유출 방지하며, 농촌학교 되살리기 사업과 연계, 귀농·귀촌 프로그램 강화, 은퇴자 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민 중심의 공감 소통 강화로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 공감소통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 군민소통 군민배심원단 운영, 신속·정확한 군정 홍보, SNS 활성화 및 뉴미디어 콘텐츠 제공, 민원 소리함 설치, 군민OK! 부패 KO 추진, 열린 군수실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불편 해소 등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행정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소관 민원·예산집행을 일선 읍면으로 대폭 이관하여 민원불편 해소, 청송군지역 발전협의회 운영,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공무원 토론·제안을 위한 ‘청송어람’ 운영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주왕산 면에 살고 있는 K모씨(남 63세)는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는 저돌적으로 밀어 붙이는 업무추진으로 그 어떤 지자체에도 뒤떨어지지 않을 무한성장동력을 지닌 청송군으로 만들어 왔다”면서 “그가 가진 훌륭한 인품과 그동안의 지역을 부

흥시켜온 그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꼭 재선 군수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청송읍에 거주하는 CH씨(여, 47세)는 “우리 군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동네 번쩍서에 번쩍 하며 부자 청송군을 위해 발로 뛰는 진정한 군민의 군수라면서 3선군수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개소식을 바라본 취재진은 개소식을 가득 메운 수많은 윤 예비후보 지지자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확실히 「청송군수=윤경희」란 등식이 강하게 남아,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전개될 청송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올 것이란 기대를 느껴보면서 그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이뤄져 청송군이 보다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38
언론사	주식회사 진도신문사(예향진도신문)
심의대상	예향진도신문 3월 31일자 3면 「전남도의회 장일 도의원 “전남 도정을 잘 아는 큰 일꾼 필요”」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진도군 도의원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남도의회 장일 도의원  
**“전남 도정을 잘 아는 큰 일꾼 필요”**  
 고향 진도의 발전... 도의원 출마 선언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보배로운 섬, 예향의 고향, 내 고향 진도군민 여러분!  
 전남도민과 진도군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장일이 마지막 사명으로 생명의 땅 전남과 시서화창 예향의 고향 진도의 발전에 모든 걸 걸고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전라남도 의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발전과 지역발전의 큰 축을 이루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 고향 진도는 전남도의회가 1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도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고향 진도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진도발전을 위해 전남 도정을 잘 아는 큰 일꾼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땅 전남 발전과 내 고향 진도 발전을 위해 확실히 검증된 일꾼인 저 장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전남도원으로 배우고 익혔던 역량을 전남도민과 진도군민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진도군민 여러분!  
 저 장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활력이 넘치는 생명의 땅 전남과 예향의 고향 진도를 위해 저의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향진도신문 2022년 3월 31일자 3면〉



## 전남도의회 장일 도의원 “전남 도정을 잘 아는 큰 일꾼 필요”

### 고향 진도의 발전... 도의원 출마 선언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보배로운 섬, 예향의 고향, 내 고향 진도군민 여러분!

전남도민과 진도군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장일이 마지막 사명으로 생명의 땅 전남과 시.서.화.창 예향의 고향 진도의 발전에 모든 걸 걸고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전라남도 의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발전과 지역발전의 큰 축을 이루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 고향 진도는 전남도의회가 1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도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고향 진도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진도발전을 위해 전남도정을 잘 아는 큰 일꾼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땅 전남 발전과 내 고향 진도 발전을 위해 확실히 검증된 일꾼인 저 장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원으로 배우고 익혔던 역량을 전남도민과 진도군민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진도군민 여러분!

저 장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활력이 넘치는 생명의 땅 전남과 예향의 고향 진도를 위해 저의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39</b>
<b>언론사</b>	주식회사 창녕신문(창녕신문)
<b>심의대상</b>	창녕신문 4월 11일자 7면 「유영식 무소속 출마선언」제하의 기사
<b>주 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 유</b>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창녕군수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유영식 무소속 출마선언

존경하는 창녕 국민여러분!

저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창녕군수 예비후보 유영식 인사 올립니다.

창녕지역 청년의 한사람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창녕의 미래를 위해 철저한 대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을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합니다. 창녕지역 청년의 한사람으로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마감인 국민의힘당 공천심사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지난 4년전에도 공천 전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설마라며 웃어 넘겼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모든게 처음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창녕군수선거는 4년전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군민의 한사람으로 울분을 토하는 심정입니다. 세간에 아니면 골똥에 연기 나옵니다. 언제까지 민심의 후보가 아닌 공천권자의 일방적인 후보가 군수가 되어야하는지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더 이상 지켜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선가산점(청년, 신인) 20%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선거후 수많은 시간동안 왜 그 자리에 갈려고 했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려고 했는지에 대해 자문자답을 수 없이 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시군에서 할 수 없는 오직 창녕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꼭 이 일을 성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께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제 스스로가 명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오직 창녕지역과 군민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군수는 지역의 리더입니다.

리더는 정치인도 아니며 정치인을 흉내 내어서도 안됩니다.

리더는 군민을 섬기면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본인 얼굴을 내세우기 보다 묵묵히 본연의 역할만 충실히 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이후의 창녕을 위해서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된 자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꼭 그런 리더가 되어서 창녕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군민들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비가 오는데 빨간 우산이면 어쩔고 파란우산, 하얀 우산이면 어떻습니까?

우산 색깔을 떠나 더 크고 넓어지지도 않은 튼튼한 우산이 되어서 비가와도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년전부터 만나는 모든분께 완주하겠다고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하겠다고 한결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뱉은 말을 지키는 것은 저의 소신이며 군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1일 창녕군수선거 투표용지에 제 이름 석자 유영식은 반드시 나옵니다.

저에게 창녕군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끝으로 군민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창녕신문 2022년 4월 11일자 7면>

## 유영식 무소속 출마선언

존경하는 창녕 군민여러분!

저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창녕군수 예비후보 유영식 인사 올립니다.

창녕지역 청년의 한사람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창녕의 미래를 위해 철저한 대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을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합니다. 창녕지역 청년의 한사람으로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마감인 국민의힘당 공천심사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지난 4년 전에도 공천 전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설마라며 웃어 넘겼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모든 게 처음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창녕군수 선거는 4년 전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 울분을 토하는 심정입니다. 세간에 아니 뎌 굴뚝에 연기나냐 합니다. 언제까지 민심의 후보가 아닌 공천권자의 일방적인 후보가 군수가 되어야하는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선가산점(청년, 신인) 20%도 포

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선거 후 수많은 시간동안 왜 그 자리에 가려고 했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자문자답을 수 없이 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오직 창녕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꼭 이 일을 성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께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제 스스로가 명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오직 창녕지역과 군민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군수는 지역의 리더입니다.

리더는 정치인도 아니며 정치인을 흉내 내어서도 안 됩니다.

리더는 군민을 섬기면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본인 얼굴을 내세우기보다 묵묵히 본연의 역할만 충실히 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이후의 창녕을 위해서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된 자만이 리더가 되어야합니다. 꼭 그런 리더가 되어서 창녕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군민들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비가 오는데 빨간 우산이면 어떻고 파란 우산, 하얀 우산이면 어떻습니까? 우산 색깔을 떠나 더 크고 찢어 지지도 않은 튼튼한 우산이 되어서 비가와도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년 전부터 만나는 모든 분께 완주하겠다고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하겠다고 한결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뱉은 말을 지키는 것은 저의 소신이며 군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1일 창녕군수선거 투표용지에 제 이름 석자 유영식은 반드시 나옵니다.

저에게 창녕군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끝으로 군민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40</b>
<b>언론사</b>	주식회사 호남제일신문(호남제일신문)
<b>심의대상</b>	호남제일신문 4월 28일자 11면 「6·1 지방선거 후보 선출 입장문」 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부안군수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의 후보 선출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6.1. 지방선거 후보 선출 입장문'

##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후보 권익현



존경하는 부안군민여러분!

여러분의 압도적지지로 제가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매번 바뀌는 군수로는 부안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재선으로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해 헌신하라는 군민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번 더 미래100년 부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경쟁했던 김종규, 김상곤 후보와 지지자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7기 4년동안 열정과 패기로 수십년 묵은 난제를 풀었습니다.

격포해수욕장 불법건축물을 50년만에 해결하고 부안터미널을 48년만에 새단장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오수처리사업, 국도 30호선 아홉구미 포장마차촌 철거 등 갈등을 넘어 상생발전으로 승화 시켰습니다. 또한 미래 부안 100년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민자유치 1조원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구축과 그린뉴딜의 선도도시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의 변곡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부안미래 100년의 큰그림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성공개최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부안이 국제적 도시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만들겠습니다. 수소산업과 풍력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층을 유입해 지속 가능한 부안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안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부안 푸드 앤 레조츠타운 조성 등 부안형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민 여러분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바다에 나가본 자만이 큰 물고기를 낚고, 높이나는 새가 더 멀리 보듯이 크고 다양한 경험과 유능함을 가진자만이 큰 꿈을 이룰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4년 많이 준비하고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부안의 큰 꿈을 완성하기에 4년은 부족합니다.

이제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을 피울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능력있는 재선 군수가 부안의 대도약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다시한번 군민여러분의 압도적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2\*16.3)cm



## ‘6.1. 지방선거 후보 선출 입장문’

###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후보 권익현

존경하는 부안군민여러분!

여러분의 압도적지지로 제가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매번 바뀌는 군수로는 부안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재선으로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해 헌신하라는 군민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 번 더 미래100년 부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경쟁했던 김종규, 김상곤 후보와 지지자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7기 4년 동안 열정과 패기로 수십 년 묵은 난제를 풀었습니다.

격포해수욕장 불법건축물을 50년 만에 해결하고 부안터미널을 48년 만에 새단장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오수처리사업, 국도 30호선 아홉구미 포장마차촌 철거 등 갈등을 넘어 상생발전으로 승화 시켰습니다. 또한 미래 부안 100년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민자유치 1조원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구축과 그린뉴딜의 선도 도시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한 양질의 일자

리와 인구 유입의 변곡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여러분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부안미래 100년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부안이 국제적 도시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만들겠습니다. 수소 산업과 풍력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층을 유입해 지속 가능한 부안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안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부안 푸드 앤 레조츠타운 조성 등 부안형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민 여러분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바다에 나가본 자만이 큰 물고기를 낚고, 높은 새가 더 멀리 보듯이 크고 다양한 경험과 유능함을 가진 자만이 큰 꿈을 이룰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4년 많이 준비하고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부안의 큰 꿈을 완성하기에 4년은 부족합니다.

이제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능력 있는 재선 군수가 부안의 대도약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여러분의 압도적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강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다방면으로 연계되게 (국민의힘) 강동구청장 예비후보 박영우

### 학력/경력사항

- 고려대 법대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역임
- 강대총동문회서울총동문 AMP 제15대 총회장 역임
- 강동영남향우연합회 연합회장 역임
- 강동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 역임
- 바르게살기운동본부중앙회 부회장 역임
- 2008년 강동구청장 새누리당 경선 출마
- 참씨앗 봉사단 단장
- 사단법인 행복미래아카데미 설립 (2019)
- 서울시립대학교 인문학최고위자과정 개설 (2020)
- 강동희망포럼 창단/고문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회 서울본부 강동지부장

### ◆ 구청장에 출마하는 이유?

지역에서 35년을 지내오면서 늘 지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왔으며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박영우의 삶은 강동구가 전부입니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강동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 ◆ 후보자만의 장점은?

저는 남다른 강한 소신과 신념,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청장은 경직화된 구태한 관료적인 사고를 사람이나 일신의 이익을 위해 나선 인물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저 자신은 지금까지 특별한 흠결없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요사이 후보들이 여러 가지 개인비리와 자질, 인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신하고 깨끗한 후보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치우치지 않고 늘 여야 없이 오랜 시간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여러 사회단체를 이끌며 최선을 다하여 봉사와 헌신으로 끊임없이 활동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과 지역사회 활동가들에 의해 큰 신뢰를 받아왔고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 ◆ 후보자가 생각하는 강동구와 인연이 있다면?

약 35년 전 열악한 환경의 강동지역에 대한 아쉬움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봉사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강동을 떠나지 않았고 아이 셋도 모두 초·중·고등학교를 강동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먼저, 강동의 큰 개발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도 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덕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첨단업무단지

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천호, 성내 재개발 사업, 지하철 5,8,9호선 연장 등 큰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GTX-D를 유치하여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경제 가치를 극대화하고 고용창출효과를 크게 높일 것입니다.

한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환경개선지원사업, 강동사랑상품권 일자리허브센터 운영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표 공약 및 실행하고자 하는 비는 무엇인지?  
저의 확고한 소신은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하고 이러한 가치를 높여야 주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또한 상업적, 경제적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중심 도시, 복지중심도시를 이루어 강동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강동행복 시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강동의 자존심을 살리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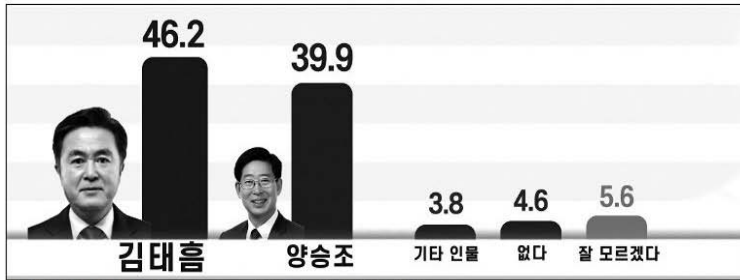
첫째, 강동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구립공공도서관, 동네 작은 사람을 보다 활성화하여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와 같은 미래의 꿈을 키우고, 시민들이 여유로운 사람을 가지고 있도록 유

도할 것이며, 강동 인문학포럼 같은 소셜 커뮤니티를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정신적 삶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행복의 가치를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강동아트센터를 활성화하고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문화예술의장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관심을 일으키겠습니다. 둘째, 복지중심도시로 품격을 높일 것입니다. 영유아가정을 위한 양육지원 강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자치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 강화, 노인복지관 활성화, 노인일자리 다양화할 것이며 여성 복지를 위해, 맞춤형 커뮤니티 활성화, 여성인문학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할 것입니다.

◆ 유권자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동은 지금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강동지역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청장의 자질과 인성에 있어 흠결이 없어야 하고 구태한 관료적인 사고를 가졌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선 인물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저 박영우는 남다른 소신과 집념,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입니다. 반드시 강동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44</b>
<b>언론사</b>	주식회사 투데이충남(투데이충남)
<b>심의대상</b>	투데이충남 4월 29일자 2면 「김태흠 후보, 충남지사 첫 여론조사 1위」 제하의 기사
<b>주 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 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충남지사 양자대결 그래프. 조사기관 (주)리얼미터

## 김태흠 후보, 충남지사 첫 여론조사 1위

김후보 남성 전체와 60대 이상,  
양 후보는 여성과 20~40대에서 각각 앞서

여야의 충남도지사후보 확정 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6.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7일 MBN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5~26일 충남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김태흠 46.2%, 양승조 39.9%, 잘 모름 5.6%, 없음 4.6%, 기타 인물 3.8%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후보와 양승조 후보와의 격차는 6.3%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5%p) 밖이다. 김 후보는 남성유권자 전체와 60대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양 후보는 여성과 20·40대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2.0%로 조사돼 민주당 34.2%보다 17.8%p 앞섰다.

충남지역 현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 혁신 도시 이전 17.6%,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10.6%, 서산 민항 건설 10.4%, 내포 신도시 탄소중립 7.3%, 국립 경찰병원 설립 6.2%, 가로림만 해양공원 3.7% 순으로 나타났다.

6.1일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투표층 89.4%, 투표할 의향 없음 8.9% 잘 모름 1.7%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 자동 응답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2% 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지웅 기자

(11.7·19.7)cm



## 김태흠 후보, 충남지사 첫 여론조사 1위

**김 후보 남성 전체와 60대 이상,  
양 후보는 여성과 20~40대에서 각각 앞서**

여야의 충남도지사후보 확정 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6.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7일 MBN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5~26일 충남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김태흠 46.2%, 양승조 39.9%, 잘 모름 5.6%, 없음 4.6%, 기타 인물 3.8%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후보와 양승조 후보와의 격차는 6.3%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 3.5%p) 밖이다. 김 후보는 남성유권자 전체와

60대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양 후보는 여성과 20~40대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2.0%로 조사돼 민주당 34.2%보다 17.8%p 앞섰다.

충남지역 현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17.6%,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10.6%, 서산 민항 건설 10.4%, 내포 신도시 탄소중립 7.3%, 국립 경찰병원 설립 6.2%, 가로림만 해양공원 3.7% 순으로 나타났다.

6.1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투표층 89.4%, 투표할 의향 없음 8.9% 잘 모름 1.7%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90%, 유선 10% 자동응답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2% 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45</b>
<b>언론사</b>	주식회사 창녕신문(창녕신문)
<b>심의대상</b>	창녕신문 4월 11일자 7면 「군민에 대한 섬김과 현장 행정의 본보기 - 한정우의 『지성感민』을 읽고」 제하의 기고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현직 경남 창녕군수와 관련해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한 외부 필진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기고문(독후감)

군민에 대한 섬김과 현장 행정의 본보기  
한정우의 『지성感민』을 읽고

“지금 정성으로 군민을 섬기겠습니다.” 이 구절은 한정우 군수의 책 『지성感민』의 부제이다. 저자 한정우는 창녕 군수이며 행정학 박사로서 앞서 발간한 『우문현답(부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이 현장행정에 근간을 두었다면 이번에 발간한 『지성感민』은 친절행정으로 군민에게 감동과 새롭게 도약하는 창녕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이른 새벽 창녕관내 시가지 순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창녕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창녕천을 둘러보며 군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일상을 살핀다. 우문현답과 지성感민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심재만 창녕읍 전 부읍장

이 책에서 저자는 두 명의 저명한 교수와 대담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은 창녕군 행정을 위해서 펼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 눈길을 가는 대목을 살펴보면, 전회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최초 공무원1/2 분리근무 실시, 경남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검진체계구축, 창녕 전통시장 휴장, 창녕과 대구 버스노선을 전면 중단하였다. 또한 한 달여간 군수 집무실에 침대를 두고 숙식을 하면서 방역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환자가 급증 할 때에도 창녕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현저하게 적었다. 질병의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흡연수범이 돋보인 사례이다.

또 한 가지는 2020년 8월 이틀간 집중 호우로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 제방이 유실 되어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복구를 마친 후, 국가하천으로 창녕군에서 마을대로 복구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막대한 공사비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때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공사비 걱정 말고 뚝부터 막자”는 결정을 힘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행정안전부 종합평가에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수상도 중요하지만 현장행정과 적극행정으로 군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바로 ‘지성感민’의 행정이다.

관내에 딸기 재배농가, 귀농 청년농가, 청년 창업사업가의 현장 방문과 군민들로부터 온 손 편지 통해 예로사함

건의사항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적절한 지원방안과 정책수립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의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절차와 청렴을 갖춘 좋은 정부로 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은 경청하지 않아서 혹은 경청할 줄 몰라서 생긴다. 해답을 찾을 수 없어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것은 그들의 말을 흘려듣고, 핵심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장방문 통한 군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정우의 진심(真心)에서는 군민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읽을 줄 알고, 뜻이 서로 잘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군수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SNS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군민들과 공감과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하는 의지가 보인다. 끝으로 그가 밝힌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폐 쉼이를 수거하시는 할아버님의 구두장이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 허락 ...) 라는 소망에서 얼마나 군민을 공음(公音)히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앞서 발간한 책 『우문현답』이 현장행정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각종재난 등 위기상황을 버텨 갈수 있었다면, 이번에 발간한 책 『지성感민』으로 제목이 주는 의미처럼 군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서 창녕군의 슬로건인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우 군수의 책에서 군민에 대한 사랑과 현장행정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군민에 대한 섬김과 현장 행정의 본보기 - 한정우의 『지성感민』을 읽고

“지극 정성으로 군민을 섬기겠습니다.” 이 구절은 한정우 군수의 책 『지성感민』의 부제이다. 저자 한정우는 창녕군수이며 행정학 박사로서 앞서 발간한 『우문현답(부제: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 현장행정에 근간을 두었다면 이번에 발간한 『지성感민』은 친절행정으로 군민에게 감동과 새롭게 도약하는 창녕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이른 새벽 창녕관내 시가지 순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창녕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창녕천을 둘러보며 군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일상을 살핀다. 우문현답과 지성感민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두 명의 저명한 교수와 대담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은 창녕군 행정을 위해서 펼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 눈길이 가는 대목을 살펴보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최초 공무원1/2 분리근무 실시, 경남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검진체계구축, 창녕전통시장 휴장, 창녕과 대구 버스노선을 전면 중단하였다. 또한 한 달여간 군수집무실에 침대를 두고 숙식을 하면서 방역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환자가 급증할 때에도 창녕군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현저하게 적었다. 질병의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솔선수범이 돋보인 사례이다.

또 한 가지는 2020년 8월 이틀간 집중호우로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 제방이 유실 되어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복구를 마친 후, 국가하천으로 창녕군에서 마음대로 복구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막대한 공사비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때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공사비 걱정 말고 독부터 막자”는 결정을 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행정안전부 종합평가에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수상도 중요하지만 현장행정과 적극행정으로 군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바로 ‘지성感민’의 행정이다.

관내에 딸기 재배농가, 귀농 청년농가, 청년 창업사업가의 현장 방문과 군민들로부터 온 손 편지 통해 애로사항 건의사항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적절한 지원방안과 정책수립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의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절차와 청렴을 갖춘 좋은 정부로 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은 경청하지 않아서 혹은 경청할 줄 몰라서 생긴다. 해답을 찾을 수 없어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것은 그들의 말을 흘려듣고, 핵심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장방문 통한 군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정우의 진심(眞心)에서는 군민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읽을 줄 알고, 뜻이 서로 잘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군수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SNS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군민들과 공감과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하

는 의지가 보인다. 끝으로 그가 밝힌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폐 종이를 수거하시는 할아버님의 구들장이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하략…) 라는 소망에서 얼마나 군민을 긍휼(矜恤)히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앞서 발간한 책 『우문현답』이 현장행정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코로나19

와 각종재난 등 위기상황을 비켜 갈수 있었다면, 이번에 발간한 책 『지성感民』으로 제목이 주는 의미처럼 군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서 창녕군의 슬로건인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우 군수의 책에서 군민에 대한 사랑과 현장행정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48</b>
<b>언론사</b>	주식회사 고향신문사(주간 고향신문)
<b>심의대상</b>	주간 고향신문 4월 22일자 3면 「김진기 전) 도의원 의정경험 살려 재도전」 제하의 기사
<b>주 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 유</b>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의회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간고향신문 2022년 4월 22일자 3면>

## 김진기 전)도의원 의정경험 살려 재도전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영덕 만들 터”

김진기 전)도원이 오는 6.1 지방선거에 경북도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진기 전 도의원은 “7대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을 살려 영덕 군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다시 군민 속으로 뛰어들어 들어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 김진기 전 도의원 출마의 변 전문

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왜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일신영달은 버리고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는 되어 있는지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본 적은 있는지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출마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영덕의 발전이란 군민 모두가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 지역민들과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오늘 보다 나은 영덕을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영덕이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 지자체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영덕이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봅시다. 12만 명의 인구가 이제는 3만 4천명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전

국적인 농어촌이 갖고 있는 공동의 현상입니다.

우리 영덕의 인구만으로 영덕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지 인구라도 유입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복할 길은 무엇일까요? 전국의 광역교통망은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한 영덕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도시와 먼 거리 때문에 공단과 기업 유치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여건을 잘 활용한다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특화된 새로운 도시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와 관광 그리고 미래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잘 나가던 시절 우리 영덕은 관광개발 지구지정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당시 교통 오지며 사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담보상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38년 전 삼사해상공원이 그렇고 선거 때마다 우려먹던 1호 공약으로 지역민의 희망이었던 고래불해수욕장은 40년이나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례와 법령을 바꿔야 하고 또한 투자자들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맞지 않아 개발되지 못한 지구들을 현 시대 트렌드에 맞게 규제 개혁을 통해 용도 등 변경할 수 있어야 호텔이 세워지고 관광 목적 등의 사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영덕이 만들어지고 인구 유입이 가능합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서는 국토부 차관을 역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개발 사업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의원님과 함께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조례와 법령을 고쳐나가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안심하고 투자자들이 찾을 것입니다.

저 김진기는 하겠습니다.

삼성은 우리 영덕에 연수원이 있고 제계도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삼성이 움직이면 달라집니다. 세계 일류를 고집하는 삼성이 투자하면 영덕은 자자손손 일거리 먹거리가 생깁니다. 관광영덕을 위한 삼성의 투자유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일꾼을 뽑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올바르게堂堂하게 행사하여 행복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어 갑시다. 반듯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 우리 영덕의 미래입니다.

저 김진기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堂堂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김진기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력 및 경력

동국대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지방자치학 석사과정(2학기)

마닐라대학교 정치학 석사과정(2학기)

마닐라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학위취득

전)경상북도 7대 도의원

전)시나브로장학회 초대·2대·3대 회장

전)영해애향청년회 회장

현)영덕군영근회 회장

현)예주발전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영덕당원협의회 정책 부위원장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49
언론사	함안신문
심의대상	함안신문 4월 28일자 5면 「경남도의원 함안2 조인제 예비후보 출마의 변 세 대공감, 튼튼한 복지함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의회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경남도의원 함안2 조인제 예비후보 출마의 변 세대공감, 튼튼한 복지함안



주인 여러분!

저, 조인제! 함안 세대공감 튼튼한 복지 함안을 만들기 위해 함안군제 2선거구 경남도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함안이 낳고 키운 청년 조인제는 7년간 대한민국 육군장교로서 조국 사랑의 투철한 애국심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 조인제는 함안군민을 지키고 섬기기 위해 봉사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함안군민 여러분! 지난 4년은 저에게는 선거낙선의 아픔보다는 함안군민이 '어떻게하면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안을 위하여 더욱 더 봉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지난 4년은 우리 함안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청년 MZ세대는 취업이 어려워 막막해하고, 생업전선에 일하는 부모님 WINE세대는 먹고살기 어려운 세상이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SILVER세대는 자식, 손주들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에 좌절하였습니다. 함안의 세대복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함안군민 세대공감, 튼튼한 복지 함안이 답입니다! 조인제가 답입니다!

앞으로의 4년 그 이상의 함안은 어떻게 해야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 조인제는 우리함안을 위해 슬루션을 제안합니다.

청년 MZ세대가 꾸준히 자리잡고 일할 수 있는 청년사관학교를 만들

어 교육과 일자리 제공, 걱정없이 자식남아 키울 수 있는 청년주거플랫폼 구축, 행복한 청년문화조성 사업을 지원을 부모님 WINE세대는 안정적인 함안살기 역량강화 및 창업, 일자리 전환 민·관행정시스템 구축 사업과 행복함안 문화축제 컨테츠 발굴을 지원하여 살기 좋고 만족하는 복지사업 지원을 SILVER세대는 노인들의 행복지수 레벨업! 만족형 노인복지 역량강화사업, 노인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별 공약사업은 실현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자 '5대 업그레이드' 추진전략을 제안합니다.

1.지역별 맞춤형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2.지역관광 콘텐츠 업그레이드

3.청년정책사업 업그레이드

4.농산물 생산가공을 위한 농업환경 업그레이드

5.세대공감 튼튼한 함안복지 업그레이드

저 조인제는 5대 업그레이드 추진 전략 컨셉을 잡고 읍·면별 세부추진 공약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민 세대공감, 튼튼한 복지함안을 만들어 살기 좋고 놀러오고 싶고 청년부터 노인까지 만족하는 함안군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저 조인제는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군민만 바라보고 직접 발로 뛸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고 가슴에는 군민을 위한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시절부터 정의를 바른 길만 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젊은 열정으로 당당하게 열심히 뛸 것입니다.

함안군민 여러분, 칠원읍, 칠서, 칠북, 산인, 대산면 주민 여러분! 주신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배우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조인제 변함없는 지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남도의원 함안2 조인제 예비후보 출마의 변 세대 공감, 튼튼한 복지함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칠원읍, 칠서, 칠북, 산인, 대산면 주민 여러분! 저, 조인제!

함안 세대공감 튼튼한 복지 함안을 만들기 위해 함안군 제2선거구 경남도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함안이 낳고 키운 청년 조인제는 7년간 대한민국 육군장교로서 조국 사랑의 투철한 애국심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 조인제는 함안군민을 지키고 섬기기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안군민 여러분! 지난 4년은 저에게는 선거 낙선의 아픔보다는 함안군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안을 위하여 더욱 더 봉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지난 4년은 우리 함안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청년 MZ세대는 취업이 어려워 막막해하고, 생업전선에 일하는 부모님 WINE세대는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SILVER세대는 자식, 손주들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에 좌절하였습니다. 함안의 세대 복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함안군민 세대공감, 튼튼한 복지 함안이 답입니다! 조인제가 답입니다!

앞으로의 4년 그 이상의 함안은 어떻게 해야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 조인제는 우리 함안을 위해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청년 MZ세대가 꾸준히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청년사관학교를 만들어 교육과 일자리 제공, 걱정없이 자식낳아 키울 수 있는 청년주거 플랫폼 구축, 행복한 청년문화조성 사업 지원을, 부모님 WINE세대는 안정적인 함안 살기 역량 강화 및 창업, 일자리 전환 민·관행정시스템 구축 사업과 행복함안 문화축제 콘텐츠 발굴을 지원하여 살기 좋고 만족하는 복지사업 지원을, SILVER세대는 노인들의 행복지수 레벨업! 만족형 노인복지 역량강화사업, 노인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별 공약사업은 실천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자 ‘5대 업그레이드’ 추진전략을 제안합니다.

1. 지역별 맞춤형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2. 지역관광 콘텐츠 업그레이드
3. 청년정책사업 업그레이드
4. 농산물 생산가공을 위한 농업환경 업그레이드
5. 세대공감 튼튼한 함안복지 업그레이드

저 조인제는 5대 업그레이드 추진 전략 컨셉을 잡고 읍·면별 세부추진 공약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민 세대공감, 튼튼한 복지함안을 만들어 살기 좋고 놀러오고 싶고 청년부터 노인까지 만족하는 함안군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저 조인제는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군민만 바라보고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가슴에는 군

민을 위한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시절부터 정의롭게 바른 길만 걷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짧은 열정으로 당당하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안군민 여러분, 칠원읍, 칠서, 칠북, 산인, 대산면 주민 여러분!

주신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배우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조인제 변함없는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결번호 제8회 지산-자심52

언론사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심의대상 중앙일보 5월 4일자 6면 「엇갈린 총청... 충남 양승조 앞서고 충북 김영환 우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엇갈린 총청... 충남 양승조 앞서고 충북 김영환 우세

### 안갯속 충청도 표심

**‘윤심’ 김태흠, 오차범위 내 추격 노영민, 의원 지낸 청주서도 부진 허태정·이장우 붙는 대전은 접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와 ‘윤심(尹心)’을 등에 업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충남 지사 선거에서 양 지사가 오차범위(±3.5%포인트)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2일 충남의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에서 양 지사는 46.0%, 김 후보는 39.6%의 지지율을 기록해 양 지사가 6.4%포인트 격차로 우위를 보였다.

승부를 가른 곳은 충남 권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이었다. 천안 지역 응답자 중 54.6%가 양 지사를, 32.2%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해 격차가 22.4%포인트에 달했다. 아산·당진에서도 양 지사 43.6%, 김 후보 37.4%로 양 지사가 6.2%포인트 앞섰다. 충남 지역 인구는 211만 9000명(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기준)이고, 이중 천안 인구가 65만 8000명, 아산과 당진을 합쳐 49만 2000명으로 세 곳의 인구가 충남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천안 출신인 양 지사는 천안에서 4선을, 보령 출신의 김 후보는 보령·서천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서산·태안·홍성·보령·예산·서천에서는 양 지사 40.8%, 김 후보 46.4%, 논

산·금산·계룡·공주·부여·청양은 양 지사 42.6%, 김 후보 44.2%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충남 응답자들은 양 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선 71.4%가 긍정 평가를 했고 부정 평가는 17.4%였다.

충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민주당 후보가 36.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인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는 45.4%로 김영환 후보가 오차범위(±3.4%포인트) 밖인 8.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지역별로는 노 후보가 고양이자 3선 의원(청주 흥덕을)을 지낸 청주에서 39.3%로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김 후보는 44.9% 지지율을 기록했다. 청주 인구는 84만 8000명으로 충북 전체 인구(159만 7000명)의 절반을 넘는 핵심 승부처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충주(20만 9000명)에서는 노 후보 38.9%, 김 후보 39.4%로 접전 양상이었고 제천·단양(노영민 28.7%, 김영환 50.8%), 보은·옥천·영동·괴산(노영민 31.3%, 김영환 52.2%)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섰다.

김 후보의 선전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곱지 않은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이 54.6%, ‘잘했다’는 응답은 43.0%로 상대적으로 평가가 박했다.

민주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과 재선 의원 출신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대전시장 선거는 접전 양상이었다. 허 시장이 39.6%, 이 후보가 43.4% 지지율을 기록해 이 후보가 오차범위(±3.5%포인트) 내인 3.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가 중구·동구·서구·

대덕구에서 각각 8.0%포인트 · 6.3%포인트 · 3.9%포인트 · 3.0%포인트 앞섰고 유성구에서는 허 시장이 0.4%포인트의 근소한 격차로 앞섰다. 허 시장 직무 수행에 대해선 응답자의 61.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1.1%가 잘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충청 지역 응답자들은 최우선 지역 현안으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대’(충청25.1%, 충북 24.7%, 대전 2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충청에서는 각 후보의 지역 발전 공약 등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55</b>
<b>언론사</b>	주식회사 경남연합일보(경남연합일보)
<b>심의대상</b>	경남연합일보 5월 12일자 5면 「허기도 전 산청군수, 산청군수 무소속 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
<b>주 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 유</b>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산청군수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년 5월 12일  
제8회 지선-자심55

**경남연합일보**

[연장취재 기사란]

## 허기도 전 산청군수, 산청군수 무소속 출마 선언

“보수정당 공천 인형, 군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지역민과 애청 분들, 수많은 출마 요청·지지 전화→많은 고민  
산청 살림 경험, 군민 바람 외면 못해 울바른 선택 받고자 결심

허기도 전 산청군수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로써 산청군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면이 열리고 이성과 후보의 양자구도가 형성됐다.

앞서 지난 8월 허기도 전 군수는 본자매 사지를 통해 지역민들과 감성을 가지고 지지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이런 선거에서 국민의 힘 기초단체장과 공여의원 정경과정을 지켜보며 허발에 해당 지역민들은 허기도 전 군수의 등장을 관심이 집중됐다.

속고 끝에 허기도 전 군수는 장문의 편지지를 통해 지역민에게 사랑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이른다. 출마를 결정하기까지 고민에 고민을 더한 공천을 약속하지 않음 통해 절실하게 전달되고 있다. 늦은 결심이었으나 산청에서

대한 사람으로 출마준비에 바쁜 허기도 전 군수를 만났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이번 국민의 힘 지방선거 공천 과정은 지켜보지 못한 국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인감이 지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산청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전화를 통해서, 또는 직접 찾아와서 출마를 권유를 했다.

거절할 수 없이 했다. 하지만 수많은 국민들의 열원과 요청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 더 힘들었다.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말갸진 사랑을 위해 결심했다. 국민들의 열정만큼 선택된 바깥은 있을 수가 없다. 어쩌다

심판을 부탁드린다.

◆정당변경과 이번 교육감출마 과정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군수에 출마한다. 그 의미는?  
나는 오랜 기간 정통보수를 지향해 왔고 보수정당의 후보로써 3선의 공여의원과 경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6대 산청군수를 지냈고 지난번 선거에서는 잠시 당을 떠나 출마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산청군민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제는 정적으로 돌아와 나의 분야와 역할을 찾고 다시 한 번 산청군을 위한 봉사할 해라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렇게 보수통합을 실패하고 자업인사로 돌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예정권을 가지고 싶어가 했지만, 오 정당의 오인행은 산청주민을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격려 위에는 부정적이 이야기 할로 들어온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낚을 겪고 산청과 주민들에 대한 애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우리 산청군은 낯익은 산청의 정과 사상이 살아있는 선비의 고장이다. 하지만 불우에는 반드시 심판하는 영향과 고장이기도 한다.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놓았지만 최선을 다해 영혼을 보답하겠다.

◆산청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군수시절 3대 공약이었던 관광산청, 행복산청, 교육산청의 실현과 마무리 해라한다. 지난년에는 안타깝게도 재선에 실패해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 다시 기회가 주어된다면 정경과 지리산을 좋은 산청군이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행복해 지는 고장으로 발발할 시키겠다.

지난 군수 시절에는 매년 인구가 늘었다. 하지만 인구가 자주 들어드는 작업의 상황을 잘 분석해서 찾아오는 산청 마두드는 산청 행복 산청을 만들겠다.

◆지역주민들은 허 후보에 어떤 말을 했나?  
이제는 안 된다. 허 후보는 정당을 권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정당이 아니다.

산청의 잘못된 정치문화를 꼭 바꾸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 산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군민 애착과 실용을 더욱 중요하게 가꾸기 위해 교육, 사업, 행정의 지도자로 돌아온 다양한 경험을 살려 후생의 노력을 다라해준다.

군수는 군민의 큰 일원으로 책임을 안고 남쪽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고, 공직자의 지도자로 출마수요에 대한 기대를 위해 늘 높은 자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를 수 없이 울바른 선택을 받고자 결심했다. 산청을 사랑하는 지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군민여러분!  
저 허기도가 이렇게 무명을 받은 건, 지금까지 지역 선의정신을 잘 보존한 군민의 자존심을 지킬수있는 아까운 순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천만 받았던 바깥 군수나 의회로 당선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훌륭한 군수와 의원은 군민보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형식이 될 것이기에, 이 같은

2022. 5. 12. 4:30

〈경남연합일보 2022년 5월 12일자 5면〉

## 허기도 전 산청군수, 산청군수 무소속 출마 선언

“보수정당 공천 만행, 군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지역민과 애향 분들, 수많은 출마 요청·지지 전화…많은 고민

산청 살림 경험, 군민 바람 외면 못해 올바른 선택 받고자 결심

허기도 전 산청군수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로써 산청군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 힘 이승화 후보와 양자구도가 형성됐다.

앞서 지난 8일 허기도 전 군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역민들과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이들에게 출마의 변을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경선과정을 지켜보며 허탈해 하던 지역민들은 허기도 전 군수의 등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숙고 끝에 허기도 전 군수는 장문의 문자를 통해 군민들에게 심경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이른다. 출마를 결정하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더한 흔적들이 메시지를 통해 절실하게 전달되고 있다. 늦은 결심이었고 산청군에 대한 사랑으로 출마준비에 바쁜 허기도 전 군수를 만났다.

###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이번 국민의 힘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군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이 지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산청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군민들이 전화를 통해서, 또는 직접 찾아와서 출마권유를 했다.

거절도 수 없이 했다. 하지만 수많은 군민들의 염원도 요청을 그냥 모른 채하고 있는 것이 더 힘들었다. 군민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결단을 했다. 군민들의 참정권과 선택권 박탈은 있을 수가 없다.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정당변경과 이번 교육감출마 과정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군수에 출마한다. 그의 미는?

나는 오랜 기간 정통보수를 지향해 왔고 보수정당의 후보로써 3선의 광역의원과 경남도의 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6대 산청군수를 지냈고 지난번 선거에서는 잠시 당을 떠나 출마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산청군민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와 나의 본연의 색깔을 찾고 다시 한 번 산청군을 위한 봉사를 하려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아쉽게 보수통합을 실패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려 했지만, 모 정당의 오만함이 산청주민을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격려 뒤에는 부정적이 이야기들로 들

려온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당선을 통해 산청과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을 알려질 것이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믿는다.

◆지역주민들은 허 후보에 어떤 말들을 했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공천권을 쥐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정당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우리 산청군은 남명조식 선생의 경의 사상이 살아있는 선비의 고장이다. 하지만 불의에는 반드시 심판하는 열정의 고장이기도 한다.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염원에 보답하겠다.

◆산청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군수시설 3대 공약이었던 관광 산청, 행복산청, 교육 산청의 실현의 마무리 하려한다. 지난번에는 안타깝게도 재선에 실패해 그 꿈을 완성하지 못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정골 지리산을 품은 산청군이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고장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지난 군수 시절에는 매년 인구가 늘었다. 하지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작금의 상황을 잘 분석해서 찾아오는 산청! 머무르는 산청! 행복한 산청을 만들겠다.

## [허기도 전 산청군수가 군민들에게 보낸 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산청군은 모당의 공천 단행으로 군민의 참정권이 박탈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군민의 민의를 외면하고 소수의 여론조사로 모당의 군수 후보, 도의원 후보가 결정돼 우리 군에서는 군수·도의원 선거가 없는 황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지내던 중, 산청을 사랑하는 지역민과 애향 분들의 수많은 출마 요청과 지지 전화를 받으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군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후진적 정치 행태를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며 침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희망적 발전을 바라는 많은 지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산청의 살림을 맡아 보았던 사람으로, 깨어있는 군민과 향우 분들의 바람을 지나칠 수 없어 올바른 선택을 받고자 결심했습니다.

군민여러분!

저 허기도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건, 지금까지 지켜온 선비정신을 잘 보존해 군민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공천만 받으면 바로 군수나 의원으로 당선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뽑힌 군수와 의원들은 군민보다 국회의원에 충성하는 정치 현실이 될 것이기에, 이 같은 산청의 잘못된 정치문화를 확 바꾸어달라는 외침이라 생각합니다.

산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고, 군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교직, 사업, 정치, 행정의 지도자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살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는 군민의 큰 일꾼으로 폭넓은 인맥과 능력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 효율적 운용을

해야 하고, 공직자의 지도자로 솔선수범해 군민을 위해 질 높은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민 여러분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산청 건설을 위해, 산청의 자존심과 선비정신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무소불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저 허기도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자심57
언론사	우리군민신문 유한회사(우리군민신문)
심의대상	우리군민신문 5월 9일~15일자 1면 「영광, 장성군수 민주당 후보가 우세」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장성군수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영광, 장성군수 민주당 후보가 우세**

6·1 지방선거 리얼미터 여론조사

차기 영광 군수 적합도 단위 (%)      차기 장성 군수 적합도 단위 (%)

민주당 김준성 51.8%      39.8% 무소속 강종만      민주당 김한중 47.5%      45% 무소속 유두석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준성 군수와 김한중 후보가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와 유두석 현 군수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군민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4일과 5일 이틀 간에 걸쳐 실시한 영광군수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성 영광군수가 51.8%, 무소속 전 영광군수인 강종만 후보가 39.8%를 얻으면서 김준성 군수가 강종만 전 군수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김 군수는 강 전 군수를 12% 차이로 따돌렸고, 특히 영광은 전 지역에서 강 전 군수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날짜에 이틀간 실시된 리얼미터의 장성군수 적합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중 후보가 47.5%, 무소속 유두석 후보가 45%, 무소속 송병근 후보가 15%를 얻어 오차범위 안에서 김한중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김한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후보로 확정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유두석 군수를 앞서는 행적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영광군수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뒤 장성군수의 당선 가능성도 높았다. 4선에 도전해 의회직입장을 노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여론조사의 표본은 영광군 670명, 장성군 711명이며 표본오차는 영광군 ±3.9%p(95% 신뢰수준)이며 장성군의 표본오차는 ±3.7%p(95% 신뢰수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신문에 표한 조사결과를 참고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관련기사 3.6.7면

<우리군민신문 2022년 5월 9일~15일자 1면>

## 영광, 장성군수 민주당 후보가 우세

### 6·1 지방선거 리얼미터 여론조사

**김준성 후보 강종만 후보에 완승  
김한중 후보 유두석 후보에 앞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준성 군수와 김한중 의장이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와 유두석 현 군수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국민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영광군수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성 영광군수가 51.8%, 무소속 전 영광군수인 강종만 후보가 39.8%를 얻으면서 김준성 군수가 강종만 전 군수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김 군수는 강 전 군수를 12% 차이로 따돌렸고, 특히 영광군 전 지역에서 강 전 군수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날짜에 이틀간 실시된 리얼미터의 장성군수 적합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중 후보가 47.5%, 무소속 유두석 후보가 45%, 무소속 송명근 후보가 1.5%를 얻어 오차범위 안에서 김한중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김한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후보로 확정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유두석 군수를 앞서며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이다.

영광군수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김준성 후보는 강종만 후보를 적합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가능성 김준성 후보 52.9%, 강종만 후보 41.3%를 보였다.

장성군수의 당선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무소속 유두석 후보 47.7%, 민주당 김한중 후보 46.4%를 얻어 유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장성군의 경우 유두석 후보의 4선 도전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4선에 도전해도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41.8%에 머문 반면 새로운 인물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에 과반인 50%가 답했다.

장성군민들은 유두석 후보의 4선 도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은 영광군 676명, 장성군 711명이며 표본오차는 영광군±3.8%p(95% 신뢰수준)이며 장성군의 표본오차는 ±3.7%p(95% 신뢰수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신문에 표현한 조사설계를 참고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자심65</b>
<b>언론사</b>	주식회사 금산소식(금산소식)
<b>심의대상</b>	금산소식 5월 12일자 1면 「문정우 후보, 박범인 후보 적합도 0.5% 앞서」 제하의 기사
<b>주문</b>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b>이유</b>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금산군수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정우 후보, 박범인 후보 적합도 0.5% 앞서

**금산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금산군수 여론조사 결과**

문 후보 46.6%, 박 후보 46.1%... 90.7% "반드시 투표"  
18~59세 문 후보 우위, 60세 이상 박 후보 강세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46.2% · 더불어민주당 42.8%

**표할 생각 없음 0.7%, 투표할 생각 전혀 없음 0.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문정우 후보가 1지역에서 48.6%로 45.6%의 박범인 후보를 3% 앞섰으며, 2지역은 36.8%의 문정우 후보를 박범인 후보가 55.6%로 18.8%로 앞서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3지역은 43.9%의 박범인 후보를 49.7%로 문정우 후보가 5.8%로 앞서고 4지역은 46.4%로 문정우 후보가 43.6%의 박범인 후보를 2.8%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지역은 박범인 후보가, 1, 3, 4 지역에서는 문정우 예비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는 문정우 후보가 48.7%로 32.1%의 박범인 후보를 16.6%, 30~39세에서도 문정우 후보가 54.4%로 36.8%의 박범인 후보를 17.6%, 40~49세 역시 55.2%로 39%의 박범인 후보를 16.2%로 크게 앞섰다.**

**50~59세는 문 후보가 48.1%로 45.5%의 박 후보를 2.6% 차로 우위를 점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41.8%의 문 후보를 52.6%로 10.8%로 앞서 강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금산군수 선거결과 이상현, 문정우, 박범인, 박찬중, 원진호 후보 등 5명이 지역안 집결을 펼친결과 문정우 후보가 35.34%(1만633표)로 박범인 후보 34.03%(1만239표)를 1.31%(394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번 조사는 (주)금산소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충청리서처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까지 양일간 유선 4개 국민번호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과 무선 SKT(3719), KT(3732), LGU+(2110) 가입자 리스트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금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효표본은 786명이다.**

**유선 ARS 39.3%, 무선 ARS 60.8%로 조사가 이뤄졌고, 2022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응답률은 10.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승광우 기자  
damo113@naver.com

<금산소식 2022년 5월 12일자 1면>

## 문정우 후보, 박범인 후보 적합도 0.5% 앞서

문 후보 46.6%, 박 후보 46.1%...  
 90.7% “반드시 투표”  
 18~59세 문 후보 우위, 60세 이상  
 박 후보 강세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46.2% · 더불어민주당 42.8%

(주)금산소식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금산군수 선거에 대해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정우 예비후보가 ‘국민의 힘’ 박범인 예비후보를 0.5%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가지(도덕적, 자질 등) 문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금산군 유권자들의 표심을 알아본 결과 문정우 후보가 46.6%, 박범인 후보가 46.1%, 적합후보 없음 3.5%, 잘모름 3.7%로 조사된 것.

지역별로 1지역(금산읍) 441명, 2지역(남일면, 남이면, 부리면) 102명, 3지역(금성면, 진산면, 복수면) 108명, 4지역(추부면, 군북면, 제원면) 135명으로 구분해 786명(남성 442명, 여성 344명)이 여론조사에 응한 결과이다.

제8대 지방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한다 90.7%, 웬만하면 투표한다 8.3%,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0.7%, 투표할 생각 전혀 없음 0.3%로 집계됐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8%, 국민의힘 46.2%, 정의당 1.4%, 기타정당 1.4%, 지지

정당 없음 5%, 잘 모름 3.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문정우 후보가 1지역에서 48.6%로 45.6%의 박범인 후보를 3% 앞섰으며, 2지역은 36.8%의 문정우 후보를 박범인 후보가 55.6%로 18.8%로 앞서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3지역은 43.9%의 박범인 후보를 49.7%로 문정우 후보가 5.8%로 앞서고 4지역은 46.4%로 문정우 후보가 43.6%의 박범인 후보를 2.8% 앞선 것으로 나타나 2지역은 박범인 후보가, 1,3,4 지역에서는 문정우 예비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는 문정우 후보가 48.7%로 32.1%의 박범인 후보를 16.6%, 30~39세에서도 문정우 후보가 54.4%로 36.8%의 박범인 후보를 17.6%, 40~49세 역시 55.2%로 39%의 박범인 후보를 16.2%로 크게 앞섰다.

50~59세는 문 후보가 48.1%로 45.5%의 박 후보를 2.6% 차로 우위를 점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41.8%의 문 후보를 52.6%로 10.8%로 앞서 강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금산군수 선거 결과 이상현, 문정우, 박범인, 박찬중, 김진호 후보 등 5명이 치열한 접전을 펼친 결과 문정우 후보가 35.34%(1만633표)로 박범인 후보 34.03%(1만239표)를 1.31%(394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번 조사는 (주)금산소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까지 양일간 유선 4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과 무선 SKT(3719), KT(3732), LGU+(2110) 가입자 리스트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금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효표본은

786명이다.

유선 ARS 39.2%, 무선 ARS 60.8%로 조사가 이뤄졌고, 2022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응답율은 10.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5\%$ 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기자회견> 임정업 전주시장 예비후보 출 마자

### 민생공약3-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제시

#### ① 어르신과 초중고생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단 단장 임정업입니다.

오늘 정책발표 기자회견은 대중교통 정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저를 시장으로 선택해주신다면 즉시 부모님과 청소년, 어린 자녀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합니다.

청소년과 자녀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를 말합니다.

추산되는 연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6만 3천 백여 명을 기준으로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고생은 4만 4천 2백여 명으로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는 4만 7백여 명을 기준으로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해 백 15억 원입니다.

지금 방식은 교통카드입니다.

제가 이 공약에 애착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무게를 너무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5만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가입률은 40% 가량에 그칩니다.

열 사람 중 여섯 사람은 연금에 가입돼 있지도 않습니다.

용돈조차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고 폐지를 주는 노인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분들에게 시내버스 요금 천 5백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그나마 살아가는데 여유 있는 분들도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료 시내버스는 시급합니다.

전주시 70세 이상 어르신은 6만 8천 6백 명입니다.

면허소지자는 3분의 1 가량인 2만 3천 6백 명입니다.

고령자 차량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전국적으로 한 해 3만 3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세를 드시다 보니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따라서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고가 났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료로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십시오.

지금의 시내버스는 과거와 확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시각에 도착, 출발하고 버스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하시면서 느끼는 불편 사항은 그때그때 즉시, 그리고 꾸준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와 중 고등학생들에게 무료 이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자랑스러운 고향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섭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내 고향 전주의 자긍심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자라나는 자녀 세대를 다 함께 보살핀다는 공동체 정신을 우리 사회가 심어주고 물려주자는 뜻도 있습니다.

옛말에 갓난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키워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아직은 배우고 있거나 사회초년생인 20대까지 확대하는 것도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시의 살림을 돌아볼 때이기 때문에 증장기과제로 삼겠습니다.

## ② 버스 적자노선 임기 내 완전 공영제

두 번째 공약사항입니다.

적자 노선을 먼저 공영제로 흡수하는 적자노선 완전공영제 실시 약속입니다.

공영제는 한마디로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직접 경영하는 직영체제를 말합니다.

공영제 대상 버스 대수는 백 대입니다.

전체 4백 대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버스회사마다 운행

을 기피하는 노선이 60대, 출퇴근 외에는 승객이 별로 없는 노선 20대 등을 합해 적자노선 백 대를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한 해 4백억 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준공영제입니다.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적자 노선부터 시작하지만 공영제를 할 때 좋아지는 점은 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가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버스운행 갈등도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 ③ 시내버스 간선 급행버스체계 도입

세 번째 공약입니다.

자가용이 필요 없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형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지옥으로 악명 높은 서울시가 버스전용차로 개설로 대중교통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시내버스 간선 급행버스체계(BRT)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버스 통행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진다는 점이고 시내버스의 도착·출발이 정확해진다는 점입니다.

때마침 국토교통부가 간선 급행버스 종합 계획에 전주시의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흥산로 세 개 노선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1월에 결정된 사항이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만들어져 시내버스 운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비싼 돈으로 자가용

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느 노선을 전용차로로 할지는 전문기관의 연구조사를 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 ④ 전주시 도시교통공사 설립

네 번째 공약입니다.

전주시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도시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교통공사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 간선 급행버스(BRT)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도심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민 교통편익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최대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설립은 전주시가 전액 출자를 해야 하고 수지분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취임 즉시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 ⑤ 스마트 통합방재센터 구축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시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통합방재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의 센터운영 현황을 보면 재난은 재난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센터대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체적 현장대응이 어렵고,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운영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꾸어 모든 재난재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만성적자 에다 해마다 반복되는 버스파업을 예방하는 교통행정, 물 흐르듯 원활한 도심교통 환경을 임정엽이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 안내문 송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기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제재조치 없이 관련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한 사례임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의원이 필요합니다”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원

비례대표의원으  
로 제8대 남해군  
의회에서 의정활  
동을 하다 보니  
기초의원의 역할  
이 정말 중요하  
다는 것을 느꼈습  
니다. 의원이 되기  
전까지 군민 등  
유권자들의 일반

적인 인식이 ‘기초의회 무용론’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저 역시도 그  
런 쪽의 생각이 있었지만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는 말처럼, 기초의회의원을 경험을 하  
고 보니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들이 너무나  
크고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안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밤 세워 예결산서를 들여다보아왔  
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기관의 감시비판  
자 역할을 위해 많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  
야 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개  
인이 아닌 보편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  
요한 조례안인지를 잘 판단해 입안해서 행정

의 방침을 결정짓는 입법 활동도 게을리 하  
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대충으로  
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기초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목소리 높여 말하고 싶습니다.

4년 동안 초선으로서 길 가는 사람의 외투  
를 벗기는 시합에서 이기는 방법은 강한 바  
람보다, 뜨거운 햇볕이라는 알약기에 이 중요  
한 경험과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8대보다는  
좀 더 나은 9대 의원으로서 질 높은 의정활  
동을 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8대 의회에서 유일한 여성의원으  
로 활동하면서 여성, 장애,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의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느꼈고, 보육과 육아 등 아직까지 여성  
에게 주어진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는 일에  
행정과 의회의 협치를 할 수 있는 여성의원  
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에 재선에 도전하  
게 되었습니다.

#### ▶ 경력

- 현 남해군의회 의원
- 전 보문학원 원장

〈남해시대 2022년 4월 28일자 4면〉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의원으로 제8대 남해군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기초위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까지 군민 등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기초의회 무용론’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저 역시도 그런 쪽의 생각이 있었지만 ‘죽어 봐야 저승을 안다’는 말처럼, 기초의회의원을 경험하고 보니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들이 너무나 크고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안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밤 세워 예결산서를 들여다보아야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기관의 감시비판자 역할을 위해 많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아야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보편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안인지를 잘 판단해 입안해서 행정의 방침을 결정짓는 입법 활

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대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기초위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목소리 높여 말하고 싶습니다.

4년 동안 초선으로서 길 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에서 이기는 방법은 강한 바람보다 뜨거운 햇볕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 중요한 경험과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8대보다는 좀 더 나은 9대 의원으로서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8대 의회에서 유일한 여성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 장애,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위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느꼈고, 보육과 육아 등 아직까지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는 일에 행정과 의회의 협치를 할 수 있는 여성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에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 ▶ 경력

- 현 남해군의회 의원
- 전 보문학원 원장

의결번호	제8회 지선-시심1
시정요구인	서희정
피시정요구인	연천신문
심의대상기사	연천신문 2022. 2. 28.~3. 10.자 2면 「연천 서희정군의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발언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
주 문	<p>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한다.</p> <p>2.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연천신문 2면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연천군 서희정 의원 기사 관련)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의 제목(연천 서희정군의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발언 논란 재점화)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p>
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p>피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과거 SNS에 게재한 글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북한을 추종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p> <p>시정요구인은 보도에 언급된 SNS 글은 2018년 시정요구인이 군의원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칭찬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고, 보도 전 피시정요구인에게 충분히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구하였다.</p>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주민들의 제보 및 보도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고, 시정요구인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의 보도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비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정요구인의 해명 내용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유

또한 반론보도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므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및 선거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 게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반론보도문

**1. 제목** : [반론보도문] 연천군 서희정 의원 기사 관련

**2. 본문** : 본지는 2022년 2월 28일~3월 10일자(제455호)에 「연천 서희정군의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발언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희정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선수단 참가, 3월에는 판문점 고위급 정상회담내용 공동보도문 채택하고, 4.27 남북정상선언을 6일 앞둔 시점 등의 분위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을 칭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으로, 해당 표현이 북한을 추종하거나 친북 성향이기 때문에 쓴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유인물까지 만들어 지역에 배포하는 등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발언진위에 대하여 논란을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서희정 의원의 반론에 대하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선거에 관여했던 B 씨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우리 이토 히로부미” “우리 일본 천황” 이런 말과 뭐가 다르냐며 “우리 김정은 위원장” 하는 막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하였다. 최근 2월17일 본사를 직접 찾아온 다수의 연천 주민들은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동족상쟁

처절한 비극을 감당한 연천 주민들에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가는 독재자에게 “우리 김정은 위원장” 하고 글을 써서 논란을 자초한 서희정 군의원을 묵인한다면 향후 연천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하였다.

본지의 인터넷신문 보도이후 서희정의원은 최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지는 그동안 본 내용과 관련된 주민제보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추가보도 할 예정입니다.

의결번호	제8회 지선-재심1 {원결정 제8회 지선-사심1(시정요구인 : 서희정)}
재심청구인	연천신문
재심청구 대상	연천신문 2022. 2. 28.~3. 10.자 2면 「연천 서희정군의원 “우리 김정은 위 원장” 발언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
주 문	1.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청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연천신문 2면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연천 군 서희정 의원 기사 관련)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의 제목(연천 서희정군 의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발언 논란 재점화)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 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재심청구 취 지	제8회 지선-시심1 결정과 관련하여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복수의 주민들 제보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고, 기사로서 가치 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대상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 다)을 게재하였고, 시정요구인의 반론을 이 사건 기사에 이미 반영하였으 므로 사실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제1호 소정의 ‘반론보도’는 「언론중재 및 피 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소정의 ‘반론 보도’와 그 명칭, 개념 및 법적 성질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법적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제2조제17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 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당사자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으 로서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 반론보도청구 의 대상인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반론보 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 고 2008그193 판결).

## 이 유

이처럼 반론보도의 목적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해 보도하는 데에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있으며 이로써 반론보도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반론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이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라.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는 시정요구인의 과거 SNS상의 게시글을 근거로 공식적합성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기사에 언급된 시정요구인의 반박은 제기된 의혹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닌 경쟁 정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정요구인에게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 혹은 보충하기 위하여 의혹의 핵심내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나 해명을 별도로 게재하도록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한 것이다.

## 3. 결론

이와 같이 원심(제8회 지선-시심1) 결정은 정당하고, 해당 결정 이후 이를 파기하거나 변경해야 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후 보도문

## [반론보도문] 연천군 서희정 의원 기사 관련

본지는 2022년 2월 28일~3월 10일(제455호)에 『연천 서희정군 의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발언 논란 재점화』제하의 기사를 게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희정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선수단 참가, 3월에는 판문점 고위급 정상회담내용 공동보도문 채택하고, 4.27 남북정상선언을 6일 앞둔 시점 등의 분위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잘 풀어

가는 것을 칭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으로, 해당 표현이 북한을 추종하거나 친북 성향이든 때 문에 쓴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었습니다.

〈연천신문 2022년 4월 6일자 2면〉

의결번호	제8회 지선-시심2
시정요구인	천호성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전북일보사(전북일보)
심의대상	전북일보 2022. 3. 7.자 3면 「송하진 지사 “소중한 참정권 행사하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피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서 송하진 전북지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고 보도하며 전북지사의 사진과 함께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가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행보만 부각 보도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사진기자가 사전투표소를 취재하던 중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부부가 투표장에 들어와 촬영했을 뿐이고, 독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두 장의 사진을 게재한 것일 뿐, 특정 후보를 부각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도에 언급되지 않은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현직 도지사의 사진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또는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2호 및 제10조(사진게재)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송하진 지사 “소중한 참정권 행사하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전 북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 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민주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전북도청 사전투표소에서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과 배우자 유광수 씨(왼쪽), 송하진 도지사 와 배우자 오경진 씨가 투표를 하고 있다. 조원욱 기자

(24.1\*16.1)cm

<전북일보 2022년 3월 7일자 3면>

<b>의결번호</b>	<b>제8회 지선-시심3</b>
<b>시정요구인</b>	이재각
<b>피시정요구인</b>	주식회사 상애(相愛)(한국자치신문)
<b>심의대상</b>	한국자치신문 4월 19일자 1면 「안수원회장 군수선거 최대 격전지 진도를 가다!!! 잠입르뽀추적!!!」, 4월 27일자 1면 「안수원회장 6.1. 지방선거 르뽀추적 여론조사조작설 진도군수선거!!! 喫不烟 不生烟 돌불연 불생연, 아니 뎀 굴뚝에 연기 날까?」제하의 기사
<b>주 문</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한다.</li> <li>2.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한국자치신문 1면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진도군수 여론조사기사 관련 반론보도)은 4월 19일자 심의대상기사의 부제(“진도군수여론조사 1위 후보 조사 착수!!!)와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4월 19일자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li> </ol>
<b>신청취지</b>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b>이 유</b>	<p>피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서 진도군수 예비후보자인 시정요구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조사기관이나 일시 등을 기재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었고, 해당 여론조사와에 대해 다른 후보자들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작용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p> <p>시정요구인은 여론조사결과 공표와 관련해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아 이미 종료된 사안이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혔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구하였다.</p> <p>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에 잘못된 부분이 없고, 시정요구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p> <p>살피건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양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바탕으로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나, 수사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p>

이 유

다만 심의대상기사의 보도 내용은 선거에 관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비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정요구인의 해명 내용은 심의대상기사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정요구인에게 심의대상보도 직전 상황에 대해 독자들에게 해명할 반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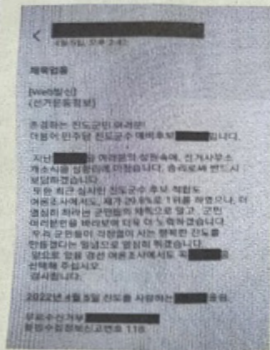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반론보도문

**1. 제목** : '진도군수 여론조사' 기사 관련 반론보도

**2. 본문** : 본지 지난 4월 19일자 및 4월 27일자 1면 '진도군수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기사와 관련해 이재각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군민들에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인용공표 사항이 미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전남도선관위의 조사가 완료되어 4월 13일에 전남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으므로, 보도 당시 조사가 착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전남도선관위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 안수환시장 군수선거최대격전지 진도를 가 대!!! 잠입르보추적!!!



▲ SNS 불법

필자가 찾아간 진도군수선거는 필자가 보기에는 그 실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곳은 무소속 김희수후보가 일찌감치 군수 도전장을 내밀고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와 한판승을 벌리려고 버리고 있다. 그런데 경선도 치루기전에 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 “진도군수여론조사 1위 후보 조사 착수!!!

진도군수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가지고 “군수후보직함도 조사에서 제가 23.8%로 1위를 하였으나 열심히 하라는 군민들의 채찍으로 일겠습니다.”

라고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여론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언제 실시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조사가 진행되어졌다고 전해지며 이러한 불합이 향후 여론향배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까가 초미에 관심사다.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와는 별도로 본 선거에서 이러한 불합이 무소속 후보에 공격에 타깃이 조심스럽게 전망되는 부분이다.

### “전국적으로 여론조사조작 경찰수사착수” 민주당 진도군수후보들 불법 여론조사 수사속구!!! 진도군수선거 후보들 여론조사를 강진군민에게 질문, 예비후보자들 고의적 누락, 조작의혹제기!!!

61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진도군수민주당소속후보들이 집단반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유는 한지역신문사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가 엉터리로 진행, 조작되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3,2,2,0 전 민주당 연락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도 모 지역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불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여론조작 음 공작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진읍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3.25.10시50분경 황당한 전화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일행4명과 카페에 있었다. 진도군수에 대한 여론조사였다. 그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곧바로 일행 두 명에게 똑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일행 4명중 3명이 같은 전화를 받은 것이다. 다음날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 진도군수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수십명에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특정후보에게만 알려주는 불법유착의혹제기!!!



▲향의 방문. 기자회견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신문사를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후보측 제공)

전결타살이 제기되고 있다” 경선에 지지율을 예측 조작하려는 언론사와의 결탁이라고 후보들은 주장했다. 후보자들의 집단반발 기자회견장에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고 하니 조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긴급 기자회견

모든 후보들이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모 군수후보만이 유일하게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지해달라는 홍보를 눈에 게재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강진군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사전 유착실동의 정황들은 지역 모 신문사와 특정후보간의 결탁설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항간에 떠도는 街談巷說(가담항설, 길거리 소문) 또한 이를 증명하듯이 ‘모 신문사와 군수후보자간의 사

## 안수원회장 군수선거최대격전지 진도를 가다!!! 잠입르뽀추적!!!

필자가 찾아간 진도군수선거는 필자가 보기에는 그 실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곳은 무소속 김희수후보가 일찌감치 군수 도전장을 내밀고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와 한판승을 벌리려고 베풀고 있다. 그런데 경선도 치루기 전에 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 “진도군수여론조사 1위 후보 조사 착수!!!”

진도군수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가지고 “군수후보적합도 조사에서 제가 29.8%로 1위를 하였으나 열심히 하라는 군민들의 채찍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여론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언제 실시했는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조사가 진행되어졌다고 전해지며 이러한 불법이 향후 여론향배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까가 초미에 관심사다.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와는 별도로 본 선거에서 이러한 불법이 무소속 후보에 공격에 타킷이 조심스럽게 전망되는 부분이다.

### “전국적으로 여론조사조작 경찰수사착수” 민주당 진도군수후보들 불법 여론조사 수사 촉구!!!

진도군수선거 후보들 여론조사를 강진군민에

게 질문, 예비후보자들 고의적 누락, 조작의혹 제기!!!

6.1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진도군수민주당소속 후보들이 집단반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유는 한지역신문사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가 엉터리로 진행, 조작되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3. 2. 오전 민주당 연락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도 모 지역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불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여론조작용 공작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진읍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3. 25. 10시50분경 황당한 전화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일행4명과 카페에 있었다. 진도군수에 대한 여론조사였다. 그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곧바로 일행 두 명에게 똑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일행 4명중 3명이 같은전화를 받은 것이다. 다음날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 진도군수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수십명에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특정후보에게만 알려주는 불법유착의혹제기!!!

모든 후보들이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체 무소속 후보만이 유일하게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지해달라는 홍보를 눈에 게재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강진군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사전 유착설 등의 정황들은 지역 모신문사와 특정후보간의



## 안수원회장 6.1 지방선거 르뽐추적

### 여론조사조작설 진도군수선거!!!

#### 燬不燃 不生煙

#### 돌불연 불생연, 아니 뎌 굴뚝에 연기날까?

그동안 한국자치신문은 진도군민들의 제보들의 제보로 진도군민들을 위해서 석탄재 반입을 철폐 시키는데 언론의 사명을 다했다.

더불어당 진도군수후보들이 불법이라고 모 신문사와 여론조사1위 후보간의 조작 결탁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수 십명의 강진군민들이 진도군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과 ▲진도군수여론조사에서 2차에서 3명의 후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점이며 ▲1위 후보만이 사전에 모 신문사가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정황이며 ▲그러한 연유로 1위 후보만 미리 여론조사의 지지를 군민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 汝人一目 汝人十知(여인일목 여인십지) 그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러한 후보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기자가 ▲김희수 사무실에 찾아 갔을 때 김희수 후보도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고 언론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었으며 ▲둘째 이재각 후보를 만났을 때 기자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一言半句(일언반구, 아주 짧은 대화)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기자를 무시해버려서 십여분 이상을 기

다리다 나와 버렸다. ▲이는 베테랑기자가 볼 때는 어떠한 언론의 든든한 뒷 뺨이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자치신문기사가 나가자마자 이재각 후보사무실에서 항의성 전화가 왔다. 그러나 기자의 정당한 보도와 이재각 후보를 만나고 푸대접받은 일과 이재각후보 부인을 만난 사실등 自初至終(자초지종,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명했더니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이로 미루어 언론을 의식하고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면 이재각후보측이 기자를 냉대했을 때는 무언가 든든한 뒷배가 있었을법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었다. 설령 그렇더라도 저렇게 사무실에 오는 손님인 기자를 무시하고 한마디 대꾸도 없이 氣高萬丈(기고만장, 만길 만큼 높이 오름)한 후보가 군수가 된다면 얼마나 군민을 무시할까? 심히 염려스러웠다. 마지막으로 박인환 후보사무실을 찾아간 기자는 차를 권하는 박인환 후보를 인터뷰할 수 있었다.

#### 여론조사 조작은 진도군뿐만이 아니고 장수, 임실, 완주 익산, 군산, 강진 등

이렇게 同時多發(동시다발,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 발생)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의혹을 진도군에서만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군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자치신문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賊反荷杖(적반하장,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듬)도 유분수지 기자에게 항의성 전화를 하더니 자신들에게 진도군수후보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오히려 반발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